

전남  
12에  
숨어  
살고  
싶다

| 2004 ~ 2014 |

전남개발공사 창립 10년사  
JEONNAM DEVELOPMENT CORP.  
HISTORY OF 10 YEARS

전남에  
살아라  
살아라

| 2004 ~ 2014 |

전남개발공사 창립 10년사  
JEONNAM DEVELOPMENT CORP.  
HISTORY OF 10 YEARS







도민의 사랑으로 성장해 온 10년,  
 도민의 눈높이에서  
 전남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의 지난 10년을 고스란히 담은 '전남에 살어리랏다' 를 발간했습니다.

전남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한 우리 공사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나온 길을 되짚어 보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과정으로, 과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올바르게 되돌아보는 것은 미래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번 창립 10년사 발간으로 전남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온 공사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조망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창사 이래 지난 10년 동안 앞만 보고 질주해 왔습니다. 남약신도시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을 통해 전남도청 등 각종 공공기관의 이전을 도왔으며, 도민에게 편안하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남 중부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향후 이 지역에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전남의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해 선도적인 투자를 한 관광사업은 지역 내 관광 거점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총자산 1조 2천억 원에 연간 수천억 원의 사업을 진행하는 전라남도의 유일한 공기업으로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도민의 사랑과 공사 임·직원의 도전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과 이면에는 도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거나 계획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도민들의 매서운 질타와 아낌없는 격려를 받들어 심기일전의 자세로 전남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10년, 더 나아가 20년, 30년을 위해 우리 공사는 지난 성과들에 만족하지 않고 올비르지 못한 관행들은 신속하게 타파하여 새로이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시작하여 도민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전남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남 도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3월

전남개발공사 사 장

# 전남에 살아리 살았다

| 2004 ~ 2014 |

전남개발공사 창립 10년사  
JEONNAM DEVELOPMENT CORP.  
HISTORY OF 10 YEARS

© 전남개발공사 창립 10년사  
이 사서에 실린 전채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사서에 실린 도판 및 내용의 전체 사용권은 전남개발공사에 있습니다.  
Copyright © JEONNAM DEVELOPMENT CORP. HISTORY OF 10 YEARS

## 일러두기

〈전남개발공사 창립 10년사〉 1권은 총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표기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말로 그 뜻을 전달하기 어려운  
일부 외래어는 원어로 표기하였습니다. '한글맞춤법통일안' 과 표준어를 기  
준으로 원고가 작성되었습니다. 단 두 자 혹은 세 자의 명사가 중복될 때 의  
미 전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독자의 가독성 및 디자인을 고려하여 띄어쓰기  
를 하지 않고 붙여서 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숫자표기는 아라비아 숫자 사  
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천 만 억 조 등 보조단위를 사용하여 붙  
여 썼습니다. 또한 한자와 영문을 괄호 처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 목차 [目次]

012 Prologue  
022 History of 10 years

### 제1부 통사

028 **제1장. 전심전력 [全心全力]**  
은 마음과 온 힘을 기울이다 | 2004 ~ 2006 |  
030 제1절. 전남, 희망의 닷을 올리다  
033 [인터뷰] 초대 유수택 사장  
034 제2절. 전남개발의 기반을 닦다  
041 [인터뷰] 유주식 경영관리본부장

042 **제2장. 라침방위 [羅針方位]**  
전남의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의 방향을 예측하다 | 2007 ~ 2008 |  
044 제1절. 더 넓은 시야로 전남개발을 구상하다  
063 [인터뷰] 제2대 이동진 사장  
064 제2절. 대화의 장으로 마음을 함께 하다  
069 [인터뷰] 초대 고화빈 노조위원장

070 **제3장. 남선북마 [南船北馬]**  
사업영역 확대로 성장 모멘텀을 지속하다 | 2009 ~ 2012 |  
072 제1절. 전남, 변화의 바람이 불다  
086 제2절. JNDC, 성장하는 전남 속에서 꽃을 피우다  
098 [인터뷰] 제3·4대 김주열 사장  
099 [인터뷰] 초대 김영창 경영본부장

100 **제4장. 도처춘풍 [到處春風]**  
이르는 곳마다 봄바람, JNDC의 기분 좋은 도약 | 2013 ~ 2014 |  
102 제1절. 전남의 미래까지 JNDC, 상승곡선을 타다  
115 [인터뷰] 제5대 전승현 사장  
116 제2절. 희망을 나누는 행복한 동행  
120 [인터뷰] 제5대 김재욱 노조위원장  
121 [인터뷰] 박항진 여우회 회장  
122 제3절. 도민의 행복을 이어가다

124 전남개발공사 사원 설문조사 결과  
128 창립 10주년을 맞은 전남 미래가치 디자이너의 힘찬 각오

### 제2부 부문사

134 **제1장. 개발사업 부문**  
136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남악·오룡지구)  
140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사업  
146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150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  
154 강진환경산업단지 조성사업  
158 장성황룡행복마을 조성사업

160 **제2장. 운영사업 부문**  
162 여수경도골프&리조트 운영사업  
166 한옥호텔 영산재 운영사업  
170 한옥호텔 오동재 운영사업  
174 해남땅끝호텔 운영사업  
178 천일염 운영사업  
182 울돌목가복선 운영사업  
184 무안공항면세점 운영사업  
186 남악골프연습장 운영사업

188 **제3장. 위수탁·출자사업 부문**  
190 영산호관광지 기반조성 및 리모델링사업·  
쌀문화테마공원 조성사업  
194 F1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대행사업  
198 순천의료원 노인성질환 전문병동·  
호스피스병동 증축공사·  
의료인숙소 건립사업  
200 전라남도도립도서관 건립사업  
201 남도소리울림터공연장 건립사업  
202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203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건립사업  
204 신안하의도 관광숙박시설 건립사업  
205 전라남도교통연수원 건립사업  
206 영암·해남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출자사업(삼포·구성지구)

### 제3부 부록

212 사진으로 보는 JNDC 10년  
254 전남개발공사 CI  
256 임원 및 본부장 현황  
258 조직도 변천과정  
260 재무제표  
262 수상 현황  
263 지도로 보는 JNDC 사업 현황  
264 연표

Challenge &  
Passion • 끝없는 도전과 열정

전남에  
숨어있  
는  
열정

전남에  
숨어리  
공작

Value • 전남가치의 재발견

Share • 공유와 나눔

안녕하세요  
즐거워요  
공유와 나눔



—  
지난 10년,  
성장하는 전남 속에서 도전과 열정으로  
전남의 미래가치를 담아왔습니다

전남에  
숨어리  
공익과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도민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전남에  
살아라  
살아라

**2004**  
~

**2014**

HISTORY OF 10 YEARS

# JNDC 10년 전남발전 10년

## Phase ①

● 2004 - ●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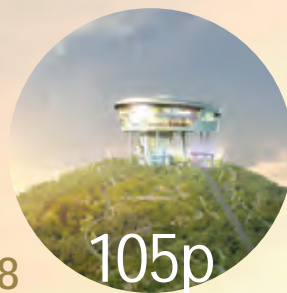
- 전남개발공사 설립
- 남악신도시 남악지구 택지개발사업



## Phase ②

● 2007 - ● 2008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 Phase ③

● 2009 - ●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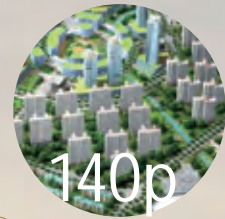
-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개발사업
- 강진환경산업단지 조성사업
- 무한공항면세점·천일염 운영사업



## Phase ④

● 2013 - ● 현재

-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 오동재 등 관광운영사업
- F1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대행사업



2004

# 通史

제1부  
통사

- 제1장 전심전력 [全心全力]
- 제2장 라침방위 [羅針方位]
- 제3장 남선북마 [南船北馬]
- 제4장 도처춘풍 [到處春風]

2014

제1장  
전심전력 全心全力

# 온 마음과 온 힘을 기울이다

2004  
~  
2006



2004  
2006

## 제1절 전남, 희망의 닷을 올리다

- 지역경제 활성화로 잘사는 전남을 그리다  
전남개발공사 설립 추진
-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전남의 서막을 열다  
전남개발공사 출범

## 제2절 전남개발의 기반을 닦다

- 위수탁 대행사업으로 초기사업의 기틀을 다지다  
최초의 사업, 순천의료원 노인성질환 전문병동 건립공사 수탁  
거북선형 유람선단 제작사업 수탁
- 전남개발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다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인수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사업 추진
-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다  
자본금 확충과 조직개편

## 제1절 전남, 희망의 닷을 올리다

### 지역경제 활성화로 잘사는 전남을 그리다

#### 전남개발공사 설립 추진

지방공사는 20세기 정부 부문에서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라고 할 만큼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지방기업의 경영형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에 제주개발공사, 경기개발공사가 설립된 이후 1980년 지방기업법의 개정으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면서 2003년 당시 전국의 도시개발공사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제주도 등 광역시·도 단위 지역에 모두 11개가 설립·운영 중에 있었다.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역의 혁신역량을 키워 자립적인 지역경제 기반을 확대하는 데 치중하였다. 이에 전라남도는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기 위해 전라남도 산하에 전남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남권의 대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1차 산업 위주로 사용되어 온 토지이용계획을 미래 지향적으로 전환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하고자 했던 전남리조트 개발 사업은 관광·체육·레저 클러스터 단지 및 친환경 농업시설단지 개발 등 민간부문에서 추진하기가 곤란하며, 지역개발 촉진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철도, 도로, 항만 등과 같은 교통망 및 전라남도의 종합적 도시계획과 유기적 연계 속에서 운영되어야 할 사업이었다.

전남개발공사의 설립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장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원래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그 존립목적을 위해서라도 주민의 복리와 편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특히 대단위 택지개발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관계 속에서도 중요하며, 국토의 균형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째,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그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에 사업을 맡기기가 어렵고, 민간부

문에 맡겨 경영을 한다 하더라도 강력한 공공규제의 틀 속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영개발사업의 양도 대금과 같은 사항은 공적 규제의 틀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직접 관련이 있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은 그 사업의 운영자인 주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기업의 틀 속에서 서비스의 향상, 요금의 적정화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택지개발 등은 민간기업과의 유착문제, 분양상의 문제, 토지 공개념의 문제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지방기업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기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체계적인 계획하에 사업의 적시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과 장기저리의 자금을 대량으로 조달하기가 비교적 쉽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라남도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소득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2003년 5월 전남개발공사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먼저 관계법령 절차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방공기

업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전남개발공사의 설립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다.

동년 9월 15일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은 공사 설립 운영 시 공성과 경제성이 매우 양호하며 경제적 파급효과 1,891억 원과 4,100여 명의 고용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는 검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전라남도는 9월 29일 도청 상황실에서 '전남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남개발공사 설립을 최종 심의 의결하고, 의결결과를 토대로 당시 고(故) 박태영 전(前)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전남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받게 된다. 실로 전남 도민의 열망으로 전남개발공사가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의회는 전라남도가 제출한 「전남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소관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였고, 동 조례는 11월 10일 조례 제 2937호로 공포되었다.

● 전라남도의회 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전남의 서막을 열다**

**전남개발공사 출범**

「전남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공포로 공사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춘 전라남도는 약 2개월간의 임원공모 절차를 거쳐 2004년 4월 21일 유수택 사장을 초대 사장으로 결정하였다.

전남 영암 출신인 신임 유수택 사장은 여천 시장과 순천 시장, 행정자치부 공무원,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등을 역임했으며 특히 순천 시장 재직시 연향지구와 금당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통한 신도시 조성으로 520억 원의 경영수익을 올려 경영행정의 우수사례로 화제가 되기도 한 인재였다.

그러나 전남개발공사는 공식 출범 전부터 상당한 난항을 겪어야만 했다. 남악신도시,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등 굵직한 개발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이를 지원할 조직으로 전남개발공사 설립을 강력 추진해 온 고(故) 박태영 전(前) 전라남도지사의 4월 29일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유고로 추진동력을 잃게 된 것이다.

전라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전라남도는 2004년 5월 13일 「전남개발공사 정관」을 제정 공포한데 이어, 28일에 납입자본금 50억 원을 인수하고 29일에는 최초 이사회 구성 등의 설립 절차를 차분히 진행하였다.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전남농수산물 전시판매장 4층에 공사의 첫 보급자리를 마련하고 드디어 2004년 6월 14일 초대 유수택 사장의 취임식을 시작으로 전남개발공사가 공식 발족하였다.

그러나 2004년 6월 보궐선거를 통해 신임 박준영 전라남도 지사가 취임하면서 전남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박준영 전(前) 전라남도지사가 공사의 역할

과 존폐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되면서 경력직과 신규 직원을 채용하기로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서접수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채용이 무기한 연기되는데 이어 유수택 사장이 사퇴를 선언하는 등 전남개발공사가 출범하자마자 좌초될 수 있는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그러나 전남개발공사의 탄생은 전남의 발전을 위한 도민들의 열정으로 시작되었고 곳곳에 개발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기에, 거듭되었던 전남개발공사 운영논란이 '폐지'가 아닌 '운영' 쪽으로 일단락되면서 사의를 표명했던 유수택 사장의 사표도 반러되고 무기한 연기됐던 직원 채용도 재개된다.

마침내 전남개발공사가 설립 이후 3개월 여의 진통 끝에 2004년 10월 1일 경력직원 4명을 정식 채용함으로써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당시 공사 조직은 사장을 중심으로 3팀(기획총괄팀, 사업운영팀, 개발지원팀)으로 전라남도 파견직원을 제외한 공사 임·직원은 총 7명이었다.

● 제2회 정기 이사회



Interview 초대 사장 **유수택**

● **희망신호탄을 쏘아 올린 전남개발공사!**

30여 년간 공직의 요직을 두루 거친 전문행정가, 성공적인 공기업과 민간기업 모델을 창출한 유수택 초대 사장은 2004년 4월 전남개발공사의 첫 지휘봉을 잡았다. 경제 위기에 직면한 도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낙후된 전남 한 복판에 훈풍을 불어넣기 위해서 희망신호탄을 힘차게 쏘아 올린 것이다.

Q 전남 유일의 공기업, 전남개발공사 초대 사장으로서 부담감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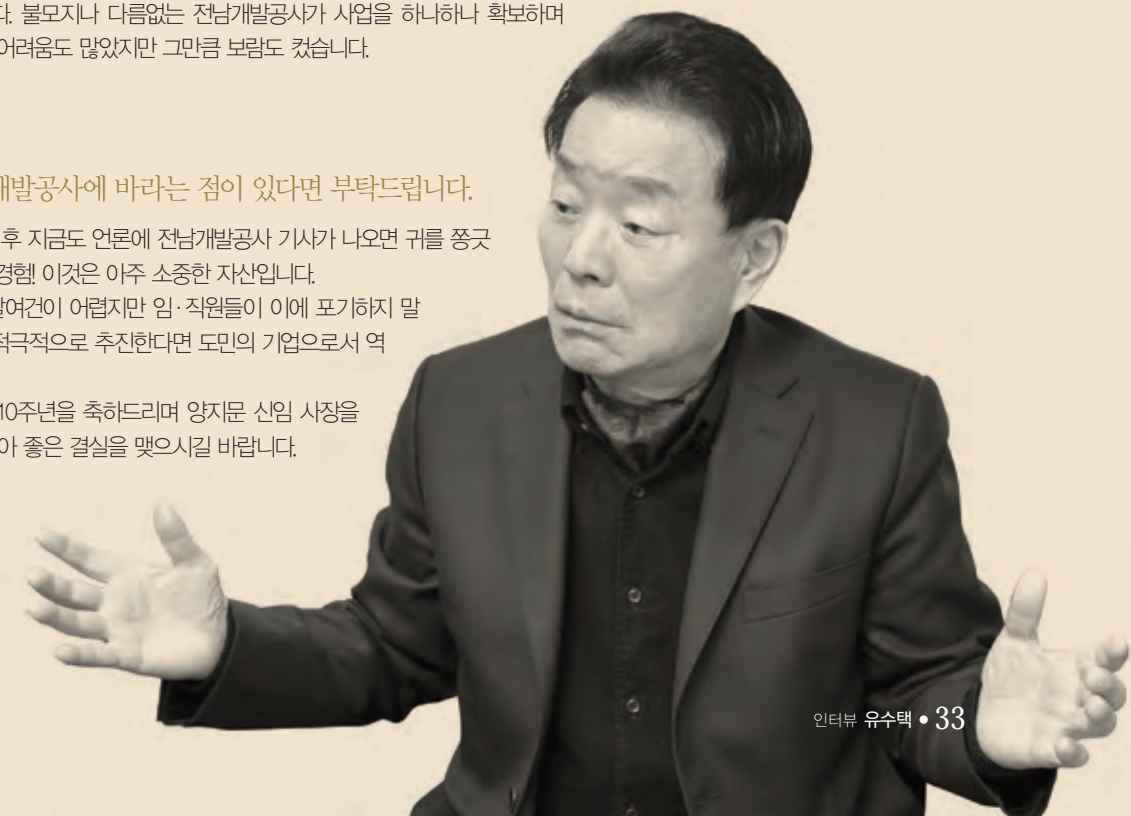
A 명확한 설립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전남개발공사가 설립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J-프로젝트의 시발점이 된 전남 영암군 삼호면 일대 370만 평을 레저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삼호면 일대가 전남도청 레저 도시기획단에서 추진하는 J-프로젝트 사업에 흡수되면서 전남개발공사의 당초 설립 목적이 흔들리게 되었죠. 더구나 전라남도에서 출자한 50억 원으로 대형 프로젝트 추진은커녕 자체사업도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21세기 전남지역 개발을 선도할 전남개발공사의 책임자로서 어깨가 참 무거웠습니다. 무엇보다 '내 고향 전남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남개발공사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였습니다. 모든 사업은 시기가 맞아야 추진할 수 있기에 저를 비롯한 초창기 직원들은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Q 전남개발공사 창립 이후 사업을 전개하시면서 아쉽거나 보람된 일은 무엇입니까?

A 초창기 도파견 공무원과 공사 직원 4명을 공채로 충원한 전남개발공사는 한마음으로 뭉쳐 신규 사업 발굴과 자본금 확보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전남개발공사의 안정적 수익기반 확보를 위해 우선 순천의료원 노인성질환 전문병동 건립사업 등 위·수탁 대행사업을 추진하였고 전라남도청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2005년 12월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불모지나 다름없는 전남개발공사가 사업을 하나하나 확보하며 추진하기까지 초대 사장으로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창립 10주년을 맞는 전남개발공사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Q 전남개발공사와 첫 인연을 맺은 후 지금도 언론에 전남개발공사 기사가 나오면 귀를 쫓긋 세우게 됩니다. 10년 동안 쌓은 경험 이것은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전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발여건이 어렵지만 임·직원들이 이에 포기하지 말고 전남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도민의 기업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전남개발공사 창립 10주년을 축하드리며 양지문 신임 사장을 중심으로 전 임·직원이 힘을 모아 좋은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 제2절 전남개발의 기반을 닦다

### ● 위·수탁 대행사업으로 초기사업의 기틀을 다지다

#### 최초의 사업, 순천의료원 노인성질환 전문병동 건립공사 수탁

전남개발공사는 설립 초기 수행해야 할 업무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하루빨리 자리를 잡기 위해 위·수탁사업부터 체결하며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다. 최초의 일감은 전남 순천시 매곡동에 위치한 부지면적 5,302㎡,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순천의료원 노인성질환 전문병동 건립공사였다.

순천의료원은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에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설립한 공공병원이다. 순천의료원은 병·의원이 부족했던 시절 지역민의 질병치료에 큰 역할을 해왔던 곳이 노인들의 건강터전으로 바뀌게 되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노인성질환 치료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와 인구노령화에 대비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 순천의료원 노인성질환 전문병동 건립공사 전(前) ● 후(後) 모습



노인복지 정책에 기여하고자 순천의료원은 노인성질환 전문 병동을 건립하게 되었다.

전라남도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순천의료원 노인성질환 전문병동 건립공사는 총 공사비 70억 원으로 위·수탁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었다. 위·수탁사업은 전라남도의 주요시책사업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투자기관(지방공기업)에서 시행하는 주요사업을 위탁받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순천의료원 노인성질환 전문병동 건립공사는 비록 3.5%의 위·수탁 수수료를 받는 사업에 불과했으나 전남개발공사는 전남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과감하게 그 일에 뛰어들었다. 2005년 3월 10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며 그해 12월 20일 보건복지부 건축실시설계 심의를 통과, 2006년 3월 9일 착공해 2007년 4월 12일 노인복지의 산실 '순천의료원 노인성질환 전문병동'을 완공하게 된다. 그렇게 전남개발공사는, 도민들의 작은 바람도 놓치지 않고 함께 희망을 향해 달려 나간다.

#### 거북선형 유람선단 제작사업 수탁

우리나라의 문화적 핵심 요소가 호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라남도는 오랜 전통의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라남도의 훌륭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메신저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문화사업에도 열정을 쏟아부었다. 역사 유적을 활용한 역사재현 관광상품을 개발하던 중 명량대첩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거북선형 유람선단' 제작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5년 12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전남개발공사는 거북선형 유람선단 제작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5회에 걸친 자문회의와 기본설계 발주 및 기본선형 유람선 규모를 결정하였다. 당시 42억 원을 들여 거북선형 유람선 1척과 리모델링 2척(관옥선, 안택선)을 건조한 전남개발공사는 명량대첩 3D입체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역사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의미있는 체험관광상품을 구상하였다.

'전심전력(全心全力)'이라는 말이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초기사업의 기틀을 다졌다. 발전도 중요하지만, 전남의 색깔과 도민을 위한다는 철칙을 지켜나가며 위·수탁사업을 진행해나갔다. 위·수탁사업을 통해 얻은 다양한 경험들은 이후 전남개발공사가 성장해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

● 거북선형 유람선단 제작현장



● **전남개발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다**

—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인수**

2005년은 전라남도가 109년 만에 '광주청사' 시대를 접고 전남 무안군의 남악 신도청으로 이전을 한 역사적인 해이다. 현재 전남도청은 1993년 김영삼 전(前)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였던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터에 5·18기념관 조성이 추진되면서 12년 만인 2005년 11월 11일 남악신도시로 새 청사를 옮기게 된다.

전남도청의 이전은 1993년 도청이전 발표 후 광주광역시 금남로지역의 경기 악화를 우려하는 광주시민의 반대 의견과 입지선정에 대한 이견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다가 1999년 1월 에야 신도청 소재지 선정 용역 결과에 따라 현재의 부지가 선정되었다.

현재 전남도청 소재지인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는 무안 승달산(佛)-목포 유달산(儒)-영암 선황산(山)을 이은 삼각형의 중심점에 해당하는 곳으로, 천하의 명당자리로 불리던 곳이다. 게다가 남악은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개발에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니 영산강 1단계 간척사업으로 얻은 넓은 간척지가 전체 면적 중 65%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신도시 개발에 드는 막대한 예산 대부분은 토지수용 예산인데 남악신도시는 간척지를 활용하여 더욱 순조롭게 토지수용절차가 진행되었다.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은 전라남도 공무원 40명이 파견된 도청이전사업본부가 맡고 있었다. 도청이전사업본부는 새 도청을 이전할 신도시를 만드는 현장에 공무원들이 파견 나와 별도로 운영하는 공영개발사업단이었다. 하지만 3년 기한의 한시적 계약조건으로 2회 연장을 할 수 없었던 도청이전사업본부는 2004년까지가 마지막 존속기간이었다. 사업영역을



● 남악신도시 조감도

넓히고 싶었던 전남개발공사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공영택지개발사업이 많은 개발공사의 모태가 되고 있는 만큼 전남개발공사도 남악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전남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자 했다.

그렇다고 전남개발공사가 무턱대고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을 가져올 수는 없는 일이었다. 먼저 남악신도시를 왜 전남개발공사가 인수해야 하는지 타당성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다른 시·도 공사의 사례 조사는 물론 안전행정부 법령, 규칙까지 샅샅이 분석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도청 직원들의 설득 작업도 치밀하게 준비해서 논리적인 근거와 함께 전남개발공사의 열정과 노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많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전남 도민들의 지지와 바람을 밑거름 삼아 6개월 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2005년 12월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을 전남개발공사에서 인수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전라남도는 남악신도시특별회계로 관리되던 남악신

도시 토지자산을 전남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한다.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인수는 전남개발공사가 도시개발공사 본연의 사업인 택지 및 신도시 개발사업을 시작했다는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약 3,600억 원의 자본금 확보 등으로 향후 다양한 지역개발사업과 관광사업을 펼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2006년부터 전남개발공사는 사활을 걸고 시작한 남악신도시 건설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진입로 확충, 추가 편입토지 협의보상, 하수종말처리

시설 등 신도시개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아울러 시급한 현안인 도청 직원 등 주민 거주공간 마련을 위한 공동주택부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전남개발공사 직원 모두 기초가 탄탄해야 건강한 집을 지을 수 있고, 계획한 대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철학이 확고했기 때문이다.

전남도청이 남악으로 이전한 2005년은 전남개발공사의 성장의 주춧돌이 된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전남개발공사에서 인수하여 시행하게 되는 역사적인 해이기도 하다. 전남개발공사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된 것이다.

● 전남도청 이전 후 남악신도시 개발 전 모습





●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사업 지역

###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사업 추진

정부는 2004년 12월 국토균형 발전과 기업 이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즉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 산업, 연구, 관광 등의 주된 기능과 함께 볼거리, 놀거리, 살거리 등 복합다기능 공간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전라남도는 일명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개발을 계획하게 된다.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는 전남의 영문철자에서 'J'를 따와 만든 거대한 지역개발 사업이다. 전남의 해양 및 문화관광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그동안의 낙후와 소외된 저개발 상태를 타개하고자 하는 전라남도의 계획으로 30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여 서남해안 인구 50만 명 규모의 관광과 레저 휴양이 복합된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당시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은 J-프로젝트 등 호남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수차례 표명한 바 있

며, 문화관광부도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광레저도시추진 기획단을 발족하는 등 서남해안권 지역개발 및 관광레저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높았다.

따라서 전라남도 영암군과 해남군 일대의 간척지 3천여 만 평에 35조 원 규모의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여 910만 평에 달하는 골프장 타운을 비롯, 호텔과 카지노, 가족 위락시설, 커뮤니티 타운, 퍼블릭골프코스, 마리나 시설과 호텔, 교육

●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예정지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일대



과 병원, 주거시설, 자동차(F1)경기장, 테마영상단지 등 인구 50만 명 규모의 복합관광레저도시를 계획함에 따라 국내 관광객은 물론 중국, 일본을 겨냥한 관광레저산업의 중심지 육성을 목적으로 원대한 개발계획을 세웠다.

J-프로젝트는 수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거대사업인 만큼 민간부분의 투자유치 및 그랜드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개발이 불가피한 사업이다. 당시 전경련 컨소시엄과 전남지역 컨소시엄, 국내·외 투자자들이 투자 제안서를 내고, 일본의 가자마 건설, 오쿠라 호텔 등의 기업연합이 10조 원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민간의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래서 지역의 토지개발과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전남개발공사도 이러한 국가적 사업에 동참하게 된다.

2005년부터 전남개발공사는 해남과 영암일대 기초 조사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타당성용역을 추진하는 등 서남해안을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개발 컨소시엄 구성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우리나라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면 서남해안권을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고, 갖가지 분석을 통해 지형적인 조건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런 노력 덕분에 2005년 12월 문화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타당성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 24억 7천만 원을 확보한 전남개발공사는 이듬해 12월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1단계 타당성 검토용역을 준공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을 위하여 2007년 6월 설립된 SPC회사 「서남해안기업도시(주)」에 2008년 12억 원, 2009년 78억 원을 출자하고, 세계적인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유치하고 삼포지구 개발을 주관할 민관합작법인 「KAVO(주)」에도 2008년 90억 원을 출자하는 등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실무협의회



## ●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다

### 자본금 확충과 조직개편

남약신도시 개발사업 인수와 함께 2006년 1월 전남개발공사는 남약신도시 및 공영개발사업(대불주거단지) 특별회계로 관리되던 남약신도시 개발사업과 대불산업단지의 미분양토지 등을 현물형태로 추가 출자 받게 되는데, 그 총 평가금액은 3,600억 원이었다.

또한 6월에는 전남 영암의 영산호관광지 인근에 위치한 영산호휴게소 부지도 현물출자(평가액 62억 원)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설립시 50억 원이었던 전남개발공사 자본금은 2006년 말 기준 총 3,759억 원으로 확대되어 대규모 개발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무기반을 확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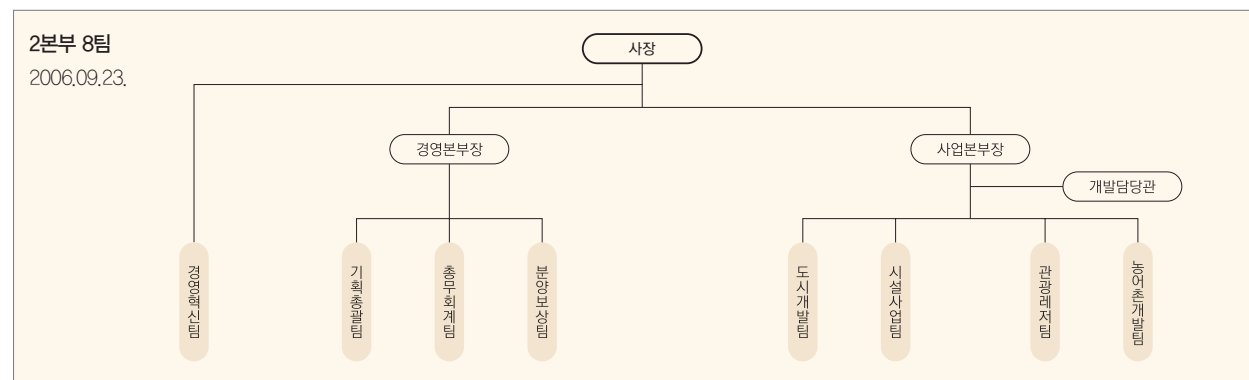
남약신도시 개발사업 인수와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으로 전남개발공사의 운영조례도 일부 개정되었다. 전남도청이전사업본부에서 시행해 온 남약신도시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조례 제20조의 사업목적에 택지 및 기업도시등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동조례 부칙에 남약신도시 개발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영산호관광휴게소에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가 포괄 승계되면서 전남개발공

사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어 나갔다.

위·수탁사업과 남약신도시 개발사업 인수, 자본금 확충 등으로 사업의 기틀을 잡은 전남개발공사는 본격적인 경영혁신과 전라남도 도정정책을 뒷받침할 조직개편도 추진하였다. 2006년 초부터 계획하여 9월 5일 전남도 승인을 얻어 기존 1본부 3팀을 2본부 8팀으로 개편하였다.

경영혁신을 주도할 경영혁신팀을 신설하고 남약신도시 개발사업과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분양보상팀과 도시개발팀을 신설하였으며 관광콘텐츠 개발과 농어촌개발 등 도정 정책사업을 신규 사업화할 관광레저팀과 농어촌개발팀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전남개발공사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도정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실공히 전남의 최대 지방공기업으로 자리 잡고, 2007년 이후 남약신도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해남땅끝호텔, 한옥호텔 영산재와 오동재, 천일염사업, 남약골프연습장 등 관광사업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여 전남의 지역개발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선도하게 되었다.



## Interview 경영관리본부장 윤주식

### ● 새로운 사업 발굴로 지속적인 성장 추진

전남개발공사의 10년은 전남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사다. 공사의 탄생에서부터 과도기, 성장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열정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쉽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추진해 온 윤주식 경영본부장에게서 전남개발공사의 발자취를 들여다본다.

#### Q 전남개발공사 설립 초창기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습니까?

A 2004년 6월 전남개발공사가 공식 출범, 광주광역시 농성동에 사무실을 마련하였습니다. 3개월 후 최초로 저를 비롯해 행정 기술, 토목·건축담당 등 총 4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영산호 일대에 전라리조트를 개발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 사업은 현재 영암·해남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으로 크게 확장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공사 설립 초기에는 아직 개발구상 단계로 딱히 가시적인 추진 사업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선 지자체로부터 위·수탁사업을 받아 시작해 보기로 하고, 첫 사업으로 공공의료기관인 순천의료원으로부터 70억 원 규모의 순천의료원 노인성질환 전문병동 건립사업을 수탁 받았습니다. 첫 사업이어서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 Q 초창기 사업을 발굴·추진하시기 힘들셨을텐데...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설립 초기 직원들은 '전남지역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라남도 각 시·군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업이 남약신도시였죠. 당시 남약신도시 개발사업은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관련 조례에 의하면 공사 설립 다음 해인 2005년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해였던 거죠. 그때부터 남약신도시 개발사업을 인수하기 위해 법적인 검토와 사례 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1년 가까이 지사님과 관련 공무원들을 설득한 끝에 드디어 2006년 1월 공사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남약신도시를 인수함으로써 자본금 50억 원인 전남개발공사가 약 4천억 원으로, 지방공기업 중 4위의 자본금을 확보하게 되어 이후 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외형확대에 탄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 Q 10년의 발자취를 살펴본다면 전남개발공사의 큰 자산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 지금의 전남개발공사가 있기까지 무엇보다 가장 큰 자산은 직원입니다. 전남개발공사의 미래는 당연히 직원들의 맨파워에 달려있습니다. 임·직원 모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철저한 정인정신으로 거듭날 때 공사의 역사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제2장  
라침방위 羅針方位

# 전남의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의 방향을 예측하다

2007  
~  
2008



## 제1절 더 넓은 시야로 전남개발을 구상하다

- 품질제일, 고객제일의 신뢰경영을 추진하다  
고객서비스헌장 선포  
윤리규정 제정
- 더 넓은 시야로 전남개발을 구상하다  
초기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  
전남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구상
-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다  
영산호관광지 리모델링 사업 수탁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착수
- 전남개발을 위한 미래를 계획하다  
대규모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확대  
미래를 향한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 전남의 구석구석을 읽어내다  
장흥바이오품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무안 한·중국제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 다양한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다  
천일염사업 상품 출시  
우수 관광기념품 시범유통사업 업무협약 체결  
해남땅끝호텔 매입  
울돌목거북선 취항식과 독도 탐방
- 경영시스템 표준화에 역점을 두다  
BSC, VOC, ISO인증

## 제2절 대화의 장으로 마음을 함께 하다

- 합리적 노사협력 문화를 정립하다  
단체협약과 노사협력
- 소통과 화합의 기업문화를 형성하다  
소통문화와 복지제도
- 나눔이 봉사단을 결성하다

## 제1절 더 넓은 시야로 전남개발을 구상하다

### ● 품질제일, 고객제일의 신뢰경영을 추진하다

#### 고객서비스헌장 선포

2006년 8월 17일 이동진 전(前) 한국토지주택 사장이 제2대 전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한국토지공사 재임시절 삼양 경기공단, 서귀포 서호지구 개발과 제주 신시가지 조성, 서울 양동지역 재개발사업, 북한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통 개발전문가로 명성이 높았던 이동진 사장은 전남개발공사 제2대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정통 개발전문가답게 공사발전을 위한 굵직한 사업을 개발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리고 전남개발공사의 성공적인 미래 건설을 위한 경영혁신을 추진하면서 보다 내실 있는 성장을 다져갔다.

● 제2대 이동진 사장 취임식



이동진 사장의 취임과 함께 고객제일주의가 새로운 모토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를 정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고객만족도 배가 운동'을 전개하며 고객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사업별로 고객을 나눠 서비스 범주를 달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2006년 12월에는 고객지향적인 '품질제일·고객제일주의로 신뢰경영'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전남개발공사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였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서비스 이행표준을 정하여 고객에게 공표하고 더 나은 고객서비스를 위하여 끊임없이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으며 불친절, 불편사항 신고 등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당부하는 등 고객서비스헌장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2007년부터는 전 직원에게 고객만족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분기별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친절서비스교육을 받는 등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한 고객만족 서비스교육을 강화하였다.

#### 윤리규정 제정

21세기는 기업윤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윤리경영의 시대이다. 윤리경영이란 기업경영에서 나타나는 행동과 태도의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을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판단기준으로서, 이러한 윤리경영은 각종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깨끗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할 새 규정을 마련해 2007년 3월 23일 이사회를 통해 윤리규정을 제정하였다.

공사의 윤리경영 선포는 전체 임·직원의 도덕적 각성을 다짐함과 동시에 책임경영을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앞으로 개발사업과 관련한 도덕성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선포한 것이었다. 전남개발공사는 이 선포식을 계기로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높은 윤리의식을 통해 도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갔다.

● 2008년 상반기 신규사원 입문교육



전남개발공사는 2007년 5월 21일 직원 교육 이수제를 도입해 직원들의 잠재 능력을 키우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팀장급(2급, 3급)은 리더십 교육, 코칭 스킬 교육, 직무별 전

문가 과정을 이수하였고 팀원급(4급, 5급)은 직무능력 향상 과정을, 신입(6급)은 직무기초 및 입문 과정을 이수하였다. 위탁교육기관(생산성본부, 건설교통부인재개발원, 능률협회, 자치경영평가원)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이 빛을 발하며 직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역량을 발휘하게 되었고, 내실 있는 경영과 강도 높은 혁신으로 전남개발공사의 사업 영역은 점점 확대되어 갔다.

#### 고객서비스헌장

- 전남개발공사 임·직원은 「품질제일·고객제일주의로 신뢰경영」을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하겠습니다.
-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항상 고객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의 만족으로 평가를 받겠습니다.
- 민원업무를 신속·정확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 고객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항상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씨 그리고 단정한 용모와 명쾌한 답변으로 고객을 맞이하겠습니다.
- 고객서비스 이행기준을 제정하여 고객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고객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 전남개발공사 임·직원은 고객서비스 헌장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하여 고객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공기업으로 변모하겠습니다.

#### 윤리경영헌장 주요내용

윤리경영헌장 선포식(2007.04.02.) : 윤리경영의 주요 내용  
 임·직원의 기본윤리로서 무한한 도전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을 발휘해 창의적으로 일할 것과 고객에 대한 윤리 가치창조를 통한 고객 감동을 추구해 나갈 것 임·직원은 일과 관련된 일체의 금품 수수나 향응 등 청탁을 배격하며, 민원처리는 신속하고 분명하게 처리하고, 개발사업에 있어 자연보호 및 생명존중을 실천할 것  
 ... 이하 생략 ...

● 더 넓은 시야로 전남개발을 구상하다

— 초기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

순천의료원 노인성질환 전문병동 건립공사 위·수탁사업, 거북선형 관광유람선단 제작 위·수탁사업, 남약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인수 등으로 사업기반을 마련한 전남개발공사는 2007년 한해 도정의 목표인 '생명이 살아있는 녹색의 땅 전남 건설'을 위한 개척자라는 인식하에 기존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과 동시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 사업을 비롯하여, 전남지역 전역을 아우르는 각종 개발을 구상하고 수립하였다.

2006년 3월 착공한 순천의료원 노인성질환 전문병동은 2007년 4월 공사 준공과 함께 6월에 개원식이 거행되었다. 전남개발공사가 시작한 첫 사업이 결실을 이룬 첫 쾌거였다. 거북선형 유람선단 제작사업은 전문가의 자문과 치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거북선형 유람선 제작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선박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제작에 착수하였다.

● 순천의료원 공로패



— 전남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구상

남약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총 5개 공구로 나누어 공사가 추진되었는데, 이중 1공구(1,153천㎡)와 2공구(692천㎡)를 준공하고 5공구(478천㎡)는 새롭게 착공하는 등 단계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기반시설공사인 하수종말처리시설도 준공하였다.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을 위하여 영암 및 해남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서남해안 기업도시(주)와 KAVO(주) 설립 등 개발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전라남도과 함께 관계 민간기업을 찾아 투자를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여 2007년 관계 기관 간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결실을 얻었다.

특히 2007년은 각 사업부분에서 다양한 신규 사업이 새롭게 검토되고 추진되는 한 해였다. 먼저, 택지개발분야에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에 한국토지공사, 광주시 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전남개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

● 울돌목거북선 제작 과정



게 되어 시행사 간 협약이 2007년 5월에 체결되었다. 이로써 전남개발공사는 또 하나의 핵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둘째, 농어촌개발 분야에서는 입주수요가 예상되는 도시근교 등을 중심으로 행복마을 조성 및 면소재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후보지의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07년 2월 장성, 영광 등 8개소를 중심으로 후보지 조사가 이루어져, 동년 6월 전라남도, 장성군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초 행복마을사업으로 장성황룡행복마을 조성사업을 개시하게 되었다.

셋째, 관광개발 분야에서도 서남해안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주변 환경을 활용하고 여수세계박람회와 F1자동차경주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관광·숙박시설 조성을 구상하게 된

다. 이러한 관광·숙박시설 조성 후보지로 영산호관광지, 여수, 순천 등이 검토되었으며, 이는 훗날 한옥호텔 영산재와 오동재 등 전통적인 숙박시설을 선보이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산업단지 개발 분야에서도 전라남도의 특성화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중남부권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되는 등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전남개발공사의 이러한 노력으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장흥비오식물산업단지,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과 함께 해남땅끝호텔, 한옥호텔 영산재와 오동재 관광사업 등 말 그대로 적재적소의 사업들이 전남 곳곳에서 숨은 매력을 빛내기에 이른다.

●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기본구상 용역 설명회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다

영산호관광지 리모델링 사업 수탁

영산호는 영산강 하류지역의 농업용수 공급과 홍수 및 수해의 피해를 막기 위해 쌓은 제방으로 담수량 2억 5,300만 톤의 인공호수이다. 이 제방으로 영암과 목포 사이에 4.3km의 6차선 도로가 생겼고, 호수일대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1983년에 영산호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다.

영산호 하구언 완공과 더불어 발생한 댐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관광단지 내에 농업박물관을 비롯한 호텔 등 숙박시설과 상가, 농촌체험장, 마리나 시설 등을 갖추게 되어 80년대에는 비교적 많은 관광객이 왔으나, 이후 시설과 콘텐츠가 낙후되어 침체를 겪어왔다.

이런 영산호관광지가 2006년 6월 24일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관광지 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관광지 중 자원은 있지만 시설노후화 및 프로그램 미흡 등으로 매력도가 떨어진 기존 관광지에 대해 업그레이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었다.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전라남도의 영산호관광지 리모델링 사업계획에 따라 관광지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그 첫 단추로 2006년 11월 “영산호관광지 기반시설 및 리모델링 공사” 시행을 위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다.

영산호관광지 기반시설 및 리모델링 공사는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일원에 사업면적 522,890㎡(158천 평), 총 사업비 124억 원으로, 1983년 관광지로 지정되어 개발해 온 영산호의 토지이용계획을 체계화하고 기반시설을 보강하여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남개발공사는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토지를 보상하고, 2007년 12월 실시계획을 완료하여 2008년 11월부터 착공하였다.

● 영산호관광지 현장사무소 개소식



대한민국 국토균형 발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착수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의 최우선 정책은 ‘균형 발전’이었다. 그래서 2003년 6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방침을 발표하고 2004년 4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 방향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와 12개 시·도지사 간의 ‘중앙·지방 간 기본협약’ 및 ‘노·정 간 기본협약’ 체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참여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346개 공공기관 중 176곳이 지방으로 옮겨지는 대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사실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문제와 교통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은 산적해 있었지만 공공기관을 새롭게 맞이하는 각 지방의 입장에

서는 그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정부가 각 시·도에 혁신도시를 만들어 집단이전을 기본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 또한 만만치 않았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합의한 광주·전남의 경우 2005년 8월 24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 선정 추진방향 논의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 결과를 평가하여 같은 해 11월 27일 최종 입지를 선정하였다.

공동혁신도시 후보지로는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대와 장성군 황룡·동화면, 담양군 수북면 일대 등 3곳으로 압축된 가운데 최종 입지는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대로 한국전력공사 등 수도권 소재 16개 공공기관이 옮겨지게 되었다.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기공식



2007년 전남개발공사는 전라남도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던 해이다. 특히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되면서 전남개발공사는 눈코 뜰 새 없이 더 바빠지게 되었다. 2007년 5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에 한국토지공사와 전남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공동시행에 따른 각 시행자별 사업시행지분은 사업면적을 기준으로 한국토지공사 44%, 전남개발공사 33%, 광주광역시도시공사 23% 수준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각 시행자별 투자사업비도 지분비율과 같았다. 공동시행자는 담당구역에 대해 용지보상, 부지조성, 조성용지 분양 및 공사준공 후 시설물 이관 등의 업무를 각각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담당하게 되었다.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현장 전경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개발계획 신청 및 승인, 토지보상 착수,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 등 행정절차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건설교통부는 2007년 5월 23일 제3회 혁신도시위원회를 열고 나주혁신도시 개발계획을 심의, 의결한 데 이어 31일 관보를 통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계획은 이 사업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도시의 기본적인 개발방향, 수용인구, 주택 건설호수,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광역교통망, 이전 공공기관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이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대 221만 8천 평 부지를 조성하게 되었다. 특히 총 1조 4천 17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인구 5만 명에 2만 가구의 자족형 도

시인 인간 중심의 그린 에너지피아(Green-Energypia)로 개발을 하게 되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계획의 기본방향은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1,177,668㎡로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연관 기업 간 상호보완적 기능을 부여하고, 주택건설 용지는 1,848,482㎡로 환경친화적 도시로 계획됐다. 또 공원녹지 용지는 1,835,071㎡로 사업지 중심부의 배매산을 중심으로 중앙호수 공원을 조성하고, 지구 내에 근린공원 11개소, 어린이공원 12개소, 완충녹지 37개소, 연결녹지 69개소 등을 만들어 전국 최고의 녹지공간이 확보된 도시환경을 그려나갔다.

이와 함께 광역교통계획은 국도 1호선, 국지도 49호선, 국지도 55호선 및 나주 구도심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도로망으로 연장 8.13km에 대해 국비 1,933억 원을 투입,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교육·문화·체육시설은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계획하고 초·중·고등학교가 복합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School Complex 2개소가 들어서게 됐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에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게 된 전남개발공사는 지구 내 주택 등 지장물 철거 작업과 문화재 시굴·발굴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수목이식 공사 등을 마치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계획 방향 등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2009년 5월 12일 조성공사 3개 공구를 착공하게 된다. 사업지 중앙에 위치한 배매산을 중심으로 5만 평 규모의 인공호수를 만들어 이를 중심으로 중앙호수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호수공원의 취수원으로 사업부지 인근의 나주호 및 지식강의 여러 조건을 비교 검토한 결과, 취수로는 나주호~송림계 간 기존 용수로(약 8.5km)를 활용하고 나주호의 용수를 이용함으로써 사업비 절감 및 호수공원의 유지관리 등에 큰 장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보상면적은 2,147,601㎡, 보상금액은 105,520백만 원으로 2008년 12월 31일 기준 97%를 완료하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다.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현장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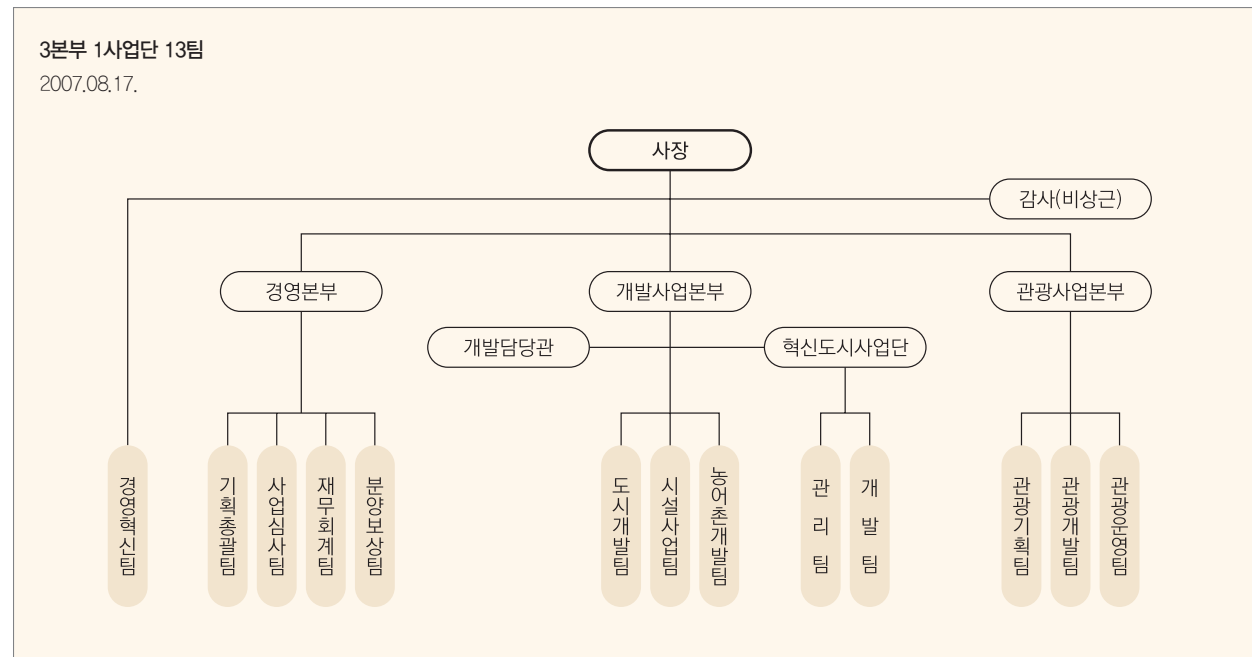
## 전남개발을 위한 미래를 계획하다

### 대규모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확대

2007년 초 전남개발공사는 기존의 남악신도시 이외에도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의 본격 추진 및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조성사업 착공 등이 가시화되고 신규사업으로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었다. 또한 전남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관광레저팀에서 관광사업본부로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충원하여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해갔다. 이에 전남개발공사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다양한 관광사업 확대를 위한 조직을 정비하게 되는데, 신규 사업 발굴 및 심사강화를 위한 사업심사팀을 신설하고, 혁신도시 조성 사업을 관장할 혁신도시사업단 신설, 관광사업을 추진할 관

광기획팀, 관광개발팀, 관광운영팀을 신설하여 기존 2본부 8팀에서 3본부 1사업단 13팀으로 확대하였다.

이어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현장위주 경영 및 민원편의를 위한 현장사업단이 사업 속도에 맞춰 순차적으로 설치되었다. 그리고 공동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혁신도시사업단과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여수경도사업단이 설치되었다. 무안기업도시 내 한·중 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 참여에 따라 무안기업도시사업단이 설치되고 장성황룡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장성행복마을사업소도 설치되었다. 설립 4년차를 맞는 전남개발공사는 체계적인 조직개편으로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강화했다.



### 미래를 향한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전남개발공사는 2004년 6월 설립 이후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다. 하지만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1년 단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연차사업이 많다 보니 점차 업무량은 폭주할 수밖에 없었다.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기존보다 좀 더 체계적인 경영전략이 필요했다.

전남개발공사는 2007년 6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중장기경영계획 수립을 의뢰했다. 2008년 2월 공사에 대한 미션, 비전 및 중장기경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공사는 수립된 중장기경영계획에 따라 미션과 비전을 선포하였고 공사의 경영이념과 경영철학에 바탕을 둔 핵심가치를 창출하였다.

전남발전을 위해 미래에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체계적인 분석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하면서 전남개발공사 사원들은 전남의 전문가로 무장하게 된다.

더불어 전남개발공사의 미션을 재구축하고 신인사제도를 설계하며, 기존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위·수탁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전략을 내세웠다.

따라서, 전남개발공사는 '신뢰받고 사랑받는 1등 공기업'이라는 미션 아래 경영평가 '우수 공기업' 달성을 위해 5대 전략 목표를 제시하게 된다.

첫째, 윤리경영 내실화를 위해 임·직원 윤리경영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 공시제도를 활성화했다. 둘째,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성과중심 내부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창출 우수 직원을 우대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였다. 셋째, 혁신과제 발굴 및 실천 등 혁신활동을 상시화했다. 넷째,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강화하고 FUN경영 도입과 ISO인증을 추진하는 등 기업역량을 극대화했다. 다섯째, 사회 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고 고객만족도 조사와 홈페이지 개편 등 고객만족 경영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였다.

● 2008 전남개발공사 임·직원 워크숍



● 전남의 구석구석을 읽어내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구(舊) 장흥해당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역 내에 산업단지가 많고 제조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지역내총생산(GRP)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큰 발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다. 전라남도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산업단지가 적은 편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2007년 12월, 중남부권 산업단지 타당성을 조사한다. 당시 산업단지 후보지로 장흥 2곳과 보성, 강진이 서로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산업단지가 단순히 공업용지 제공 위주가 아닌 산단 안에 교육, 주거, 문화, 관광, 체육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배치한 복합단지로 건설되고 있는 만큼 산단 안에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곳은 단 한 곳, 장흥군 해당지구 뿐이었다. 게다가 고속도로가 뚫릴 예정이라 접근성도 좋아 여러모로 조건이 유리했다.

장흥 해당지구는 산업용지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부담없는 가격에 입주할 수 있고, 주변에 수자원이 풍부해서 생활·공업용수가 부족함 없이 공급된다. 산과 물이 어우러진 주변의 자연경관은 지친 심신을 달래주고 좋은 풍경이 되어 준다. 다양한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도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의 강점이다. 우선 인근에 있는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전용도로가 개설되었고 국도 2호선이 인접해 있어 차량으로 오고 가기에 불편함이 없다. 대중교통도 생각보다 잘 갖춰져 있어 장흥터미널이 1km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공항(무안, 광주)과 항구(목

포, 여수, 광양)와도 멀지 않은 거라이기 때문에 더없이 훌륭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근방에 천연자원연구원이나 한방산업진흥원, 버섯연구소 같은 연구기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산업인력 수급도 원활하고, 연계사업을 모색해 볼 수도 있는 장점을 지녔다.

2008년부터 진행된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구장흥해당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전남지역에 부족한 공장용지를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해 산업과 체육, 지원시설이 어우러진 친환경 산업단지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장흥바이오식품 산업단지는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와 향양리, 삼산리 일원에 자리 잡기로 했다.

●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 협약식



2008년 8월 1일 박준영 전(前) 전남도지사와 이명흠 전(前) 장흥 군수, 이동진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장흥군청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2011년까지 총 2천209억 원을 투자해 장흥읍

해당리 일대에 321만 m<sup>2</sup> 규모의 미래형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는 협약식이었다. 그리고 장흥군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 및 관련사항(산업단지 지정, 실시계획 승인, 환경·교통·재해영양평가 협의 등)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며 특히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건설비용을 분담하고 용지매입, 지장물 보상, 기타 보상 및 이주대책 업무를 맡는 등 조성사업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2008년 10월까지 토지 보상과 승인 절차를 거쳐 2009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전남

개발공사는 2009년 12월 1일,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공원부지에서 도·군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500명을 초대해 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특히 MOU 체결 업체와 출향기업 수도권 CEO 등을 초청해 산업단지 홍보에도 힘을 쏟았다.

2007년 이후 전남개발공사는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권역별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한 발전전략을 마련해갔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중남부권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 기공식





•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 초기 현장

###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2007년 전남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커다란 도약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한 뜻깊은 해이다. 하지만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단계부터 큰 고심에 빠졌다. ‘여수를 찾는 800여 만 명 방문객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제적인 수준의 관광·휴양 시설을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의 만족스러운 방문을 충족하고 더 나아가 해양관광지로서의 큰 변화를 꾀하였다.

전남개발공사는 여수지역의 해양관광개발 촉진 및 여수세

계박람회 행사를 대비한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경도는 여수 국동항에서 500m 떨어진 섬으로 다도해의 절경이 장관을 이룬다.

온화한 해양성 기후로 사계절 골프가 가능한 경도에 대해서는 사실 1989년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당시 개발 계획이 확정되자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처럼 대기업들이 경도개발에 관심을 보인 것은 도시와 뱃길로 약 5분 거리에 근접하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과 지형이 완만해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이었다. 또한 여수와 광양 등이

산업도시로 성장하면서 배후 관광시설이 필요했고,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국내·외 관광의 패턴이 해양관광을 선호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었던 점을 주목했다.

이후 여수시는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3년 ‘경도개발사업관리조례’를 제정하고, 1995년에는 도시계획을 변경했으나 끝내 IMF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며 여수경도개발사업은 중단되었다. 그러던 중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가 청신호가 켜지면서 외국계 2개 회사와 국내 1개 회사 등이 경도를 방문해 투자에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개발설만 난무할 뿐 성사는 되지 않아 오히려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커진 상태였다. 그런 가운데 전남개발공사가 다시 한번 여수 경도에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게 되면서 전남개발공사 직원들은 더 많은 시간을 경도 주민과 함께 보내며 끊임없는 설득과 이해관계를 형성해 갔다.

•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감도



전남개발공사는 2007년 9월 경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관광단지개발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2007년 11월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전(前) 전남도지사와 오현섭 전(前) 여수시장, 투자기관인 전남개발공사 이동진 사장 등 5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 경도 개발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여수 경도 개발을 위해 인·허가, 용지보상, 조성공사, 분양, 민간투자 유치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 여수경도사업단 개소식



전남개발공사는 2008년 4월 29일 4명의 인력으로 여수경도사업단을 조직하고 여수 현지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여수경도사업단은 현지에 상주하며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총괄 관리하게 되었고 지장물 보상을 위한 토지 기본조사를 벌이는 한편 보상과 관련해 주민들과의 협상도 계속 이어갔다.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역시 보상 문제가 큰 걸림돌이었다. 그런 가운데 주민대책위원회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국동과 경도 간의 도선 운영권을 주민들이 갖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보상 문제도 조금씩 실마리를 풀어갔다.

2010년 3월에는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 어업손실보상 용역을 착수하였다. 그 후 2011년 6월에는 면허(마을)어업, 신고(맨손)어업 관련 보상을 완료하였고 그해 10월에는 허가(어선)어업도 보상을 완료하였다. 1년 후인 2012년 10월에는 도선운항에 따른 접안지(2ha)도 보상을 마쳤다.

무안 한·중국제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2005년 7월 8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무안군 현경면 일대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무안군 등은 그해 12월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KCIID)를 설립해 17.7km<sup>2</sup>의 한·중국제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에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무안군은 한·중국제산업단지를 한·중 간 최대 경제협력모델로 만들기 위해 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을 초청한 현지 실사를 거친 뒤 2007년 1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 투자승인을 받았다.

2007년 10월 중국 상무부로부터 해외경제무역협약구조 지정 받아 중국 정부로부터 대상 사업별 입주기업에 대해 최대 420억 원의 재정지원과 2,800억 원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정책사업으로 확정되기도 했다.

한·중산단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중국측은 동태화안 국제투자유한공사를 설립해 중국측 지분 51%를, 한국측은 벽산건설 등 국내 컨소시엄과 전남개발공사, 무안군 등이 국내 지분 49%를 투자하여 부지 조성, 분양 업무를 담당했다.

2009년 1월 23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은 '무안기업도시(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르면 한·중국제산업단지는 무안군 무안읍 청계면·현경면 일원에 총 사업비 1조 7,600억 원을 들여 개발되는데 이중 10%인 법정자본금 1,538억 원(중국 자본 784억 원, 국내 자본 754억 원)을 확보해 2012년까지 조성한다는 방침이었다. 주요 시설로는 한·중산단단지, 차이나시티, 도매유통단지, 국제대학단지 등으로 이것들이 본격 가동될 경우 2조 4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만 7천여 명의 고용파급효과가 기대됐다.

하지만 지난 2009년 몰아닥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로 금융권의 신규 투자가 억제되고 금융 PF(Project

Financing) 자금시장이 얼어붙어 금융 자금 조달이 어려움에 부딪혔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KCIID)는 2009년 12월 개발계획 면적 및 사업비를 축소하고 법정자본금을 1538억 원에서 430억 원으로 감자 결의했다. 법인명도 KCIID에서 한·중미래도시개발주식회사(KCFCO)로 변경하고 임원진을 전문경영인으로 개편하는 등 무안 한·중국제산업도시 조성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청산의 길을 걸었다.

전남개발공사는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이익 및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2008년 5월 KCIID에 지분 약 77억 원의 자본을 출자하고 공동 시행자로 참여했다. 2008년 9월 한·중국제산업단지 보상을 담당할 사업단이 한국통신 무안지점 개소식과 현판식을 갖고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인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 기초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KCIID 청산과 함께 철수하게 된다.

● 무안기업도시 한·중산단단지 개소식 및 현판식



다양한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다

천일염 사업 상품 출시

전남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서남해안 청정해역과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질 좋은 갯벌을 보유하고 있어 양질의 소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다. 그러나 소금이 법적으로 광물로 분류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생산, 유통, 판매와 수출에 한계가 있었다.

광물로 분류되던 소금이 식품으로 인정된 소금산업진흥법(당시 염관리법)이 2008년 3월 28일 통과되면서 갯벌 소금 천일염이 도약하는 발판이 되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다. 전국 소금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남 소금이 브랜드를 창출하지 못한 채 포대에 킬로그램 단위로 담겨 값싸게 팔리거나 정제염 공장에 헐값으로 팔려나가고 있었다.

전남개발공사는 천일염을 세계적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국내 유일의 천일염연구소를 갖춘 목포대와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천일염에 대한 학술 연구 활동과 사업화에 힘을 모았다. 전남의 천혜자원인 천일염을 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의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전남개발공사는 2008년 9월 뽕솔트 선물세트 1호를 출시했다. 연 2,880톤이 생산되는 뽕솔트는 일반 천일염과 다른 토관 천일염이다. 각종 미네랄이 균형있게 함유되어 있고 쓴맛이 없는 세계 최고의 명품 소금이다.

2008년 10월 서울 양재동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개최한 'Korea food Expo 2008'에서 전남산 천일염의 달라진 위상과 함께 지자체 홍보관으로는 유일하게 전남 천일염이 초청돼 단일품목으로 전시되었다. 이후 '제7회 대한민국농업박람회' 및 제주의 제7차 세계한상대회, 그리고 2008년 11

월 21일 '광주국제식품산업전'에도 천일염 홍보관을 설치하는 등 각종 전시·박람회를 통해 천일염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하였다.

● 천일염 신제품 출시 행사



이러한 결과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뽕솔트와 토관천일염(절임용) 판매매출이 10톤에 해당되는 매출액 2억 원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9년에는 나드리화장품과 손잡고 신안 천일염을 이용한 미용소금 개발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또 기존 폴리프로필렌 소금 포대의 잉크인쇄가 소금에 묻어나는 단점을 개선해 포대 안쪽은 폴리에틸렌으로 된 이중 비닐접합 포대도 출시하였다.

이런 다방면의 노력으로 전라남도 소금을 찾는 마니아층이 생겨났고 입소문을 타면서 포대로 헐값에 팔려나갔던 소금은 새 옷을 입은 뒤 천일염 생산자들에게 큰 이득을 안겨 주게 되었다. 천일염 사업으로 전남개발공사는 공익을 위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 우수 관광기념품 시범유통사업 업무협약 체결

전남개발공사는 남도만의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을 개발 상품화하여 남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간직하고 싶은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관광기념품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그 일환으로 2007년 12월 전라남도 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08년 1월 우수관광기념품 판매소를 선정(22개소)하였다. 진열장, 간판설치를 지원하고 관광기념품 유통망을 구축하는 등 전라남도 관광기념품 경쟁력 강화 정책에 보조를 맞춰 갔다.

● 제2회 전라남도 테마관광기념품 디자인 공모전 금상작 '대나무의 모습을 담은 USB'



또한 공사 자체사업으로는 전라남도 테마관광기념품 디자인 공모전(2회) 개최 및 무안공항 관광기념품·특산품 판매점 개설을 통해 우수 관광기념품 홍보 및 판매를 추진하였으며, “남도의 명품”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 소개 및 생산자, 관광기념품 판매소 등 관광기념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여 도내 유명 관광지, 호텔, 리조트, 골프장에 제작 배포함으로써 도내 어디서나 남도의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과 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특히, 2008년도는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우수 관광기념품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컨설팅 지원과 도내 유명 축제행사 및 이벤트와 연계한 다양한 판촉마케팅을 전개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남도의 우수한 관광기념품과 특산품 등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해남땅끝호텔 매입

한반도 남단에 자리 잡은 전라남도 해남. 그 해남에서도 남쪽 끄트머리에 위치한 땅끝마을은 우리나라 육지의 최남단이다. 남해를 향해 불쑥 튀어나온 이곳은 평범한 해안이지만 '땅끝'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많은 이들의 발길이 향한다. 하지만 관광객 누구나 한번쯤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꼽히지만 관광 인프라가 열악해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었다.

전남개발공사는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땅 끝에 위치한 기존의 호텔을 리모델링하여 보완해 고급화함으로써 가족단위 외지 관광객은 물론 자치단체와 민간 기관 및 단체 등의 연수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성화시킨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이 호텔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1~4차 경매를 진행했으나 유찰된 것으로, 5차 경매에서 전남개발공사가 35억 원에 낙찰을 받았다. 공사는 이후 땅끝관광호텔의 리모델링을 마친 후 2010년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 해남땅끝호텔 리모델링 전 모습



### 울돌목거북선 취항식과 독도 탐방

2005년 12월 전라남도 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한 거북선형 유람선단 제작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선박이 2008년 3월 명칭 공모전을 통해 '울돌목거북선'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해 9월 준공되었다.

울돌목거북선은 최대길이 49.5m 폭 10.4m이며 규모 368톤으로 174명이 승선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 녹색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08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에서 '공공기관 공공시설분야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울돌목거북선은 2008년 9월 24일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 정박지에서 거행됐다. 운항 노선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배가 움직였던 동선으로 해남 우수영, 진도 녹진항, 울돌목, 진도 벽파진항까지 10km 구간을 운항하게 되었다.

아울러, '울돌목거북선'의 성공적인 취항과 당시 한·일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임진왜란 당

시 왜군을 무찔렀던 거북선의 역사적 상징성을 되새기기 위해 지역주민 등 170명을 태우고 목포항을 출발, 경북 포항과 울릉도를 거쳐 독도를 탐방하는 행사를 가졌다.

당초 9월 29일 오전 독도에 입항 예정이었던 '울돌목거북선'은 기상악화로 회항했다 다시 독도 입항을 시도한 끝에 10월 1일 독도에 도착, 독도 동도 선착장에 피곤한 몸을 뉘은 거북배를 배경으로 해남·진도 주민들의 강강술래가 시작되고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18호인 진도 북놀이 가 흥을 돋웠다. 참가자들은 울돌목에서 떠온 물을 독도 앞바다에 뿌리는 합수(合水)식을 끝으로 30여 분간의 입도 행사를 마무리했다. 역사는 지금도 살아있다. 민족을 살린 이순신 장군의 얼과 혼은 지금도 다도해의 물살을 힘차게 가르는 울돌목거북선을 통해 다시 부활하고 있다.

● 울돌목거북선 항해 모습 ● 독도출정식



● **경영시스템 표준화에 역점을 두다**

**BSC, VOC, ISO인증**

전남개발공사는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및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업무 수행과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지원 사업, 전라남도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천일염 사업의 기반구축 및 관광상품의 사업화로 인해 2009년은 보다 체계적인 내실경영이 보완되어야 했다. 따라서 정책적 개발사업의 지속 추진 및 사업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업기반을 구축해갔다.

이러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고자 균형성과 평가제도인 BSC를 추진하였다. BSC는 조직의 비전과 전략목표 실현을 위해 4대(재무, 고객, 내부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관점의 성과지표를 도출하여 성과를 관리하는 성과관리 시스템이다. 따라서 성과목표에 따른 평가지표(KPI)를 설정하는 등 균형 잡힌 내실경영을 위한 이미지를 개선해 나갔다.

고객만족을 위한 기반조성에 따른 고객만족 경영체계를 수립하고자 CS업무 표준화를 위한 VOC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 경영 정착을 위한 ISP(정보화전략 계획)를 수립하여 선진화된 정보기술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2009년 상반기에는 무안 한·중/여수경도 등 대규모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보상업무에 착수함에 따라 경영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적기 경영정보 제공과 전자결재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빠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갔다.

전남개발공사는 2009년 6월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규격인 ISO9001 인증을 획득했다. 창립 이래 업무 매뉴얼 표준화를 꾸준히 추진한 전남개발공사가 드디어 값진 열매를 맺은 것이다.

ISO9001은 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으로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실현 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ISO9000시리즈는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품질시스템 기준을 의미하는데, 규격화 정도나 대상부문에 따라 9001에서부터 9004

까지 4종류로 나뉜다. ISO9001은 이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품질보증체제로 제품설계와 개발부터 제조, 설치, 서비스까지 모든 과정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시스템 기준이었다.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게 되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얻어지는 실질적 이득 외에도 국제적인 품질경영시스템 인증표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 받아 기업 이미지 제고, 신뢰성 증진, 경쟁력 강화 등과 같은 부수적 이익을 얻게 된다.

전남개발공사는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 전문기관 컨설팅을 추진하고 인증심사를 실시한 끝에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이 인증 획득으로 남악신도시를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의 수준과 품질관리, 운영능력 면에서 국제적으로 신뢰도를 공인 받게 되었다. ISO9001 품질경영 시스템을 공사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 사업 현장에 우선 적용함으로써 수준 높은 현장관리를 통해 품격 있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잘 사는 전남을 건설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참고] 2010년 6월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ISO 9001**



**ISO 14001**

Interview 제2대 사장 이동진

● 다양한 사업 전개로 균형 잡힌 전남발전에 불 지피

누구보다 전남 발전을 염원하며 누구보다 전남 발전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제2대 이동진 사장! 전(前) 한국토지신탁 최고 경영자로 대한민국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고 현재 진도군수인 이동진 사장은 전남개발공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균형 잡힌 전남발전에 불을 지폈다.

Q 전라남도 발전을 위한 전남개발공사의 역할과 과제를 말씀해주십시오.

A 전남의 유일한 공기법인 전남개발공사가 이익을 추구하면 공사를 설립한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계속 적자를 내면 결국 도민에게 세금 부담을 주게 되죠. 결국 전남개발공사는 균형 잡힌 수익과 공익을 실현하여 도민의 행복권을 보장하고 낙후된 전남을 발전시키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당장 수익이 나지 않아 민간기업이 꺼려하는 사업도 적극 전개해 훗날 전라남도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Q 전남개발공사에서 어떤 철학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가셨습니까?

A '사람답게 살기 좋은 곳'을 만드는 것이 저의 기본 경영철학입니다. '인간 중심', '자연친화'라는 밑그림이 뭉개지지 않고 전남의 '맛과 멋'이 제대로 살아있는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 22개 시·군 적기적소에 필요한 사업들을 구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죠. 특히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남부권의 중심, 장흥군에 지자체와 상호협조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의 균등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Q 크고 작은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대규모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임·직원들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하나같이 '내 고향 전남 살리기'에 한목소리를 내고 지역민과의 소통·화합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하며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일에 대한 열정과 끈기로 불모지나 다름없는 전남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위기의 전남을 기회의 땅으로 전환시키고자 인간힘을 기울였습니다. 창립 10주년을 발판 삼아 앞으로 '도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1등 공기업'이 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전심전력한다면 전라남도의 미래는 더욱 희망할 것입니다.



## 제2절 대화의 장으로 마음을 함께 하다

### ● 합리적 노사협력 문화를 정립하다

#### — 단체협약과 노사협력

같은 목표를 향하여 일을 하지만 서로의 생각, 위치, 상황에 따라 마찰이 있기 마련이다. 노사 관계 또한 마찬가지다. 상호 회사의 발전을 위한 충고와 견제가 아닌 각자의 이익을 위한 고충만 부각시키다 보면 노사 간의 관계는 어려워지게 된다.

전남개발공사와 노동조합은 2007년 노동조합 설립, 2008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2014년까지 6년 연속 노사평화 선언을 하고, 정부 가이드라인 내에서 상호 의견을 존중하면서 성실한 협의로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변경을 이끌어 오는 등 직원의 복지향상 및 노동자의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로서 합리적인 노사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2007년 5월 29일 조합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개발공사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설립 전후 노동조합 태동에 대한 대외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노동조합은 이를 극복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공사측과 다양한 대화를 시도한 끝에 1년 후 2008년 10월 13일 전남개발공사와 최초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최초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개최 요구에 따라 노사 각각 3명의 실무교섭위원을 구성하여 협의를 하였다. 노동조합측에서 제출한 단체교섭사항은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과 조합원의 인사, 고용보장,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전반적인 내용으로 총 87개 항목에 이르렀다.

● 전남개발공사 노사 평화 선언식



● 전남개발공사 노사협의회



이후 2008년 9월 11일까지 노사 상호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상호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하고, 소쟁점사항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절충과 쟁점사항에 대한 상호 양보에 의한 협의로 협력적이고 배려하는 교섭을 진행하여 총 5회의 실무교섭을 통하여 총 79개 항목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완료함으로써 최초의 단체협약이 완성되게 되었다.

단체협약은 2012년 10월에 노사 각각 4인의 협의회를 통한 실무교섭으로 공로연수 도입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항 2개 조항을 신설하고, 10개 조항을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매 분기별로 개최되는 노사협의회는 회사의 경영 또한 노사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경영정보 공유와 경영성과에 대한 활발한 토의로 투명하고 열린 노사관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노사 합의하에 시행하고 있다.

2008년에는 집중근무시간을 지정(09:30~11:30)하여 회의 소집, 결재, 업무지시, 전화응대, 민원접촉, 출장 등 본 업무에 방해되는 요인은 집중근무시간 외에 처리하는 오전 집중근무제를 시행하였으며, 공사 직원의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행량제도를 운용하여 매일 2시간 가량의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편함 설치를 통한 인건비를 절감하였다.

전남개발공사 주력사업인 토지 판매 분양을 위하여 노·사 공동의 분양캠페인을 실시하여 주인의식을 고취하였으며, 2009년 노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BSC 제도와 성과위주의 평정제도를 도입하여 동기부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 밖에 반차후가(2009년 9월),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2009년 10월), 대우직원 임용(2010년 7월), 사업단(소) 현장체재비 인상(2011년 9월), 기술수당 지급범위 확대(2012년

11월), 시간외(초과) 근무수당 지급기준 보완(2013년 11월), 청원휴가 일수표 개정(2014년 3월) 등 노사가 상호 요구하는 점점을 찾기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 지원하여 사회자변으로 확산시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자 하는데 노동조합이 그 간의 노사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을 정리하여 준비하는 등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렇듯 노와 사는 끊임없는 공사의 발전과 직원의 복지를 위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관행을 혁파하고 상생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노력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실천해 왔고 지금도 실천해 나가고 있다.

2008 노사한마음 등반대회



2008년 10월 31일 노사 단합을 위한 노사 한마음 등반대회를 실시하였다. 무안군 승달산 및 도리포항 일대에서 공사 전 임·직원이 참석하여 자연보호 캠페인을 겸한 노사화합 등반대회를 가졌다. 노사한마음 등반대회를 통해 노사간 한마음 자연보호 운동 참여를 통한 공사 이미지 제고 및 위상을 강화하고 상호간 불신해소를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켰다.

## 소통과 화합의 기업문화를 형성하다

### 소통문화와 복지제도

경영성과를 높이고 앞서가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직원 간, 직원 상호 간 소통과 화합이 잘되고 건전한 복지제도가 확립된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 형성이 중요하다.

2008년 전남개발공사는 CEO와 직원 간 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인적인 애로사항도 들어주는 열린 경영을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한 해 동안 4급, 5급, 6급과 총 세 차례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생일 축하 행사를 개최하여 케이크 절단 및 축하행사 진행, 전 직원 축하 메시지 전달, 떡·음료 등 먹거리 제공, 케이크 교환권과 도서 전달 등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룹웨어 전자게시판과 인스턴트 메시징을 개설하여 비공식적, 비정기적, 즉시적 대화의 통로로써 공사 전반의 경

영정보전달, 의견개진,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전남개발공사 임·직원 상호 간 자연스런 대화 문화를 형성하였다.

2009년에는 전남개발공사 임·직원을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단체보험 가입,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제도 도입, 안정된 휴식공간 제공과 가정의 화목을 위한 하계휴양소제도, 동호회 운영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여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높였다.

특히 2009년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인 임금과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 23,700천 원, 2010년 71,973천 원, 2013년 978,809천 원, 2014년 205,820천 원을 출연하였으며, 2013년 목적사업, 대부사업, 기금증식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시행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수혜 범위를 확대하였다.

2015년에는 생활 안정자금 확대,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 신설, 주택 임차 자금 신설, 학자금 용자 등 대부사업을 확대하였으며 기타 체육·문화활동비 지원, 경조사비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게 되어 명실상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기틀을 맞이하게 되었다.

2011년에는 직원들의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에는 자유로운 대화를 통하여 내부직원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듣고 이를 노사 양측이 공유하고자 '직원과의 대화 (PIZZA DAY)'를 실시하였으며, 생각의 상자를 설치하여 내부직원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듣고 이를 공유하였다.

또한, 해마다 연말에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노사화합 워크숍을 실시하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성과에 대한 반성과 환류를 통한 새로운 경영목표의 수립을 경영진만이 아닌 직원들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전남개발공사는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직원이 자율 선택한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능력을 개발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담당직무 외에 자격증 취득, 어학, 전산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학원 수강 관련 온라인 수강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가족 친화경영의 일환으로 공사 전 직원에 대해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였으며, 조직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하여 내부 직원들의 다양한 생각과 애로(고충)사항을 청취하는 직원 소통 프로그램(通.com)을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현장 직원들의 다양한 생각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여러 의견들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공사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그동안 약 10년 동안 바꾸

지 않은 노후화된 사원증을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통해 공사의 소속감과 내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명절(설,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친화경영의 일환으로 임·직원 외병가족의 무사쾌유를 기원하고자 위문품 등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살맛나는 기업문화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통행이 필요하다. 그만큼 직장에서 의사소통은 마음을 열게 하고 마지막으로 입을 열게 한다. 소통은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고 그다음에 나를 이해시키려는 반복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기업은 조직원을, 조직원은 기업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넓은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 2007 직원화합 체육대회 ● 2011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2008 일심동체 워크숍



2008년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KTC나주연수원에서 노사화합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일심동체 워크숍을 통해 조직 구성원 상호 간 '너'와 '나'가 아닌 조직 속의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협력과 신뢰감을 구축함으로써 일등 공기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실천행동을 같이 경험하고 공유함으로써 일과 동료와 회사를 사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 ● 나눔이 봉사단을 결성하다

2008년 전남개발공사 임·직원은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를 위해 나눔이 봉사단을 결성하였다. 나눔이 봉사단은 2008년 12월 23일 공사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이후 위문 공연 및 의료봉사 등 각 기관 단체 봉사 전문가들을 모아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사랑의 김장 나눔, 어린이 재단 후원금 및 불우이웃을 위한 연탄배달 봉사활동 등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전남 구석구석을 찾아 작은 정성으로 큰 행복을 안겨주고 있다.

연간 나눔이 봉사단 활동 내역

구 분	총 참여횟수(명)	1인당 평균 참여횟수	봉사활동 시간(h)	소요비용(천원)	비 고
누 적	1,788	2.43회	8,030	19,288,184	-
2014년도	365	3.1회	1,081	70,194	-
2013년도	226	1.7회	971	5,584	-
2012년도	283	2.4회	1,622	70,487	-
2011년도	362	3.5회	1,731	54,300	-
2010년도	178	1.7회	860	18,444,277	-
2009년도	231	2.6회	1,018	626,557	-
2008년도	143	2.0회	747	16,785	봉사단 발족

●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 ●● 설맞이 사랑의 떡국 나누기 행사 ●●● 연탄 쌀 배달 봉사활동



## Interview 초대 노조위원장 고 화 빈

### ● 노사 화합과 소통으로 상생의 길 모색

2007년 5월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노사 화합과 소통을 기반으로 단 한 차례 분규도 없이 노사평화를 선언해 온 전남개발공사 노동조합! 그 상생의 씨앗은 '노사가 함께 발전하는 모범적인 공기업 노조의 모델을 만들겠다'는 초대 고화빈 노조위원장의 동반자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 Q 처음 노동조합이 공식으로 출범될 무렵 전남개발공사 상황은 어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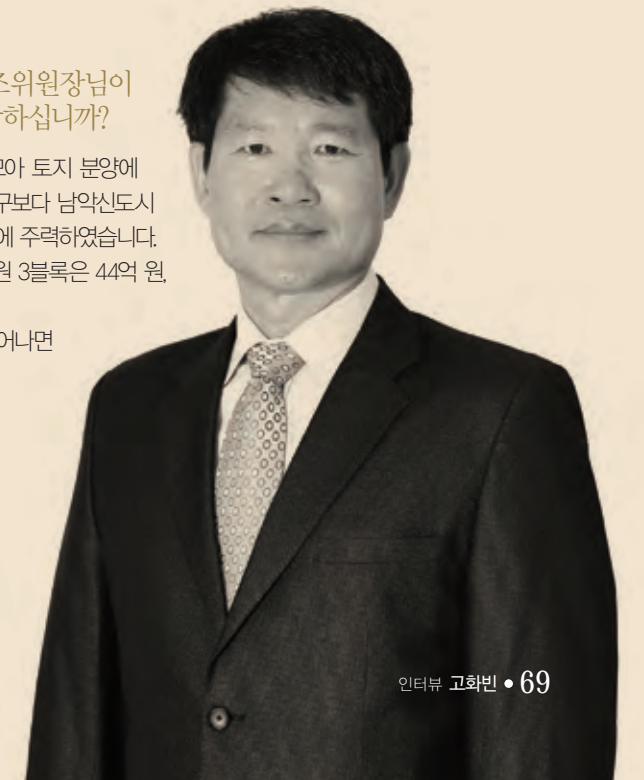
A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직원들이 대거 입사하기 시작하자 투명 인사와 경영합리화가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15명의 직원들은 뜻을 모으고 상생·화합의 건전한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2007년 5월 27일 노동조합을 공식으로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조합원 모두가 작금의 전남개발공사의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고 1년 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Q 탄탄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A 2008년 7월 27일 이후 노동조합 사무실을 갖추고 새롭게 발돋움한 노동조합은 노·사 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동반자적 노·사 관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조합원 모두가 공익성을 중시하는 공사의 설립이념에 공감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양보와 화합, '공사가 있어야 우리가 있다'는 마음으로 임하였습니다. 특히 전남도의회에서 사실 관계를 정확히 따져보지도 않은 채 사업량이 많고 공사비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전남개발공사를 '방만 경영'으로 몰고 가자 "전남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은 전국 15개 광역지방공기업 중 제주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부채비율이 낮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 Q 많은 직원들이 토지 분양에 나섰지만 그중 초대 고화빈 노조위원장이 남악신도시 분양 일등공신으로 손꼽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2009년 당시 경기 침체로 남악신도시 분양이 어려워지자 임·직원들이 힘을 모아 토지 분양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전남개발공사에 입사한 후 도시개발팀에서 근무한 저는 누구보다 남악신도시의 실정과 가능성을 알고 있었기에 두터운 인맥을 최대한 동원하여 분양 활성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수차례 고객들을 만나 남악신도시의 기대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설득한 결과, 지원 3블록은 44억 원, 공동 28블록은 125억 원에 팔아 총 170여 억 원 규모의 토지를 분양하였고, 허허벌판이었던 남악신도시에 대형 건물과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서 서남해안의 최대 신도시로 변한 남악신도시를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제3장  
남선북마 南船北馬

# 사업영역 확대로 성장 모멘텀을 지속하다

2009  
~  
2012



2009  
~  
2012

## 제1절 전남, 변화의 바람이 불다

- 시대에 부응하는 변화에 주력하다  
신사옥 준공과 입주  
도민에게 감동 주고 사랑받는 JNDC
- 세계적인 전남으로 거듭나다  
무안공항면세점 개점
-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다  
정보화 전략수립과 통합시스템 구축
- 개발사업 본격화로 전남의 성장을 이끌어 가다  
개발사업 본격화  
남악지구 택지조성공사 완료  
장성황룡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  
강진환경산업단지 개발사업 착수
- 전남의 독창적인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다  
차별화된 전남관광 모색  
해남땅끝호텔 리모델링  
전통한옥형 숙박시설 건립(영산재, 오동재)

## 제2절 JNDC, 성장하는 전남 속에서 꽃을 피우다

- 전남 미래가치 디자이너를 다짐하다  
비전 2020 선포식  
무안공항면세점 서비스 최우수업체로 선정
- 지역마다 새 단장으로 전남관광에 활기를 불어넣다  
F1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사업 수탁  
남악골프연습장 개장  
해남땅끝호텔 개관  
영암 영산재 개관  
여수경도골프&리조트 운영법인 설립  
여수 오동재 개관  
여수경도 콘도미니엄 개관  
영산호관광지 쉼문화테마공원 건립
- JNDC의 끝없는 변화, 대외에서 인정받다

## 제1절 전남, 변화의 바람이 불다

### ● 시대에 부응하는 변화에 주력하다

#### 신사옥 준공과 입주

2004년 설립 당시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전남농수산물 전시판매장 4층에 첫 보금자리를 마련했던 전남개발공사는 전남도청이 남악신도시로 이전을 하면서 목포시 옥암동에 위치한 KT하당지점 6층 임대사무실로 사옥을 이전하였다. 그러나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고객을 맞이할 공간도 협소해졌다 당시 부진했던 유관기관 이전과 남악지구 내 신규 건축을 촉진하고자 전남개발공사가 선도적으로 신사옥을 건축하였다.

전남개발공사는 신사옥 부지를 선정하고 건설에 착수하여 2년여 만에 도청 맞은편 전남개발빌딩으로 옮겨 2009년 6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도민들의 편의를 위한 새 터전을 마련하는 동안 정작 자체사옥이 없었던 전남개발공사였기에 신사옥 준공은 임·직원들로 하여금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총 255억여 원의 공사비를 들여 완공된 신사옥은 지하 4층, 지상 13층의 업무용 빌딩이다. 태연건설 등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심혈을 기울여 시공하였다.

전남개발빌딩에는 전남개발공사를 비롯해 전남발전연구원, 광주은행, 전남문화예술재단 등이 입주해있으며 사옥



● 전남개발공사·전남발전연구원·광주은행 합동입주식

입주고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10층에는 러닝머신, 스미스머신, 사이클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이 마련돼 있고, 9층에는 공사 임·직원들이 기증한 서적 300부가 비치되어 Book카페가 운영 중이며 B1층에는 외식 전문업체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이 마련되어 있어서 직원들의 건강까지 책임지고 있다. 여러 단체와 기업들이 전남개발빌딩에 터를 잡으면서 남악의 또 다른 명소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임대사무실을 전전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했던 전남개발공사 직원들에게 새 보금자리는 큰 선물이나 다름없었다. 직원들의 입맛에 맞게 안성 맞춤된 전남개발빌딩에서 임·직원들은 전남의 개발을 위해 오늘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 도민에게 감동 주고 사랑받는 JNDC

전남개발공사 창립 6년째인 2009년은 남악신도시 택지개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등의 개발사업들이 각각 토목공사 마무리, 착공, 토지보상 단계에 접어들면서 본격화되고 있었다. 천일염과 면세점 사업도 구상단계를 넘어 구체적 실행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꾸준한 사업 확장에 힘입어 2005년 연간 총 예산 80억 원 규모로 출발했던 전남개발공사가 2009년에는 연간 총예산 4,249억 원 규모로 급성장 변모함에 따라 이에 걸맞은 새로운 변화와 리더십이 요구되었다.

2009년 8월 24일 김주열 선임 사장이 제3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김주열 사장은 1974년 광주시 토목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1980년 한국토지공사에 들어간 후 대불공단 개발부장, 신도시 사업이사, 택지 사업이사를 역임하면서 대불공단과 하남주택단지 개발, 인천 청라 경제자유구역 건설, 판교·동탄·김포 신도시 택지개발 등에 참여했다. 그야말로 토지개발에서 잔뼈가 굵은 개발통이었다.

그는 전남개발공사의 미래 비전 슬로건을 도민들로부터 사랑 받으면서 영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가는 '도민에게 감동 주고 사랑받는 전남개발공사'로 설정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공사로 변화해 가는 데 주력하였다.

40여 년 토지개발 분야를 걸어온 김주열 사장은 취임 이후 공사가 처한 경영환경에 대한 해법으로 '답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대외적 홍보 강화', '토지와 관광상품의 판매역량 강화', '부서별 업무재분장을 통한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사업여건에 맞는 신축적 현장부서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김주열 사장의 해법은 2009년 11월에 단행된 최초 조직개편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는 대외적 경영환경변화에 대



● 제3대 김주열 사장 취임식

한 신속한 대응과 홍보기능을 주관할 '변화관리팀'을 신설하고 혁신과 제안제도, 대외홍보를 활성화하였다.

판매역량강화를 위해서 관광상품(천일염, 거북선 운항, 면세점 등)의 판매활성화를 담당할 '관광운영팀'을 신설하였으며, 토지판매는 기존 팀명을 분양보상팀에서 '고객맞이팀'으로 변경하여 구매지중심의 토지개발 의지를 분명히 하고 고객만족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부서별 업무재분장은 철저히 기능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경영분야는 기획기능 일원화를 통한 사업 간 이해조정과 재무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개발분야는 토목, 건축, 시설 등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여 업무 전문성 제고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아울러, 현장사업단은 개발사업 진행사항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토지보상이 마무리 단계인 혁신도시사업단은 관리팀을 폐지하였고,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는 여수경도사업단은 용지팀과 개발팀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그의 비전과 경영철학은 후일 국가생산성 대상 미래경영부문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고객만족도조사 상위권 유지, 남악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분양활성화를 통한 경영흑자 전환, 대형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의 성과로 연결되게 된다.

● 개발사업 본격화로 전남의 성장을 이끌어 가다



●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초기 공사단계

— 개발사업 본격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개편을 실행한 전남개발공사는 보상과 조성공사에 착수하며 개발사업을 본격화했다.

전남개발공사는 남악신도시를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진 친환경도시로 만들고자, 전주·담장·불량간판이 없는 3무(無)도시로 건설하는 등 쾌적한 신 주거공간을 성실히 조성해갔으며, 2013년 12월 남악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2009년 5월에 착공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지구내 주택 등 지장물 철거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부지조성을 위한 문화재 시굴·발굴에 착수하면서 한국토지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전남

개발공사가 구역별로 나눠 공사를 진행했다. 이전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청사건축허가를 받은 우정사업정보센터는 2011년 4월에 청사를 착공하였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예정 기관 관계자들의 계속된 방문으로 혁신도시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져갔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숙박시설 지원업무의 성공적 수행과 남해안 해양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단계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된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143천 m<sup>2</sup> 면적의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에 2009년 12월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받고 관광단지 지정,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10년 6월 15일에 박람회지원시설(관광단지) 공사를 착공하였다. 2012년 10월까지 모든 보상을 완료했다.

— 남악지구 택지조성공사 완료

전라남도 특유의 넓은 벌판을 자랑하며 택지 조성공사를 시작한 남악신도시는 개발계획만 15번이나 변경될 정도로 단계별 조성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이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 그만큼 택지지구 및 신도시 조성은 도로와 생활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개발이 완료되기까지 지역 전체가 ‘공사 중’이다.

전남개발공사가 2011년에 이룬 성과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2003년부터 8년에 걸쳐 시행한 남악지구 단지조성 사업이다. 남악지구는 ‘상전벽해(桑田碧海)’로 표현될 만큼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전남도청을 비롯해 전남도교육청, 전남경찰청 등 30여 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왔고 1만2천가구, 3만 5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전남의 행정중심도시로 조성돼 다른 관련 기관들의 벤치마킹 사례로 꼽히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2011년 6월 남악신도시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

남악신도시의 녹지공간은 경관배수로와 중심녹지축이 중심

이 되어 남북과 도시를 잇는 가로축이 모든 공원과 연결되는 그린네트워크 구성 및 사계절 푸른 환경을 조성하였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남창천 주변 공공 공지를 활용해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체육공원을 조성하였다. 자전거 도로의 경우 당초 계획은 13,880m였으나 5,230m를 추가 설치해 총 설치거리는 19,110m가 되었다.

남악신도시 입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및 여가 공간을 조성하여 공급함으로써 신도시 입주민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남악신도시 중심 녹지축 공원 내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종합 문화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처럼 전남개발공사는 초기 입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공공주택, 공공청사, 학교 등을 우선 배치하였고 특히 전국 최초의 교통, 생태 분야 시범도시로 지정된 남악신도시를 환경 친화적인 청정도시로 개발하는 데 총력을 다했다.

● 김대중 광장 ● 클린남악 환경캠페인



장성황룡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

2000년대까지만 해도 농촌의 이미지는 대다수가 시멘트 블록 담장에 슬레이트 지붕을 한 검은 곰팡이가 낀 모습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인구 유입과 농업 발전을 꾀한다는 것은 우연한 행운을 기다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가 농업, 농촌, 농업인을 살리는 '3농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한옥마을 사업도 같은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다.

장성황룡행복마을 조성사업 기공식



전남개발공사는 전라남도의 정책에 따라 새로운 행복마을 입지 선정에 나섰다. 사업비만 172억 원이 소요되는 장성황룡행복마을 조성에 있어 가장 많이 공을 들인 부분은 바로 마을 입지 선정이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역의 활성화와 농어촌 공동체의 복원을 위해 수려한 경관과 편리한 생활이 조화를 이룬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에 장성황룡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장성황룡행복마을 조성사업은 단순히 조성에 의한 택지 분양 보다는 오로지 마을 주민 모두가 행복해 하는 마을을 조성해주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택지사업만 할 것인지 주택사업도 결합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치 있는 한옥마을을 짓

게 되었다. 장성황룡행복마을은 이름 그대로 행복마을이 되었다. 전남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126천㎡이다. 주택단지 110필지와 한옥체험관, 마을공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체험관 시설이 들어선 장성황룡행복마을 한옥은 전라남도에서 규정한 한옥육성을 위한 한옥건축기준에 의거하여 별도의 화장실과 샤워시설을 갖춘 손님방을 마련하고 바닥면적이 85㎡ 이상 규모로 건축되었다.

장성황룡행복마을은 이미 만들어진 한옥에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어서 입주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경제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 없어 전남개발공사는 행복마을 입주희망자들에게 입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마련하였다.

또한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지구로 지정된 황룡행복마을은 입주 희망자에게 막대한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일정 기간 전라남도에서 거주한 전남 도민 자격이 있다면 전라남도과 장성군에서 4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3천만 원까지 저렴한 금리로 용자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전남 도민이 아니라도 2천만 원까지 지원금이 주어졌기 때문에 목돈이 들어가는 입주 희망자에게는 가뭄 속 단비처럼 반가운 지원 혜택이었다.

장성황룡행복마을 한옥전용단지 분양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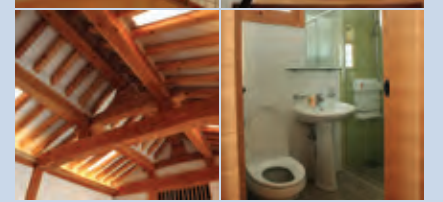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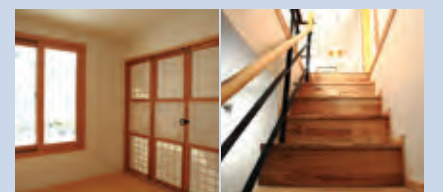


마무리 단계의 장성황룡행복마을 조성부지 현장 (왼쪽) 장성황룡행복마을에 완공된 한옥 전경 (오른쪽)

현대식 한옥 '신한가 호연당'

전남개발공사는 한옥 활성화를 위해 (주)피디스하우징과 협약을 체결하고 신공법을 적용한 현대식 한옥 '신한가 호연당'을 2014년 7월 10일 오픈했다.

'신한가 호연당'은 약 330㎡ 부지에 'L'자형 한옥으로 건축면적 약 100㎡ 규모로서 지하에는 다목적 공간을 두고 부부침실은 구들장을 넣고 다락과 불박이장 등 다양한 수납공간을 설치해 아내가 더 좋아하는 한옥을 만들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한옥신단열소재를 사용하고, 도시가스를 이용한 난방으로 유지관리비를 대폭 절감했다.





● 강진환경산업단지 개발 공사현장

### 강진환경산업단지 개발사업 착수

구(舊) 강진성전일반산업단지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중남부권의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추진된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이어 그동안 사업 추진이 걸렸던 강진환경산업단지도 2010년 4월 전남개발공사와 강진군의 양해각서(MOU) 체결로 사업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강진군은 대불국가산업단지와 삼호조선소 등과 연계돼 있고 바닷가와 인접해 있어 해양물류 거점지역으로 개발 잠재력이 뛰어난 곳이다. 그래서 전라남도와 강진군이 앞서 2008년 3월 (주)서희건설 등 건설업체와 양해각서 및 투자이행협정을 체결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주)서희건설이 자금난 등의 이유로 돌연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전남개발공사가 구원투수로 나서게 되었다.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강진군청에서 2010년 4월 12일 협약을 맺고 강진성전일반산업단지를 태양광과 환경산업 조선 부품 특화산업단지로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전남개발공사(81%)와 강진군(19%)이 서로 사업비를 부담해 우선 657,353㎡를 공동개발방식으로 개발하게 되었다.

2011년 3월, 사업시행자가 강진군에서 강진군과 전남개발공사로 변경되면서 이를 계기로 전라남도와 강진군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의 각종 행정 절차이행을 위한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고 전남개발공사는 토지·지장물 등 각종 보상업무 수행과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등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직접감리를 맡고 현장 편입자원을 활용하는 등 사업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강진군과의 별도 위·수탁 협약에 의해 폐수처리시설 1단계 공사, 용수공급시설 조성공사를 위탁시행

하게 되었다. 본 산업단지 조성공사 등과 더불어 일원화된 설계 및 감독기준을 제시하고 전문화된 산업단지 조성공사 설계기준을 표준화하여 설계 업무 능률을 고취시켰다.

그리고 전라남도의 산업단지 명칭 브랜드화 정책에 따라 강진성전일반산업단지는 강진환경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꾸게 되면서 중남부권의 유일한 환경특화산업단지로 환경관련업체 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강진환경산업단지에 입주할 업종은 조선기자재, 환경산업,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조성면적은 657천 ㎡이다. 하지만 입주 희망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신재생에너지산업에서 친환경 신소재사업으로 유치업종을 확대하였다. 수도권에 분양사무소를 설치한 공사는 분양 활성화를 위해 분양대행사와 협업하여 수도권 환경 관련 기기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분양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는 분양가의 70%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더욱 풍성한 혜택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업체 대표를 강진환경산업단지에 초청해 산업단지의 경제적 지리적 장점과 분양조건 등을 상세히 알리고 지역 일반산업단지 중 가장 저렴한 분양가(93,761/㎡)와 각종 세제혜택 보조금 등 우수한 분양조건을 갖춘 강진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강진군과 전라남도는 분양 활성화 T/F팀을 구성, 매월 1회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입주기업에 보조금 및 조세감면 등의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각종 전시회에 참가, 홍보제작물을 배포하는 등 발로 뛰는 공격적인 홍보를 하였다.

그리고 2012년 11월 12일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설립된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 처음으로 입주하게 되었다. 총 사업비 350억 원을 들여 건립한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은 환경기술 개발과 측정, 분석 업무, 환경산업 실증 및 인증, 환경분야 연구개발(R&D) 사업과 업체 창업, 보육 지원 등을 하게 되며 또한 환경관련 기술이전과 교류사업, 대기수질 측정 장비 국산화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오는 2015년 6월 준공을 앞둔 강진환경산업단지는 남해안 고속도로 강진 IC, 국도 2호선 등이 연결돼 뛰어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향후 광주~원도 간 고속도로 1단계 공사(광주~성전 구간)가 2021년 마무리되면 광주·전남지역 주요 산업단지와 근접해 기업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 기업과 지역은 따로가 아니다. 기업이 성장, 발전하면 지역도 함께 더불어 성장, 발전한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라남도를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넘치는 황금의 땅으로 변모시킨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고 있다.

● 환경산업 종합기술지원센터 (현제)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건립공사 기공식



● 전남의 독창적인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다

— 차별화된 전남관광 모색

관광사업은 정보·생명산업과 함께 21세기 3대 국가전략사업의 하나이다. 각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라남도의 관광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전남개발공사는 보다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시설과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전라남도는 지역 관광자원 및 인문 관광자원이 우수하고 다양하다. 해양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의 참여형 관광 상품 개발도 유리하며 동북아 경제권 국가들의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도 우수한 편이다. 하지만 지역자원을 활용한 콘텐츠가 부족하고 외지 관광객들이 머물 만한 고급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 전남 관광의 최대 취약점이었다.

전남개발공사는 열악한 전남지역의 관광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체류형 관광사업 활성화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역만의 전통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테마형 관광숙박시설을 개발하여 머물고 싶은 전남관광을 실현해 갔다.

— 해남땅끝호텔 리모델링

체류형 관광전환을 통한 관광전남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개발공사는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땅끝에 위치한 기존의 호텔을 경매로 매입하여 시설을 보완해 고급화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0년 4월에 착공한 리모델링을 통해 단체고객을 위한

4~5인용 온돌 객실과 가족, 커플을 위한 트윈, 더블 등 호텔형 객실을 설치하였으며 지역 공공기관 등 단체 연수 및 세미나를 위한 단체 연회장과 단체 식당을 새롭게 단장했다.

창호와 객실 화장실 입구를 확장하였으며 복도는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조명과 카펫으로 안락함을 주었다. 사무실과 직원시설(라키, 숙소 등)을 설치하여 보다 편리한 공간을 연출하였다. 총 8,209㎡ 부지에 들어선 해남땅끝호텔은 객실 2개동 총 90실 규모(지하 1층, 지상 8층)로 숙박시설 외에 회의실, 연회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별도의 부대 시설동을 갖췄다.

깔끔함과 편안함을 콘셉트로 리모델링을 한 해남땅끝호텔은 건물 내부와 외관을 전면 재구성하여 2010년 7월 21일 새롭게 재개관하였다. 따라서 휴양과 모임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형 관광호텔로 한국을 대표하는 땅끝이라는 브랜드 인지도에 부합할 수 있는 전라남도의 관광명소로 발돋움하였다.

● 해남땅끝호텔 리모델링 후 내부 로비 ● 객실



— 전통한옥형 숙박시설 건립(영산재, 오동재)

전남개발공사는 2008년 2월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사업 참여로 대회를 찾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기억에 남을 숙박시설을 제공하고자 전남 영암군 삼호읍 영산호 인근에 전통 한옥형 숙박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영산호관광지는 1970년대 후반 섬이었던 곳을 방조제로 막아 유명 관광지가 됐던 곳으로 마침 전남개발공사가 리모델링 사업을 벌이고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영산호관광지를 활성화 위한 방편으로도 한옥형 숙박단지 조성사업은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안겨주었다.

전라남도에서는 최초로 전통 한옥형 숙박단지가 조성되는 만큼 기획단계도 더욱 세밀하게 진행되었다. 2008년 9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 동안 전주한옥체험관과 전주전통문화센터, 경주한옥형호텔 '라궁' 그리고 김해한옥체험관을 방문해 우수사례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기획 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 사업 전반에 걸친 검토를 하였다.

영산호 국민관광지에 조성된 국내 최초 고품격 한옥 숙박단지는 총 사업비 126억 원으로 설계는 (주)금성종합건축과 (주)

삼진건축이 공동으로 맡으며 단체 숙박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립형 숙박동과 별채형식의 독립형 숙박동을 각각 신축하였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직위원회·전남도 등이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은 숙박시설의 확보였다. 그러나 민간기업들은 선뜻 투자하려 들지 않았다. 하지만 김주열 사장은 돈을 벌기보다는 공기업으로서 전남을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옥호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11년 5월 6일 여수시 덕충동 엑스포타운 내 한옥단지 건립공사가 시작되면서 그해 9월 골조공사를 끝내고 2012년 1월 준공을 마치는 등 엑스포타운 내 대규모 한옥단지를 조성하여 전통 한옥의 우수성과 멋을 세계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전남개발공사는 해남땅끝호텔 운영과 영산호관광지 내 한옥형 숙박단지, 여수엑스포타운 내 한옥호텔 신축 등 많은 사업들을 무리 없이 추진해 정부표창인 국가생산성대상을 수상하게 된다.

● 영산재 건립공사 현장 ● 오동재 건립공사 현장



## ● 세계적인 전남으로 거듭나다

### 무안공항면세점 개점

2009년 9월 한국관광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의 면세점 사업을 철수하였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라남도의 외국 관광객 유치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무안공항면세점 사업을 맡게 된다. 전남의 대표관문인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 도내 관광산업의 창구역할인 공항이용객을 위한 서비스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일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철수로 준비할 겨를 없이 면세점 사업에 착수하게 됨에 따라 그 시작은 순탄치 않은 않았다. 또한 토지개발사업 위주인 전남개발공사로서는 면세점 사업은 생소한 사업영역이었다.

전남개발공사는 2009년 11월 공항 2층 국제선대합실에 인접한 공간에 110,76㎡ 규모로 면세점을 마련하고 면세사업 특허를 신청함과 동시에 911테러 이후 강화된 항공보안 관련 인허가를 국토해양부 및 항공청에 신청하였다.

아울러 판매할 면세품 확보를 위해 시내면세점, 공항면세점을 수없이 방문하여 면세품 조달을 추진하였으나 지방에 소

재한 소규모 면세점이란 이유로 면세품 구입은 어려움이 많았다. 결국, 한국관광공사의 협조로 다소나마 2개월 분량의 면세품을 구입하게 되어 2009년 12월 26일 면세점을 오픈하게 된다. 그러나 세관신고관련 시스템 미비로 실질적인 영업 개시는 2010년 1월 8일에 하게 되었다. 발품을 팔아 마련한 면세품을 전시하고, 세관신고 관련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구비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영업은 시작되었으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였다. 개점 초기에는 실시간 물품관리가 가능한 전산 시스템이 개통되지 않아 수기로 관할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지방에 있는 소규모 면세점이라 대부분의 외산브랜드는 입점을 거절하여 면세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살 물건이 없다”는 불평을 쏟아냈다.

그러나 전남개발공사가 면세점 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전남의 경제활성화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에, 면세품 취급 에이전트를 계속 접촉하여 양주, 과자, 문구류 등 내국인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미흡하나마 순차적으로 입점하기에 이



● 무안공항면세점 내 방문고객

른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이제 면세점에서는 주류, 담배, 화장품 등의 품목과 함께 전남의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과 특산품을 전시·판매하게 되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의 단골 코스가 되었다.

경영난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철수한 무안공항면세점은 전남개발공사의 야심찬 운영으로 매출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

가세를 보였다. 2013년 무안면세점 매출액은 1,441백만 원으로, 이는 한국관광공사 운영 직후였던 2010년도 650백만 원에 비해 122% 증가한 것이다.

무안공항면세점은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쇼핑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제공항의 면모를 갖추고 나아가 세계적인 전남으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였다.

● 무안공항면세점 전경



### 천일염 디자인 대상 수상



전남개발공사가 천일염을 명품화하기 위해 '벨솔트'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명품소금을 담은 포장디자인도 어떻게 하면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선물 세트 종이 포장도 벨 위의 깨끗한 소금을 의미해 반짝반짝 빛나는 포장기를 사용하였고 경제적인 대용량은 들기 편하게 비닐 파우치팩에 손잡이를 만드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며 천일염을 명품화하여 전라남도의 이미지까지 명품화하려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09년 12월 기분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제18회 대한민국 패키지 디자인대전에 출품한 벨솔트 B 포장디자인이 대상을 수상한 것이다. 친환경 녹색콘셉트와 우수한 역사 문화자원이 결합하면 우수한 디자인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하나 세계적인 디자인 공모전으로 알려진 핀업 디자인 어워드에서 은상을 수상하며 명품소금 '벨솔트'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2003년 2월 18일에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자원이 천일염을 명품화시키기 위해 국회 정부 지자체 식품업계 유관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천일염 세계화 포럼' 창립총회를 갖는 등 천일염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시장을 공략하고자 다양한 활동들을 모색해갔다.

●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다

— 정보화 전략수립과 통합시스템 구축

전남개발공사 정보화의 출발은 2003년 전남도청이전사업본부가 구매·설치하여 2007년 공사로 이관한 남약신도시 홈페이지 서버로부터 비롯되었다. 당시는 홈페이지 서버에 그룹웨어를 함께 탑재하는 등 불안정한 형태로 운영되어 정보시스템이 업무 데이터의 안전한 축적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2008년 11월과 12월 데이터베이스 서버(통합데이터베이스 시스템)와 신(新) 그룹웨어 시스템, 신규 공사 홈페이지를 순차적으로 구축하였고, 2009년 5월에는 전남개발빌딩으로 본사를 이전하게 되는데, 이때 전산실을 확충하여 이중화 항온항습 및 축전 설비, 100Mbps 속도의 보안정보통신망 등을 운영·모니터링할 수 있는 주요 정보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어서 2009년 6월에는 백본/광백업 시스템 구축과 웹메일/스팸차단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이로써 업무정보의 안전한 보관과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대내·외 전자 업무교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전남개발공사는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 강진환경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토목 사업과 다양한 건축 위·수탁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분양/보상 정보시스템을 필요로 했다. 아울러 사업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경영정보시스템을 확보하는 것 또한 시급했다.

이에 따라 2009년 7월 분양보상시스템 구축, 11월 고객의소리(VOC)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2010년 완료했으며, 2010년 6월에는 성과관리(BSC) 시스템을 구

축했다. 이 같은 업무 정보화 사업으로 공사는 인사·회계, 분양·보상, 그룹웨어/전자문서, 웹메일, 성과관리 시스템 등의 경영정보시스템과 공사홈페이지, 고객의소리(VOC) 통합관리시스템의 고객관리시스템 및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를 확보했다.



이때까지 공사의 정보시스템은 정보화 요구의 시급성에 따라 별개로 구축하거나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도입해왔다. 이는 단기간에 정보화 요청사항을 만족시키고 업무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고객과 임·직원의 시스템 개선 요구를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였고 데이터의 운용·관리에 일부 비효율이 초래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는 2010년부터 공사 경영 비전과 전략을 반영한 통합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게 되었다.

2010년 1월 당시 공사는 잘 사는 전남 구현을 위해 3본부

2사업단 14개팀 100여 명이 각각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15개의 도시개발, 농어촌개발, 관광개발사업과 출자 및 다양한 신규 사업을 검토하는 시점으로 사업과 경영 관리를 위한 다수의 정보화 요구를 적시에 충족시키기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공사는 경영전략과 연계한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2010~2015)을 2010년 6월 수립했으며 이로써 공사 정보화의 중장기 로드맵을 확보할 수 있었다. 더불어 통합정보시스템의 도입과 동시에 기존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제도와 절차를 혁신하기 위해 업무프로세스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를 2010년 12월에 수립 완료했다.

정보화 전략과 업무절차를 순차적으로 수립한 공사는 2010년 11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여 2011년 12월 완료했으며 이로써 공사는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가치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초일류 경영에 걸맞은 업무수행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통합정보시스템은 건설사업관리시스템(PMIS)을 통한 토목·건축 사업의 설계·시공·용역 관리 전



과정을 시공·용역사가 참여하여 연계 관리할 수 있으며 예산·회계, 계약, 인사·총무, 급여, 자산관리를 포함하는 경영정보시스템(MIS)과 분양·보상, 전자결재 및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후 공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분야별 보안장치의 지속 확보(2011~2014년)와 본사·사업단·사업소 간 정보통신을 위한 200Mbps 보안정보통신망 확충을 2012년 9월 추진했으며 2013년 4월에는 공사 홈페이지의 웹접근성을 개선하였고 2014년 12월에는 전남관광 사업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구축의 과정을 거쳐 현재의 정보화 수준에 이르렀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10년간 공사 발전의 동력으로 업무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와 같은 ICT 인프라 확보와 표준 업무절차의 확산을 통해 사업과 경영 전반에 걸친 다양한 자료를 축적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공사가 2008년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지속적으로 업무 정보화를 통해 이뤄낸 성과다. 그동안 정보화 통합 구현을 목표로 한 전남개발공사의 정보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사업, 경영정보, 분양·보상, 고객의 소리, 성과관리 등의 주요 정보화 업무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와 같은 기술 인프라, 표준화 환경, 사업추진을 위한 정보기반은 효율적인 공사운영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둘째, 통합보안정보통신망 구축, 통합정보시스템의 본격 추진 등 경영 전반의 정보화 확산으로 공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에도 전남개발공사는 전라남도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Smart JNDC를 구현하고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을 확충하여 개방·공유·소통·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제2절 JNDC, 성장하는 전남 속에서 꽃을 피우다

### 전남 미래가치 디자이너를 다짐하다

#### 비전 2020 선포식

2020년 매출 5천억 원 달성을 위한 전남개발공사의 힘찬 비상이 시작됐다. 공사는 2010년 12월 20일 해남땅끝호텔에서 녹색의 땅 전남에 푸른 꿈을 열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한다는 미션 아래 '전남 미래가치 디자이너'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였다. 2020년 매출 5천억 원 달성을 위한 비전 2020선포식은 전 임·직원이 제2의 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중장기 경영전략을 가슴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전남 미래가치 디자이너'라는 2020비전과 성공의 동반자, 새로운 도전, 성과추구, 고객존중이라는 핵심가치를 통해 사업구조, 재무구조, 마케팅, 인력, 경영시스템 등 각 세부전략 과제를 추진하였다.

중장기 경영전략은 사업구조와 재무구조, 마케팅, 인력 경영시스템 등 총 5개 부분에서 집중 실천과제 20개를 마련하고 2020년 매출 5천억 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설정했다.

우선 남약신도시 2단계 사업인 오룡지구에 의료시설을 포함한 스포츠 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스포

츠의로 관광사업을 집중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섬 해안선 관광단지, 친환경 에너지사업 등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관광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이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조직의 마케팅 기능을 강화하고 성과위주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최고의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 비전 2020 워크숍



#### 무안공항면세점 서비스 최우수업체로 선정

공항은 비행기를 타기 전 면세점을 둘러볼 수 있다는 재미가 더해져 그 설렘이 두 배가 된다. 전남개발공사가 운영하는 무안공항면세점도 비행기 출항 1시간 30분 전 갑자기 몰려드는 여행객들로 분주함 속에서도 늘 기분 좋은 설렘이 함께 한다.

전남개발공사는 2010년 1월 8일, 첫 영업을 시작한 이후 면세점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했다. 2011년 1월에는 무안공항면세점 개점 1주년 할인행사를 실시하였고 서강정보대 관광과 1학년생들에게 현장체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2월에는 겨울철 이용객을 위한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등 성수기 정기할인행사와 사은품증정행사 및 테마별 할인행사 등 연중 다양한 판매행사와 함께 고객 눈높이에 맞는 상품을 적기에 입점시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토산품 및 기념품 판매코너를 확보해 지역상품을 흥

보·판매하며 특히, 면세쇼핑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면세품을 살 수 있도록 판매 전략을 수립해 공항 이용객에게 면세 쇼핑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그 결과, 2011년도 한국공항공사가 주관한 전국 공항 170개 입점업체 종합평가에서 판매업체군 가운데 최우수업체로 선정이 되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이용객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품질 향상을 촉진할 목적으로 해마다 전국 공항에 입주한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고객서비스 향상 노력 등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평가 50점과 외부 전문기관인 (주)리서치랩에서 시행하는 외부평가 50점으로 각각 진행된다.

무안공항면세점 규모는 99㎡로 전국 8개 국제공항 가운데 가장 작다. 그러나 면세점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에게는 최고의 만족도를 자랑하는 최우수업체로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 최우수면세점 선정기념 직원들 촬영



● 지역마다 새 단장으로 전남관광에 활기를 불어넣다



●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F1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사업 수탁**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유치됐던 2007년에는 전라남도에도 또 하나의 메이저급 국제행사가 가열차게 준비 중이었다. 영암·해남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F1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기대하게 되었다.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배기량 기준 3,000cc 이상 10기통 엔진을 장착한 경주용 자동차가 최고 시속 360km까지 달리는 경기로, 국제자동차연맹(FIA) 공인의 포뮬러(F1, F3000, F3) 가운데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자동차 경주의 꽃이자 월드컵·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로 손꼽히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단일 경기로는 세계 최대 관중을 동원(경기

당 평균 관람객 20만 명)하는 등 거대한 상업적 규모와 가치를 인정하는 대회다.

F1사업은 특수목적법인인 KAVO(주)가 국·도비 지원과 PF 자금으로 F1대회 개최 및 경주장 건설·운영을 해왔다. 영암 F1국제자동차경주장은 2010년 10월에 준공해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역사적인 첫 경기를 펼쳤다. 그러나 적지 않은 자금 소진으로 KAVO(주)의 자체운영이 힘들어지면서 이대로라면 전라남도의 이미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려나 싶었다. 전라남도가 경주장 소유권을 직접 소유하기 이른다.

전남개발공사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1년 10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및 경주장을 운영

키로 전남도와 협약을 맺고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F1국제자동차경주장을 운영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며 세계화의 물결에 동참하였다.

● F1서킷사용계약 체결식



전남개발공사는 2012년 1월 영암 F1국제자동차경주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한 KIC사업단을 신설하였다. 사무실을 경주장에 마련해 2012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F1국제자동차경주장을 위·수탁하게 되었다. KIC사업단은 F1국제자동차경주장 시설 장비 및 수목 등을 유지, 보수 정비하고 경주장 운영 사용료 부과 징수 및 회계처리 임무를 맡았다. 또한 경주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대회유치 등 마케팅을 강화하며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전남개발공사는 F1국제자동차경주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2년 9월 9일에는 F1 드라이버의 꿈을 키울 국제규모 카트 전용 경기장을 개장하게 된다. 국내에서 카트대회가 가능한 경주장은 잠실카트체험장, 파주스피드파크가 있으나 국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경주장은 영암 서킷이 유일하다.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경주장 5만 1천㎡(약 15천 평)의 부지에 자리 잡은 카트 서킷은 서킷의 길이에 따라 2개의 코스로

운영하는 등 수시로 경기장의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하이브리드형 서킷으로 다양한 코스를 즐길 수 있어 카트를 타는 재미를 더해준다.

공사는 국제규격의 안전성을 인정받은 30대의 카트를 운영하며, 타 경기장에 비해 우수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모터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사용료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카트 드라이빙 스쿨을 개최하여 어린 선수들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국내·외 카트대회도 적극 유치하였다.

● F1카트전용 경주장



또한 체험 프로그램을 여행사와 유관기관, 학교 등에 홍보하여 단체 관람객을 유치해 주중 매출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KIC사업단의 열정과 마음이 더해져 F1국제자동차경주장 일대가 명실상부한 국내 모터스포츠의 메카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였다.

### 남악골프연습장 개장

2007년 남악신도시 아파트 단지에는 이사 차량들이 들어와 이삿짐을 올리고 있고 한창 분주했다. 옥암지구와 남악지구로 구성된 남악신도시에 이미 남악리젠시빌 394세대와 옥암지구 코아루아파트 8개동 311세대가 입주했고 부영, 푸르지오 등 옥암지구엔 인구가 유입되는 속도가 빨라졌다. 그러나 이에 비해 남악신도시는 아직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미흡하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했다. 특히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건강시설이 없는 상황이었다.

전남개발공사는 남악신도시 주민들의 여가 및 건강증진을 위해 5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51㎡의 건축면적에 90타석의 2층 규모로 골프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영산호와 인접한 주거시설의 조망권에 침해를 받고 골프연습장에서 새어 나오는 야간 불빛과 소음으로 피해가 불가피할 거라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설상가상으로 인근에서 실내골프연습장을 하는 영세업자들도 “남악골프연습장 건립은 공기업의 사업영역에 맞지 않다”라고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결국 “전남개발공사가 수익차원에서 전남도청이 들어선 남악신도시에 골프연습장 건립을 추진한다”는 남악골프연습장 사업은 주민들의 반대이견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전남개발공사는 2년 후 다시 남악골프연습장 추진에 나섰다. 대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남악골프연습장 방향키를 돌렸다. 애초 인근 다른 아파트 옆 체육부지에 들어서려고 했던 남악골프연습장 공사를 남악신도시 오토구와 연결하는 남창대교와 산업철도 인근에 90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남악골프연습장은 주민편의시설 확충 차원의 공익

사업으로 해당 아파트와도 500m 이상 떨어져 있어 큰 불편이 없을뿐더러 주민들에게 저렴한 이용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주민과의 대화를 끊임없이 시도하였다.

● 남악골프연습장 전경



전남개발공사와 주민과의 소통으로 일궈낸 남악골프연습장은 2011년 3월 남악신도시에 처음 문을 열었다. 남악지구 5공구 도시지원시설 용지 28,995㎡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골프연습장을 건립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남악골프연습장은 직선거리 170m, 90타석을 갖췄으며 모든 타석에 적외선 온열기와 골프백걸이 전용의자 및 테이블 등이 설치됐다. 또한 타석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복도와 타석 사이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됐고 타석 간 간격도 2.5m로 충분하게 안정성을 확보했다.

복도 곳곳에 의자와 테이블을 갖춘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헬스장, 전산시스템에 의한 최고급 라커시설을 비롯해 실내골프연습실, 스크린 골프 휴게실, 스넥바, 골프숍, 샤워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다. 특히 실내골프연습실 5타석에는 카메라로 고객의 스윙을 촬영해주는 스윙분석기 3

대가 설치됐고 스크린 골프 6실에는 최신 모델인 골프존 리얼비전이 도입됐으며 골프화 건조살균기도 마련돼 있다.

남악골프연습장 개장으로 남악신도시에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남악신도시는 물론 인근 목포 등 주민들에게 최신식 골프연습시설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전남개발공사가 운영하는 남악골프연습장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했다. 골프꿈나무들인 초·중·고 학생들에게 여름·겨울 방학기간 동안 무료로 ‘남악골프연습장 청소년골프아카데미’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2012년 3월에는 개관 1주년을 맞아 회원권 구매고객에 대한 사은품 증정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골프교실’ 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쳤다. 골프에 생소한 주

민들에게 골프규칙과 용어, 스트레칭을 통한 골프부상 예방법, 스윙자세 등 상세한 강의와 실습이 진행됐다.

이번 이벤트행사 기간에 회원권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는 한옥호텔 영산재와 해남땅끝호텔 할인권과 라카무로 이용혜택, 스크린골프 무료이용권 등이 지급되며, ‘컬러볼 이벤트’ 행사도 치러졌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남 도민을 대상으로 2개월 과정의 「제1기 생활체육 아카데미」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 생활체육 골프교실을 운영하였다.

또한 남악중학교, 옥암중학교, 남악초등학교 학생들을 매주 토요일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방과후 골프교실로 유치, 지원함으로써 지역 골프 유망생을 조기 발굴·육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학교 교육정책에 기여하였다.

● 남악골프연습장 개장식





● 해남땅끝호텔 전경 ● 해남땅끝호텔 현판식 ●● 해남땅끝호텔 개관식

### 해남땅끝호텔 개관

전남개발공사는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영산호관광지 리모델링 사업 및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분에 참여하는 등 지역 관광여건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시행해왔다.

그중에 부족한 숙박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첫 결실로 2010년 7월 21일 드디어 해남땅끝호텔 개관식을 갖고 해남 땅끝호텔이 새롭게 태어났다. 총 8,209㎡ 부지에 들어선 호텔은 2개동 총 90실 규모로 숙박시설 외에 회의실, 연회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었다. 주변 조경시설도 새롭게 단장해 고급스러운 호텔 이미지를 보여줬다.

전남개발공사는 개장한 해 11월 지역 작가의 미술품 25점을 구입해 해남땅끝호텔 내에 진열을 함으로써 지역 예술품

을 홍보하는 등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영업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땅끝마을호텔 운영을 전국적인 규모 호텔 전문 운영업체인 (주)HTC에 위탁시켜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해남땅끝호텔 주변에는 인체에 유익한 산소음이온이 도시지역(0~200개/cc)에 비해 75.5%나 많은 1천510개/cc로 조사됐다. 이에 전남개발공사는 공기질이 좋은 해남땅끝마을에 위치한 해남땅끝호텔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게 되었다. 맑은 공기와 탁 트인 절경,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해남땅끝호텔이야말로 소중한 추억의 장이자 안식처로 발돋움하고 있다.

### 영암 영산재 개관

2011년 9월 23일에는 드디어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영산호 국민관광단지에서 고급 한옥호텔 '영산재'가 문을 열었다. 9월에 열리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맞춘 것이다.

전국 최초의 한옥호텔인 '영산재' 개관식에는 박준영 전(前)전남도지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기념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도내 다문화가정 5쌍의 합동결혼식이 전통혼례로 치러졌다.

영산재는 총 31실 규모로 연립형과 독립형으로 이뤄져 있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로 단지 입구와 가까운 곳에 있는 연립형 숙박동은 14호, 단지 후방에 자리 잡은 독립형 숙박동은 단층형(1층)과 복층형(2층) 5동으로 총 21실로 이

뤄졌다. 영산재는 단체 숙박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립형 숙박동과 별채 형식의 독립형 숙박동이 각각 신축되며 이용객의 선호에 따라 객실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통 건축 양식으로 지은 영산재는 향이 좋은 편백나무로 만든 가구를 넣는 등 시설을 고급스럽게 꾸몄다.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열리는 기간에는 영암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특화된 한옥 숙박과 전통예술 문화 체험 기회가 제공되었다.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와 슈퍼주니어, 고(故) 김대중 전(前)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도 영산재를 찾고 하룻밤 머물기도 했다.

● 영산재 개관식



### 여수경도리조트 운영법인 설립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전남개발공사는 2010년 말 단지분양과 리조트 운영의 성공적인 사업마무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 2011년 3월 각 부서 추진사무를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사업성 제고와 여수경도골프&리조트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의 재검토를 위해 김영창 전(前) 기획조정본부장을 T/F팀장으로 하는 '여수경도사업지원 T/F팀'을 구성하였다.

여수경도사업지원 T/F팀은 이후 총 5차례 토론행 회의 개최를 통해 경도리조트 운영과 회원권 분양 등 여러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그중 하나로 여수경도골프&리조트 운영에 대해 외부 위탁이 아닌 관리운영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2011년 4월 11일 자회사 설립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운영방식은 민간 위탁운영·직영·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 운영 방식으로 대변할 수 있다. 순수한 민간 위탁 운영을 할 경우 경영의 합리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익 위주의 운영에 따른 공익성 훼손, 시설 조기 노후화,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내 다른 시설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 전남개발공사에서 직영할 경우,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내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일체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이용자인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등 공익적 측면에 장점이 있으나, 재산성의 유지 곤란 및 탄력적 인력운영 곤란 등 단점이 있어, 경영효율성과 공익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위탁과 직영의 혼합 형태인 운영관리전문 별도법인(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자회사 설립 추진을 위한 주무부서인 기획조정팀은 2011년 5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자회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와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였고, 연구원은 6월 29일 자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제반 연구결과를 제출했다.

기획조정팀은 이를 바탕으로 '여수경도골프&리조트 관리 운영전문 별도법인 설립 및 자본금 출자계획(안)'을 입안하여, 7월 15일 전남개발공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정밀 검토 등의 사유로 전남도 승인이 미루어지다가 지속적인 설득 끝에 9월 6일에 마침내 전남도 승인을 얻어 자회사 설립이 최종 결정되었다.

기획조정팀은 자회사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진행하여 2011년 10월 7일 여수경도개발(주)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자회사 명칭을 여수경도개발(주)로 확정하고, 정관·주식발행·이사회 구성 등을 일괄 의결하였다. 이어 10월 12일 첫 이사회를 개최하여 외부전문인사를 초대 사장으로 초빙하기까지 김영창 전(前) 기획조정본부장을 임시 사장으로 결정하고 10월 13일 설립등기 신청과 동시에 공식 출범하였다.

이후 여수경도개발(주)는 사장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문영 사장이 12월 12일 초대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1983년 제일 CC 총무부장을 시작으로 골프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문영 사장은 이후 기흥, 제주라헨드, 전주상그릴라, 아트밸리, 임페리얼레이크CC 사장을 거쳐 30년간을 골프업계에서 근무해 온 전문경영인이다.

여수경도개발(주)는 여수 경도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의 관광 진흥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2013년 1월 전남관광(주)로 회사명을 개명하고, 여수경도리조트에 이어 오동재 호텔, 영산재 호텔, 해남땅끝호텔 등을 모두 운영 관리하는 관광 운영 전문업체로 확대되었다.

### 여수 오동재 개관

고품격 한옥호텔 '오동재'가 2012년 4월 25일부터 문을 열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한 달 후에 열리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앞서 개관한 오동재는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한 한옥단지 조성사업의 두 번째 결실이기도 하다.

장성항룡행복마을 사업으로 한옥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 전라남도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과 전통한옥의 멋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조성된 한옥호텔 오동재는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동안 브루나이 대사관, 독일, 호주, 중국, 일본, UN사무국 등 다양한 국제의 손님을 맞으며 우리나라 전통을 알리는데 앞일을 담당하였다.

오동재는 본관동인 사랑채와 단독 대형, 다가구 중형, 다가구연립동 등 총 6개동 32개의 객실로 꾸며져 있다. 또한 2014년 6월에는 8객실 증축공사를 완공하여 총 40개 객실을 완비하였다.

담장을 전통 방식으로 쌓고 정자 등도 설치해 한옥의 멋을 더했으며 각종 행사들을 진행할 수 있는 연회장과 카페 등도 갖췄다. 또한 모든 객실의 전면을 통유리로 구성해 오동도와 여수 앞바다 일출, 박람회 행사장 등의 조망을 즐길 수 있다. 특히 개관 당시 이미 브루나이 대사관 관계자 등 외국 고객들이 객실의 절반 이상을 사전 예약할 만큼 외국 관광객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받으며 그들에게 한국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명품 숙박시설을 제공하였다.

● 한옥호텔 오동재 전경



### 여수경도 콘도미니엄 개관

전남개발공사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시기에 맞춰 5월 2일에는 여수 경도에 위치한 콘도미니엄을 개관하여 여수의 부족한 숙박시설을 해소하였다.

● 여수경도콘도미니엄 전경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로서 한몫을 톡톡히 해낸 경도 콘도미니엄은 총 100실 규모로 4가지 타입의 객실을 가지고 있다. 지중해 연안 주변 경관을 연상케 하는 건축양식의 특징적 형태를 모티브로 삼아 아늑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 하였으며, 바다향기 정원의 콘셉트 도입으로 전 객실에서 해양경관 조망이 가능하게 하여 해양관광의 정취를 최대한 느낄 수 있는 숙박시설로 조성되었다.

친환경, 고급 자재로 마감한 객실에는 남해 바다의 향기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쉬를 느낄 수가 있다.

이 밖에도 해수플장, 250여 명이 수용 가능한 대연회장, 세미나실 등이 구비되어 대규모 단체 행사가 가능하며, 1층에 위치한 식당(더 비치)에서는 남도의 식도락을 한껏 느낄 수 있다.



● 쌀문화테마공원 전경

**영산호관광지 쌀문화테마공원 건립**

전남개발공사와 전라남도는 2008년 6월 영산호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영산호관광지 내 농업박물관 및 주변지역을 활용한 체험위주의 “쌀문화테마공원 및 쌀 문화 전시관”을 조성하기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영산호관광지 내에 위치한 쌀문화테마공원은 면적 152천㎡, 사업비 227억 원(국비 87, 지방비 140)을 투입하여 1단계 사업으로 쌀박물관과 판매동을 신축하고, 기존의 농업박물관을 리모델링한 후 쌀박물관과 농업박물관 내 농경 및 쌀을 주제로 하는 전시시설을 조성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는 영산호관광지 중 간척지구에 138,612㎡의 쌀농업공원을 조성하였다.

관광과 농업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복합농업문화 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전라남도 농업문화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쌀문화테마공원 및 쌀문화전시관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상토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2010년 3월에 착공하였다.

쌀문화테마공원 및 쌀문화전시관은 남도 제일의 농업박물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외부 관광객과 관광지 근교(목포, 영암) 거주민들에게 볼거리와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전남개발공사는 영산호관광지 일대를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개발촉진과 지역주민의 고용증대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관광지의 기능을 상실한 영산호관광지를 재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JNDC의 끝없는 변화, 대외에서 인정받다**

창립 이후 전남개발공사는 다각적인 공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영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경영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전남개발공사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운영 절차 수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이를 밑거름으로 다수의 대외 인증·포상 분야에서 우수한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

2009년 11월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대상 윤리경영부문에서 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2010년 6월에는 창조리더십어워드대상 윤리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하여 전남개발공사의 청렴실천 의지를 거듭 인정받았다.

이와 더불어 2010년은 전남개발공사의 경영시스템과 경쟁력에 대해 정부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원년이기도 하다. 2010년 9월 그간의 경영전략 추진과 혁신 노력 및 시장 주도력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뤘던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포상하는 국가생산성대상 미래경영부문에서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전남개발공사는 2011년 국가생산성대상 리더십부문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2012년은 국가생산성대상 챔피언경진대회 표창과 개인유공을 함께 수상함으로써 전국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포상을 통해 전남개발공사의 공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지역 발전과 전남 도민의 복리 증진을 앞장서 이끌어가는 전남개발공사의 끊임없는 변화·혁신 의지와 노력은 지방공기업 평가를 평가하는 언론기관을 통해서도 두드러진 평가를 받았다. 2011년 11월 서울경제신문사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 제35회 국가생산성대상 미래경영부문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을 빛낸 지역경제리더대상에서 지방공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연이어 2012년 2월에는 광남일보에서 주관하는 광주·전남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지방자치경영 특별상을 수상하여 전남개발공사의 그간 공로를 인정했다.

전남개발공사는 경영시스템 뿐만 아니라 공사에서 제조 및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항상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개발공사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매년 실시되는 행정자치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높은 점수를 얻고 있으며, 서비스의 고품질화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한 결과로 2012년 7월에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주관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다.

2012년은 전남개발공사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청렴정책의 결실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반부패 청렴도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와 같이 전남개발공사는 끝없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으로 도민에게 인정받는 1등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다수의 대외 인증·포상을 통해 그 공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전남개발공사의 위상과 인지도를 높이는 주춧돌이 될 수 있었다.

## Interview 제3·4대 사장 김주열

### ● 임·직원이 일심일덕(一心一德) 일군 성공 신화!

비록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전남개발공사에 남아있는 제3·4대 김주열 사장! 그래서인지 '공사 창립 10주년'이 그 누구보다도 기쁘고 자랑스럽다. 전라남도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들에서 남도의 꿈과 미래가치를 찾은 김주열 사장의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 Q 전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지원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A 2008년 여름, 30여 년이 넘게 한국토지공사에서 진뻐가 굵은 개발통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니 '이젠 고향에 내려가 전남 도민에게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규모 정부 사업을 고향에 유치해 지역 발전에 일조하고 제가 그동안 쌓은 경험들을 직원들에게 전수하면서 동고동락하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 Q 토지분양률을 높이고 각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준공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입니까?

A 전남개발공사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은 열정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 직원들입니다. 저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직원들의 손에 열쇠를 쥐어주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기다리면 오지 않는다'는 각오로 전 임·직원이 하나로 뭉쳐 고객들을 직접 찾아 나선 결과, 남악신도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등에서 성공적인 분양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다들 힘들다고 말하던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와 골프 부지를 (주)부영건설에 매각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한 개발사업에서부터 관광운영, 위·수탁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전라남도 발전의 한 획을 그을 수 있어서 더없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 Q '전남개발공사 창립 10주년'을 맞아 축하 메시지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A 실패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포기입니다. '전남개발공사 창립 10주년'을 맞아 임·직원이 합심하여 새로운 꿈을 포기하지 말고 머물러 있는 생각이 아닌,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실패 속에서 성공을 건져내 힘차게 제2의 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남개발공사 10년 역사의 주역인 모든 전·현직 임·직원 모두에게 거듭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 Interview 초대 경영본부장 김영창

### ● 도민들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아름다운 공사 문화 조성!

도민들이 신뢰하고 감동할 수 있는 전남개발공사를 만들기 위해 경영, 개발, 관광, 위·수탁 사업 요소요소에서 신속·정확하게 발로 뛰는 이가 있다. 전남개발공사 설립 초창기부터 고객감동 실현과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를 만든 초대 김영창 경영본부장! 그의 땀과 열정은 지금의 전남개발공사의 탄탄한 밑거름이다.

#### Q 초대 경영본부장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일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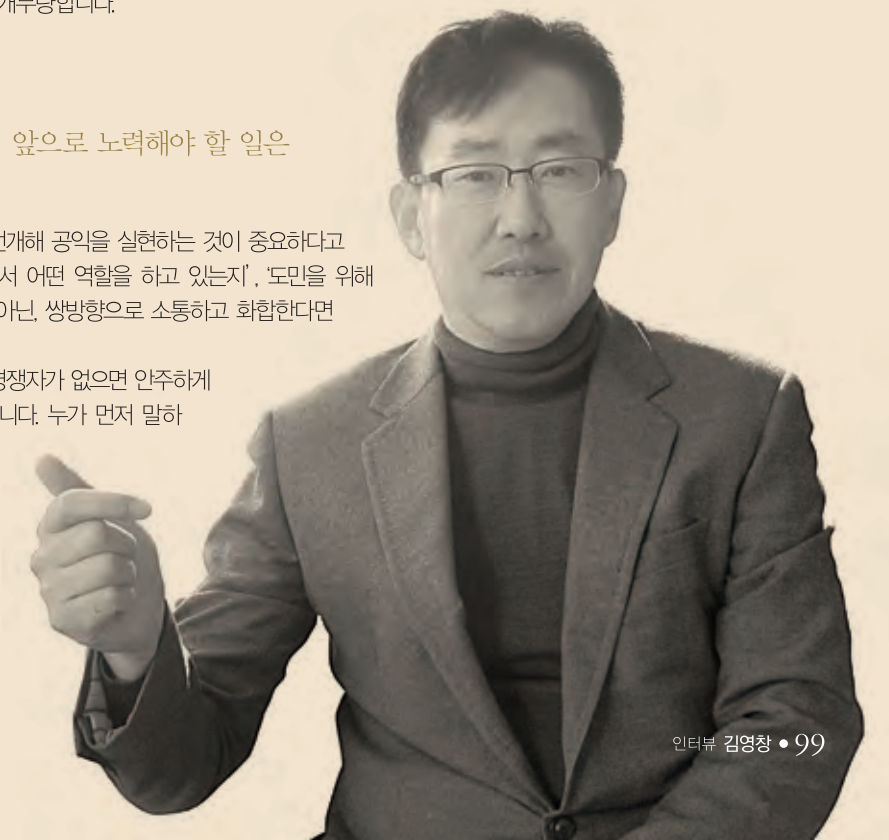
A 인고의 10년, 열정의 10년을 지내온 동안 전남개발공사는 수많은 성장통을 겪으며 안정화되고 내실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초대 경영본부장으로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하였고 윤리강령 선포,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인화단결을 통한 직원간의 즐거운 조직문화 형성 등을 통해 크고 작은 성장통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특히 중앙부처에서 활동한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대외적으로 전남도청과 전남 도의회, 중앙부처 등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 Q 그동안 지나온 일을 뒤돌아보면서 가장 보람된 일을 소개해 주십시오.

A 경영 전반을 총괄한 경영본부 차원에서 제가 뛰어난 사업은 천일염과 무한공항면세점 등입니다. 2008년 천일염이 광업에서 식품으로 전환되면서 영세한 염업인들의 가격 안정을 위해 '뽕 솔트(PPearl Salt)'라는 브랜드를 시장에 내놓고 대기업 루트를 확보하는 등 전남산 천일염 판로 개척에 주력하였고, 또한 인성과 능력을 골고루 겸비한 전문직 직원들을 입사시킨 인사담당 본부장으로서 현재 자기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자기 역량을 최대한 살리는 직원들을 보면 감개무량합니다.

#### Q 아름다운 공사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전남개발공사는 무엇보다 도민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직원들이 스스로 '나는 공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도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한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화합한다면 어려운 사업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학자 「이널드 토인버」는 '도전과 응전'에서 경쟁자가 없으면 인주하게 되므로 적당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말하기 전에 직원 스스로 내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극제를 만들고 전남개발공사에 헌신하며 전남발전의 중심점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4장  
도처춘풍 到處春風

# 이르는 곳마다 봄바람, JNDC의 기분 좋은 도약

2013  
~  
2014



## 제1절 전남의 미래가치 JNDC, 상승곡선을 타다

- JNDC 일취월장 상승세를 타다  
2012년 결산 창립 이래 최대 흑자  
역동적 조직설계  
고객만족도 1위 영예
- 전라남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다  
빛과 물의 도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결실  
복합관광 메카,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1단계 공사 준공  
친환경 생태도시, 남악신도시 오피스지구 개발 착수
- 전통이 스며있는 전라남도를 주목하다  
관광숙박사업 운영관리 일원화  
전남 관광을 알리는 다양한 마케팅 전개  
전통과 함께 하는 전라남도  
오동재 '한국관광의 별' 선정 (체험형 숙박부문)  
영산재 중국영화 '이빠의 휴가' 촬영  
여수경도 '한국 10대 골프장' 선정

## 제2절 희망을 나누는 행복한 동행

- 도민을 위한 따뜻한 情 나누기 프로젝트  
사회공헌 활동  
Eco캐스터, 대학생 기자단 운영  
휴먼멘토제 '어울타리'

## 제3절 도민의 행복을 이어가다

- 전남의 미래를 향해 끝없이 비상하다  
제2의 도약을 꿈꾸며

## 제1절 전남의 미래가치 JNDC, 상승곡선을 타다

### JNDC 일취월장 상승세를 타다

#### 2012년 결산, 창립 이래 최대 흑자

전남개발공사는 2004년 6월 14일 출범 이후, 남악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등 도내 곳곳에서 모두 25개 사업을 벌이며 꾸준히 영역을 넓힌 결과 2012년에는 창립 이래 사상 최대 흑자라는 새로운 기록을 달성하였다. 2013년 3월 회계결산 결과 토지 판매 등의 실적을 바탕으로 매출 2,129억 원, 영업이익 292억 원, 당기순이익 155억 원으로 창립 이래 최대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당기순이익 규모는 2004년 창립 이래 10년 새 최대 규모로, 용지매출 2,003억 원, 관광상품 및 운영매출 70억 원, 대행사업 등 기타 매출 56억 원으로 매출액 2천억 원을 달성했다. 또한 영업이익은 2011년 대비 1,144% 증가한 292억 원을 기록했다. 총 자산은 1조 1,6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5억 원이 증가했다. 이로써 전남개발공사는 2010년(-48억 원), 2011년(-95억 원) 등 2년 연속 적자 구조에서 탈피해 흑자 경영의 기틀을 다지게 됐다.

전남개발공사는 그동안 굵직한 개발사업과 한옥호텔, 천일염, 무안공항면세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으로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 제5대 전승현 사장 취임식

#### 역동적 조직설계

2013년 봄, 전남개발공사를 이끌 새로운 수장에 제5대 전승현 사장이 선임되었다. 1973년 함평군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한 전승현 사장은 전남도 도로교통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무안국제공항, 목포-광양 고속도로, 여수산단 진입도로 건설 등에 성과를 낸 '개발행정의 달인'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사람은 모두 다 보물'이라는 인간적인 품성과 더불어 합리적이고 소탈한 성격은 일을 해결해 나가는 데도 유효한 역할을 톡톡히 해 냈다. 무엇보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도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등 개도 이래 최대 SOC 건설을 주

도하고 FI국제자동차경주대회 등 주요 현안 추진에 결정적인 지원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승현 사장의 취임으로 경영환경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역동적 조직 체계로 매출 수익을 극대화하고 미래지향적 조직을 신설해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며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중복되는 업무를 일원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3대 조직방향 체계를 추진하였다.

특히 관광사업분야는 자회사로 이관하는 대신 홍보마케팅과 신규사업팀, KIC사업단과 사업지원팀, 빛가람사업단과 경도사업단을 신설하여 2본부 2실 3사업단 10팀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따라서 프로젝트 위주로 운영해 오던 사업부 조직을 토목, 건축, 시설로 구분한 기능조직으로 전환하여 개발사업 추진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전략기획실을 신설해 기획기능을 강화하였고 감사실을 신설해 감시기능을 강화하였으며 홍보업무와 감사업무, 마케팅업무와 사업지원업무로 분리해 보다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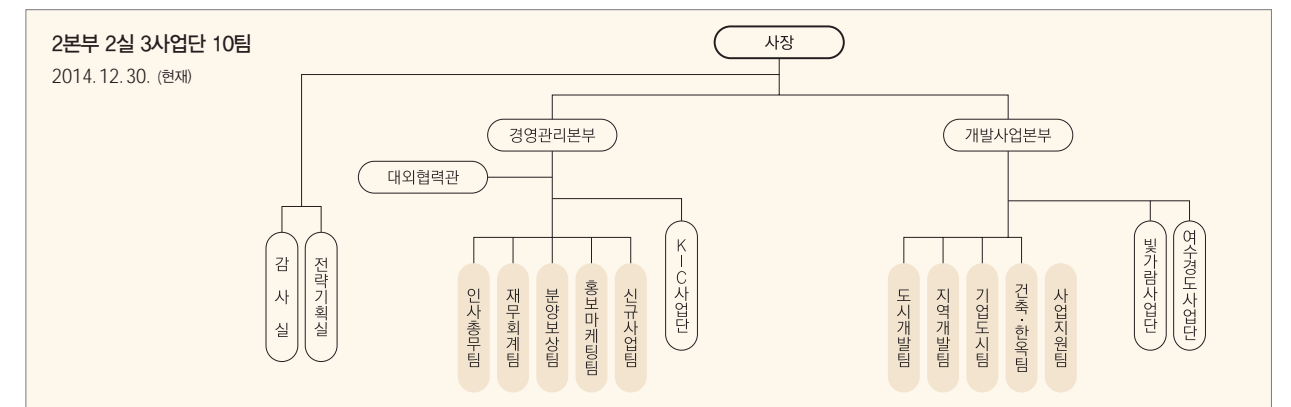
전남개발공사는 혁신적인 경영의 새 틀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 재무, 조직 등 분야별로 강도 높은 경영 개선안을 내놓았다.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는 민간기업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남악골프연습장 운영사업 등

민간사업과 겹치는 사업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영역의 다각화로 수익을 창출하기로 했다. 먼저 감정평가액이 176억 원에 이르는 남악골프연습장은 공개 매각공고 절차를 거쳤고 섬지역 등 사업성 있고 투자가치가 있는 땅들을 찾아 미리 매입하는 '토지 선매입 사업'도 활성화해 기틀을 다져나갔다.

#### 고객만족도 1위 영예

그동안 고객만족 경영에 최선을 다해온 전남개발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2013년 5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42일간 택시 및 산단 분양고객, 거래고객(사공사), 천일염 이용 고객, 카트경기장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5.1점이 상승하고 2013년 CS경영 고객만족도 목표(84점)를 초과 달성해 도시개발공사 중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황무지와도 같은 허허벌판에 새로운 전남을 개척해 온 전남개발공사는 창립 이래 사상 최대 흑자를 달성하고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기분 좋은 성과로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전라남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다**

— **빛과 물의 도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결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거나 조만간 이전을 마무리하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전국 11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두 개의 광역단체가 공동으로 조성한 만큼 두 배의 힘을 발휘해 보다 독특하고 매력 넘치는 미래 도시를 그려 나갔다.

2013년 3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신사옥에 입주하였다.

다른 기관에 비해 우호적이었던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전남 개발공사와 계약을 가장 먼저 체결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사옥이전이 추진되었다. 이전 인원은 816명, 청사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2.7만 ㎡로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첫 입주한 것을 계기로 혁신도시 정주여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설계 및 시공까지 턴키방식으로 진행된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지식경제부 소관 우편, 우체국금융 등 전산업무의 개발 유지보수와 시스템 운용 업무를 맡고 있어 이전 임·직원 인 원보다는 유지보수 대행계약을 맡고 있는 유관기관들의 동반 이전이 기대돼 지역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 활성화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곳이다.

혁신도시가 자족도시로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전남개발공사 구간인 산학연클러스터 12부지는 정보통신 분야 입지 블록으로 전남문화산업진흥원이 단독 매입 신청을 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전남문화산업진흥원은 클러스터 12부지에 100억여 원을 투자해 실감미디어산업 기반조성센터를 건립할 예정

이다.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천 300㎡로 2014년 3월 착공하였다.

이후 정부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를 내리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을 가능케 하고 규제를 완화해 입주 대상을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지원 및 산업진흥시설(연구원·관리사무소·비영리재단)만 입주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역산업 간 직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 연계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를 허용하게 된다. 이밖에 첨단·지식·정보통신 등 소규모 기업 입주가 활발히 이뤄지게 하여 소규모 필지 수요가 있을 경우 기존 필지를 분할해 공급하였다.

또 이전 공공기관이 출자한 기업·대학·연구소 등 부설기관은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주침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게 해 혁신도시 내 입주를 유도하였다.

전남개발공사는 2013년 12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1차 준공을 마쳤다. 전남개발공사는 직접 감독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노거수 이식에 따른 이식비를 절감하기 위해 기존 노거수를 적극 활용하였다. 시공성이 좋고 하자발생이 적으며 시공비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투수 콘크리트 포장으로 자전거도로 포장공법을 변경해 역시 사업비를 절감하였다. 그리고 험프형 횡단보도의 오르막 경사부의 구배가 심하여 차량 손상 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노면표시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예산절감에 효과를 보였다.

전남개발공사는 알찬 사업비 절감과 친환경 시공법으로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3가지 요소(O2, Blue, Green)를 성공

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지역의 경관적 특성과 자연적 입지조건,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며 혁신도시의 상징성과 부합하는 새로운 녹색 도시를 구현하였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대 건립공사가 2014년 5월 착공하였다. 전망대가 완성되면 혁신도시의 도시와 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랜드마크 역할은 물론, 지역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망대 건립공사에는 모두 1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연면적 3천 864㎡로 지상 2층 규모의 전시·관리동과 높이 23.5m의 전망대가 들어서게 된다.

● 혁신도시 전망대 건립공사 모습



그런데 이 전망대는 당초 해발 80m 높이의 배매산 정상에 45m 높이로 건축하기로 계획됐다가 설계완료 단계에서 높이가 27m로 축소되었다. 전망대 높이를 축소된 것은 배매산이 낮은 야산인 까닭에 전망대만 높이 우뚝 설 경우 몸통보다 머리가 큰 기형적인 건축물이 될 우려가 있어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한 끝에 높이를 축소하게 된 것이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전망대는 도시를 아우를 수 있는 빛과 남도의 젓줄인 영산강의 흐름을 디자인 모티브로 삼아서 배매산과 조화를 이룬 조형미를 갖춘 것은 물론, 혁신도시를 사방으로 조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전망대 진입부에는 혁신도시 홍보관과 전시관 및 주민과 관람객들을 위한 카페테리아 등 쉼터를 조성하게 된다.

또한 전시공간과 함께 '추억의 공간'을 마련해 혁신도시를 위해 삶의 터전을 내어준 이주민들을 위로하고 다시 찾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장애자를 배려한 이동수단을 설치해 도시를 조망하면서 전망대를 오르내릴 수 있게 하고 혁신도시가 갖는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 도시 이미지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랜드마크가 될 전망대가 건립되면 전시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통해 주민과 학생, 관람객들의 학습장소와 휴식처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전기 등 대부분의 기반시설 조성을 마쳤다. 호수공원 및 U-City 구축공사, 동측 진입도로는 2015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 총 1만 7,952여 세대 공급 예정인 공동주택은 2014년 말까지 1,226세대가 입주했으며 초·중·고등학교 4개교가 설립됐고 향후 9개 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은 현재 나주~광주송정역 간 버스가 왕복 199회 운행 중이다. 20분 간격의 혁신도시 내 순환버스가 왕복 30회로 환승 체계를 구축해 주민 불편을 점차 줄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공공 정주시설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공공기반시설만 갖추었을 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의료·유통 등의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이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조기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는 2014년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이전완료하였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각각 완료할 예정으로 공동주택 1만 7,952세대를 포함해 총 5만여 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복합관광 메카,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1단계 공사 준공

전남개발공사가 민간부문에서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경도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함에 따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지원은 물론 해양관광산업 육성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100실 규모의 콘도 공사를 완료한 전남개발공사는 이후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대에 조성하는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사업 중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정식 개장함으로써 골프장과 100실 규모의 콘도 등 사업비 3,350억 원이 투입된 1단계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 2010년 9월 첫 삽을 뜬 지 3년 9개월 만이다.

● 여수경도 콘도미니엄 전경



정식 명칭이 '여수경도골프&리조트'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27홀의 골프코스를 기반으로 골퍼와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콘도와 호텔 등 숙박시설이 핵심이다. 여수경도골프&리조트는 정규 27홀 골프코스인 토너먼트코스인 금오도, 돌산도 코스와 리조트코스형 오동도 코스로 나뉜다.

설계는 링크스 코스의 세계적인 설계사 DMK Golf Design Ltd.의 David Maclay Kidd가 맡았다. 모든 홀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해양횡단형 코스를 3홀 보유하고 있으며, 16개 이상의 홀이 바다와 맞닿아 있어 씨사이드 골프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수경도골프&리조트 클럽하우스는 전통의 미를 간직하고 있다. 전통한옥 지붕은 웅장하면서도 고유의 처마 끝에서 흐드러지는 '선의 멋'을 그대로 살렸으며, 여수 앞바다와 골프 코스 전경이 보이는 세련된 내부는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독특함이 있다. 남녀 락커, 사우나, 프로샵 스타트하우스, 레스토랑 등 모든 필요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전남 특산품과 공예품을 판매하는 토산품 판매점이 눈길을 끈다.

총 100실 규모의 콘도는 4가지 타입의 객실을 가지고 있다. 지중해 연안 주변 경관을 연상케 하는 건축양식의 특징적 형태를 모티브로 삼아 아늑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했으며, 바다향기 정원의 콘셉트 도입으로 전 객실에서 해양경관 조망이 가능하게 하는 등 해양관광의 정취를 최대한 느낄 수 있는 숙박시설로 조성됐다.

또 250여 명이 수용 가능한 최첨단 대연회장, 세미나실 등이 구비돼 대규모 단체 행사가 가능하며,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수영장과 황금빛 노을이 함께하는 야외 바비큐파티에서 남도의 식도락을 만끽할 수 있다.

여수경도골프&리조트가 개장 2년 만에 전문평가기관과 언론사로부터 2014년 대한민국 최우수 코스로 각각 선정돼 4관왕이라는 그랜드슬램 골프장으로 인정받게 됐다. 그것도 재벌그룹이나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아닌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 산하 전남개발공사라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골프장이 이런 상을 받게 된 것은 대한민국 골프장 역사에서 눈에 띄는 일이다.



● 여수경도 골프 코스

전남개발공사는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가족단위 관광객을 불러들이기 위해 '메스티지(대중적 명품) 전략을 구사해 섬 전체의 경관을 둘러보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갯벌체험과 해상낚시, 어촌체험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전라남도의 지역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된 여수경도골프&리조트(27홀 코스와 콘도)는 대표적인 창조경제 실천 성공케이스라고 판단해 불황에 시달리는 여타 종합 관광단지나 골프장에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골프장들은 이용객의 감소로 도산하거나 경영 부진으로 급여삭감 및 직원감원 등을 겪거나, 또는 원가절감으로 돌파구를 찾는 고육지책을 감내하는 곳이 많다.

그러나 여수경도골프&리조트는 워낙 코스 풍광이 아름답고 그린 관리가 좋아 한국의 페블비치라는 명성이 골퍼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하였다. 골퍼들이 쇠도하기 시작해 연간 400억 원의 경제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고용 측면에서 하루에 정규직, 비정규직, 일일고용원 등 300여 명(캐디 100명 포

합)이 종사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 여수 경도 지역을 찾은 골퍼들에게 골프장 외에 여수 재래시장과 수산물 센터에서 여수 특산물인 갯김치를 비롯해 각종 건어물, 특산 농산품을 귀경 선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며 지역관광 진흥발전을 위해 여수의 대표적 관광지인 오동도, 사찰 향일암, 엑스포 기념관, 돌산대교 해상케이블카, 유람선 등을 두루 관광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관광단지를 통한 지역 생산성 제고 외에도 사회봉사와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계획이 매월 실천에 옮겨졌다. 2013년 돌산 노인복지원과 후원 협약을 맺고 경도 주민 경로잔치, 불우이웃 연탄 지원봉사, 무료음식 봉사 등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골프 꿈나무 육성지원책으로 전문학교와의 산학 협력을 통해 맞춤형 교육 시설 제공과 골프 레슨 등 지역사회 교육 발전에도 공헌하고 있다.

이렇듯 전남개발공사가 개발한 여수경도골프&리조트는 명실공히 국내를 대표하는 복합 해양관광단지로서 면모를 갖추며 가족단위 복합휴양지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다.



● 오룡지구 개발 공사현장

### 친환경 생태도시,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개발 착수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최대 이슈는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다. 그 가운데 남악신도시는 2013년 말 현재 4만 6천여 명의 인구가 새로 유입되었다. 계획인구 대비 약 80%의 성과를 낸 것이다.

최근 무안군이 인구 8만 명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남악신도시가 일등 공신이다. 남악신도시는 새로운 주거지역을 조성하고 유관기관의 개청·개원으로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남악신도시 개발을 시작한 후 10년 만에 중심상업지구가 형성되고 전남의 신행정 정주도시로 성장하였다. 남악신도시 조성사업 가운데 남악(무안)지구와 옥암(목포)지구는 지난 2003년 첫 삽을 뜬 뒤 조성이 마무리된 상태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남악신도시 1단계 마지막 사업지구인 오룡지구다.

남창천을 사이에 두고 남악신도시와 마주보는 것이 오룡지구다. 전남개발공사는 270만 m<sup>2</sup>에 8천 세대 규모의 택지지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그런데 오룡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03년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착공 이후 2005년에 중단되었다. 그동안 오룡지구 개발사업 착공 시기를 두고 무안군과 갈등을 빚은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와 남악신도시를 비롯한 인접 목포지역의 택지공급 과잉 등으로 당초 2013년 6월에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잠시 연기되었다.

전남개발공사는 다시 2013년 초 국토교통부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실시계획과 영향평가 등을 마무리하여 2014년 2월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해 4월 오룡지구 1단계 사업을 착수하였다.

오룡지구 개발은 총 5천 2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21년까지 3단계로 나눠 진행하게 된다.

오룡지구는 업무, 상업, 문화 기능을 갖춘 남악지구의 기능을 보완해 계획인구 2만 1천여 명 8,300세대 규모의 주거와

교육, 스포츠시설 중심의 '수변생태도시' 로 조성된다.

전남개발공사는 오룡지구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동산 흐름을 고려하여 총 3단계로 진행한다.

1단계 조성공사는 72만 5천 m<sup>2</sup> 면적에 택지 3개 공구와 교량 2개소로 나눠 진행되며 모두 2천 4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택지 1공구는 13만 9천 m<sup>2</sup>에 255억 원, 2공구 21만 9천 m<sup>2</sup>에 314억 원, 3공구 34만 8천 m<sup>2</sup>에 274억 원이 각각 투입되며 남창 5교 및 6교 건설에도 각각 72억 원과 150억 원이 들어간다.

오룡지구는 인공 숲을 활용한 건강도시, 바람을 활용한 공기 청정도시, 물 순환 시스템이 도입된 자원순환도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재생에너지도시, 에너지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개발된다.

단지 내에 생활권 위계에 맞춰 '피톤치드' 를 이용한 건강 숲 조성과 주요 하천을 연계한 마라톤 코스 등 도심 전체를

건고 싶은 거리, 5분 내지 10분이면 도심 공원과 커뮤니티 공간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중심 녹지축의 지하화를 통해 장애 없는 '시민중심의 타운' 으로 개발된다.

또한 지역민들이 서로 단절된 독립생활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이뤄 살 수 있도록 계획되고 있다.

'소통' 과 '네트워킹' 을 콘셉트로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스포츠 종합단지, 'Skyfarm', 'Foodmall', '남도 문화 EXPO' 를 연결하는 문화벨트를 구축하는 등 남도전통문화가 꽃 피는 '22남도문화도시' 로 조성해 신도시의 진면모를 선보인다.

또한, 지구 내 순환녹지를 활용한 365일 건강체험이 가능한 도시, 평생교육관과 사이버도서관, 아카데미 빌리지 등 지적 욕구를 누구나 충전할 수 있는 '배움의 도시' 와 맛의 고장 남도의 특성을 살린 '맛 체험도시' 로 조성된다.

● **전통이 스며있는 전라남도를 주목하다**

— **관광숙박사업 운영관리 일원화**

전라남도는 해양관광자원을 비롯해 자연관광자원, 축제, 음식문화 등 다양하고 독특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관광소득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낙후의 악순환을 거듭해왔다. 관광산업은 더 이상 소비산업이 아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부의 원천이며 지역경제를 살찌우는 기간산업이기 때문이다. 관광객들이 전남을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관광산업을 주민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도록 하는 것이 전남 경제를 살리는 관건이기도 하다.

전남개발공사는 핵심사업의 하나인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운영사업의 개편을 시도하였다. 관광운영분부를 폐지하고 사업을 모두 자회사인 여수경도개발(주)로 일원화하였다. 이미 2012년 12월 한옥호텔 영산재과 해남땅끝호텔이 일원화됐으며 '모든 관광운영사업은 자회사에 일원화한다'는 전승현 사장의 방침에 따라 2013년 9월 남악골프연습장과 울돌목거북선에 뒤이어 영암 영산재도 자회사인 여수경도개발(주)이 맡게 되었다.

여수경도개발(주)는 당초 여수경도골프&리조트 운영관리 대행을 전담하는 회사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영산재, 남악골프장, 해남땅끝마을, 울돌목거북선 사업을 하면서 여수뿐만 아니라 해남, 진도, 남악, 영암 등으로 사업영역이 확대되어 전남을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있는 사명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고심 끝에 전남의 관광 레저시설 운영관리 대행 전문회사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의지를 담은 의미로 2013년 3월 전남관광(주)로 사명을 바꾸고 전남관광사업의 주역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 **전남 관광을 알리는 다양한 마케팅 전개**

아무리 멋지고 근사한 관광지라도 관광객을 모으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전남개발공사는 대표 관광사업이자 국내유일의 아일랜드 골프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여수경도골프&리조트와 지역 관광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2014년 4월 12일 여수 출신의 탤런트 백일섭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모 케이블에 방영된 '꽃보다 할배'로 또 한 번 유명세를 탄 탤런트 백일섭은 인정 많은 우리네 아버지 같은 이미지로,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아줄 것 같은 푸근한 인상이 매력적이다. 2014년 4월 24일에는 가수 남진을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했다.

● 명예홍보대사 위촉식



2014년 5월에는 세계 각국에서 입국한 50여 명의 미녀들이 오동재와 여수경도골프&리조트를 찾았다. 전남개발공사는 미스아시아 퍼시픽월드 슈퍼탤런트 선발대회에 출전하는 미녀 50여 명을 초대해 4박 5일 일정으로 여수 경도지역에 머물며 한류체험 및 각종행사, 예선전 준비를 하고, 오동재 호텔 앞에서 멋진 포즈를 취하는 등 보다 글로벌한 홍보효과를 기대하였다.

5월 21일 오전 11시에는 편백 한옥호텔 오동재에서 한국 전통 혼례를 시연하고 오후 1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전통문화와 놀이를 체험했다. 22일에는 여수경도CC에서 당시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금오도 코스를 배경으로 화보 촬영을 진행하였다. 23일에는 오전에 맥심 화보 촬영을 가진 후 오후 1시부터 경도리조트 수영장에서 수영복 촬영을 진행하였으며 일반인이 참석하는 '다문화가정 돕기 자선 디너쇼'가 펼쳐졌다. 한편 미스아시아 퍼시픽월드 슈퍼탤런트 선발대회는 중화권

양대 채널인 '미디어코프', 홍콩 '나우티비', 아시아 최고패션채널 '패션원' 등 전 세계에 증계된 만큼 전남 여수를, 그리고 전남개발공사의 핵심사업인 여수경도골프&리조트의 멋진 풍경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아시아 최고의 슈퍼탤런트에 도전하는 50여 명의 미녀들은 여수의 맛과 멋에 취해 여수 애찬가가 되었다.

또한, 여수경도리조트의 영업활성화를 위해 한화호텔&리조트(주)와 업무제휴 협약을 2012년 10월 체결했으며 한옥호텔 영산재의 영업활성화를 위해서 삼성카드와 객실 및 전통혼례 상품 판매에 관한 업무제휴 협약을 2012년 5월 체결해 다양한 판매시장 루트를 확보함으로써 상호 간 매출향상과 고객 기반 확대 등 WinWin 효과를 기대하게 되었다.

영산재, 오동재, 여수경도골프&리조트, 해남땅끝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을 운영 중인 전남개발공사는 차별화된 업무제휴 협약으로 영업활성화에 충력을 기울이고 있다.

● 미스아시아 퍼시픽월드 슈퍼탤런트 선발대회 참가자들



전통과 함께 하는 전라남도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승시키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다. 전남개발공사도 전통과 함께 하는 전남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전남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전통방식으로 지어진 고품격 한옥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전통 한옥의 멋과 호텔식 편의성, 쾌적성을 접목시킨 이른바 고급 한옥호텔은 많은 여행객들에게 눈길을 끌기 충분했고 전통 기와집 형태의 한옥호텔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해 대내·외적으로 전통과 함께 하는 전남의 모습이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

• 대학생홍보기자단의 전통문화 체험



오동재 '한국관광의 별' 선정 (체험형 숙박부문)

전라남도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7월 22일에는 '2014 한국관광의 별' 체험형 숙박부문에서 '한옥호텔 오동재'가 1위로 뽑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관광의 별'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국내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한국관광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기 위해 지난 2010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014년 2월부터 후보자를 추천하고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서류심사를 거쳐 현장실사 및 종합심사를 하는 총 4단계 선정과정을 거친다. 여수 오동재 한옥호텔은 전통 한옥호텔로 온돌과 편백나무 향기를 음미할 수 있고 전 객실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고급 한옥식 숙소이며 전남 개발공사가 운영하는 관광사업이다.

• 2014 한국관광의 별 선정체험형 숙박부문



영산재 중국영화 '아빠의 휴가' 촬영

2014년 10월에는 전남 최초의 한옥호텔인 영산재가 중국 영화의 촬영무대로 등장했다. 가족휴먼 코미디 물인 중국 영화 '아빠의 휴가' 촬영이 10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한옥호텔 영산재에서 진행되어 중국인들에게 소개되었다. 영화 '아빠의 휴가'는 2014년 초 중국에서 2천만 명 이상 관람할 정도로 흥행한 중국판 '아빠 어디가'의 후속작이다. 한편 탤런트 성동일과 성준, 성빈 남매는 MBC '일밤-아빠 어디가'의 중국판 후난TV 예능 프로그램 '아빠-어디가'의 확장판인 영화 '아빠의 휴가'에 카메오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한옥호텔 영산재는 한옥을 모티브로 한국 고유의 멋과 맛을 알리는 특색있는 숙박시설로 부상하면서 그동안 각종 언

론매체 및 교양,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된 바 있지만 중국 영화 촬영은 처음이었다. 중국 영화 촬영 유치는 전라남도 전통 한옥 숙박시설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중국 스크린 상영을 통해 중국인에게 한옥호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등 전남개발공사는 우리 문화의 고귀한 가치와 자긍심을 알리는 문화전도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중국 영화 '아빠의 휴가' 영산재 촬영 현장



### 여수경도 '한국 10대 골프장' 선정

전남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여수경도CC가 전라남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 10대 골프코스'에 잇따라 선정되었다. '서울경제 골프매거진'으로부터 '한국 10대 퍼블릭 코스'에, 골프전문지인 '골프다이제스트'로부터 '대한민국 10대 베스트 뉴 코스'에 각각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전남에서는 여수경도CC가 유일하게 선정되어 의미가 남다르다. 골프전문 월간지인 '서울경제 골프매거진'에서 선정 발표한 '2014년 한국 10대 퍼블릭 코스' 선정은 골프업체와 학계, 코스설계 등 전문가 49인이 패널로 참여했고, 온·오프라인 독자 투표와 프로와 아마추어 선수들의 설문조사를 더해 순위를 매겼다. 또한 여수경도CC는 '골프다이제스트'에서 지난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신규 개장한 4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147명의 전문 패널이 평가하는 '2014년 대한민국 10대 베스트 뉴 코스'에도 뽑혔다. 특히 '골프다이제스트'의 선정에서 여수경도CC는 경기도 양평의 디스타휴, 강원도 홍천의 블루마운틴, 경남 남해의 사우스케이프오너스, 경기도 이천의 웰링턴 골프클럽 등과 함께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았다. 여수경도 골프코스(27홀)는 해양항단형 3개홀과 바다와 홀

이 직접 맞닿아 있는 16개홀을 보유하는 등 모든 홀에서 바다가 조망되는 국내 유일의 아일랜드 골프장이다.

남해의 바다와 바람이 있는 남성적인 금오도 코스와 해상 숲과 바다를 넘나드는 경관 변화가 뚜렷한 돌산도 코스, 완만한 구릉과 다도해를 배경으로 정확한 거리를 요구하는 오동도 코스 등 홀마다 자연환경의 특색을 살려 골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선정을 계기로 여수경도CC가 국내 최상의 골프코스로 인정받아 국내 명문 골프장으로 발돋움 중이다.

이렇게 연이어 한국의 우수골프장으로 선정된 '여수경도골프&리조트'는 기존 이용자들의 입소문이 더해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4 스포츠산업대상 골프장부분' 최종 후보에 오르는 등 자연 경관과 최신 시설로 골퍼들의 인기가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여수경도CC는 2014년 6월 말 27홀을 개장한 이후 9월 말까지 총 누적내장객이 3만 2천여 명으로 평일에도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콘도미니엄도 최소 1개월 전에 주말 예약이 마감되는 등 전라남도의 관광 선도시설로서 지역관광 발전에 더욱 매진 중이다.

● 여수경도CC에서 바라본 일출



## Interview 제5대 사장 전승현

### 공익과 수익이 조화를 이룬 지방공기업의 성공모델 창출에 힘써

전국 개발공사 가운데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전남발전에 활력을 불어 넣은 전남개발공사. 그 밑거름에는 행정의 달인, 제5대 전승현 사장의 고강도 경영혁신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 등이 원동력으로 크게 작용하였다.

#### Q 성공적인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롭게 시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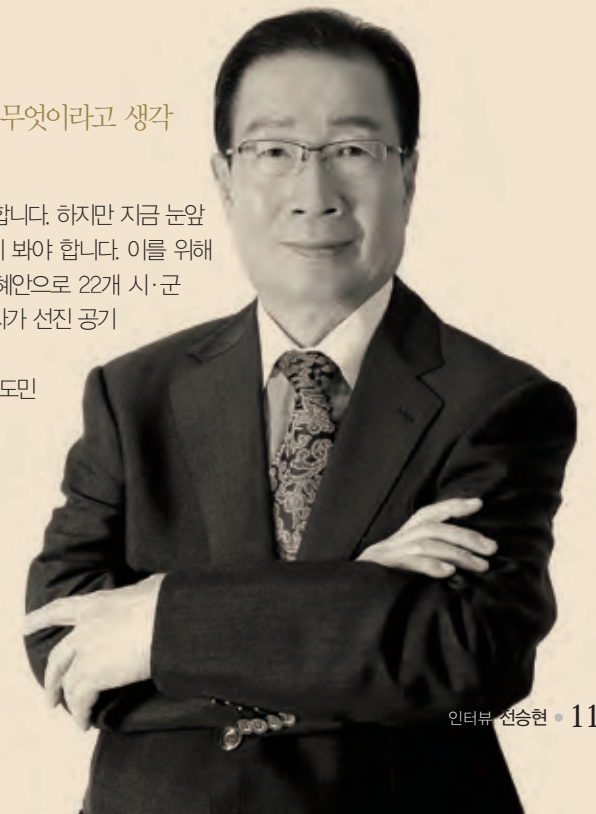
A 40여 년 전남도청에서 근무한 저는 공기업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자 전남개발공사의 역할과 방향성을 두고 깊은 고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과 차별화된 신성장 동력 발굴, 공익 부분의 수익 극대화, 재무건전성 강화 등 고강도 경영혁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전남개발공사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며 공익과 수익이 조화를 이루는 지방공기업의 성공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에 역점을 두었으며 남약골프연습장, 무안공항면세점 등 어느 정도 안정화된 사업들을 민간기업으로 돌리고 전남 도민을 위한 공익을 실현하고자 전심전력하였습니다.

#### Q 무엇보다 직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코끼리를 보려면 다리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전남 미래가치 디자이너인 직원들이 '전라남도 발전'이란 큰 그림을 성공적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행정직과 기술직 직원들이 서로 교류하며 다양한 방면에서 사업을 이해하고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전 직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보다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며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Q 창립 10주년을 맞아 앞으로 전남개발공사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2004년 창립한 공사가 숱한 어려움을 딛고 창립 10주년을 맞아 감개무량합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까운 곳을 보지 말고 멀리 그리고 넓게 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직원들의 해외연수와 폭넓은 교류활동 등을 강화하여 직원들이 넓은 해안으로 22개 시·군 곳곳에 숨겨진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전남개발공사가 선진 공기업의 반열에 반드시 오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남개발공사 창립 1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전남개발공사가 전남 도민의 기업, 최고의 공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 제2절 희망을 나누는 행복한 동행

### ● 도민을 위한 따뜻한 정 나누기 프로젝트

#### 사회공헌 활동

전남개발공사는 지역 사회의 나눔 문화를 실천함으로써 신뢰받는 도민의 기업이 되고자 사회공헌 활동 영역을 더욱 확대해 갔다. '작은 나눔의 실천,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통해 공기업의 나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나눔 활동 조직체, 나눔이 봉사단은 소외지역을 찾아 의료봉사 및 이·미용봉사, 전기공사 등의 봉사활동은 물론 특산물 구매 운동과 함께 일손 돕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역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여수 시내 노인 복지원 봉사활동 MOU를 통하여 지속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노인복지 시설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했다. 공사 사업장(호텔) 전문요리사의 특선음식을 제공하는 등 시설 청소 봉사활동과 직원 개인별 후원 계좌를 개설하는 등 지역 내 복지시설에 지속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연말에는 전남개발공사와 자매결연시설인 에덴원(전남 무안군 청계면 삼마리)에 나눔이 봉사단 29명이 참여해 김장배추(1,200포기) 버무리기, 김장용 천일염 40포대(20kg)를 지원해 사랑의 김장담그기 봉사활동도 실시하였다.

한편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우여곡절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여수경도 원주민인 어르신들을 초청해 효사랑 실천과 함께 지역 주민과의 우호관계 유지 및 사업추진 파트너십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경도주민의 날 '효사랑' 행사를 펼쳤다. 2013년 9월 11일 리조트 내 연회장에서 펼쳐진 마을 어르신 초청 오찬을 제공함으로써 마을 통반장, 어촌계장 등과 소통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주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도 반영하여 불편함을 해소해 갔다.

● 나눔이 봉사단 - 노사 공동 사랑의 희망나눔 봉사활동



● 사랑의 김장담그기 봉사활동 ● 재능나눔 봉사활동(미용) ● 재능나눔 봉사활동(의료)

나눔이 봉사단은 2013년 11월 8일부터 9일 이틀간 문화생활을 접하기 힘든 복지시설 아동들에게 바니운의 환상의 마술쇼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문화체험을 도움으로써 꿈과 희망을 전달하였다. 남악신도시 전남여성플라자 2층 공연장에서 펼쳐진 바니운의 환상의 마술쇼는 목포시 사회복지관, 삼호지역 아동센터 등 총 40명의 어린이들에게 마술쇼 관람 티켓 40장을 지원하였다.

2013년 12월에는 평소 극장과 거리가 멀어 영화 관람이 어려웠던 초·중·고 학생들을 초대하여 영화도 상영하고 디너 파티도 제공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를 추진하며 따뜻한 추억을 장을 마련하였다.

지역사회 지원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 주도로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

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전라남도 내에서는 98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기업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여수시로 7개소가 운영 중이며 장흥군, 완도군, 나주시, 순천시, 광양시는 6개소, 함평군과 해남군, 영암군, 곡성군, 고흥군은 5개소, 화순군과 진도군, 장성군과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구례군은 4개소, 영광군과 신안군, 목포시와 강진군은 2개의 마을기업이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매년 2~3곳 정도를 지정하여,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마을기업에서 생산하는 각종 제품의 구입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마을기업들의 부족한 일손돕기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2013년 하반기에는 영암 삼호무화과정보화마을에서 생산되는 무화과잼과 무화과즙을 공동구매했으며 무화과 발을 정리하는 등 일손돕기에 나서기도 하면서 도민들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있다.

Eco캐스터, 대학생 기자단 운영

• Eco캐스터 발대식



전라남도만이 지닌 문화적 특색을 반영한 Eco캐스터는 2011년 8월 발대식을 갖고 매년 다채로운 탐방 및 체험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의 발전과 미래의 모습을 참신한 생각과 시각으로 바라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생 기자단을 선발하였다.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한 전남개발공사 관련 취재를 진행(블로그 포스팅, UCC제작)하고 전남 및 전남개발공사의 특색을 잘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대학생 기자단에게는 전남개발공사 명예기자 위촉장 및 기자단증, 명함을 수여한다.

전남개발공사는 봉사하고 기부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전라남도의 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과 환경, 자연 보존을 동시에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을 수립해 '지속가능경영'의 기반을 다졌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라남도의 아름다운 경관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Eco캐스터를 결성하였다. 'Eco캐스터'는 자연, 생태 환경을 의미하는 에콜로지(ecologie)의 'Eco'와 프로그램 진행·해설자인 '캐스터(Caster)'의 합성어로, 녹색전남의 자연생태와 문화관광지를 탐사하며 보고 느낀 점을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Eco캐스터 자연생태와 문화관광지 체험활동



휴먼멘토제 '어울타리'

설립 이후 전남개발공사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보다 풍요롭고 따뜻한 좋은 이웃 만들기를 실천해오고 있다.

전남개발공사가 지역사회의 좋은 이웃이 되어 나눔과 행복에 기여함으로써 전남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라남도가 되고 더불어 전 직원이 함께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사회공헌 활동이 동료들 간에 화합과 결속력을 제고하고 있다.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1년 동안 활동했던 휴먼멘토제 '어울타리'는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사춘기에 사회적 환경(이혼, 부모의 질병에 의한 사망,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혼자서 자라야 하는 청소년들을 만나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신지체 아동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거주지를 방문하여 집안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어주며 문화를 접하기 힘들었던 아이들과 영화관람 및 놀이동산을 함

께 가지고 학교와 사회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멘토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방과후 교육비와 언어치료실 수강비, 음악교습비와 보일러 수리비 등 경제적 지원활동도 아끼지 않았다.

대상아동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및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조손가정 자녀 등 총 7명이다. 여직원 동호회인 여우회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집안 환경을 사전에 파악해 3개조로 편성하고 정성을 다해 후원활동을 펼쳤다.

휴먼멘토제 '어울타리'
<p>여우회(여직원 동호회) + 울타리의 합성어.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사춘기에 유혹의 손길과 방황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개인의 발전을 위하여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뜻에서 울타리 의미를 사용함.</p>

• 휴먼멘토제 '어울타리' 활동 모습



## Interview 제5대 노조위원장 김재욱

### •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적인 노사문화 창출!

노사가 하나로 뭉쳐 상생의 노사문화를 추구하고 있는 전남개발공사! 제5대 김재욱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열정과 땀으로 인해 공사가 큰 발전을 이룬 데 대해 조합원들과 함께 자축하며 향후 더욱 발전하는 전남개발공사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 Q 전일염 사업의 원년 멤버로서 가장 보람되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A 전남개발공사에서 전라남도의 특산품인 천일염 사업을 벌이자 당시 대한염업조합에서 근무한 저는 2008년 5월에 입사, 사업심사팀에서 천일염 품질관리, 신제품을 개발하고 홍보 및 판매전략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천일염 사업이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쉬운 점도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천일염 생산자의 소금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함으로써 염업인들로부터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듣게 된 게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 Q 전남개발공사가 6년 연속 노사평화 선언과 무분규 타결을 해 온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전남개발공사 노사는 건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상생 협력하기 위해 2009년부터 6년 연속 평화선언을 해왔습니다. 조합원 모두가 '노와 사는 하나'라는 인식으로 공사는 물론, 전라남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적인 노사문화를 창출한 것입니다. 이 노사평화 선언을 계기로 지속적인 기업가치 창출 등 상생의 신노사문화 확산에도 더욱 힘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 Q 제5대 노조위원장으로 운영 방침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A 2014년 2월 28일 출범식을 갖고 힘차게 출발한 제5대 노동조합! 저는 '연구하는 노동조합'이란 슬로건으로 조합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동조합, 정책 연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조합을 정립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매년 노사의 소통·화합을 위해 노사화합체육대회와 가족동반 등반대회, 탁구대회, 전 직원 워크숍 등을 개최하며 직원들의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 JFC축구회, 힐링풍, 여우회, 사진·독서동아리 등 소모임에 대한 격려와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 가족들도 건강검진을 저렴한 가격으로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복리후생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공기업 노동조합으로서 아름다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Interview 여우회 회장 박향진

### • 아름다운 직장문화 확산에 일조하는 여우회!

전남개발공사 입사 8년 이래로 남악신도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뚝 부러지게 해내는 여우회! 바로 여우회 박향진 회장이다. 상전벽해로 변한 전라남도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를 짓는 박향진 회장은 아름다운 직장문화를 만드는 숨은 주역이다.

#### Q 2008년 6월에 출범한 '여우회'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A '여성사우회'의 준말쯤 되는 '여우회'는 처음 이름 때문에 남자 직원들이 "늑대회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모임인 만큼 무엇보다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여우회의 가장 우선 순위입니다. 택지개발 등이 주요 사업인 전남개발공사에서 회원들의 역할은 아주 큼니다.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김희영 과장, 조성용지 분야를 담당하는 김선숙 과장과 현해란 대리,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정윤경 대리,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김은지 주임, 기능인재로 입사한 김보라 사원 등 여우회 회원들은 예산·비서·대외업무 등 그야말로 전남개발공사 전체 요소요소에서 각자의 몫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Q '여우회'에서 추진하는 일은 주로 무엇입니까?

A 기혼·미혼 여성이 함께 하는 '여우회'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만나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의 숙박시설인 한옥호텔 영산재, 오동재, 여수경도골프&리조트, 해남땅끝호텔을 직접 체험하고 천일염 등을 먼저 사용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는 데도 적극적입니다.  
아울러 노사공동 사회 공헌 활동인 휴먼멘토제 '여울타리'와 따뜻한 겨울나기 위문활동을 적극 추진하며 자체 봉사활동으로 제3국의 난민들을 지원하는 옷 기증(옷캔)활동과 사랑의 빵 모금운동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기념일에 임·직원들에게 선물을 챙겨주며 매년 열리는 '전국도시개발공사 축구대회'에 전원 참가해 열띤 응원을 벌인 결과, 응원상을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 Q 앞으로 직원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A 지금까지 추진한 사회 공헌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휴먼멘토제 '여울타리' 활동으로 평소 소외감이 많았던 아이들과 우리 지역의 맛과 문화, 생태를 함께 공유하며 소통한 경험이 훈훈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휴먼멘토제 '여울타리'처럼 여우회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전남개발공사의 아름다운 나눔의 씨앗을 널리 퍼트리고 싶습니다.



### 제3절 도민의 행복을 이어가다

#### ● 전남의 미래를 향해 끝없이 비상하다

##### 전남개발공사 10년의 빛과 그림자

전남개발공사는 2004년 6월 설립된 이후 남약신도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 등 대형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등 지역개발사업을 주도하여 왔으며, 여수경도리조트, 한옥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을 건립·운영하고, F1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과 각종 도립 공공시설 건립 등 전라남도 시책사업을 위탁받아 실행에 앞장서 왔다.

전남개발공사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남약신도시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을 통해 전남도청과 한국전력공사 등 각급 기관의 이전을 도왔으며, 도민에게 편안하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였다.

아울러 낙후된 도내 산업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남 중부권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약 2,700천㎡의 새로운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향후 이 지역에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의 기반을 구축하고, 관광분야에서도 고급 숙박시설 건립을 통해 열악한 전남지역의 관광인프라를 개선하고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했다.

이러한 사업 확대와 성과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자산규모가 1조 2천억 원으로 급속히 성장한 가운데 내부 경영 측면

에서도 '도민에게 감동 주고 사랑받는 JNDC'를 모토로 하여 지난 10년간 다방면에 걸쳐 안정적인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경영전략 수립, 신인사제도 도입, 재무투명성 제고, 경영정보화 추진, ISO 도입,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등 신(新) 경영기법들을 꾸준히 도입하고 개선해 경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왔다. 특히 청렴도조사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매년 지방공기업 중 상위권에 유지하는 등 윤리경영과 고객만족부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온 점은 자랑할 만한 성과이다.

그러나 전남개발공사의 고속성장의 이면에는 그림자도 있다. 공기업은 공익성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있어야 한다. 즉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뤄야만 하는 것이다. 그동안 성장 동력이 되었던 대규모 국책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반면에 산업단지와 관광숙박시설은 아직도 초기 단계에 있다. 개발사업과 관광숙박시설사업은 특성상 초기에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반면에 투자금 회수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에 대응하는 장기적 자금 유동성 확보가 관건이다.

특히 분양성과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전남의 경제여건에 앞선 일부 선제적 투자 사업은 향후 공사의 수익성 악화를 야기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제2의 도약을 꿈꾸며

지난 1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10년이 시작하는 2015년.

2015년 1월 23일 제2의 도약을 위한 공사의 개혁을 이끌 제6대 사장으로 양지문 사장이 취임했다. 양지문 사장은 전남 무안 출신으로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지방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5·18구속자 동지회부회장, 국회의원 보좌관, 옛 민주당 중소기업특위 부위원장, 전남도 중소기업특보 등을 역임하며 전라남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완수하며 탁월한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 제6대 양지문 사장 취임식



양지문 사장의 취임과 함께 도민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전남개발공사는 내·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공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10년의 성공을 이어가고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방향으로 재무건전성 강화, 미래 신산업 분야 개척, 소통·공유·상생의 조직문화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확립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룬 공기업으로 제2의 도약을 이룬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전남개발공사는 변화와 혁신, 도전적 가치의 공유, 전문성과 상호 존중, 고객지향이 핵심가치가 되어 미래를 향한 혁신, 전남의 신(新) 가치창출을 비전이라는 새로운 비전과 함께 제2의 도약을 위한 사업 조정과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사는 먼저 남약신도시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등 기존 개발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나갈 것이며, 새로운 후속 개발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적자가 누적되거나 민간부문과 투자가 중복되는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매각과 민간이양을 서둘러 갈 예정이다. 매각과 민간이양 이전 단계에서는 가치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 또한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개발사업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전남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갈 것이다.

전남개발공사는 끝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전라남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끈다는 미션을 달성하여 도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최고의 공기업으로서 전남의 미래를 향해 끝없이 비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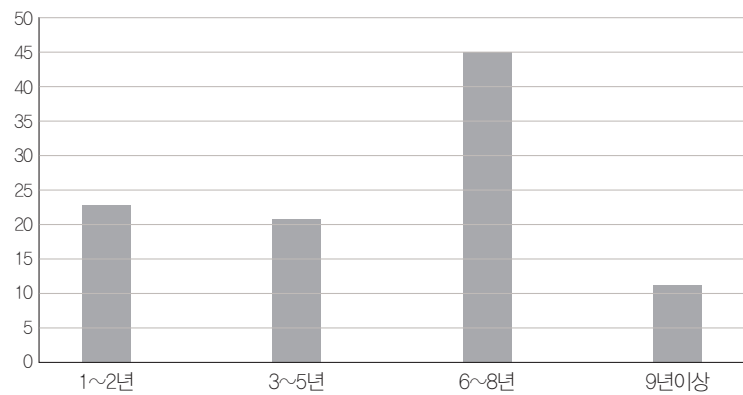


# 전남개발공사 사원 설문조사 결과

※ 전남개발공사 10년사 편집팀은 「전남에 살어리랏다」 창간에 앞서 '사원과 함께 만드는 10년사'라는 의미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남개발공사 창립 10주년을 맞아 과거를 되돌아보고 시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앞으로 공사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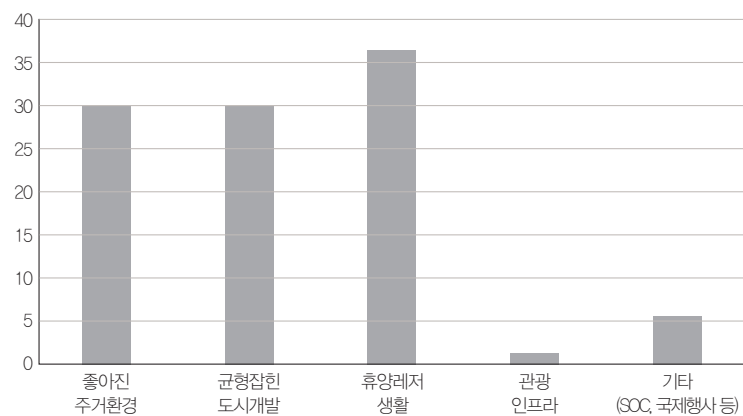
- 조사대상: 전남개발공사 전 직원
- 참여인원: 103명 응답
- 조사기간: 2014년 7월 11일~ 7월 25일
- 조사방법: 설문지 조사(중복 선택 합산)

## 1. 전남개발공사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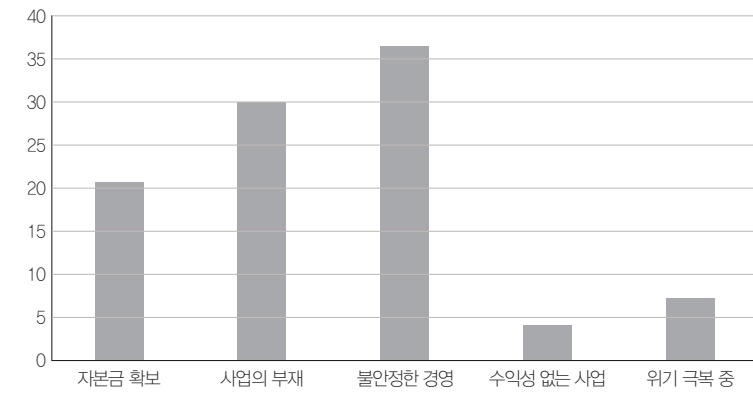
**첫 번째,** 공사의 근무연수를 묻는 질문에 6~8년 동안 근무한 직원이 45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주로 40대로 각 팀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 그다음으로 1~2년과 3~5년 동안 근무한 직원이 각각 23명과 21명으로 나타났으며 공사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9년 이상 생사고락을 함께 한 직원도 무려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전남이 크게 변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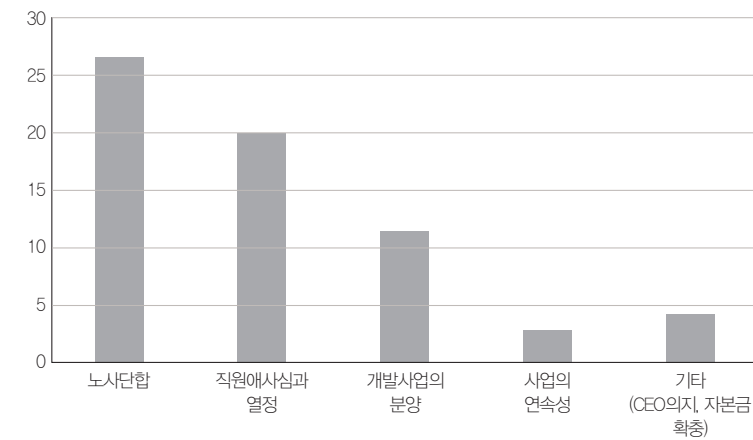
**두 번째,** 직원들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전남이 가장 크게 변한 부분으로 휴양레저생활(37명)을 손꼽았으며 그다음으로 좋아진 주거환경(30명)과 균형 잡힌 도시개발(30명)을 선정했다. 이 외에도 관광 인프라와 서부권과 동부권을 잇는 SOC(고속도로) 확충, 2012여수세계박람회·순천정원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전남을 널리 알리게 된 것이 10년 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이라고 응답하였다.

## 3. 지금까지 전남개발공사가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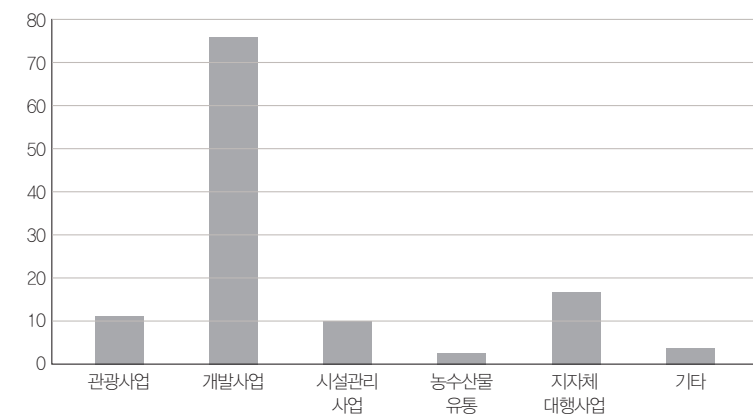
**세 번째,** 지금까지 전남개발공사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인원이 불안정한 경영(36명)을 손꼽았으며 그다음으로 사업의 부재(30명)와 자본금 확보(21명), 수익성 없는 사업(4명)을 선정했다. 반면 7명의 직원이 현재 전 임·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3-1. 힘들었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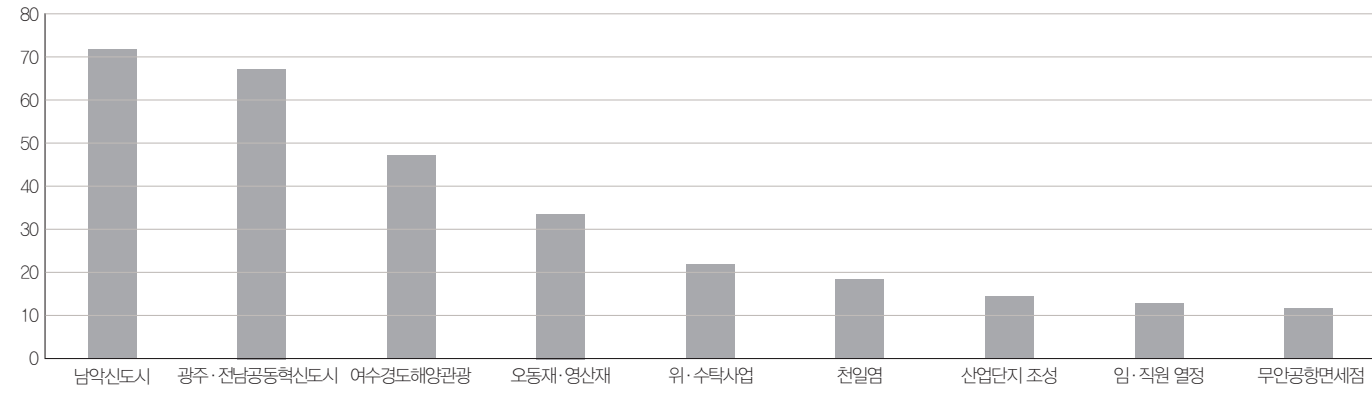
**세 번째** 질문과 관련해 '공사가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묻자 27명의 직원이 노사화합을, 20명의 직원이 직원들의 애사심과 열정으로 힘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가 곧 기회'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끊임없이 노력한 것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다음으로 개발사업의 활발한 분양(12명)과 사업의 연속성(3명), CEO의 강한 추진력, 자본금 확충 또한 공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전남개발공사의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해 주는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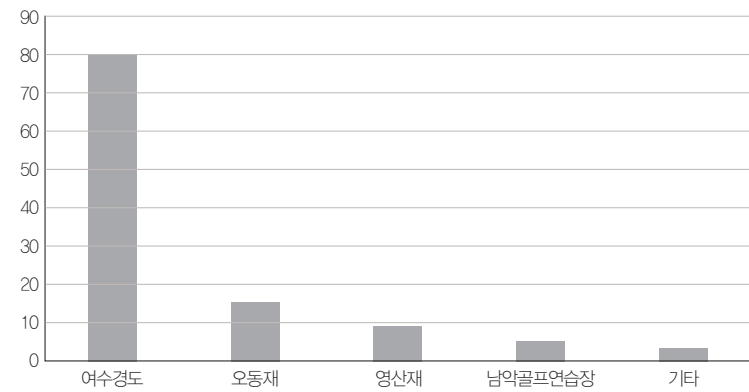
**네 번째,** '공사의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해 주는 사업'을 묻는 질문에서는 예상대로 직원 76명이 남약신도시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등 개발사업을 선정해 거의 압도적인 결과를 낳았다. 사업 초기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는 개발사업은 분양시기가 되면 분양대금을 회수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한다는 게 직원들의 의견이다. 또한 수수료 이익이 확보되는 지자체 대행사업(17명)과 관광사업(11명), 시설관리사업(10명), 농수산물유통사업(2명)도 공사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지금의 전남발전을 이끌고 전남개발공사를 빛낸 ‘베스트 10’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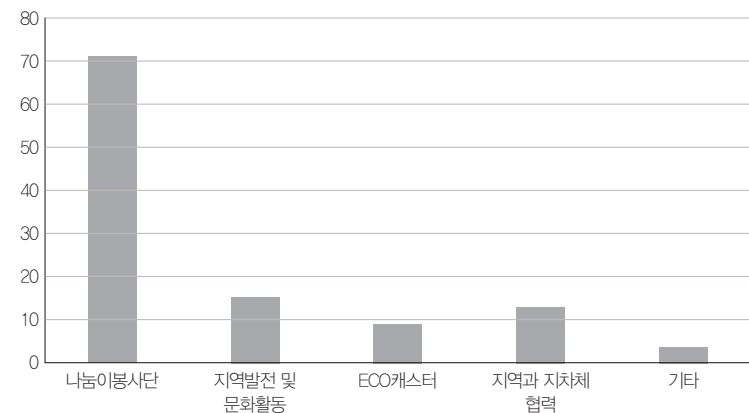
**다섯 번째**, ‘전남개발공사를 빛낸 베스트 10’을 선정하는 물음에 직원들의 호응이 높아 중복 답변이 가장 많았다. 베스트 10으로 제일 많이 선정된 것은 무려 72명의 직원이 선정한 남약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66명의 직원이 선정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사업이다. 그 뒤를 이어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및 리조트 사업이 46명, 한옥호텔 오동재·영산재가 33명, F1국제자동차경주장 등 위·수탁사업이 21명, 천일염 사업이 19명,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14명, 전 임·직원의 열정이 13명, 무안공항면세점이 1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발전을 이끌어간 주역은 뭐니 뭐니 해도 전 임·직원’이라고 강하게 피력하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이 외에도 베스트 10에 들지 않더라도 기히 공사를 빛낸 값진 보물들을 찾을 수가 있었다. 장성황룡마을(8명), 남약골프연습장(8명), 울돌목거북선(4명), 해남땅끝마을(4명) 물론, 전남개발공사빌딩 신축(7명)과 사회 공헌 활동(4명), 6년 연속 노사평화 선언(2명), 국가생산성대상 수상(2명), ‘2012 반부패청렴도평가’ 최우수기관 선정(2명), 경영평가 2등급 달성 등도 그동안 전남개발공사가 열심히 뛰어온 흔적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6.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한 사업 가운데 최고의 여행지, 레저 휴양 시설은 어디입니까?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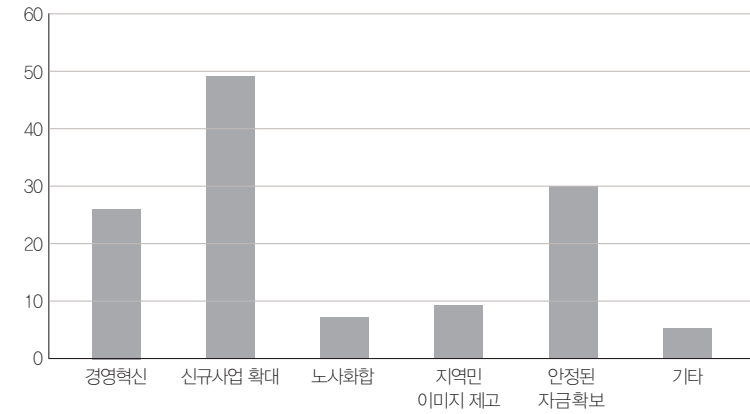
**여섯 번째**, 공사가 추진한 사업 가운데 최고의 여행지를 묻는 질문에서 대다수의 직원이 여수경도(80명)를 손꼽았다. 여수 경도는 섬 고유의 매력과 관광자원이 잘 어우러진 롤모델로서 세계 휴양지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 이어서 직원들은 최고의 여행지로 한옥호텔 오동재(15명)와 영산재(9명)를 선호했으며 남약골프연습장(6명), F1 국제자동차경주장(1명)과 해남땅끝호텔(1명)도 전남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회 공헌 활동 중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단위: 명)



**일곱 번째**,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회 공헌 활동 중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 71명의 직원들이 나눔이 봉사단을 선정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 및 문화활동(15명), 지역과 지자체 협력(13명), ECO캐스터(8명), 여우회 봉사(2명) 등을 통해서도 전남개발공사가 전남 도민에게 도움 주고 신뢰 받는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8. 전남개발공사가 최고의 공기업으로 자리를 굳히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명)



**여덟 번째**, ‘전남개발공사가 최고의 공기업으로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점’을 묻는 질문에 49명의 직원들이 신규 사업 확대를 손꼽았다. 다음으로 안정된 자금확보가 30명, 경영혁신이 26명, 지역민 이미지 제고가 9명, 노사화합이 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기서 눈에겨봐야 할 것은 최고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영혁신과 신규사업 확대, 안정된 자금확보 등이 서로 조화를 이뤄야만 최고의 공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9. 전남개발공사에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인상 깊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103명의 응답자가 답한 ‘전남개발공사에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인상 깊었던 일’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낙후된 전남이 발전하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끼는 **업무성취형**, ■실력이 향상되는 자신을 보며 자부심을 느끼는 **자기가발형**, ■지역민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봉사를 하는 **자원봉사형**, ■위기상황을 직원들의 화합과 소통으로 이겨낸 **직원화합형**으로 집약된다.

업무성취형	- 도청만 덩그러니 있던 남약신도시에 빌딩과 아파트가 들어서고 사람이 북적일 때 (도시개발팀 김세훈 ©)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다시 찾게 되었을 때 활성화된 도시를 보며 자부심을 느끼고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 (빛가람사업단 이진태 ©) - 숙박시설을 준공·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지만 개관 후, 가족과 지인들이 방문해서 만족스러워할 때 (경영혁신팀 박우영 ©)
자기가발형	- 건축기술로서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지식과 경험이 점점 쌓여가는 나를 보게 된다. (사원지원팀 이상원 ©) - 외부 용역 없이 자력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절감한 내용이 타당성에 맞다고 적중됐을 때 (도시개발팀 정승호 ©)
자원봉사형	- 지난 여수 기름유출 사고 때 직원들과 함께 피해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을 벌여 도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어서 기쁘다. (KCS사업단 황재경/윤현주 ©) - 급식 봉사, 마을기업, 일손 돕기 등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전 임·직원이 화합하여 도울 때 (기업지원팀 이태훈 ©)
직원화합형	- 남약골프연습장과 영산재 등 개관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동료들 간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면서 결국 기한 내 일을 잘 마무리했을 때 (빛가람사업단 이춘복 ©) -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도민회의 질타에 맞서 전 임·직원이 하나 되어 도청 앞 1인 시위에 동참했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다. (사업지원팀 김윤수 ©)

## 설문조사 후기

자본금 확보, 사업의 부재, 불안정한 경영 등 전남개발공사는 2004년 창립 이래 크고 작은 장애물을 넘어야만 하였다. 하지만 CEO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토지분양에 성공하고 자본금을 확충, 신규 사업을 확대하면서 수없이 많은 위기를 극복하였다.

이렇게 전남개발공사가 2012년 최대 흑자를 달성하고 건실한 지방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심에는 전 임·직원의 자칫 줄 모르는 열정과 새로운 도전 정신, 그리고 노사의 화합이 큰 힘을 발휘하였다.

지금도 전 임·직원은 전남발전이 기여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전라남도의 발전의 청사진을 그려가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 전 임·직원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도민의 사랑과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힘차게 재도약하고 있다.



후배들에게 자랑스런 선배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나가겠습니다.  
- 김대준



입사부터 지금까지 공사가 저를 키워줬으니 이제부터 제가 공사를 키우는 1인이 되겠습니다.  
- 이상원



잘 사는 전남, 살고 싶은 전남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근영



자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노력합니다!  
- 신정훈



지금까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100년 동안 영속할 수 있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진선화



긍정적인 마인드와 성실함으로 본인의 업무에서 최대 역량을 발휘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 허준희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오리라 확신합니다. 열심히 땀 흘리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 채경신



전남개발공사가 훗날 우리 자녀가 입사해서 다니는 건실한 공기업으로 받들어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 이태훈

### 창립 10주년을 맞은 '전남 미래가치 디자이너' 의 힘찬 각오



윤주석 조지숙 김정선



전남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자기개발 및 직원들 간의 화합과 소통에 앞장서겠습니다.  
- 김규환



김재홍 김광재 신창석

입사하고 싶은 회사 1위 전남개발공사 가 될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 신창석



김보라



100년을 위해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김인협



장상기



정년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만큼 주어진 소명의 보람을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일엽

김완수



장준길 김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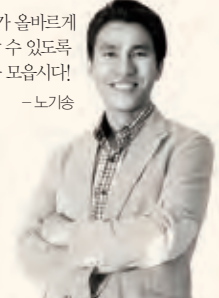
향후 20년, 30년 후에도 전남개발공사의 사사가 편찬될 수 있도록 공사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은지

윤영주

백형수



공사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 노기송



김은애 노병구



박기정



박정호

도구가 아닌 뭔가 의미있는 시간이 되어 작게나마 먼 훗날 보람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싶습니다.  
- 강총열



김상천



김문정



김진일



윤주일



조순익



이현웅

채창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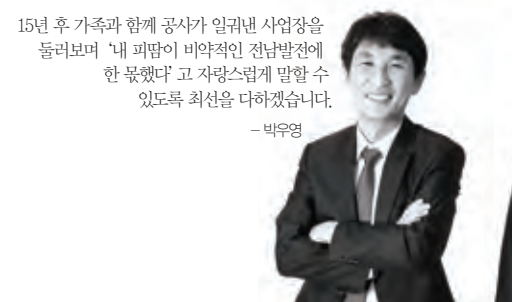
바로 내가 전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라고 생각하며 현재 맡고 있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 박형수



박형수



문영기



박우영

고혜빈

15년 후 가족과 함께 공사가 일궈낸 사업장을 둘러보며 '내 피담이 비약적인 전남발전에 한 몫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우영

변하지 않는 심장으로 전남을 사랑하며 최고의 전남개발공사를 만들기 위한 마음으로 모든 직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정종민



정종민



인경

앞으로 보다 성실한 마음가짐과 최고의 기술력으로 지역과 사회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정원주

문재민 김천호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으로 나를 발전시키고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가 되어 회사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구판서

임시영







이동현 전세웅

하진호 박향진 김중준

황재명








이주형

본연의 자리에서 공사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유철

김희영

'전남개발공사인'이었음을 평생의 자부심으로 가질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니다.  
-윤영국

이한













김재욱

소통하면서 가족처럼 어울리고 싶은 회사, 전남개발공사 파이팅!  
-박동규

임기욱

공사가 영속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주춧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뛰겠습니다.  
-장승호

김지민 정원주

현해란 정성택

지금보다 더 나은 나와 공사를 위해 한 걸음 더 발전하겠습니다.  
-신은주

김성수

남따러지에서 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떨어지면 마지막이지만 돌아서면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듯이 언제나 뒤를 돌아보는 삶이 되시길...  
-윤춘호







윤미선 이준태 김희곤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공사와 더 나아가 전남의 10년을 책임지는 '진정한 미래까지 디자이너'로 성장하겠습니다.  
-박은지

이준복

천국은 노동과 고통 뒤에 숨어 있다! 처음 입사했을 때의 힘찬 각오와 열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준복







이현수

강경미 이재희

최훈경 박수연 김현중








이강욱 고인섭

10년은 백년지대계의 시작! 더욱더 세련되고 성숙해지는 전남개발공사가 됩시다.  
-허경주

빅기영 김세훈

긍정적 사고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빅태양













김재두

공채 1기로서 위로는 선배님을 잘 보좌하고 아래로는 후배님들을 잘 리드하는 강한 허리가 되겠습니다.  
-현현석

김성현 김한울 이연욱

김세미 김근희 양정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 어려운 시기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윤경

이승민













정장면 최현석 박철욱

'전남의 미래까지 디자이너'라는 말처럼 전남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전남의 발전에 헌신이 되겠습니다.  
-김동현

홍병환 최중원

전동호 박영귀 김중운

20년, 30년 후에 직원 천 명 이상이 근무하는 최고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용기

윤현주







2004

# 部門史

제2부

## 부문사

- 제1장 개발사업 부문
- 제2장 운영사업 부문
- 제3장 위·수탁·출자사업 부문

2014



2004  
~  
2014

제1장  
개발사업부문

- 남악신도시 개발사업(남악·오룡지구)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사업
-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
- 강진환경산업단지 조성사업
- 장성황룡행복마을 조성사업



● 남악지구 전경

서남해안 시대의 중심, 남악신도시  
남악지구 택지개발사업



● 남악신도시 조감도

사업위치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개발면적	3,632천 m <sup>2</sup>
사업비	5,410억 원
-	
2002. 06.	개발계획 승인
2003. 06.	남악지구 사업 착공
2005. 10.	전남도청 이전
2005. 11.	전남도청 개청식
2005. 12.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이관(전라남도→전남개발공사)
2006. 01.	남악신도시 및 공영개발사업 인수
2007. 06.	환경영향대상 수상(한국경제신문)
2007. 08.	타당성 조사에 대한 협약 계약
2008. 10.	한국스카우트연맹 첫 입주
2011. 06.	남악지구 택지조성 공사 완료
2013. 01.	공공시설물 무안군 인계·인수
2013. 12.	남악지구 사업 종료

2003. 06. ~ 2013. 12.

部 門 史

행정과 국제 교류, 서남해안 시대 중심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남악신도시!

10년 전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던 땅은 공공청사와 아파트 단지로 눈부시게 채워졌고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남 무안군은 22년 만에 인구 8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다.

전남개발공사는 상전벽해의 대명사, 새로운 남악시대 개막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남악신도시 개발에 많은 공을 들였다.

신도청 남악에 새 보금자리 마련

1993년 5월 전라남도 청사를 전남 관내로 이전한다는 결정과 함께 가장 많이 주목받은 곳은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일대다. 21세기 전남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자치시대 도청의 위상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지역으로 손꼽힌 것이다. 전라남도는 2000년 3월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2001년 10월 신도청을 착공, 이듬해 남악신도시 택지조성공사를 착수하였다.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인구 15만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목포시 옥암동 및 무안군 삼향읍 일원에 1단계로 옥암·남악·오룡지구 270만 평, 2단계로 임성지구 90만 평, 3단계로 망월지구 80만 평을 각각 개발하게 된다. 그 후 4년의 공사 끝에 전라남도 신청사는 오룡산 자락 7만여 평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 2005년 11월 11일 개청식을 열었다.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에 첫 발을 내딛다

109년간의 광주시대를 마감하고 서남해안 시대를 새롭게 연 전라남도는 보다 전략적으로 남악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동안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주관해오던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전남개발공사에 이관하였다.

2006년 1월 남악신도시 및 공영사업 인수, 전남개발공사가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에 첫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었다.

이로써 목포시 부주동에 해당하는 옥암지구는 목포시가, 무안군 삼향읍 남악에 위치한 남악지구는 전남개발공사가 개발하게 되었다.

남악지구는 대죽방호제 건설에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간척지로 지가가 저렴하며 지장물 또한 적어서 조성사업과 보상업무가 빠르게 진척되었다. 개발사업소를 현장에 개설한



● 남악지구 개발 전 항공사진 ● 전남도청 이전 후 전경사진

공사는 택지조성사업을 책임감리체제로 시행하였고 현장 감독업무를 통한 품질·시공·공정관리의 안전 및 환경 관리를 실시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각종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공사 이미지 제고 및 고객만족을 실현하였다.





●오룡지구 조감도

친환경 생태도시,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2003.04. ~ 202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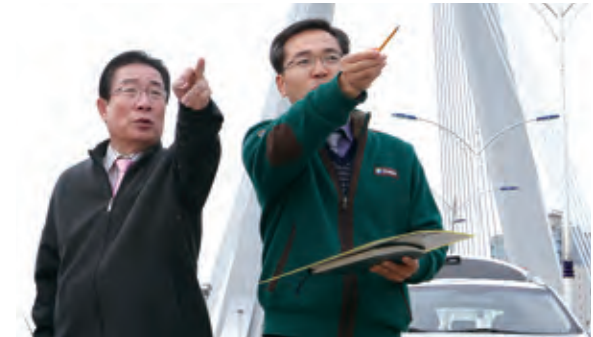
●중심녹지축 교량 그림

사업위치	전남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개발면적	2,702천 m <sup>2</sup> (계획인구 2만 2천 명)
사업비	5,280억 원 (보상비 242, 조성비 4,746, 기타 292)
-	
2001. 04.	오룡지구 개발 예정지구 최초 수립
2002. 06.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국토해양부)
2005. 07.	오룡지구 실시설계용역 착수
2005. 12.	오룡지구 실시 계획 승인·고시
2010. 06.	수변생태도시 계획안 수립
2011. 01.	개발 계획 및 영향평가 수립 용역 착수
2013. 11.	개발계획 변경(14차) 승인 및 고시
2013. 12.	남악지구 택지개발 준공
2014. 02.	실시 계획 변경 1차 승인 및 고시
2014. 04.	오룡지구 택지개발 1단계 착공
2014. 08.	1단계 사업 현장사무실 개소

部 門 史

그동안 아껴둔 땅, 전남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일대가 긴 동면에서 깨어났다.

남악신도시 조성사업 가운데 1단계인 남악·옥암지구는 이미 조성이 마무리된 상태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오룡지구. 전남개발공사는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활기를 띠며 남악신도시 새 그림을 그리고 있다.



●오룡지구 현장방문

오룡지구 택지개발 본격 착공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은 5천280억 원 사업비를 들여 2021년까지 3단계로 나눠 개발된다. 2001년 4월 오룡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최초로 지정된 후 전남개발공사는 2002년 6월 국토해양부로부터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승인받았고 2005년 7월 오룡지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다.

전남개발공사는 성공적인 오룡지구 개발을 위해 무엇보다 경기 침체에 따른 환경 변화와 남악지구의 인구 유입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분양 및 발주 시기를 조절하였다.

더구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투자 적기'라는 결과가 나오고 무안군과의 이견이 좁혀진 조정안이 수용됨에 따라 2013년 11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오룡지구 개발(변경) 계획안이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4월 7일 1단계 사업 지구 첫 삽을 올리게 되었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선진 감리 기술을 도입하였고, 택지 3개 공구 및 남창 6교 공사의 공사비 일부를 남악신도시 토지 대물로 지급하는 대물변제 방식을 추진하였다.

또한 옥암, 남악 신도심 지역으로 유입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배출되는 하수량도 늘어나고 있어 전남개발공사와 목포시는 2013년 3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협약을 체결한 후 처리용량을 기존 일일 1만 2천 톤에서 2만 2천 톤으로 증설해 안정적으로 하수를 처리할 예정이다.

수변생태도시 고품격 명품도시, 오룡지구

오룡지구의 건설 목표는 '인공 숲을 활용한 건강도시', '물 순환 시스템이 도입된 자원순환도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한 재생에너지 도시'다.

중심 녹지축의 지중화를 통해 '장애 없는 시민중심의 타운'으로 개발하여 도심 전체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고 지역민들 간 소통이 강화된 문화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거대한 인구 유입 물결 예고편인 오룡지구! 2만 2천여 명 규모의 주거와 교육, 스포츠 시설 중심 수변생태도시, 지역 경제에 신바람을 일으키는 오룡지구의 화려한 서막이 시작되었다.

●오룡지구 전경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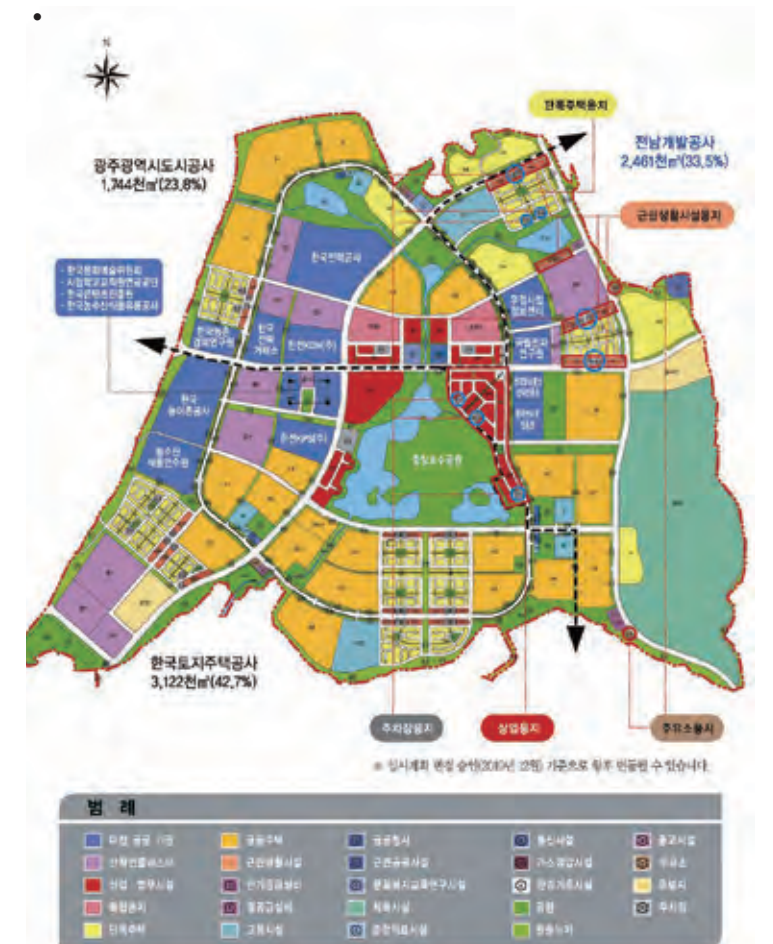
하루하루가 다르게 친환경 미래형 도시의 위용을 갖추고 있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의 이사 행렬이 가속화되면서 대한민국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다. 새로운 빛가람 시대를 열기 위해 불철주야 달려온 전남개발공사로서는 감회가 새롭다.

###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첫걸음

2000년대 국토균형 발전을 지향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바로 '혁신도시'다. 2003년 6월 12일 대구에서 개최된 '제9차 국정과제 회의'에서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구상'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발의가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후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수립 및 발표되었고 같은 해 11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입지 선정이 완료되었다.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일대 733만 4천 m<sup>2</sup>에 총 사업비로 1조 4,175억 원이 투입되는 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며 유일하게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 이주민을 위한 고객 서비스 실현

공동사업시행사인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한국토지공사 2006년 2월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16개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높은 주거와 교육, 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친환경 신도시 개발이 첫 발을 떼었다. 총 4,093억 원 사업비로 2,461천 m<sup>2</sup> 면적을 조성하는 전남개발공사는 시행사 중 처음으로 나주 현장에 사무실을 개소하여 토지조사 및 지장물 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혁신도시사업단을 신설해 토지보상 및 기술 개발과 시공 방법 개선 등 도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사무소에서 주민들의 무료법률 및 세무 상담을 하였고 주민설명회를 수시로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원스톱 고객 만족 서비스를 실현하였다. 아울러 개발사업으로 인해 고향 마을을 잃어버린 주민들을 위한 사이버전시관을 구축하고 마을 민속지 및 화보집을 발간·보급함으로써 주민들의 향수권을 보장하였다.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계획도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 현장

## 국토균형 발전, 빛가람 시대를 열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사업

사업위치 나주시 빛가람동(금천면·산포면 일원)  
개발면적 2,461천 m<sup>2</sup> (계획인구 5만 명)  
사업비 4,093억 원(보상비 1,580, 조성비 2,513)

- 2003. 06.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발표
- 2005. 11. 혁신도시 입지 선정 발표(광주·전남)
- 2006. 02. 사업시행합의서 체결(전라남도, 광주광역시, 한국토지공사)
- 2007. 04. 10개 혁신도시 지구 지정 완료
- 2007. 05. 사업시행합의서 체결(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한국토지공사)
- 2007. 10. 공동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확인
- 2007. 11. 기공식 및 공사 착공
- 2008. 11. 토지공급 승인(국토해양부)
- 2009. 05. 혁신도시 조성공사 착공(전남개발공사 구간)
- 2011. 04. 우정사업정보센터 청사 첫 착공
- 2011. 09. 한국전력공사 신사옥 착공
- 2012. 04. 지구외도로 공사 착공
- 2012. 06. 조경공사 착공

- 2013. 03. 우정사업정보센터 입주
- 2014. 0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입주
- 2014. 06. 국립전파연구원 입주
- 2013. 04. 부지조성 공사 완료
- 2013. 12. 1단계 사업 준공
- 2014. 03. 전망대 건립공사 착공
- 2014. 11. 한국전력공사 입주

### 빛과 물이 하나 되는 생명도시 건설

2007년 11월 첫 삽을 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타 혁신 도시와 차별화된 독특한 도시특화계획을 설계하였다. 도심지에 자리 잡은 배매산을 중심으로 52만 m<sup>2</sup>가 넘는 방대한 인공호수를 조성하는 블루네트워크, 도심지에 공원을 많이 조성함으로써 풍부한 녹지를 조성하는 그린네트워크, 도시 곳곳에 도보·자전거 도로를 마련해서 거주민들이 서로 오고 가는 휴먼네트워크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남도의 전통이 묻어나고 생활에 품격과 여유가 더해지는 컬처네트워크로 인공호수 주변에 종합문화예술 시설과 공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문화와 예술의 중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또한 공동 주택에 태양열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며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을 지중화하였고 빗물을 조정·청소용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빗물저장시설을 설치해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특히 혁신도시의 중앙 수변공원과 단지 내 720천 m<sup>2</sup> 규모의 골프장은 도시 랜드마크의 기능을 독특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성공적인 분양률 기록

드디어 전남개발공사의 합리적인 분양 정책과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진가를 발휘하였다. 임·직원들이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로 댄 결과, 다른 시행사보다 제일 먼저 공사 구간으로 이전하는 한국전파진흥원과 2010년 7월 16일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11년 3월 25일 향토기업인 (주)부영주택과 공동주택 용지와 골프장 부지 등 104만 4,527m<sup>2</sup>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민간 건설사가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용지를 대규모로 사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아가 임·직원들이 건설사와 부동산 시행업체를 직접 만나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벌인 결과, 2012년 공사 구간의 단독주택지역 분양이 45:1이라는 유례없는 성공적인 분양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남문화산업진흥원과 2013년 8월 28일 산학연 클러스터 12부지 5천 136m<sup>2</sup>의 공급계약을 맺었다. 산학연 클러스터 12부지는 정보 통신 분야 입지 블록으로 실감미디어산업 기반 조성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 지역경관 명소, 혁신도시 전망대

2014년 5월에 착공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전망대 건립공사가 2016년 3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전망대 공사가 완료되면 혁신도시 내 도시와 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랜드마크 역할을 함으로써 향후 지역의 명소가 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이 건립공사에는 모두 1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연면적 3천 864m<sup>2</sup>로 지상 2층 규모의 전시·관리동과 높이 23.5m의 전망대가 들어서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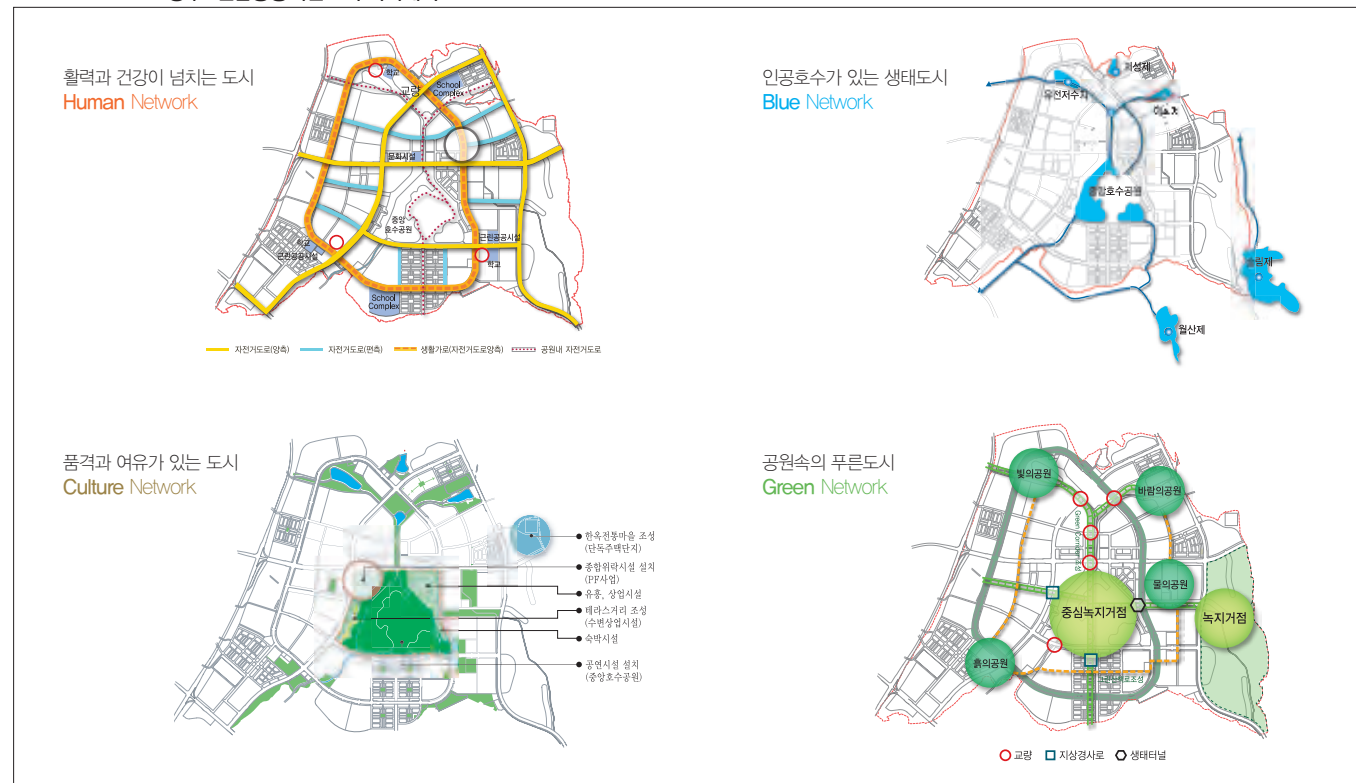
● 혁신도시 전망대 조감도

### 성공적인 혁신도시, 입주기관 속속 이전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빛가람 혁신도시! 이곳에 가면 그동안 보지 못한 예술성이 살아있는 건물들이 먼저 반긴다. 입주 기관들의 특성을 살려 건물마다 독특한 디자인을 설계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건설되고 있다. 2011년 4월 신청사 착공식을 가진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이전 기관 중 제일 먼저 이전하였다. 2013년 3월 우정사업정보센터가 혁신도시에 들어온 뒤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하나둘씩 시작됐고 빛가람 시대는 현실이 되었다. 2012년 3월 착공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국립전파연구원도 각각 2014년 3월과 6월 혁신도시로 이전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그 뒤를 이어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

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이 전해 업무에 들어갔다.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전력공사가 12월 17일 개청식을 열어 16개 공공기관 가운데 13곳이 동지를 틀게 되었다. 이에 발맞춰 전남개발공사도 이미 대부분의 기반 시설 조성을 마쳤고 50만 m<sup>2</sup>의 호수공원 등 경관시설을 완료하며 U-City 구축공사 및 동축 진입도로는 2015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광주공항~혁신도시 간 버스 및 나주 순환버스를 운행하며 1개의 유치원과 4개의 학교가 개교하였으며 학생 수에 맞추어 2018년까지 9개 학교가 추가로 설립될 계획이다. 빛과 물이 어우러지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전남개발공사는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혁신도시를 문화와 교육 및 산업이 어우러지는 자족형 친환경 명품도시로 건설하고 있다.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특화계획



# 部 門 史

### 전남개발공사 부지 내 이전기관





●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감도

국내 최초로 섬 전체가 해양관광단지인 섬, 여수 대경도가 세계적 수준의 해양레저 힐링 명소로 힘차게 부상하고 있다. 해양관광, 레저, 휴식 등 모든 것이 섬에서 한꺼번에 완성되는 여수 대경도는 전남개발공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역작이다.

### 성공적인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전남 여수시 국동항에서 불과 배로 10분 거리로 오가는 여수 대경도는 해양관광지로서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연중 날씨가 따뜻해 관광자원 가치가 풍부하다. 그동안 여수 경도를 개발하기 위한 기업과 지자체의 투자 열기도 뜨거웠다. 하지만 여수 경도 주민들은 쉽게 땅을 내놓지 않았다.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되면서 여수지역의 해양관광개발이 촉진되고 여수세계박람회 행사를 대비한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게 되자 여수 경도 개발에 훈풍이 불기 시작하였다.

전라남도, 여수시, 전남개발공사는 2007년 11월 투자협약을 체결, 전남개발공사의 끊임없는 설득과 보상 노력으로 주민들로부터 경도개발권 바통을 이어받게 되었다. 여수 경도 개발의 기본구상은 성공적인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위해 관광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여수 경도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7년 8월 관광사업본부를 신설하였고 2008년 8월 1일 여수경도사업단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2009년 6월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 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에 돌입하였다.

## 국제적인 해양복합관광의 메카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위치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개발면적 2,168천 m<sup>2</sup>  
사업비 4,292억 원(보상비 1,264, 조성비 3,028)  
개발단계 1단계 : (07~14) : 콘도 100실, 골프장 27홀, 기반 시설  
2단계 : (14~16) : 골프빌라 200실

2007. 09.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07. 11. 투자협약 체결(전라남도, 여수시, 전남개발공사)  
2008. 12. 여수 경도 박람회 지원시설 구역 지정  
2009. 06. 박람회 지원시설 구역지정 승인(국토부)  
2009. 12. 박람회 지원시설 사업 계획 /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2010. 06.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착공  
2010. 08. 토지 수용재결 완료  
2010. 09.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착공  
2011. 08. 이주 단지 건축공사 착공(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 지정)  
2011. 09. 골프장 회원권 분양 착수  
2012. 01. 이주 단지 이주 완료

2012. 04. 콘도미니엄 준공 / 여수 경도 차도선 운항 개시  
2012. 05. 콘도 100실 개관(여수세계박람회 시설지원)  
2012. 11. 여수 경도 골프장 9홀 개장(오동도 코스)  
2013. 11. 여수 경도 골프장 18홀 개장(오동도·돌산도 코스)  
2013. 09. 경도 주민 초청 '효사랑 한마음 대잔치' 실시  
2014. 03.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2014. 06. 여수 경도 골프장 27홀 개장(오동도·돌산도·금오도 코스)  
2014. 12. 1단계 사업준공

2007.09. ~ 2014.12.

# 部 門 史

### ● MASTER PLAN

① 27 H 골프장



② 콘도미니엄



③ 골프빌라



④ 클럽하우스



⑤ 오토&해양레포츠



⑥ 호텔&콘도



⑦ 상업시설 용지



⑧ 기업연수원/테마파크



금오도 코스(2014.06.) 운영 중

콘도(2012. 05.) 운영 중

오동도 코스(2012.11.)  
돌산도 코스(2013.11.) 운영 중



•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개관식

###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착공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10년 9월 9일 착공식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전남개발공사는 설계에서 시공까지 시행하는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해 조성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였다.

우선 1단계로 사업비 3,250억 원을 투입해 2012년까지 숙박시설, 챔피언십 골프장, 콘도미니엄, 오토캠핑장, 해양친수 공간 등을 조성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기간 동안 여수시의 부족한 숙박시설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을 주었다.

전남개발공사는 경도를 기후변화 대응특구 섬으로 조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탄소 흡수원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친환경 교통개선 등 4가지 분야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였다.

더불어 여수시는 3천억 원을 투입해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를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범사례로 만들기 위해서 클립하우스와 골프빌라에 지열과 태양열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였다.

여수 경도 곳곳에 기존 녹지를 보존, 복원하여 녹지벨트를 만들고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가 큰 소나무와 느티나무, 가시나무, 후박나무 등으로 조경을 꾸몄다. 친환경 교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단계적으로 전기자전거를 도입하였다.

전남개발공사는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처리수를 바다로 방류하지 않고 관광단지 내 잔디 및 식재 관개용수로 재활용함으로써 청정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였다.

### 양방향 여객선 재미 특색

국동항에서 경도까지 약 500m의 바닷길을 연결한 양방향 차도형 여객선은 여수경도골프&리조트를 찾는 골퍼와 관광객에게 재미로 손꼽힌다. 총 95명이 승선할 수 있고 승용차 16대를 실을 수 있는 총 240톤 급 카페리호는 전남개발공사가 직접 건조한 것이다.

2012년 4월 운항을 개시한 차도선은 타고 내릴 때 차량과 승객 모두의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작한 선박으로 차량 탑재 시 앞으로 승선해 그대로 앞으로 하선할 수 있다.



• 전남개발공사가 건조한 카페리호

### 해양관광단지 투자 열기 후끈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1단계 사업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콘도 100실과 골프장 27홀을 개장하였고 2014년 3월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 선착장 개·보수 및 진입로 확장을 하고 오수처리장을 증설하였다.

특히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5월에 개관된 100실 규모의 객실을 갖춘 콘도미니엄은 관광객들에게 다도해의 아름다운 경관과 어울려 지중해풍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선사하였다.

또한 2012년 3월 13일 호텔·콘도 부지 원형보전 녹지를 포함한 10만 9천 m<sup>2</sup>를 경남지역 업체 등에 204억 원 규모로 투자유치를 성사시킨 것을 시작으로 관광단지 내 부지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다음 해부터 여수경도개발사업에 투자이민제도가 실시되자 섬과 바다를 동경하는 중국 투자자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다.

전남개발공사는 투자이민제 보인 업체들의 문의가 들어오자 실질적인 투자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또한 골프 마니아뿐만 아니라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섬 전체의 경관을 둘러보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갯벌체험과 해상낚시, 어촌체험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여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2016년까지 214만 m<sup>2</sup>를 개발하는 2·3단계 사업으로 골프빌라 200실과 마리나, 기업연수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가 명실상부한 해양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주민과 소통·화합하는 전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는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안에 더불어 사는 마을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주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과 체육시설, 이주자 택지를 조성하였으며 문화재 발굴 및 여수경도리조트 등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누구보다 먼저 마을 주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마을 어르신 위안잔치, 재능기부 의료봉사, 연탄 나눔 봉사를 통해 소통과 화합으로 주민과 상생발전하는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있다.

수려한 경관을 지닌, 여수 대경도에 조성된 명품 해양관광단지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전남 관광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 곳에서 해양관광·레저, 주민과 소통·화합할 수 있는 꿈의 관광단지! 그 이름은 여수 경도다.

• 주민 효사랑 한마음 잔치 • 오토캠핑장





•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감도

##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의 메카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



2008.01. ~ 2015.12.

•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부지

###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위치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개발면적	2,914천 m <sup>2</sup>
사업비	1,465억 원(보상비 687, 조성비 587, 기타 191)
유치업종	음식료품, 조립금속제품, 화학제품, 의료정밀광학기기 등

2007. 04.	특성화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전라남도→전남개발공사)
2008. 01.	조성사업 추진 협약 체결
2008. 06.	보상업무 위·수탁 체결
2008. 12.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지구 지정
2009. 01.	장흥군과 실무협약 체결
2009. 02.	골프장 용지 매매계약 체결
2009. 03.	보상사무실 현판식
2009. 05.	실시 계획 승인
2009. 11.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기공식
2012. 05.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1단계 조성공사 준공
2014. 06.	진입도로 개통
2014.12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2단계 조성공사 준공

## 部 門 史

청정지역 장흥이 음·식료품, 의료정밀, 광·화학 등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선도하는 메카로 거듭난다. 전남개발공사가 장흥의 미래를 여는 장흥바이오식품 산업단지에 시동을 걸고 있다.

### 특성화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2007년 전라남도는 대불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주요 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전라남도 전 지역에 대해 토지이용 계획과 공사 조건, 접근성 등 산업단지 조성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특성화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장흥군, 강진군을 비롯한 중남부권 지역 4개소에 총 760만 m<sup>2</sup>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전남개발공사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하였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남의 부족한 공장용지를 적기에 확보하고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흥군 해당지구를 개발사업 추진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전남개발공사가 직접 개발하는 해당지구는 한방산업과 청정 농수산물 가공산업, 바이오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고 중국과 일본의 첨단지식산업과 환경친화산업의 중간 거점으로 성장하게 된다. 또한 '천연자원연구원', '한방산업진흥원', '버섯연구소' 등 연구개발시설을 조기에 입주시켜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들과 복합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 주민과의 소통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전라남도과 장흥군, 전남개발공사는 2008년 1월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개발행위 제한구역을 지정하였다. 전남개발공사는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일대 2,914천 m<sup>2</sup>에 들어설 산업단지 부지에 도로, 전기, 하수도 등 각종 기반 시설을 조성하였다. 특히 2008년 6월 장흥군과 보상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장흥군이 직접 보상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보상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였다.

•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추진 협약 체결식



•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 기공식



###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착공

전남 중남부권 성장 동력으로 성장하는 장흥산단은 2009년 11월 착공되었다.

장흥산단은 전체 산단 면적 중 18% 이상이 공원 및 녹지로 조성되고 공장부지와 체육시설, 18홀 규모의 골프장 등이 들어서는 친환경 산업단지다.

전남개발공사는 제압산과 사자산이 둘러싸여 있고 단지 내 평화천이 흐르는 산업단지의 자연환경을 고려해 가로변 연결 녹지를 확보하였다. 또한 인근 지역민과 산단 근로자를 위한 공원,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도 확충하였다.

2010년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장흥산단은 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을 공동 추진하며 기술 지원과 마케팅, 인력양성 등 각종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화센터 장비 사용 시 비용을 30% 할인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 분양 활성화에 총력 기울여

장흥산단의 분양대상은 전체 조성면적 가운데 골프장과 녹지, 공원, 하수처리장 등을 제외한 121만 6천 m<sup>2</sup>이다.

주요 유치업종으로는 전남 중남부권에 위치한 장흥산단을 음·식료품 위주 특화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음·식료품 업종과 의료정밀, 광학기기, 기타 기계 및 장비 화합물 및 화학제품 조립금속제품 등이다.

2012년부터 분양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 전남개발공사와 장흥군! 전남개발공사는 수도권에 분양사무소를 설치하여 수도권 노후 산업단지를 타깃으로 분양활동을 실시하고 수요 확대를 위해 필지를 분할해 분양촉진을 꾀하고 있다.

또한 분양대행사를 선정 운영하고 부동산 소개 수수료를 지급하며 버스와 인덕원사거리 LED광고, 인터넷, 키워드광고 등 마케팅을 강화하였다. 특히 입주업종 다변화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유치업종을 목재가공업, 발전업 등으로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장흥 목재산업의 생산 기반 확충이 장흥산단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입주업종 변경 및 지원을 받았다.

또한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 광주은행과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2013년 8월 21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2015년 12월로 장흥산단 준공이 다가옴에 따라 입주기업들에 대하여 각종 금융혜택을 지원하여 건전한 기업을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발전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장흥군은 산단 조성을 위해 기업지원과를 신설, 전담부서인 산단조성팀과 투자유치팀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전국의 장흥 출신 기업인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벌여왔다.

2008년 3월 31일 출항 항우기업인 안성시스템(주)와의 100억 원대 첫 투자협약을 시작으로 (주)장흥국민식품, (유)삼정산업, (유)FASCO, (유)진영ENG, 예코랜드(주) 등 투자협약 체결이 줄을 이었다. 이번 투자협약 체결은 전남의 대표적 청정지역인 장흥군의 특산자원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장흥산단 분양을 활성화시키는 등 기업유치 활동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유리한 입지조건과 다양한 혜택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사통팔달 교통망이 구축된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산단 입지여건이 유리하다.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와 국도 23호선과 2호선을 연결하는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2014년 6월 전면 개통되어 입주 여건이 개선됨으로써 경쟁력이 더욱 향상되었다.

또한 저렴한 산업용지와 풍부한 생활 공업용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물류비용 등이 절감된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2012년 5월 1단계 공사 준공과 2014년 12월 2단계 공사 준공 이후 2015년 12월 최종 사업 준공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원료 개발에 따른 수익은 물론 지역 농가와 원료가공업의 소득증대,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전라남도도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를 토대로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수도권 제약회사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기업에게 저렴하고 탁월한 공장 용지를, 장흥군에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선물하는 전남개발공사! 그 꿈과 열정은 끝이 없다.

###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유치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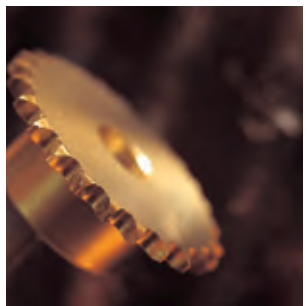
음·식료품 산업



화학 제품산업



조립금속 제품산업



의료정밀 산업



###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편의시설

주거



산업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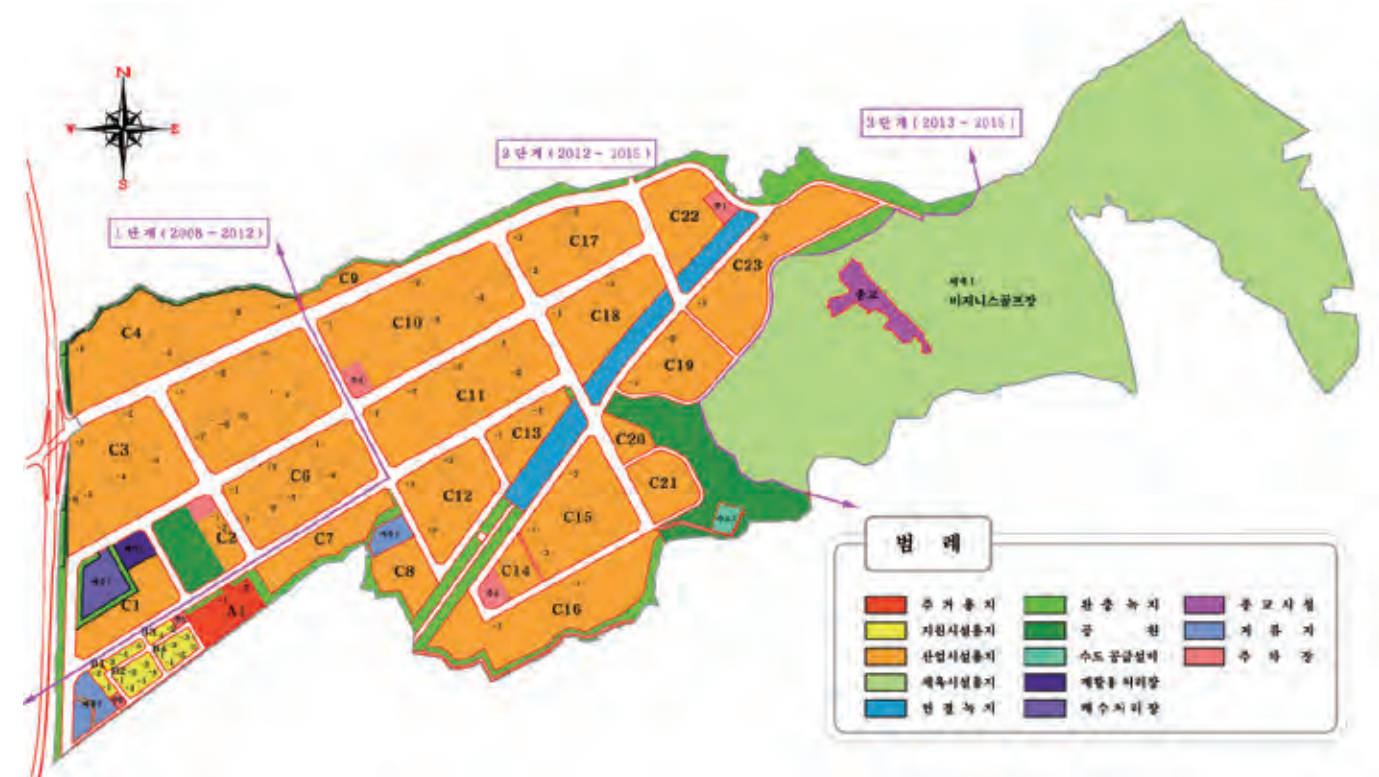
체육시설



공원



●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강진환경산업단지 조감도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전남 미래가치 디자이너, 전남개발공사가 부족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을 들인 땅이 있다. 바로 첨단 환경산업 멀티 클러스터 핵심지역 교통 요충지인 강진환경산업단지다.

강진군은 대불국가산업단지와 삼호조선소 등과 연계돼 있고 바닷가와 인접해 있어 해양물류 거점지역으로 개발 잠재력이 뛰어나다.

전라남도과 강진군은 강진환경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 3월 (주)서희건설 등 건설업체와 양해각서 및 투자이행협정을 체결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였다.

아껴놓은 기획의 땅, 강진에 민관이 협력하여 강진환경산업단지를 조성, 새로운 투자모델을 창출한 것이다.

그 후 컨비텍(주), (주)에스비아이환경, 화우테크놀로지(주) 등 강진산단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쇄도하였고 산단 조성 참여기업들의 투자 이행 협약도 줄을 이었다.

강진군에서는 이미 프리즈마 에너지 테크놀로지 및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인 한국사업기술시험원 등 11개 환경 산업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과 투자유치를 병행하였다.

### 해양물류 거점지역 강진

전라남도는 2007년 들어서 대불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주요 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돼 산업단지 공장용지가 부족하게 되자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에 앞장섰다. 제일 먼저 '특성화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전남의 균형 잡힌 개발을 위해 중남부권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타당성조사 용역에 나선 전남개발공사는 강진군 성전면 송학리 일대를 산업단지로 선정하였다.

●환경산업 종합기술지원센터 (현역)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건립공사 기공식 ●●강진환경산업단지 공사 현장



환경산업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공사 기공식



## 미래 전략산업의 메카 강진환경산업단지 조성사업



2008.12. ~ 2015.12.

●강진산단 내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조감도

사업위치	강진군 성전면 송학리
개발면적	657천 m <sup>2</sup>
사업비	532억 원(조성비 336, 보상비 124, 기타 72)
유치업종	조선기자재, 환경, 신재생에너지산업
—	
2007. 04.	특성화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전라남도-전남개발공사)
2008. 12.	강진성전일반산업단지 지정
2009. 05.	강진성전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2010. 04.	업무협약 체결(전라남도, 강진군, 전남개발공사)
2010. 11.	조사 설계 발주
2011. 03.	사업시행자 변경(강진군-강진군, 전남개발공사)
2011. 10.	강진성전일반산단-강진환경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2011. 11.	조사설계용역 완료
2012. 01.	부지조성공사 착공
2013. 03.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2013. 09.	강진환경산업단지 진입도로 착공
2013. 07.	폐수중말 처리시설 착공
2014. 04.	용수공급 시설 착공
2015. 06.	조성공사 및 기반 시설공사 준공 예정

部 門 史

### 강진군·전남개발공사 업무협약 체결

사업시행자가 자금난 등으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전남개발공사가 구원투수로 나서게 되었다. 전라남도과 전남개발공사는 강진군청에서 2010년 4월 12일 협약을 맺고 강진산단을 태양광과 환경산업 조선부품 특화산단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전남개발공사(81%)와 강진군(19%)이 서로 사업비를 부담해 우선 66만 m<sup>2</sup>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강진산단을 개발하게 되었다.

2011년 3월, 사업시행자가 강진군에서 강진군과 전남개발공사로 변경되었다. 이를 계기로 전라남도과 강진군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의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고 전남개발공사는 토지·지장물 등 각종 보상업무 수행과 산단 조성 및 분양 등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직접 폐수공사를 감리하고 산단 현장에 편입 자원을 활용하는 등 사업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토목공사 등에 대한 일원화된 설계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단지 조성공사 설계 기준을 표준화하고 설계 업무 능력을 고취시켰다.

한편 전남개발공사와 감리단 및 시공사 직원들은 산업단지 내 조성사업 현장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산업단지 사업지구 인근 도로와 제방을 따라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청정한 강진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첫 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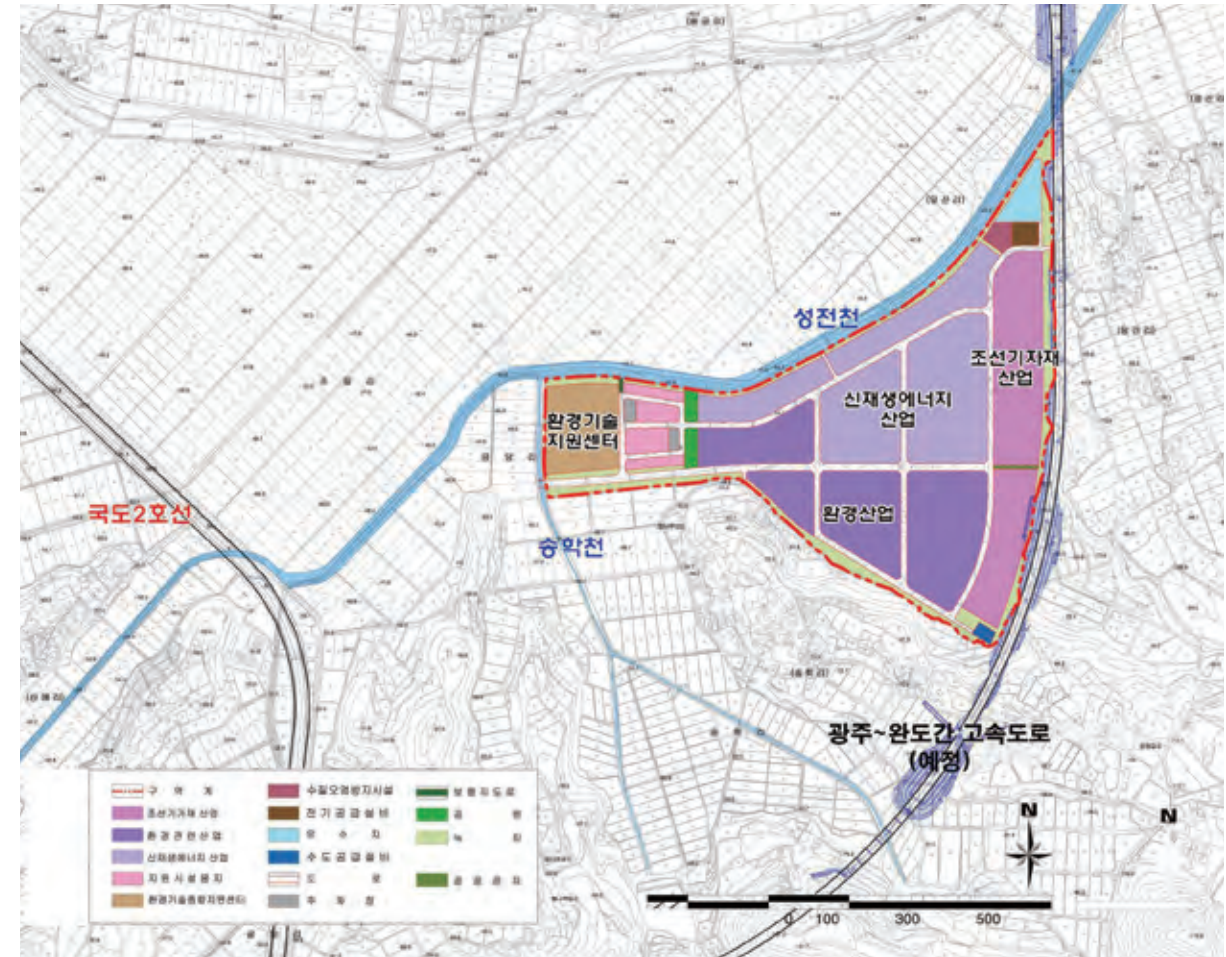
전라남도, 강진군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전남개발공사는 산단 내 환경 관련업체 분양 활성화와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강진산단에 입주할 업종은 조선기자재, 환경산업,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조성면적은 657천 m<sup>2</sup>(약 20만 평)이다. 하지만 입주 희망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신재생에너지산업에서 친환경 신소재사업으로 유치업종을 확대하였다.

수도권에 분양사무소를 설치한 공사는 분양활성화를 위해 분양대행사와 협업하여 수도권 환경 관련 기기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분양활동을 전개하며 분양대행사의 소개 수수료 지급을 확대하였다. 특히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는 분양가의 70%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더 풍성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기업체 대표를 산단에 초청해 산업단지의 경제적·지리적 장점과 분양조건 등을 상세히 알리고 저렴한 분양가와 각종 세제혜택 보조금 등 우수한 분양조건을 갖춘 강진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제안하였다.

그 결과 2012년 11월 12일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설립되는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舊) 환경기술지원센터가 처음으로 입주하게 되었다. 사업비 350억 원을 들여 건립한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은 환경기술 개발과 측정·분석 업무, 환경기술 실증 및 인증, 환경분야 연구개발(R&D)사업과 업체 창업, 보육 지원 등을 맡게 된다.



● 강진환경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 강진환경산업단지 유치업종



## 部 門 史

또한 환경 관련 기술이전과 교류 사업, 대기 수질 측정장비 국산화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강진군과 전라남도는 분양 활성화 T/F팀을 구성, 매월 1회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입주기업에 보조금 및 조세감면 등의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각종 전시회에 참가하고 홍보제 작물을 배포하는 등 꾸준히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발로 뛰는 공격적인 홍보전략을 내세웠다.

### 환경산업 멀티 클러스터로 도약

오는 2015년 6월 준공을 앞둔 강진환경산업단지는 남해안 고속도로 강진 IC, 국도 2호선 등이 연결돼 뛰어난 교통 인프라

를 갖추고 있다. 향후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입주조건이 좋아지게 된다. 또한 대불국가 산업단지, 광주 평동산업단지 등 광주·전남지역 주요 산업단지 와 근접해 있어 기업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에도 용이하다. 특히 강진환경산업단지 내 이미 입주한 환경분야 특화 전문 연구기관인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이 입주기업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2천여 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3천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두 게 되는 강진환경산업단지! 인구 4만의 작은 소도시가 전남개발 공사와 함께 환경 클러스터로 성장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 장성황룡행복마을 조감도

전통한옥과 자연이 만나는 신개념 주거도시  
장성황룡행복마을 조성사업



2008.01. ~ 2015.12.

● 장성황룡행복마을 한옥

사업위치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개발면적	126천 m <sup>2</sup>
사업비	172억 원(보상비 117, 조성비 55)
주요시설	주택단지(110필지), 한옥체험관, 마을공원 등
-	
2007. 04.	장성황룡행복마을 사업 대상지 선정
2007. 06.	기본 협약 체결(전라남도, 장성군, 전남개발공사)
2008. 04.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 사업 허가
2008. 07.	부지조성공사 착공
2009. 06.	장성군 한옥지원 조례 제정
2009. 09.	장성황룡행복마을 기공식
2009. 11.	행복마을 추진위원회 구성
2010. 05.	부지조성공사 준공
2011. 09.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지구 지정
2011. 10.	기반시설 조성공사 준공
2012. 12.	한옥건축 착공
2013. 09.	민간업체와 블록 단위(10필지) 계약 체결
2014. 07.	샘플하우스 건축 준공

部 門 史

토지이용계획도

- ① 단독주택(한옥형)
- ② 공원
- ③ 유치원
- ④ 공공시설
- ⑤ 주차장
- ⑥ 사업시설
- ⑦ 근린생활
- ⑧ 문화생활(한옥체험관)
- ⑨ 종교시설



남도의 고장, 장성에 아름다운 전통의 멋을 입힌 살기 좋은 친환경 마을공동체가 들어선다.  
자연의 품에 안긴 장성황룡행복마을에 서면 심신이 편안하고 활력이 넘친다.

행복마을 제1호 장성황룡행복마을 조성

전라남도 행복마을 제1호 부지 선정에 나선 전남개발공사는 수려한 경관과 황룡강이 한눈에 보이는 장성에 발을 멈췄다. 전라남도와 장성군은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126천 m<sup>2</sup> 부지를 행복마을로 선정하고 2007년 6월 11일 행복마을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 행복마을을 조성하게 되었다. 17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한옥 건축이 가능한 110필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게 된다. 전남개발공사는 무엇보다 이주민들의 원활한 토지보상과 이주대책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하였으며 주민들에게 저렴한 택지를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였다. 특히 전라남도와 장성군과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국비와 도비, 군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적정 분양가 유지를 위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전통한옥과 현대적 주거문화의 조화

2008년 7월 9일 착공된 장성황룡행복마을은 인간 중심의 환경, 전통한옥의 멋을 살린 최고급 주거공간을 지향하며 단지내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전 세대 남향 배치로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한옥을 신축할 때 기준은 바닥면적이 85m<sup>2</sup> 이상 규모로 건축해야 하며 민박을 할 수 있는 별도의 화장실과 샤워시설을 갖춘 손님방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마을 근처에는 공공도서관, 전통한옥체험관 등 풍부한 부대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농촌 살리기에 적극 나서는 전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는 장성황룡행복마을 분양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판매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011년 9월 장성황룡행복마을이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택지를 분양받아 한옥으로 건축할 경우 보조금으로 전라남도에서 2천만 원, 장성군에서 2천만 원 등이 지원된다. 또한 2014년 7월 (주)피데스하우징과 협약을 체결, 신공법을 적용한 샘플하우스 '신한가 호연당'을 열어 입주 희망자들에게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전국 최고의 명품, 한옥마을을 조성함으로써 농촌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04  
~  
2014

제2장  
운영사업  
부문

- 여수경도골프&리조트 운영사업
- 한옥호텔 영산재 운영사업
- 한옥호텔 오동재 운영사업
- 해남땅끝호텔 운영사업
- 천일염 운영사업
- 울돌목거북선 운영사업
- 무안공항면세점 운영사업
- 무안골프연습장 운영사업



● 여수경도골프&리조트 전경

다도해를 품은 신선한 힐링 공간

## 여수경도골프&리조트 운영사업



2011. 10. ~

● 여수경도골프&리조트 전경

사업위치	여수시 해양단지길 22(경호동)
사업규모	골프장 1,605,121㎡, 콘도 30,659㎡ (골프장 27홀, 클럽하우스, 콘도 100실, 연회장, 오토캠핑장 등)
사업비	4,292억 원 (보상비 1,264, 조성비 2,612, 기타 416)
개발단계	1단계 : 콘도, 골프장, 해양친수공간, 기반시설 등 조성 2단계 : 2014년까지 동화테마파크와 기업연수원 조성 3단계 : 2016년까지 마리나 상업시설 등 조성
2011. 10.	지회사 골프&리조트 운영법인 여수경도개발(주) 설립
2012. 05.	여수 경도 콘도미니엄 100실 개관
2012. 11.	여수 경도 골프장(오동도 코스 9홀) 오픈
2013. 04.	순천 정암박물관 숙박 자원시설
2013. 06.	클럽하우스 오픈
2013. 11.	돌산도 코스 9홀 개장(18홀)
2013. 10.	한국농림협회 업무제휴 협약
2014. 06.	골프장 27홀 그랜드 오픈 (금오도 코스 9홀)
2014. 08.	오토캠핑장(민간사업자) 운영 개시
2014. 09.	서울경제 골프매거진 '2014 대한민국 10대 퍼블리코스 선정' 골프전문지 골프다이제스트 '2014 대한민국 10대 베스트 뉴코스 선정'

# 部 門 史

보면 가고 싶고 가면 머물고 싶은 섬, 여수 경도에게 2014년은 참으로 값진 해이다.

여수경도골프&리조트가 전남에서 유일하게 서울경제 골프매거진으로부터 '대한민국 10대 퍼블리코스'에 선정됨과 동시에 골프전문지인 골프다이제스트로부터 '대한민국 10대 베스트 뉴코스'에 선정되었다.

해가 거듭될수록 이용자들의 입소문이 더해지면서 여수경도골프&리조트가 국내 최고의 골프 명소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 대한민국 10대 골프코스 선정 (동아일보 보도자료)



콘도 건물을 지형의 경사에 따라 배치해 객실에서 바다, 섬, 골프 코스를 조망할 수 있다.

친환경 고급 자재로 마감한 객실에서는 남해 바다의 향기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또 250여 명이 수용 가능한 최첨단 대연회장, 세미나실 등이 구비돼 대규모 단체 행사가 가능하며, 아름다운 에메랄드 빛 수영장과 황금빛 노을이 함께 하는 야외 바비큐파티에서 남도의 식도락을 만끽할 수 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로 제 몫을 다했던 콘도미니엄은 2014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숙박지원 시설로도 등록돼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였다.

● 여수경도리조트 내부 모습



### 이국적인 지중해풍 리조트

연평균 기온 섭씨 14.6도의 아늑한 기후와 따뜻한 일조량, 청정한 남해바다가 빛어낸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여수경도골프&리조트는 국내 최초 아일랜드 골프코스과 지중해풍의 리조트, 어촌체험, 파도소리와 뱃고동 소리를 들으며 걸을 수 있는 돌레길 코스 등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새로운 '힐링'을 전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장소다.

다도해를 품은 여수 경도의 숨겨진 보물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시기에 맞춰 2012년 5월에 개관한 10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바다의 서정을 담은 이국적인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은



###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아일랜드 골프장

2012년 11월에는 오동도 코스 9홀이, 2013년 6월에는 클럽하우스가 오픈되었고 이어서 11월에는 돌산도 코스 9홀도 개장하였다. 전남개발공사가 지난 2010년 여수 경도에 복합휴양리조트 건설을 추진한 지 만 4년 만인 2014년 6월 24일 금오도 골프코스가 완공됨으로써 27홀 골프코스가 모두 개장하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코스 설계회사인 미국의 DMK Golf Design Ltd.의 David Maclay Kidd가 골프코스를 직접 설계해 섬의 특징을 잘 살린 파인, 오션, 힐코스 27홀로 조성되었다. 여수 경도 골프코스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홀을 비롯해 바다와 홀이 직접 맞닿아 있는 16개 홀을 보유하는 등 모든 홀에서 바다가 조망되는 국내 유일의 아일랜드 골프장이다.

특히 남해 바다의 맞바람을 극복하며 공략하는 남성적인 금오도 코스, 해상 숲과 바다를 넘나드는 등 경관이 뛰어난 돌산도 코스, 완만한 구릉과 다도해를 배경으로 정확한 거리를 요구하는 오동도 코스 등 홀마다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렸다. 천연잔디 연습장과 PGA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격으로 각종 대회 유치에도 무리가 없다. 곤도 앞에 위치한 오토캠핑장은 2014년 6월부터 민간 사업자 주도로 운영 개시하였다. 2만 9,189㎡ 부지에 캠핑 트레일러와 카페테리아, 매점 등이 있다. 트레일러는 4평형 50대, 6평형 20대, 8평형 20대, 10평형 10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4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 部 門 史

### 세계인이 감동하는 명품, 여수경도골프&리조트

전남개발공사는 다양한 각도로 영업 활성화 전략을 세우고 투숙률 높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광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 10월 자회사인 전남관광(주)[구(舊) 여수경도개발(주)]를 설립해 전문경영인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력직원을 영입, 위탁경영하는 등 독립채산제에 의한 책임 경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대 리조트 회사인 '한화호텔&리조트(주)'와 한국능률협회 등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리조트 숙박 및 부대시설 이용 시 회원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게 되었다.

2014년 2월 13일 여수경도골프&리조트에서 한국관광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전남관광(주)는 숙박시설 영업 활성화, 경영컨설팅 및 위탁교육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됐으며, 한국관광학회는 회원에 대한 서비스 증대 및 숙박시설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2014년 3월 전남관광(주)와 진성여고가 산학협력을 맺음으로써 현장에 즉각 투입이 가능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재를 현장에 투입하여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여수 출신 국민배우 백일섭과 목포 출신 국민가수 남진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여수경도리조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추진하였고 대한민국 대표 시나리오 작가인 김희재씨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경도리조트 내 관광단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해 여수 경도의 이미지를 알리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또한 고(故) 김대중 전(前)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을 여수경도골프&리조트로 초청해 경도에 산재된 각종 문화유산을 만나며 힐링하는 시간을 선사하였다.

잠자고 있는 꿈을 현실로 실현하는 전남개발공사!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인이 감동하는 여수경도골프&리조트를 만드는 공사 직원의 심장은 오늘도 뜨겁다.



● 국민배우 백일섭 전남관광(주) 명예홍보대사 위촉  
2014. 04. 12. 전남관광(주)



● 국민가수 남진 전남관광(주) 명예홍보대사 위촉  
2014. 04. 24. 전남관광(주)



● 여수경도골프&리조트 골프회원권 분양 업무협약식 ● 명예홍보대사 위촉식





• 한옥호텔 영산재 전경

천년 한옥이 선물하는 전통의 멋과 힐링!  
한옥호텔 영산재 운영사업



2008.03. -

• 한옥호텔 영산재의 겨울

사업위치	영암군 삼호읍 나불외도로 126-17
사업규모	부지 18,579㎡, 연면적 3,231㎡
사업비	126억 원
주요시설	객실 21실, 전통문화체험관, 연회장, 한식당 등

- 
- 2008. 03. 전통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
- 2009. 04.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 2010. 04. 영산재 건축사업 착공
- 2011. 09. 영산재 준공
- 2012. 12. 자회사, 전남관광(주) 위탁운영 '호텔조인' 과 업무협약
- 2012. 03. 한국교직원공제회 업무협약
- 2012. 04. (주)여행창조 객실선민매 업무협약
- 2012. 07.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관 인증
- 2013. 03. 영암경찰서 업무협약
- 2013. 04. 영암 F1 서킷 업무협약
- 2013. 05. 삼성카드 공동마케팅 업무협약
- 2014. 03. 전라남도 친환경 음식점 인증
- 2014. 09. 중국 영화 "아빠의 휴가" 촬영

部 門 史

행복한 여행이 시작되는 곳, 남도를 찾은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머물고 싶은 곳이 있으니 바로 한옥호텔 영산재다. 영산호가 가까이 보이는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 잡은 한옥호텔 영산재는 옛 한옥의 장점을 살리고 현대적 시설을 접목시킨 전남 최초의 한옥호텔이다.

영산호관광지 리모델링 사업 일환

전라남도는 1970년대 후반 섬이었던 곳을 방조제로 막아 생긴 영산호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영산호관광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2008년 3월 전남 영산군 삼호읍 나불리 영산호변 18,579㎡ 부지를 전통문화 체험 단지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전남개발공사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대비해 전남을 대표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 교육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 따라 한옥형 숙박단지 조성사업에 뛰어들었다. 2009년 4월 총 사업비 126억 원 규모의 전통 한옥형 숙박단지 조성 사업 기본설계 공모 입찰을 실시한 후 금성종합건축의 설계안을 선정하였다.

전남개발공사는 한옥 단지 신축이 일반 건축에 비해 건축기간이 다소 오래 걸리지만 2011년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이전까지 최대한 전통의미를 살리면서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한옥형 숙박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 영산재 개관식

전남 최초 한옥호텔, 영산재 개관

2011년 9월 22일 영산재를 준공한 전남개발공사는 본격적으로 손님맞이 준비에 나섰다.

영산재는 단체 숙박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립형 숙박동 14호와 별채 형식의 독립형 숙박동 5동 등 총 21실로 이루어졌다. 각 객실 내부 벽에 단열재를 넣고, 창문은 전통 창살 문양을 그대로 살려 전통한옥의 멋을 최대한 살렸다.

특히 향이 좋은 편백나무로 만든 가구를 넣는 등 시설을 고급화 시켰으며 모정과 화계, 담장, 연지 등 전통 양식의 조경시설을 도입해 한옥의 멋을 한층 더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대부분의 객실을 남동쪽에 자리한 영산호를 바라볼 수 있도록 배치해 자연 풍광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게 조성하였다.

아울러 단지 내 한정식당과 체육관, 세미나실, 전통헌례식장, 전통문화 체험관 등의 다양한 부대시설을 마련해 각종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14년 3월 전라남도로부터 친환경음식점 인증서를 교부받고 한식당에 전라남도 친환경음식점인증 현판식을 가졌다. 언제라도 한식당에 가면 친환경 인증 식자재를 사용해 정갈하게 차린 전통 한식과 함께 고품격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

• 영산재 전통문화 체험





### 국내·외 관광객의 높은 호응도

영산재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열리는 2011년 10월 14, 15일 투숙객들로 한옥 객실이 가득 찼다. 특히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와 '슈퍼주니어'가 한옥에서 머물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예약 문의도 줄을 이었다.

총 3회의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물론 각종 대규모 이벤트 행사 개최 시 영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화된 한옥 숙박과 전통예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영산재가 한국 고유의 멋과 맛을 알리는 특색 있는 숙박시설로 부상하면서 그동안 각종 언론매체 및 교양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된 것은 물론 중국 영화의 촬영 무대로도 사용되었다. 가족휴먼 코미디물인 중국 영화 '아빠의 휴가' 촬영이 2014년 9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영산재에서 진행되자 영화제작 대행사인 (주)피아스튜디오는 이 기간 동안 영산재 전체 객실

을 빌려 사용하고 숙박료 등 전체 이용 비용을 별도 지불하였다. 이를 계기로 영산재는 전라남도 전통한옥 숙박시설의 우수성을 중국인에게 알려 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불을 지피게 되었다.

### 적극적인 마케팅에 발 벗고 나서

전남개발공사는 숙박난을 해결하고 다양한 판매시장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에 발 벗고 나섰다.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 온라인 객실판매 1위 업체인 '호텔 엔조이'와 정부투자기관은 물론 복리후생 업무대행 전문 회사인 '여행창조', 국내 최대 리조트 회사인 '한화콘도'와 업무협약을 맺어 객실의 50~60%를 미리 판매했다.



●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관 선정

또한 전남대학교, 한국전력공사, NH공사 등과 객실 판매협약을 체결하는 등 판매망도 늘려나갔다. 이런 전남개발공사의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은 지식경제부로부터 국내 유일의 정부기관 공인 인증인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낳았다.

2012년 7월 11일 영산재에서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관 인증 현판식을 가진 전남개발공사! 이로써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직영 운영체제를 추진해 온 전남개발공사는 2012년 12월 자회사인 전남관광(주)로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홍보마케팅을 적극 활성화하여 수익을 증대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F1국제자동차경주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영산재의 활성화를 위해 2013년 4월 20일 전라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암경찰서, 삼성카드와 각각 2013년 3월과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판매시장 루트를 확보함으로써 상호 간의 매출 향상과 고객 기반 확대 등 WinWin 효과를 높여 나갔다.

### 중국인 유치 웨딩상품 출시

영산재의 전통혼례 체험이 전라남도 여행상품 개발에 훈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산재에서 빠질 수 없는 전통혼례청에서는 틀에 박힌 서양 결혼식이 아닌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추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2012 목포사랑 체험캠프' 교육기부를 통해 목포시 초·중학생들이 전통혼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했으며 그 해 5월

25일 KBS 방송 VJ특공대 프로그램을 통해 가마타기, 조랑말 타기, 다도, 장 담그기 등 전통혼례 및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영산재에서 운영하는 전통문화체험이 국내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아지자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한몫하고 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한 중국인 차오샤오사 씨는 2013년 5월 영산재에서 전통혼례를 체험한 사진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렸다. 중국의 지인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모습에 찬사를 보내자 차오샤오사 씨는 전통혼례 체험이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라남도에 연락하여 웨딩촬영 상품 개발 협약 체결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전남개발공사는 영산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힐링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고품 웨딩상품 개발 및 영산호관광지 수변체험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누구나 한옥호텔 영산재가 선물하는 전통문화의 멋과 아름다운 추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 전통혼례 체험 ● 장 담그기 행사





• 한옥호텔 오동재 전경

성공적인 여수세계박람회 관광인프라  
한옥호텔 오동재 운영사업



2011.03.~

• 한옥호텔 오동재 전경

사업위치	여수시 박람회길 99
사업규모	부지 27,601㎡, 연면적 3,172㎡
사업비	288억 원
주요시설	객실 40실, 식당, 카페, 전통혼례장
-	
2011. 03.	건축설계용역 완료 및 사업부지 매입
2011. 04.	공사 계약심사 및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2011. 05.	오동재 건축공사 착공
2012. 03.	객실 평면계획안 작성
2012. 04.	오동재 준공
2012. 05.	영업 개시 및 여수엑스포 지원시설 활용
2012. 05.	2012여수세계박람회 공식 숙박업소 지정
	브루나이 대사관 등 엑스포 참가자 숙소 활용
2012. 09.	호텔 엔조이 객실판매 대행 MOU 체결
2013. 05.	오동재 증축공사 설계변경 계약 및 착공
2014. 06.	오동재 증축공사 완공(객실 8실)
2014. 07.	'한국관광의 별' 체험형 숙박시설 1위 수상

部 門 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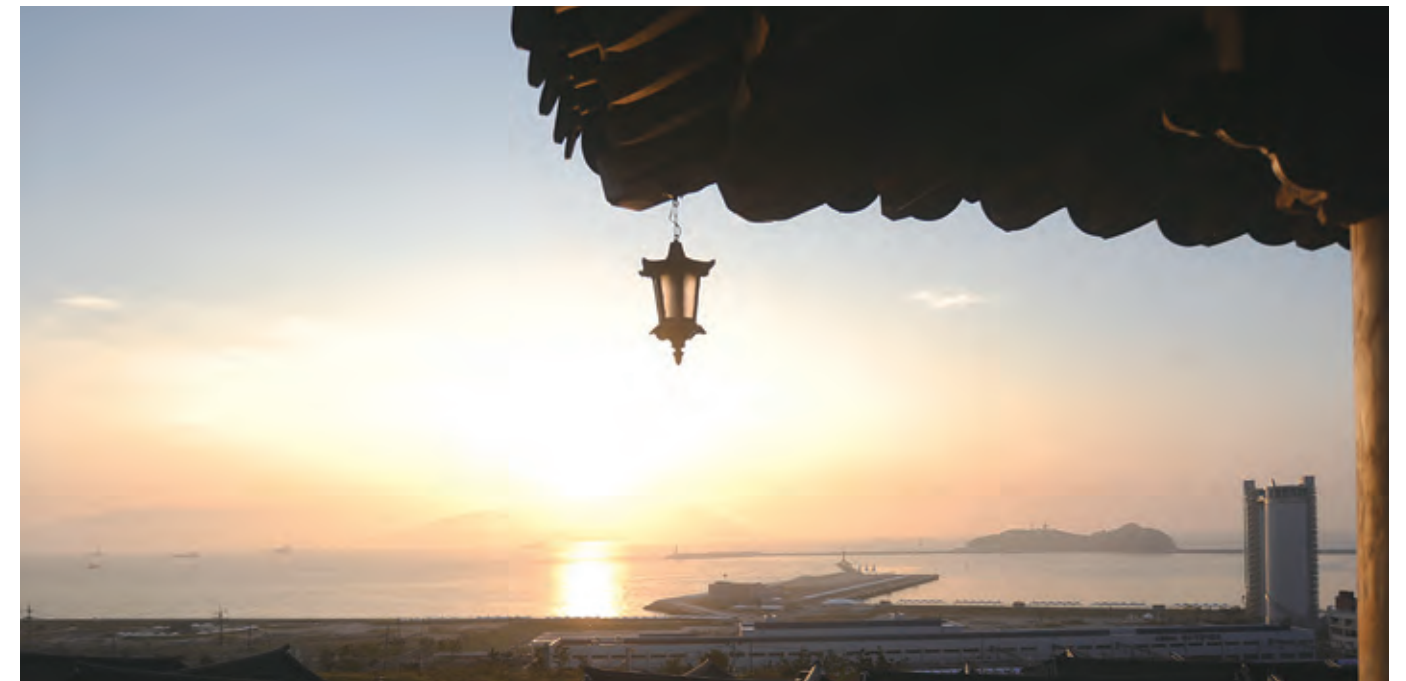
청정바다와 전통한옥의 소중한 만남!  
성공적인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후면에는 한옥호텔 오동재가 있다. 시원한 바닷가 전경이 한눈에 펼쳐지는 오동재는 여수의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여수의 랜드마크, 오동재 개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전라남도과 여수시 그리고 전남개발공사는 전남의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세계인들에게 한국 전통의 미를 선사하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댔다. '성공적인 여수엑스포' 라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한옥호텔 오동재 조성사업에 뛰어든 전남개발공사는 2011년 3월 건축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여수박람회장 인근의 한옥타운 지역의 땅을 매입하였다. 2011년 5월 착공의 깃발을 세우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맞춰 2012년 5월 총 사업비 288억 원을 들여 부지 27,601㎡에 한옥호텔 오동재를 준공하였다. 오동재는 본관동인 사랑채와 단독 대형, 다가구 중형, 다가구연립동 등 총 6개동 32개의 객실로 이루어져 있다. 한옥 느낌을 그대로 살린 세련된 감각과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오동재의 객실 내부는 각종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편백나무 인테리어는 삼림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면대 공간과 샤워실, 화장실 공간을 분리해 편의성을 높이고 서까래들이 보이도록 천장을 터서 내부 공간을 넓혔으며 전통 담장 및 정자를 설치해 한옥의 맛을 더하였다. 바닷가에 자리한 만큼 건물 바깥쪽에 비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유리문을 달고 내부 공간엔 창호지문을 달았으며 모든 객실의 전면을 통유리로 구성해 오동도와 여수 앞바다 일몰, 박람회 행사장 야경 등의 조망을 즐길 수 있다. 해가 진 뒤 누마루에 앉아 해돋이를 보거나 여수 밤바다를 바라보면 환상적이다. 본관동인 사랑채에서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남도의 맛갈스러운 한정식 등을 맛볼 수 있다. 또한 각종 행사들을 진행할 수 있는 연회장과 카페 등도 갖추고 있으며,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전통문화 및 전통혼례 체험 프로그램 등을 다채롭게 운영하고 있다.

• 오동재에서 바라본 일몰





### 성공적인 대회의 밑거름 역할

한옥 자체가 곧 관광상품인 오동재는 박람회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열리는 기간 중 브루나이 대사관, 독일 엑스포협력단 UN 사무국, 페루 홍보대사 등 세계 각국의 중요 VIP가 오동재에 투숙하였으며 한국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였다.

오동재는 여수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누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 뿐만 아니라 2013년 4월 20일부터 6개월 동안 펼쳐진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정 숙박시설로 등록돼 여수세계박람회에 이어 또 한 번 국제행사 지원시설로 활용되었다.

● 한국전통혼례를 체험하는 미스아시아 퍼시픽 월드 슈퍼달린트 참가자



또한 2014년 5월에는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리는 '미스아시아 퍼시픽 월드 슈퍼달린트 선발대회' 최종 결선을 앞두고, 각국에서 참석한 미녀 50여 명과 스태프 50여 명이 4박 5일 간의 일정으로 오동재를 찾아서 사전 예선 및 한류체험에 들어갔다. 5월 21일에는 오동재에서 한국 전통혼례 및 전통문화와 놀이를 체험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22일에는 여수경도CC에서 화보 촬영 행사를 진행하였다.

### 마케팅 다각화로 고객감동 실현

남해안권 대표 숙박시설인 오동재는 마케팅 다각화로 객실 가동률을 상승시키고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여수세계박람회가 끝난 후 호텔예약 판매업체인 '호텔엔조이'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어 투숙률을 높이고 매출확보에 주력하였다. 2012년 11월 14일에는 전남대학교와, 12월 6일에는 한국전력공사와 고객유치를 위한 객실 판매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영업 활성화는 물론, 전남대학교 교직원 및 재학생, 한국전력공사와 지회사 고객 등 5만여 명의 고객을 확보하게 되었다. 아울러 전남대학교와 한국전력공사는 공사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적용받

는 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오동재는 전남대학교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하여 현재 전북 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행정공제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여수 해양경찰서, 호텔엔조이, 한화호텔&리조트, 시티파크, ESL월드 와이드닷컴, 여수신문투어 등 12개 업체와 MOU 체결을 맺고 회원 간 객실 제공 및 기타 부대시설 할인 혜택을 적용하였다. 특히 보다 다양한 층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여수경도CC와 오동재를 연계한 1박 2일 골프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고 효(孝)사랑·골프·가족사랑 패키지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오동재 증축공사를 한 6동 객실

### 오동재 8실 증축

오동재는 2011년 3월 건축설계용역이 완료된 당시만 해도 40객실을 조성하도록 돼 있었다.

전남개발공사는 2012년 5월 개관한 객실 32실을 제외한 미시공분 8객실 증축공사를 2013년 5월에 재개하였다.

16억 원 규모의 오동재 증축공사는 한옥 객실 외벽기둥과 회랑기둥·초석 등을 원형으로 변경하였고 단독형(26평, 29평형) 시설을 객실 수요가 많은 연립형 소형객실 11평형과 13평형 위주로 설계를 변경하여 투자비 최소화 및 객실 가동률을 높이도록 조성하였다. 또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반영하여 전력난 대체에 기여하는 등 4+4 시공 형태로 진행하여 2014년 6월 총 40개 객실을 완비하게 되었다.

### 한국관광의 별 선정

전남개발공사에게 2014년 7월 22일은 뜻깊은 날이다. 오동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2014 한국관광의 별' 체험형 숙박 부문 1위에 뽑혔기 때문이다.

고품격 한옥 숙박시설을 갖춘 오동재가 한국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며 특화된 한식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남도의 음식 맛을 전달해 온 노력이 비로소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최고의 서비스와 전통문화를 알리는 임·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에도 기여하였다. 여수시 만덕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요리 및 문화강좌를 연 것이다. 강좌내용은 한식·양식 요리 강의와 테이블 매너, 와인 등이다.

또한 호텔 내 유희부지에 심은 고구마와 호텔에서 키운 토끼를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주는 '고구마 캐기 체험 행사와 아기 토끼 분양 행사'를 2014년 11월 22일 실시하기도 하였다.

관광객들에게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옥호텔 오동재는 지역민의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며 지역민과 함께 하는 상생형 주민자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 2014한국관광의 별 수상(숙박부문 1위)



部 門 史



●해남땅끝호텔 전경

땅끝 최고의 휴식공간  
해남땅끝호텔 운영사업



2009.03.~

●해남땅끝호텔 전경

사업위치	해남군 송지면 땅끝해안로 1954
사업규모	부지 8,209㎡, 연면적 5,360㎡
사업비	81.8억 원
-	
2009.03	경매 낙찰(3,511백만 원)
2009.04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2009.05	인도명령 신청
2009.08	인도명령 결정
2010.04	리모델링 공사 착공
2010.07	리모델링 준공 및 개관 및 (주)HTC 위탁운영
2011.04	관광호텔 1등급 인증 취득
2012.10	객실 선판매 계약 체결(인터파크여행사)
2012.12	자회사 전남관광(주) 위탁 운영
2013.04	부산은행 하계휴양소 운영 계약
2013.02	교원공제회 사원휴양소 연장 협약
2014.06	부대시설(노래방) 확충

部 門 史

한국의 아름다운 길, 네티즌이 가보고 싶은 곳 1위,  
해남땅끝마을!  
'동양의 나폴리'로 불릴 정도로 천혜의 아름다운  
비경이 한눈에 펼쳐지는 해남땅끝호텔의 브랜드 가치는  
단연코 전국 최고다.

해남땅끝호텔 리모델링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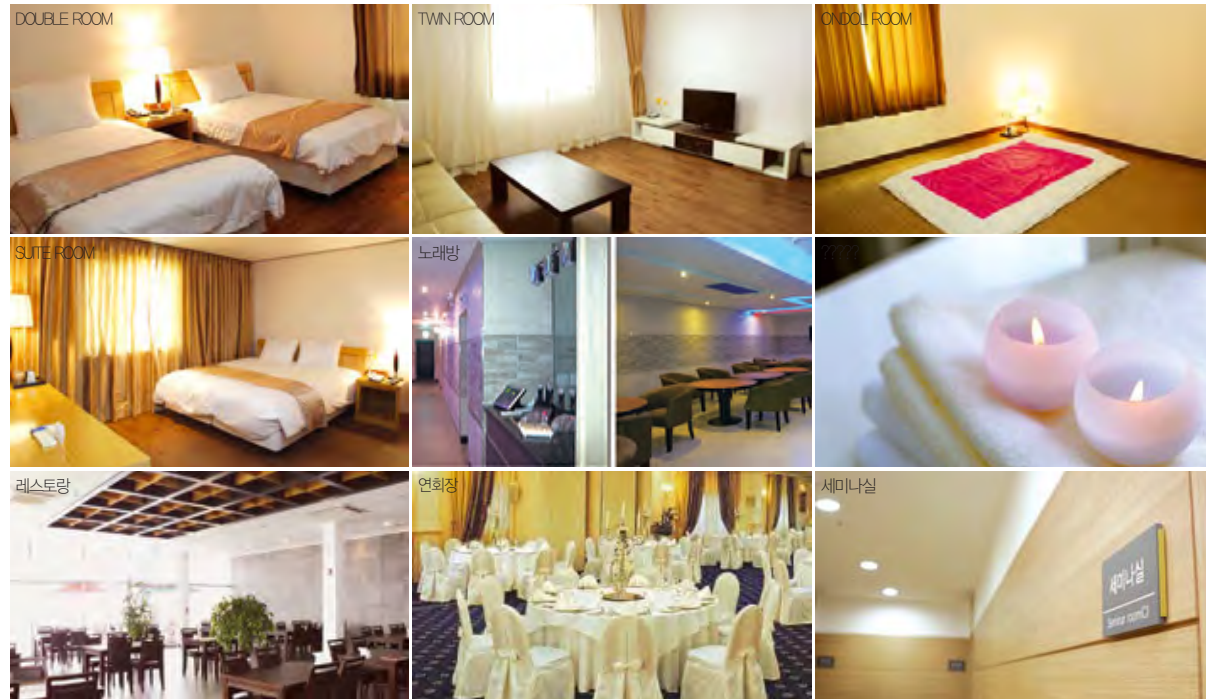
한반도의 남쪽 꼬트머리이면서 해양과 대륙문화의 시적을  
동시에 상징하는 해남땅끝호텔은 2004년 개관하였다.  
그러나 해남땅끝호텔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자 전남개발공사  
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땅끝마을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호텔 인수작업에 돌입하였다.  
마침내 2009년 3월에 이뤄진 5차 경매에서 35억 원에 해남  
땅끝호텔을 인수하였고 이듬해 여름 성수기를 대비하여 프  
로젝트 T/F팀을 운영하고 2010년 4월 53억 400만 원 규모의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다.  
리모델링 공사는 건물 외벽을 새롭게 바꾸는 건축공사를 중  
심으로 전기·소방공사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새롭게 태어난 해남땅끝호텔

드디어 2010년 7월 21일 새롭게 태어난 해남땅끝호텔은 개관  
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총 8천209㎡ 부지에 들어선 해남땅끝호텔은 해돋이를 전망할  
수 있는 하늘채와 해님을 볼 수 있는 노을채 2개동 총 90실  
규모다.  
사랑채는 옛날 사랑방을 의미하는 숙박시설 외에 대회의실과  
세미나실, 연회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었다.  
한식당에서는 남도 특산물로 이루어진 남도 한정식을 맛볼  
수 있으며 주변 조경시설도 새롭게 단장해 고급스러운 호텔  
이미지를 더해주고 있다.  
특히 전남개발공사는 보다 적극적인 영업과 서비스를 강화하  
기 위해 호텔 운영을 전국적인 규모의 호텔 전문 운영업체인  
(주)HTC에게 위탁하여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객 서비스를 한  
층 더 강화해 나갔다.  
(주)HTC는 1997년 창업한 국내 최초 호텔·리조트 전문 운영  
기업으로 오코밸리 까사빌 인천하버파크, 청풍리조트 등의  
호텔 및 리조트 18개 사업장 4천여 객실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해남땅끝호텔 개관식





### 고품격 고객서비스 강화

해남땅끝마을의 랜드마크, 해남땅끝호텔은 그 위상에 걸맞은 적극적인 마케팅과 질 좋은 서비스로 고객감동에 나선 결과, 2011년 4월, 1급 호텔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문화관광부로부터 호텔 등급 심사업무를 맡아 시행하고 있는 한국관광호텔업협회의 등급심사에서 1천점 만점에 700점 이상을 받아 1급 호텔로 공식 인증된 것이다.

호텔의 서비스 상태, 건축·설비·주차시설, 전기·통신시설, 소방안전 상태, 소비자 만족도 등 5개 분야 100여 가지 항목 등 호텔전문가의 엄격한 평가와 정부의 승인으로 이뤄진 등급심사에서 1급 호텔로 공식 인증된 만큼 해남땅끝호텔의 질 높은 서비스를 보여주기에 충분하였다.

아울러 해남땅끝호텔은 투숙객들의 편의시설 확충과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4년 6월 노래연습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같은 해 12월 20일부터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는 물론, 관광객에게 인터넷으로 관광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예약과 호텔 객실에 전남산 천일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관광 유입 및 수요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 적극적인 마케팅 강화

해남땅끝호텔은 객실 선판매 계약을 체결해 매출 향상과 호텔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012년 10월 24일 국내 최대 온라인 관광 숙박시설 예약 판매 업체인 '인터파크 투어'와 업무제휴를 맺고 해남땅끝호텔의 객실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업무제휴를 통해 해남땅끝호텔은 연간 6천 실을 선판매하게 돼 고정 매출 확보와 식음료 매출이 증대되고 1,600만 인터파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강화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2년 12월 공사 직접 운영체제에서 자회사인 전남관광(주)으로 관광업무를 이관하게 되었다.

그 후 2013년 2월 교원공제회 사원휴양소와 연장 협약을 체결하고 4월에는 부산은행 하계휴양소 운영 계약을 맺었다. 또한 2014년 3월과 6월에는 각각 (주)부산은행, 기아자동차와 연중 객실 이용 제휴 협약을 맺음으로써 단체 이용객 객실 50% 할인과 연회장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다.

###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땅끝 테마상품 개발

해남땅끝호텔 투숙객들을 위한 또 다른 선물은 땅끝 전망대다. 한반도의 땅끝에 위치한 송호리 갈두부락, 사자봉 위에 있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다도해의 절경은 그야말로 일품이다. 호텔에서 전망대 입구까지는 산책할 수 있도록 오솔길이 나 있어 20여 분 삼림욕 하면서 걸으면 전망대에 도착할 수 있다. 특히 전남개발공사는 아름다운 풍광을 비롯해 해남땅끝호텔이 청정지역에 있다는 점을 홍보 마케팅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1년 초, 공사가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해남 땅끝호텔 주변지역에 대한 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해남땅끝호텔 주변에는 인체에 유익한 산소 음이온이 도시지역(0~200개/cc)에 비해 755%나 많은 1천510개/cc로 조사됐다.

해남땅끝호텔뿐만 아니라 여수 경도 리조트, 오동재, 영산재 등 4개의 숙박시설이 있는 곳의 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산소 음이온은 많고 미세먼지 등이 적어 안전하고 쾌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남개발공사는 기업·지자체 등의 단체 관광객 연수와 지역축제 등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땅끝 전망대, 두륜산 케이블카를 비롯한 해남군의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체계화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창문을 열면 넓은 바다와 황홀한 해돋이와 해넘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한눈에 펼쳐지는 명소, 해남땅끝호텔이 풍부한 문화유적과 관광지를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관광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 해남 땅끝마을과 연계한 관광상품 <사진제공: 해남군청>



部 門 史



● 신안의 천일염 산지

세계 최고의 소금으로 국내·외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전남산 천일염! 전남산 천일염 앞에서는 유럽의 프랑스 '게랑드' 천일염도 제대로 얼굴을 들지 못한다. 좋은 햇볕과 깨끗한 바람, 생명의 에너지가 빚어낸 전남산 천일염과의 맛있는 만남. 전남개발공사가 추천하고 있다.

### 천일염 87%가 생산되는 전남

2008년 3월 28일 그동안 광물로 분류되던 소금이 식품으로 인정된 소금산업진흥법(당시 염관리법)이 통과되었다. 우리나라 천일염 주산지(87%)인 전라남도가 천일염 산업의 지역 경제 유망지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수입 소금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가 빈번해지자 전남개발공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천일염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유통망을 구축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천일염을 공급하고자 천일염 사업에 뛰어 들었다. 우선 우수한 품질의 전남산 갯벌 천일염을 특화상품으로 개발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8년 2월 천일염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천일염 관련 전문위원을 위촉하였으며 목포대학교와 천일염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벨솔트 심벌마크와 로고타입



### 우수한 신제품 개발

전남개발공사는 2008년부터 전남산 천일염을 고부가가치 소금으로 개발, 특화해 나갔다.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값싼 소금'에서 '귀족 소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자체 브랜드인 벨솔트(Pearl Salt)를 내놓고 2008년 9월 남서해안 청정 갯벌에서 생산된 토판 천일염 선물세트 '벨솔트'를 출시하였다. 벨솔트(Pearl Salt) 브랜드는 '진주'라는 단어로 귀한 것이라는 이미지와 'P'를 중첩하여 별로 발음해 갯벌에서 나온 소금이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세계 5대 갯벌에 속하는 서남해안에서 생산되는 갯벌천일염 중에서도 진주와 같은 세계 명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벨솔트는 소금 결정자인 염전 바닥에 장판이나 타일 등의 바닥재를 깔고 생산하는 대부분의 천일염과는 달리 염전의 갯벌 바닥을 누르고 다진 뒤 증발지에서 농축된 해수를 올려 소금 결정체를 조심스럽게 채취하여 만들어진다. 전남개발공사는 남서해안 청정바다 신안의 유명 천일염 생산지인 비금도와 신의도에서 5~8월 생산된 최고 품질의 벨솔트만을 판매하고 있다. 바다물을 뽑아 인공으로 정제해 만드는 소금보다 건강에 유익한 미네랄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 천일염 사업 업무협약 체결식



## 자연이 선물한 건강지킴이 천일염 운영사업

사업위치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리 산 149-2(신의 산지 처리장)  
개발면적 건물 987㎡ / 부지 9,500㎡

- 2007. 12. 천일염 사업 참여 방안 검토
- 2008. 02. 천일염 사업 추진 계획안 수립
- 천일염 사업 업무협약 체결(목포대, 전남개발공사)
- 2008. 05.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목포대)
- 2008. 09. 천일염 사업 운영 개시 / 벨솔트 선물세트 1, 2호 출시
- 2008. 11. 토판천일염(절임용) 출시
- 2009. 04. 미용소금 개발 업무협약(나드리화장품)
- 2009. 06. 천일염 용기 디자인 출원
- 2009. 08.~09. 벨솔트 식탁염 미용소금 (3종) 일반 천일염 출시
- 2009. 12. 벨솔트 디자인 편집디자인 대전 은상 수상(한국산업디자인 협회)
- 2009. 12. GX(한국디자인진흥원) 편집(한국산업디자인 협회) 인증마크 획득
- 주부 모니터 요원 제도 시행

- 2010. 01. 제1기 벨솔트 주부 모니터 위촉식
- 2010. 06. 산지 처리장 업무협약(신안군)
- 2010. 08. 생산설비 준공(위치 : 신의면 산지 처리장 연면적 987㎡)
- 2010. 09. LA한인축제 '농산물엑스포' 참가
- 2011. 08. 천일염 신상품 개발 (햇벌소금 3종, 3년숙성 햇벌소금 3종)
- 2011. 10. 독일국제식품박람회 제품 전시
- 2011. 12. 천일염 도지사 품질인증 획득
- 전남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사용허가
- 2012. 11. 신세계백화점 서울 부산 등 5개점 입점
- 2014. 04. 대량 거래를 위한 권역별 도매업체 확보

2007.12.~

部 門 史

전남개발공사는 2009년 4월 공사 6층 대회의실에서 중견 화장품 기업인 나드리화장품과 업무협약을 맺고 천일염을 활용한 새로운 미용특화 성분의 연구 및 상품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천일염은 풍부한 미네랄과 기타 영양성분 등이 타소금에 비해 월등히 높아 피부 유연 작용 등에 효과적이어서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원료이다.

2010년 8월 천일염 수분 및 이물질 제거를 통한 고품질 소금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신안군 신의면에 연면적 987㎡ 규모에 시간당 최고 2톤의 처리용량을 갖춘 천일염 가공설비를 갖춘 산지 처리장을 준공하였다.

이런 노력 끝에 뽀슬트는 2011년 12월 전남도지사가 품질의 우수성을 인증하는 '도지사 보증 농수특산물'로 선정돼 '전남 농수특산물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뽀슬트는 품질뿐만 아니라 디자인에서도 인정받았다.

뽀슬트 패키지가 2009년 12월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후원하는 '제8회 대한민국 패키지 디자인 대전' 일반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이다. 뽀슬트 패키지는 사용상의 편리성 및 유지 관리의 용이성은 물론 색상, 모양 및 색채 등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아름답고 독창성이 뛰어나 상품목적에 적합하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 외에 2009년 12월 '뽀슬트 디자인 핀업디자인 대전'에서 은상을 수상하였고 GD(한국디자인진흥원) 인증마크와 핀업(한국산업디자인협회) 인증마크를 획득하였다.

전남개발공사의 천일염 제품의 디자인 향상은 소비자의 호감을 높이고 천일염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 다양한 유통망 확대

해가 거듭될수록 전남산 천일염의 유통망을 확대하고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한 전남개발공사의 노력은 가속도가 붙었다.

전남개발공사는 천일염의 고객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2010년 1월 19일 공사 8층 대회의실에서 '제1기 뽀슬트 주부 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 다양한 연령층과 경력으로 구성된 8명의 주부모니터는 천일염 상품 홍보와 제품 평가, 상품개발 및 프로모션 등의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전남산 천일염을 찾는 곳이 점점 늘어났다.

2011년 3월 25일 농협 하나로마트와 뽀슬트 및 햇별소금 입점 계약을 맺음에 따라 두 제품을 전국 2,300여 곳에 있는 하나로마트에서도 판매하게 되었다. 전남개발공사의 산지 처리장이 농협식품안전연구원으로부터 식품안전위생 검사를 받아 검사를 통과함으로써 계약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또한 2012년에는 신세계·현대백화점 등 국내 유명 백화점에도 전남산 천일염이 입점되어 다양한 소비자층을 확보하게 되었다. 아울러 뽀슬트 홈페이지 [www.ppearlsalt.com](http://www.ppearlsalt.com) 을 개설, 적극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천일염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 촉진도 유도하였다.

특히 2011년 5월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 의회 정상들에게 국회가 한국 대표 특산물로 '뽀슬트'를 증정해 호평을 받는 등 국제행사에서도 전남산 천일염 가치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외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푸드쇼, LA한인축제 농산물엑스포, 독일국제식품박람회 등 국내·외 각종 박람회에 참가해

천일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였다.

그 결과 전남산 천일염 판매는 2012년 672억 원, 2013년 787억 원을 기록하는 등 매출이 급증하게 되었다.

### 안정적인 대량 공급처 확보

현재 천일염 판매 유형은 개인 및 단체(임·직원 할당제 판매분, 소핑몰)가 59%, 전라남도 경찰청 등 공공기관이 32%, 전북 농협, 도청 매점, 제재파크, 엘도라도 등 고정거래처가 9%로 현재 고정거래처 대비 개인 및 단체와 기관의 의존도가 높다. 이에 전남개발공사는 안정적으로 전남산 천일염을 대량 공급할 수 있는 고정 거래처 확보와 매출 확대를 위해서 광역권별 도매업체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도 제1차 협의회 구성을 목표로 천일염유통사업단, 신안솔트, 강릉 하안금, 전주염업사 4개 업체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지역별·광역단위별 유력 업체 총 8곳을 최종 모집할 예정이다. 이로써 전남개발공사는 안정적인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정 거래처를 통한 지속적인 매출 확보로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하며 천일염 브랜드 인지도 상승, 공동협업체를 통한 공동 마케팅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의 깨끗한 자연, 지역민과 전남개발공사의 땀과 노력으로 재탄생한 전남산 천일염. 전남개발공사는 국내는 물론 세계인의 입맛 사냥에 적극 나서고 있다.



● 뽀슬트 선물세트1호



● 뽀슬트 선물세트2호



● 뽀슬트 토판천일염 / 뽀슬트 천일염



전남개발공사 품질인증 보유 현황

마크	인증기관	인증내역	인증제품	인증일시
	지식경제부 디자인진흥원	굿 디자인	뽀슬트	2009. 08.
ISO 9001 ISO14001	국제표준화기구	품질관리 환경관리	뽀슬트 햇별소금	2009. 06. 2010. 08.
	미국FDA	수출등록 허가	뽀슬트 햇별소금	2011. 09.
	전라남도청 농산물유통과	전남도지사 품질인증	뽀슬트 햇별소금	2011. 1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서비스 우수기관	서비스 우수기관	2012. 07.

전남의 얼과 혼이 깃들다

## 울돌목거북선 운영사업



2005. 12. -

● 울돌목거북선 전경

정 박 지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안길 96  
 운 항 코스    해남 우수영~진도 벽파진 (왕복 15km, 1시간 소요)  
 사 업 비      39.5억 원(국·도비)

- 
- 2005. 12.    전남도와 위·수탁 협약 체결
- 2007. 05.    거북선형 유람선단 제작사업 기본설계 발주
- 2008. 08.    울돌목거북선 준공
- 2008. 09.    울돌목거북선 취항식 & 울돌목거북선 독도 홍보 투어
- 2008. 11.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공공기관시설 최우수상 수상
- 2009. 03.    관광사업체 업무협약 체결
- 2011. 12.    해양경찰청 선정 11년 모범 유람선 수상
- 2012. 05~08. 여수세계박람회 해상교통 구축 지원
- 2013. 04~05.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지원
- 2013. 09.    자회사 전남관광(주) 위탁운영
- 2014. 04.    완도해조류박람회 기간 운영
- 2014. 10.    임진왜란 상황 재연 명랑대첩축제 지원 참가

13대 133!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승리였다.

1597년 가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13척으로 왜군 133척을 대파하였던

명랑대첩이 최근 영화 '명량'의 돌풍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

하지만 세계 해전 사상 가장 빛나는 대전승인 '명랑대첩'의 의미를 기리는 노력은 전남개발공사가 먼저 아닐까!

### 명랑대첩 승전을 기념하는 울돌목거북선

전남개발공사는 2005년 이순신 장군의 명랑대첩 승전을 기념하고 후손들이 거북선을 타고 명랑대첩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해 12월 전남도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 해남 우수영 진도 벽파진 명랑 수로 현장을 조사하며 거북선 건조에 따른 벤치마킹 및 사전조사에 나섰다. 2007년 5월 거북선형 유람선단 제작사업 기본설계를 발주한 전남개발공사는 42억 원을 들여 거북선형 유람선 1척과 리모델링 판옥선 1척, 안택선 1척을 건조하였다. 전문가의 고증과 기술적 지도로 제작된 거북선은 명칭 공모

를 통해 당시 '울돌목거북배(거북선)'로 불리게 되었다.

울돌목거북선은 최대길이 49.5m 폭 10.4m 368톤으로 180명이 승선할 수 있으며 3D영상실과 여객실, 기념품 판매점 등이 마련돼 있다.

특히 선체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상부를 알루미늄으로 제작했으며 상층부 전망대를 만들어 거북선 위에서 역사적 현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전남개발공사는 울돌목 최대 유속 시에도 평균 속도를 유지하며 운항하는 등 세 차례의 시험 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 우리 영토를 알리는 독도 출정식

드디어 2008년 9월 24일 울돌목거북선이 긴 잠에서 깨어나다. 첫 취항식을 가진 울돌목거북선은 관광객을 태우고 해남 우수영항을 출발해 진도 녹진과 벽파진항을 거쳐 1시간 30분동안 운항하였다.

특히 독도가 우리 나라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동해를 건너 독도 땅을 밟았다. 울돌목거북선을 타고 독도에 입항한 출정팀은 명랑해협의 바닷물과 독도의 동해 바닷물을 합치는 '합수식' 과 해양소년단의 '독도 선언식', '강강술래', '진도 북놀이' 공연 등을 진행하였다.

울돌목거북선 독도 출정식은 거북선이 갖고 있는 역사적 상징성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훼손 행위를 저지하고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특히 울돌목거북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관한 '2008 대한민국공공디자인 엑스포'에서 친환경 녹색디자인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공공시설 분야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아울러 2011년 서해지방경찰청으로부터 서해뱃길 안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최고 모범 유람선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 질 높은 서비스 강화

전남개발공사는 그동안 도선으로 등록·운영해 왔던 울돌목 거북선이 2009년 12월 유람선으로 등록이 변경됨에 따라 울돌목거북선 홍보는 물론 질 높은 서비스 강화에 적극 나섰다. 2009년 3월에는 (주)신세계여행사와 (주)엑스포관광, 2010년 3월에는 해남 유스호텔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울돌목거북선 3D입체 영상물을 제작하여 각 방송국과 센터 및 단체에 무상 대여하였고 MBC 여유만만 등 TV 방송에 다수 방영,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포토 콘테스트를 개최함으로써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였다.

특히 울돌목거북선은 2009년부터 매년 열리는 '명랑대첩'에서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하였으며 2012여수세계박람회에는 해상 교통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순천정원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자체 축제에서도 큰 인기를 누렸다.

아울러 활 쓰기·복식 등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효율적인 요금제와 신규 코스를 개발하고 있다.

울돌목거북선의 부활로 400여 년 전 명랑대첩의 생생한 역사가 되살아나고 '제2의 명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 울돌목거북선 건조하는 모습 ● 독도 출정식 ● 울돌목거북선 모범유람선 선정



部 門 史

친절과 고품질로 전남을 알리는 홍보대사  
무안공항면세점 운영사업



2009.07. ~ 2014.12.

● 무안공항면세점 전경

무안공항 면세점 운영사업

사업위치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대합실
사업규모	245.32㎡
판매품목	1,015품목(국내산 466, 국외산 549 14년 6월 기준)

2009. 07.	면세점 사업 참여 요청
2009. 09.	전남도로부터 면세점 설치 요청
2009. 12.	면세점 개점
2011. 06.	전산시스템 보완
2012. 03.	고객서비스만족도 최우수 면세점 선정(한국관광공사 주관)
2013. 02.	무안공항면세점 전산 개선 프로그램 개발
2013. 04.	전남지역 특산물 판매 코너 확대 설치

전남 유일의 면세쇼핑의 메카, 무안공항면세점은 365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친절함 미소와 함께 남도의 그윽한 향기를 선물한다.

고객 눈높이로 친절을 선물하는 무안공항면세점! 그러나 불과 6년 전 상황은 지금과 달랐다. 무안공항면세점은 2007년 11월 무안공항 개항 직후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했지만 2009년 8월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의거해 철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5차례의 입찰공고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자 선정이 유찰되자 전남개발공사는 우리 지역의 면세점을 위기에서 구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사명으로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었다. 전남개발공사는 무안공항면세점 개점을 앞두고 한국관광공사 및 타 면세점을 벤치마킹하였으며 관련 면허 소지자 및 해당 경력자 계약직을 채용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관세 및 통관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무안공항면세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였다.

최우수면세점 선정

2009년 12월 26일 면세점을 새롭게 연 전남개발공사는 전라남도과 한국공항공사와의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며 국제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면세점 홍보 및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갔다. 성수기 정기 할인행사, 사은품 증정행사, 테마별 할인행사 등 연중 다양한 판매행사와 함께 고객 눈높이에 맞는 상품을 적기에 입점시켜 고객들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갔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라남도 우수 토산품 및 기념품 판매코너를 확장해 지역상품을 홍보·판매하였으며 또한 공항 이용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런 각고의 노력에 힘입어 무안공항면세점은 2012년 3월 한 국공항공사에서 실시한 서비스평가에서 공항 170개 입점업체 가운데 최우수업체로 선정되었다.

매출 신장으로 화려하게 옷을 갈아입다

개점 이후 매년 수익성이 향상된 무안공항면세점은 미운 오리 새끼에서 어느새 백조로 화려하게 옷을 갈아입었다. 2013년 들어서 전산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남지역의 농수특산물 판매코너를 확대 설치해 우수한 상품들을 홍보·판매함으로써 공항 이용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중국인들의 담배와 국산 화장품, 밥솥 등의 구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3년 처음으로 1억 4,500만 원의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현재 정관장을 비롯해 화장품, 양주류, 담배 등 모두 1,015점이 판매되고 있으며 유명 브랜드 입점을 통한 면세점 활성화 및 수익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의 전략적인 마케팅으로 활기를 띤 무안공항면세점은 운영권을 민간기업으로 넘겨 공익을 실행하게 된다. 국내·외 관광객의 첫 관문, 무안공항면세점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전남을 다시 찾게 하는 관광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손님을 응대하는 무안공항면세점 직원 ●● 무안공항면세점 상품들 ●●● 최우수면세점 선정 기념 촬영



部 門 史

남악지구 최고의 여가·문화의 장  
남악골프연습장 운영사업



2008.02. ~ 2014.10.

● 남악골프연습장 조감도

— 사업위치 무안군 삼향읍 남악 5로 48번길 1  
사업규모 부지 28,995㎡ 연면적 3,791㎡  
사업비 126.3억 원(토지 64.6 건물 61.7)  
주요시설 골프타석(90타석, 퍼팅연습장, 스크린골프(6실) 등

— 2008.02. 건축설계용역 발주  
2010.01. 남악골프연습장 설계용역 계약  
2010.05. 남악골프연습장 건축공사 계약  
2010.07. 남악골프연습장 조성공사 착공  
2011.03. 남악골프연습장 개장  
2012.03. 개관 1주년 이벤트  
2012.11. 제1회 남악골프클럽 스크린골프대회  
2013.01. 제2회 남악골프클럽 스크린골프대회  
2014.10. 매각 완료(2년 유예기간)

서남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남악신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신도시로 부상한 남악신도시의 남악골프연습장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주민들을 위한 골프장 제안

한창 남악신도시로 인구가 유입되었던 2007년 그 당시만 해도 무안군에는 목포대학교 30타석을 제외하고 골프연습장이 한 곳도 없는 상태였다.

전남개발공사는 주민들의 여가 및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5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 90타석의 골프장 건립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주민들이 주거시설의 조망권 침해와 골프연습장 야간 불빛과 소음으로 골프장 건립을 꺼려하자 남악골프연습장 사업은 무산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가·문화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높아지자 전남개발공사는 2010년 3월 재차 골프연습장 개설을 위한 협의를 다시 무안군에 신청하였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한 전남개발공사는 오룡지구와 연결하는 남창대교와 산업철도 인근인 무안군 삼향읍 남악 5로 48번길 1에 연면적 3,791㎡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최신식 운영시스템 구축

2011년 3월 남악신도시에 여가문화 새바람이 불어왔다. 남악신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주민들과의 소통과 대화로 일궈낸 골프연습장이 문을 열고 손님맞이에 나선 것이다.

직선거리 170미터, 90타석을 갖춘 남악골프연습장은 모

든 타석에 적외선 온열기와 골프백걸이 전용의자 및 테이블 등이 설치되었다. 또한 이용객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석 간 간격도 2.5미터로 충분히 두었으며 복도와 타석 사이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었다.

1층에는 골프숍, 스낵바, 샤워실, 2층에는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실내골프연습장, 프로 대기실 등 골프를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시설이 마련되었다. 특히 태양광발전기 시스템을 완비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을 보호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렸다.

여가문화 활성화로 공익가치 실현

2004년 창립 이래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전남개발공사는 골프를 통한 지역민 여가 활성화로 공익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우선 재능 나눔의 일환으로 남악중학교, 옥암중학교, 남악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매주 토요일 2시간 동안 무료레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남 도민이면 누구나 2개월 과정의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골프 유망생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프로레슨을 실시하고 무료로 골프연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지역민들에게 최신식 골프연습장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함에 따라 남악신도시는 물론 목포, 영암 등 지역민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2012년 3월 개관 1주년을 맞은 남악골프연습장은 회원권 구매 고객에 대해 시은품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였으며 초보 골프 마니아를 위한 스크린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전남개발공사는 남악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남악골프연습장이 건전한 레저스포츠의 메카로서 지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자 공익과 수익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남악골프연습장을 2014년 10월 중흥건설에 176억 원에 매각하게 된 것이다.

이윤창출을 지역민에게 돌리는 전남개발공사, 주민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전남개발공사는 오늘도 뜨거운 심장으로 공익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있다.

● 남악골프연습장 내 시설 ● 방과후 수업 모습



部 門 史



2004  
~  
2014

제3장 위·수탁·출자사업 부문

- 영산호관광지 기반조성 및 리모델링사업·  
쌀문화테마공원 조성사업
- F1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대행사업
- 순천의료원 노인성질환 전문병동·  
호스피스병동 증축공사·  
의료인숙소 건립사업
- 전라남도도립도서관 건립사업
- 남도소리울림터공연장 건립사업
-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건립사업
- 신안하의도 관광숙박시설 건립사업
- 전라남도교통연수원 건립사업
- 영암·해남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출자사업  
(삼포·구성지구)



● 영산호관광지 조감도

복합관광레저의 랜드마크, 영산호관광지가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

영산호관광지는 관광 편의시설 확충으로 휴양·체험 등 다양한 목적의 이용자들이 찾고 있어 전남 서남권의 관광 휴양·문화시설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영산호, 국민관광지 선정

영산호관광지가 위치한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는 본래 영암군에 딸린 여섯 개의 섬 (나불도·외도·문도·구와도·고마도·서도) 가운데 가장 큰 섬이었다.

1981년 12월 영산강 하구둑이 준공되면서 개발 잠재력이 풍부해짐에 따라 전라남도는 영산호와 대규모 간척지를 배경 삼아 자연 경관이 수려한 나불도를 중심으로 관광 휴양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였다.

1983년에는 나불도·계도 조성계획이 승인되었고, 1985년에는 외도 지구까지 국민관광지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나불도를 중심으로 한 전역이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것이다.

### 휴양·체험형 관광지로 새 단장

2005년 문화관광부에서는 전국 관광지 중 자원성은 있지만 시설이 노후화되고 프로그램 등이 미흡한 기존 관광지에 대한 관광지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당시 영산호관광지는 단지 내에 농업박물관을 비롯한 호텔 등 숙박시설과 상가, 농촌체험장, 마리나 시설 등을 갖추고 있었지만 시설 노후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침체를 겪어온 터였다.

이에 전라남도는 효과적인 관광 개발 정책 추진과 체계적이며 계획성 있는 관광 산업의 육성 및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영산호관광지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신청하였다. 전국 8개소에서 신청한 관광지 가운데 영산호관광지가 문화관광부의 관광지 리모델링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한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통과함으로써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영산호관광지가 2006년 6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광지 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전문가로 구성된 관광지 리모델링추진위원회의 지속적인 자문을 받는 등 영산호관광지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 복합관광레저의 랜드마크

## 영산호관광지 기반조성 및 리모델링사업·쌀문화테마공원 조성사업

사업위치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영산호관광지 내)
개발면적	669천 m <sup>2</sup>
사업비	1,347억 원(국비 371, 도비 371, 민간 605)
2005. 12.	영산호관광지 기반조성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2006. 11.	영산호관광지 리모델링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2008. 06.	영산호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쌀문화테마공원 위·수탁협약 체결 (전라남도농업박물관)
2008. 11.	토목 조정 전기 공사 착공
2008. 12.	보상 1단계 완료 제안 공모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쌀문화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 완료
2009. 01.	영산호관광지 리모델링사업 기반시설공사 착공
2009. 05.	1차 토지보상 완료
2009. 12.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
2010. 03.	쌀박물관 건축공사 착공
2011. 10.	쌀박물관 건축공사 준공
2012. 03.	쌀문화테마공원 2단계 (쌀농업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2013. 01.	영산호관광지 기반조성 및 리모델링사업 준공

2013. 04.	쌀박물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착공
2013. 06.	쌀문화테마공원 2단계 (쌀농업공원) 공사 착공
2013. 07.	농업박물관 전시물 제작·설치 완료
2013. 12.	쌀문화테마공원 2단계 (쌀농업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2014. 01.	쌀박물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완료
2014. 04.	쌀문화테마공원 1단계 시설물 인계인수
2014. 06.	쌀박물관 개관
2014. 08.	쌀문화테마공원 2단계 (쌀농업공원) 공사 준공 쌀문화테마공원 2단계 (쌀농업공원) 시설물 인계인수

2005. 12. ~ 2014. 08.

## 部 門 史

● 영산호관광지 지형도 ● 영산호관광지 위성사진



전라남도과 전남개발공사는 2006년 11월 영산호관광지 리모델링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일환인 영산호관광지 재활성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매년 영산호관광지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2009년 1월 총 23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영산호관광지 기반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을 착공하였다. 협소한 도로를 확포장하고 농업박물관의 진·출입로를 박석으로 포장하였으며 다목적운동장과 산책로를 조성하고 주차장 및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등 관광객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편의를 증진시켰다.

● 영산호관광지 현장사무소 개소식



### 전통 농도 농업 1번지, 쌀문화테마공원 개관

20여 년간 영산호관광지를 묵묵히 지켜오던 전라남도농업박물관이 제2의 도약에 앞장섰다.

전라남도농업박물관은 점차 사라져가는 농경 문화유산을 수집·보존·전시해 조상들의 슬기로운 삶의 문화를 후손들에게 일깨워주고 우리나라 대표 농경문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1993년 영산호관광지에 터를 잡고 운영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박물관 전시시설이 낙후되고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자 리모델링 및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에 지난 2007년부터 농도 이미지와 쌀 농업의 중요성 및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227억 원(국비 87, 도비 140)의 사업비를 들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152천 m<sup>2</sup> 부지에 쌀을 주제로 한 '쌀박물관'과 '쌀 농업공원' 등 체험 중심의 쌀문화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즈음 농업박물관 주변에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의 장을 열고 영산호관광지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한옥형 숙박단지인 한옥호텔 영산재 부지가 선정되기도 하였다.

● 쌀박물관 조감도



2008년 6월 전라남도농업박물관과 쌀문화테마공원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전남개발공사는 1단계 쌀박물관 및 체험동 13천 m<sup>2</sup>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2010년 3월 쌀박물관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드디어 7년간의 공사 끝에 쌀을 테마로 한 쌀박물관과 먹거리장터, 유기농판매센터를 건립하였고 쌀박물관 내 전시물을 설치하는 등 1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돼 2014년 6월 9일 정식 개관하게 되었다.

농업박물관 뒤편에 새로 건립한 쌀박물관은 2층 한옥형 건물로, '겨레와 함께 한 쌀'이란 대주제하에 쌀 문화에 대한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다양한 현대적 매체를 활용하여 흥미롭고 친밀감 있는 쌀 홍보 과학관 중심의 전시연출 공간이다. 또한 쌀박물관 바로 옆에 있는 'ㄷ'자 형태의 한옥형 건물은 한식을 비롯한 먹거리 장터와 남도유기농판매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2014년 6월 쌀박물관을 정식으로 개관함과 동시에 2단계 조성사업인 쌀 농업공원 조성공사도 성공리에 준공하였다.

138,612m<sup>2</sup> 규모로 한옥호텔 영산재 앞에 조성되는 쌀 농업공원에는 이팝 광장을 비롯하여 야외전통문화공연장, 선농단, 친경지, 생태연못, 벼 아트(논 그림), 발벼 재배지, 청산도 구들장 논, 다랑이 논(벼 한살이 체험장), 친환경 농업생태학습장, 웅덩이(뚝방) 관찰학습장, 애완가축동물원, 주말농장, 토종 작물원, 가족쉼터, 승마체험 등 24종에 달하는 다양한 쌀 농업을 중심 주제로 한 체험시설이 들어섰다. 그야말로 농경문화 및 친환경농업 등을 한 곳에서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전남개발공사는 2014년 8월 전라남도농업박물관에 1, 2단계 시설물을 인계인수함으로써 1980년대부터 시작한 영산호관광지 조성 및 리모델링사업과 쌀문화테마공원 조성사업의 대장정을 드디어 마무리하게 되었다. 긴 세월 초심을 잃지 않는 전라남도과 전남개발공사의 끊임없는 열정과 인내가 일궈낸 것이다.

전통문화와 역사가 살아 있고 볼 거리·먹을 거리·즐길 거리가 풍부한 영산호관광지는 국내는 물론 세계인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휴양·농업문화 복합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

## 部 門 史

쌀 박물관 전시실, 남도 쌀가게 코너



쌀박물관 전경



먹거리장터 전경



쌀 농업공원 전경





● F1국제자동차경주장 전경

스피드 스포츠 마니아 꿈의 무대

## F1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대행사업



2008.05. ~ 2015.02.

●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행사 모습

사업위치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 2
개발면적	1,793천 m <sup>2</sup> (경주장, 카트경주장, 오토캠핑장, 야구장)
사업예산	30억 원 (전액 도비)
-	
2008.05.	F1국제자동차경주장 사업참여 기본 합의서 체결 (자본금 600억 원)
2008.07.	공사 50억 원 추가 실행 (자본금의 15%)
2009.04.	F1국제자동차경주장 건축 기공식
2011.10.	경주장 관리운영 협약 체결
2012.03.	위·수탁 계약 체결 (전라남도, 전남개발공사)
2012.09.	F1국제자동차경주장 내 카트경주장 개장
2012.11.	F1국제자동차경주장 내 오토캠핑장 개장
2005.05.	아시아스피드 페스티벌
2013.10.	2013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지원
2013.12.	2013 KIC 동계시즌 운영
2014.05.	전남 AFOS대회 개최지원
2014.06.	KIC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2014.08.	한·중모터스포츠 페스티벌
2014.11.	전라남도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2014.12.	2014 한·중·일 슈퍼바이크 대회
2015.02.	경주장 관리 운영 협약 체결 종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피드!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이젠 소수만의 스포츠가 아니다.

365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피드 스포츠!

바로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위치한 F1국제자동차경주  
장이 있기에 가능하다.

### 낙후된 전남 타개책으로 출발

매회 평균 관람객만 20만 명에 이르고 매년 184개국, 6억 명  
이 시청하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세계 최고 규모의 종합  
문화스포츠다.

전 세계 300여 개의 다국적 기업이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및 출전팀을 후원하고 있으며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F1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통해 검증  
된 자동차 관련 기술을 일반 차량에 적용하는 등 일반인들의  
생활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낙후의 대명사인 전라남도가 타개책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F1이다. 전라남도는 영암·해남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선도사  
업 차원에서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처음 구상하게 되었다.  
삼포지구에 속한 영암군 삼호읍 일대를 모터스포츠의 메카  
로 조성해 모터스포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2006년 3월, 전라남도가 F1월드챔  
피언십 유치 계약을 맺으면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처음부터 장벽에 부딪혔다. 국회·중앙부처의 지원은 물  
론 대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만 했  
다. 53만여 명 시·도민의 입법청원을 거쳐 발의된 F1지원법이  
제17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포기하지 않았다. 제18대 국회에서 여야 의  
원들을 상대로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F1지원법이 국회를 통과  
할 수 있었다.

이에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선 전라남도는 지역의 호텔과 식당을 선별해 F1호텔,  
F1레스토랑으로 지정하였고 통역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서비  
스 제공에 나섰다. 또한 F1국제자동차경주장을 건설하기 위해  
2006년 9월 F1운영법인 KAVO(주)를 설립하고 2007년 7월 31  
일 경주장 건설공사를 착공하였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라남도과 2008년 5월 F1국제자동차경  
주장 사업 참여 기본 합의를 체결(자본금 600억 원)하고  
2009년 4월 기공식을 가졌다.

●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경기 모습



部門史

###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효과 누려

드디어 역사적인 날이 왔다. 새로 완공된 F1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2010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첫 경기가 펼쳐진 것이다.

F1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2010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네 차례 행사를 치르는 동안 평균 16만 명의 관람객이 영암을 찾았으며 목표는 물론 광주권까지 호텔 예약이 완료되는 등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지역 경제에 효자 노릇을 했다. 또한 성공적인 F1대회를 계기로 중소도시 영암이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며 카트경기는 이제 더 이상 F1대회 부속으로 머물지 않고 독자적인 선수층과 마니아층 관광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F1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회 개최 및 경주장 건설·운영을 해 오던 KAVO(주)가 경영난을 겪게 되자 사업에서 배제되었다. 그 후 전라남도가 직접 F1대회를 운영하게 되었고 전남개발공사도 F1 부지를 매입할 목적으로 3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하게 되었다.

전라남도는 F1경주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1년 10월 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 전남개발공사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3년간 F1경주장의 운영 업무를 맡게 되었다. 우선 효과적인 F1경주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KIC사업단을 신설하였다.

KIC사업단은 기본적으로 F1경주장 시설 장비는 물론 수목 등을 유지 보수 정비하며 경주장 운영 사용자 부과 징수 및 회계 처리를 한다. 또한 마니아들이 안심하고 자동차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 쓰며 더 나아가 각종 대회 유치는 물론 F1경주장의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다.



● 전남도지사컵 모터스포츠대회 ● 전남 아시아 페스티벌

### 높은 가동률로 흑자 행진

이제 F1경주장은 마니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경주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레저스포츠 공간으로 성장하였다. 2012년 9월 이후 20개월 동안 7만여 명이 찾아 모터 스포츠를 체험하는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대학생 F1서포터즈 발대식



## 部 門 史

F1경주장은 연일 각종 국제 대회 유치 및 자동차 기업 신기술 개발 테스트, 자동차 동호회 행사 및 기업 고객 초청 행사 등으로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CJ슈퍼레이스에서 주최하는 한·중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을 비롯해 아시아스피드 페스티벌(5월), 전남도 모터스포츠 페스티벌(11월), 한·중·일 슈퍼바이크대회(12월) 등 굵직한 경주대회 외에도 자동차 관련 기업과 동호인들의 트랙데이 행사가 주말과 평일까지 이어져 모터스포츠 메카로서의 위용을 지켜가고 있다.

경주장 운영 가동 실적은 2012년 211일, 2013년 220일, 2014년 F1경주장(코리아 인터내셔널서킷 총 5,615m<sup>2</sup>)의 가동 일 수는 향후 일정이 잡힌 것을 포함해 총 266일에 달한다. 전남개발공사는 보다 많은 일반인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KIC해피 패밀리 회원제와 드라이빙 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행사와 유관기관, 기업, 학교 등에 홍보하여 단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따뜻한 전남의 기후를 바탕으로 동절기 경주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동계시즌을 KIC 랜드마크로 성장시킴으로써 흑자 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 모터스포츠 산업 중심지로 부상

복합레저스포츠 문화를 열고 있는 F1경주장은 일반인들의 여가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F1경주장을 중심으로 한 카트장, 오토캠핑장, 생활야구장 등 다양한 레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산책로, 자전거도로와 트래킹 코스를 갖춘 녹지 공간도 조성해 일반인도 경주장을 상시 방문해 휴식과 레저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산업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F1경주장!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계기로 경주장 일원에 미래 신성장 사업인 모터스포츠산업 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특히 전라남도는 F1경주장 일원을 미래 신성장산업인 모터스포츠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주장 인근에 '차 부품 고급 브랜드화 연구개발 사업'과 '튜닝산업 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이 본격화되면 한국의 고부가가치 자동차 부품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시설로 역할을 할 전망이다.

F1 불모지에서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고 황금알을 낳은 전라남도과 전남개발공사의 꿈을 향한 질주는 앞으로 계속된다.



● 생활야구장 ● 오토캠핑장 ● KC 카트경기장

지역민 건강증진과 의료복지의 산실

## 순천의료원 노인성질환 전문병동·호스피스병동 증축공사·의료인숙소 건립사업



2005. 03. ~ 2007. 06.

●순천의료원 노인성질환 전문병동 조감도

### 순천의료원 노인성질환 전문병동 건립사업

사업위치 순천시 매곡동 130번지  
개발면적 부지 21,854㎡, 연면적 5,302㎡  
사업비 64억 원

- 
- 2005. 03. 건립공사 위·수탁 협약 체결
- 2005. 12. 건축 실시설계 심의 통과
- 2006. 03. 건립공사 착공
- 2007. 04. 건립공사 준공
- 2007. 06. 순천의료원 노인성질환 전문병동 개원식

*도립 순천의료원과 전남개발공사와의 인연은 각별하다.  
공기업·공공병원이란 짧은 꿈보다 더 강렬한 타이틀은 '첫 사업'이다.  
전남개발공사의 살아있는 역사와 함께 해 온 도립 순천의료원!  
순천의료원이 전남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준 전남개발공사!  
그 소중한 만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 첫 사업, 순천의료원 노인성질환 전문병동 건립

개원 95주년을 맞는 도립 순천의료원은 거국적인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던 1919년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립 순천병원으로 설립하였다. 그 후 1982년 지방공사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으로 전환했고 1996년 종합병원으로 승격하였다.

2002년 전라남도도는 노인인구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반면 전남 지역에 노인성질환을 치료할 전문병원이 부족하자 순천의료원을 노인성질환 전문병원으로 특화하기로 하고 행정자치부에 64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2004년 전라남도 공기업으로 첫 발을 댄 전남개발공사에 순천의료원 노인성질환 전문병동 건립이라는 '첫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전남개발공사와 순천의료원은 2005년 3월 위·수탁 협약

을 체결하고 그다음 해 3월 9일 전남 순천시 매곡동 130번지에 위치한 21,854㎡ 부지에 노인성질환 전문병동 건립공사를 착공하였다.

비록 3.5%의 위·수탁 수수료를 받는 작은 사업에 불과했지만 지역민의 건강복지에 앞장선다는 책임과 사명감으로 총력을 기울였다.

마침내 임·직원의 피땀 흘린 노력 끝에 2007년 4월 12일 전국 최초로 240 병상,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노인 복지 산실, '순천의료원 노인성질환 전문병동'이 완공되었고 6월 22일 지역민과 각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질환 전문병동 개원식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순천의료원은 치매환자 및 노인성 질환에 대처하는 전문병원으로 면모를 갖추게 됐으며 전남개발공사는 탄탄한 사업기반을 닦게 되었다.

### 순천의료원 호스피스병동 증축사업

사업위치 순천시 서문성터길 2 (순천의료원 내)  
개발면적 증축 7,052㎡, 개보수 1,112㎡, 철거 1,040㎡  
사업비 44억 원 (국비 26, 도비 18)

- 
- 2010. 01. 순천의료원 호스피스병동 증축 및 지방의료원 기증 보강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 2010. 03.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 2010. 12. 시설공사 입찰공고
- 2011. 01. 증축공사 착공
- 2012. 01. 증축공사 준공



●순천의료원 호스피스병동 조감도

2010. 01. ~ 2014. 02.

### 순천의료원 호스피스병동 증축공사

순천의료원과 '첫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낸 전남개발공사에 주어진 두 번째 임무는 호스피스병동 증축공사이다.

순천의료원은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환경 개선에 주력하기로 하고 호스피스 병동과 장례식장 주차장, 기숙사 신·증축에 나서는 동시에 첨단 의료장비도 대폭 보강했다. 이에 전남개발공사는 2010년 1월 순천의료원 내 부지에 호스피스병동 증축 및 지방의료원 기증 보강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 2011년 1월 총 사업비 44억 원 규모의 호스피스병동 증축공사를 착공하여 1년의 공사 끝에 공사를 순조롭게 마무리하였다.

순천의료원은 호스피스병동 증축으로 지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환경에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 순천의료원 의료인숙소 건립사업

사업위치 순천시 금곡동 259번지  
개발면적 부지 1,544㎡, 연면적 1,773㎡ (지하 1층, 지상 4층)  
사업비 28억 원 (국비 14, 지방비 14)  
주요시설 숙소 1개동 (12호)

- 
- 2011. 08. 위·수탁 검토 요청 (순천의료원→전남개발공사)
- 2011. 10. 위·수탁 협약 체결
- 2012. 01. 건축설계용역 착수
- 2012. 10. 건축설계용역 완료
- 2013. 01. 건축공사 착공
- 2014. 02. 건축공사 준공



●순천의료원 의료인숙소 조감도

### 순천의료원 의료인숙소 건립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민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천의료원이 전남개발공사에 맡긴 세 번째 임무는 의료인숙소 건립사업이다.

순천의료원은 2011년 8월 의료인들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의료 활동에 적극적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의료인들의 숙소 사업을 전남개발공사에 요청하였다. 건축설계용역을 완료한 전남개발공사는 2013년 1월 총 28억 원 사업비로 순천시 금곡동 259번 부지에 12호를 갖춘 의료인숙소 1개동 건립공사에 들어가 1년 간의 공사 끝에 의료인숙소를 성공리에 준공하였다.

전남지역 거점 공공병원인 순천의료원과 전남 발전 디자인인 전남개발공사의 뜻깊은 만남이 지역민의 사랑의 온도를 높이고 있다.

部 門 史

도민 독서문화의 구심점

## 전라남도도립도서관 건립사업



2007.06. ~ 2012.01.

• 전라남도도립도서관 전경

사업위치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210
개발면적	부지 27,610㎡, 연면적 12,079㎡
사업비	198억 원 (국비 59, 도비 139)
2007.06.	전라남도도립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2008.11.	위·수탁 협약 체결
2009.10.	건축설계 완료
2009.12.	전라남도 공사계약 심사완료 및 건축공사 입찰 공고
2010.02.	건축공사 계약 체결
2010.03.	건립공사 기공식
2010.10.	철골공사 완료
2011.07.	준공
2011.12.	시범 운영
2012.01.	개관

### 책 속에 전남의 미래가 있다!

전라남도도립도서관은 2005년 전라남도청이 남악신도시로 이전할 때

'도청 소재지에 문화기반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역민의 요구에 따라 제일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라남도 2008년 11월 총 198억 원 규모의 도립도서관 건립공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건축설계에 들어갔다.

한옥에서 지혜를 얻어 전국 최초로 책을 펼쳐 놓은 듯한 책 지붕으로 지붕을 디자인하고 외벽에는 훈민정음 등 다양한 문양을 넣고 기둥은남도 대표 작가들의 작품으로 세우는 등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설계안이었다.

2010년 2월 경동건설(주), 동남종합건설(주)와 건축공사를 계약한 전남개발공사는 2010년 3월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21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도서관건립사업을 착공하였다.

친환경 절약형 도서관을 지향하는 전남개발공사는 건물 벽면을 통유리로 처리해 햇살이 잘 들어오게 만들었으며

각 자료실 벽은 건강에 좋은 편백으로 마감하였다.

특히 지붕과 주차장 가로등에 태양열 시설을 설치하였고 빗물을 보관하였다가 정원과 분수에 사용할 수 있는 빗물처리 시설도 갖추었다. 또 도서관 건물 곳곳에 솥을지붕, 솥을 대문 등 한옥의 지혜를 빌린 시설들이 들어섰다. 2010년 7월 도서관을 준공한 전남개발공사는 각종 서가와 장비를 잇따라 확충, 8만여 권을 갖추고 2달 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12년 1월 개관식까지 차질없이 일을 진행시켰다.

도민들의 문화사랑방, 책과 함께 전남의 미래를 키우는 전남도립도서관은 명실상부한 전남지역 대표 도서관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예술공연 및 전통문화 교육의 장

## 남도소리올림터공연장 건립사업



2012.03. ~ 2015.03.

• 남도소리올림터공연장 조감도

사업위치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개발면적	연면적 5,193㎡ (지하 1층, 지상 3층)
사업비	189.4억 원(국비 75.7, 지방비 113.7)
2012.03.	위·수탁 협약 체결
2013.02.	건축설계 완료
2013.06.	건립공사 착공
2015.03.	건립공사 준공 예정

### 남악신도시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라!

남악신도시의 문화 관광 명소, 남도소리올림터공연장!

예향 전남에 전통예술의 산실인 남도소리올림터공연장이 2015년 소리의 고장, 무안에 들어선다.

2005년 전라남도 도청이 남악으로 이전할 당시 남악신도시에 문화기반 시설이 전무하자 전라남도는 전남도립도서관을 시발점으로 남악신도시 일대를 도서관, 미술관 등이 한데 자리 잡은 복합문화공간 조성계획을 구상하였다. 그 가운데 남도소리올림터공연장 건립을 위하여 업무용지를 문화용지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 2010년 3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듬해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부지를 매입하였다.

2012년 3월 전라남도와 위·수탁 협약을 맺은 전남개발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 업체 선정을 완료한 후, 2013년 6월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였다.

남도소리올림터공연장은 우리나라 전통양식을 최대한 살린 아름다운 한옥형으로 건립되며 상설공연장을 비롯해

사무실, 연습실, 장비보관실, 자료실, 휴게실 등이 들어선다. 전남개발공사는 2015년 3월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도소리올림터공연장이 완공되면 창립한 지 27년 동안 전용공간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전남도립국악단에 드디어 전용공간이 생기게 되며 지역 전문인의 발표 무대, 청소년의 전통문화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공연 예술 활동 및 주민 향유 기회를 확대하게 된다.

특히 남도소리올림터공연장은 인근에 위치한 전남도립도서관과 남악신도시의 문화 관광 명소이자 학문과 예술의 중심센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部 門 史

기업 성장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

##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2006.09. ~ 2009.05.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조감도

사업위치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970  
개발면적 부지 10,023㎡, 연면적 7,982㎡ (지하 1층 지상 5층)  
사업비 123억 원(국비 49, 도비 74)

2006.09.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2006.12. 설립 허가  
2007.07. 위·수탁 협약 체결  
2007.10. 건립공사 착공  
2009.03. 건물 준공  
2009.05. 개원식

###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기업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힘차게 이끌어내고 있다.

전라남도는 금융위기로 경제가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인 중소기업에 눈을 돌렸다.

2006년 7월 28일 전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전라남도중소기업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건립·추진하기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지원 기관 대표 등 17명의 발기인들이 재단법인 설립 취지문 채택과 법인설립의 기본이 되는 정관(안)을 심의·의결하였고 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이사회도 구성하였다.

특히 전라남도는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조기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부지 매입 협약 체결 등을 완료하였다. 전남개발공사는 2007년 7월 전라남도와 건립공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10월에 건립공사 첫 삽을 떴다.

전라남도 청사와 불과 5분 거리인 남악신도시 내 택지개발지구 10,023㎡ 부지에 사업비 123억 원을 투자해 2009년 3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준공, 5월 20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 및 정보 공유, 금융 및 자금, 기술 개발, 판로 확보, 기능성식품 관련 개발 기술 이전 등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의 중심,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의 선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환경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기반

##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건립사업



2009.07. ~ 2012.12.

●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조감도

사업위치 전남 강진군 성전면 송계로 650-97  
개발면적 부지 39,670㎡, 연면적 8,233㎡ (지하 1층, 지상 2층)  
사업비 208억 원 (국비 104, 도비 104)

2009.07. 위·수탁 협약 체결  
2009.12. 건축설계용역 착수  
2010.10. 건축설계용역 완료  
2010.11. 건축공사 착공  
2012.12. 건축공사 준공

환경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기반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강진환경산업단지의 성공을 좌우하는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환경산업 활성화 및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

국내 최초로 건립되는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구(舊)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는 2007년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첨단 환경산업 멀티 클러스터 육성사업과 2009년 선정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환경산업 수출 전략 산업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환경부와 전라남도, 강진군은 2009년 9월 전남도청에서 센터 건립·운영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전남 강진군 성전면에 위치한 강진환경산업단지 내 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확정하였다.

전라남도와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공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전남개발공사는 2009년 12월 건축설계를 착수하고 6개월 만에 완료하였다. 한옥형 전통양식과 친환경 건축 요소를 반영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시킨다는 설계다. 사업비 208억 원으로 강진환경산업단지 내 39,670㎡ 부지에 건립되는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은 2010년 11월

29일 기공식을 갖고 2012년 12월 2년 동안의 공사를 마무리지었다.

강진환경산업단지의 성공을 좌우하는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은 환경기술 실증·시험 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환경 측정 분석·검사, 창업·보육·마케팅 지원, 환경 신기술의 이전·교류, 환경인력 교육·양성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오는 2015년 6월 준공을 앞둔 강진환경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사전에 창업보육실을 제공하고 각종 실험 실증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하며 관련 기업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강진환경산업단지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성장 동력, 환경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은 환경산업 활성화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部 門 史

관광자원과 연계한 한옥펜션

## 신안하의도 관광숙박시설 건립사업



2012.01. ~ 2013.07.

● 신안하의도 관광숙박시설 조감도

사업위치 전남 신안군 하의면 오류동길 175  
 개발면적 부지 5,124㎡, 연면적 330㎡ (지상 1층)  
 사업비 10억 원 (지방비 10)

- 
- 2012. 01. 이사회 승인
- 2012. 02. 위·수탁 협약 체결
- 2012. 03. 건축설계용역 착수
- 2012. 07. 건축설계용역 완료
- 2012. 10. 건축공사 착공
- 2013. 07. 건축공사 준공

우리나라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거목, 고(故) 김대중 전(前) 대통령의 고향인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도에는 아름다운 해변과 어울리는 한옥 숙박시설이 있다. 고(故) 김대중 전(前) 대통령의 별칭을 따 지은 '인동초의 집'이다.

지난 1998년 고(故) 김대중 전(前)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하의도 신안군은 1999년 복원된 대통령 생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갖췄고 '노벨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시작하였다. 대통령의 생가 일대에 노벨평화상 기념관과 큰 바위 얼굴, 전망대 등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자 관광객들이 급증하여 숙박시설의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이에 전라남도는 부족한 숙박시설을 지원하고 기존 관광 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2년 2월 전남개발공사와 하의도 관광숙박시설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총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신안군 하의면 오류동길 175 부지 5,124㎡ 에 지상 1층 규모의 한옥 숙박시설을 건립하게 된 것이다. 주황색 기와와 원형기둥, 회랑 설치, 'ㅡ'자 연립형 등이 세심하게 설계돼 한옥의 멋과 장점을 살린 '인동초의 집'은 2012년 10월 착공해 이듬해 7월 완공되었다. '인동초의 집'은 한옥 2동 총 6객실이며 객실은 전용면적 36㎡ 형으로 거실과 안방 등 2칸으로 구성돼 4인이 머무를 수 있다. 신안 하의도에 가면 '인동초의 집'의 아름다움, 쾌적한 시설에 만족하고 아름다운 바다 풍광에 감탄하는 힐링 여행이 기다린다.

운수중사원의 복리증진 · 교육의 장

## 전라남도교통연수원 건립사업



2013.07. ~ 2015.10.

●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조감도

사업위치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 1길  
 개발면적 부지 17,339㎡, 연면적 2,373㎡ (지상 2층)  
 사업비 67억 원

- 
- 2013. 07. 위·수탁 협약 체결
- 2013. 12. 건립공사 건축설계용역 착수
- 2014. 09. 건립공사 착공
- 2015. 10. 준공 예정

지역 발전과 지역 활성화의 새 바람!  
 아름다운 교통 문화를 열어가는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이  
 25년간의 광주 시대를 접고 전남 강진 시대를 새롭게 연다.

1988년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에 설립된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은 2005년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가 분리된 이후에도 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전남지역 운전자들이 교육을 받는 데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전남교통연수원 이전이 사실화되자 각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뜨거워졌다.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가운데 강진군은 연수원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강진군의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였고,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다산 실학의 산실인 강진군이 교육문화와 역사가 깊은 고장이라는 점과 지리적 여건상 교통 요충지라는 점을 피력한 끝에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의 새 보금자리로 강진군 성전면 소재 구(舊) 성전북초등학교가 확정되었다. 전라남도과 전남개발공사는 2013년 7월 10일 전라남도과

교통연수원 건립공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전라남도과 강진군은 9월 9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전라남도교통연수원과 시설투자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투자합의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이를 계기로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은 67억 원을 투자해 현대화된 교육관과 숙소, 식당,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강진군은 진입로 개설과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에 따른 13억 원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하게 되었다. 연인원 4만여 명의 운수중사자와 6만여 명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으로 지역 발전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전남교통연수원 전남개발공사는 2014년 9월 구(舊) 성전북초등학교 부지에 건물 연면적 2,373㎡ 지상 2층 규모의 연수원 건립공사 첫 삽을 뜬 후 201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루하루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部 門 史

영암·해남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출자사업  
삼포·구성지구



• 영암·해남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배치도

한국의 실리콘밸리, 한국의 니스를 꿈꾼다! 세계 유명 기업도시의 명성을 이어갈 새로운 기업도시, 영암·해남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힘차게 비상하고 있다.

‘대한민국 신(新) 성장전략’ 기업도시, 그 시작은 2004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들자며 기업도시특별법을 제정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정부가 12월 국토균형 발전과 기업 이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개정한 것이다.

전라남도는 2004년부터 국내·외 투자자들을 모아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개발계획을 마련해 2005년 4월 정부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2005년 8월 영암·해남, 무안, 태안, 원주, 충주, 무주 등 6개 지역을 기업도시 개발 시범사업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후 계속된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지부진해지자 급기야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무안은 국내 단지 사업시행자인 (주)무안 기업도시개발사업이 2010년 청산 과정을 밟고 중국계 자본이 투자에서 발을 빼면서 안타깝게도 2013년 사업을 정리하였다.

솔라시도 브랜드 개발

처음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영암·해남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일명 ‘J프로젝트’라고 불리며 솔라시도 라는 브랜드를 내세웠다.

솔라시도’는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영암·해남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다 글로벌 마케팅을 위해 2012년 3월에 개발된 이름이다.

‘솔라시도’는 태양과 바다가 조화롭게 어울리는 여유로운 삶이 만들어지는 도시라는 의미와 개발 모토인 Dynamic, Wealth, Joy의 의미를 토대로 리듬과 활력의 도시라는 뜻을 담고 있다.

‘솔라시도’는 관광과 휴양·주거기능이 어우러진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 복합 휴양형 관광레저도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가족형 엔터테인먼트도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환경도시, 관광레저 시설 도입을 통한 종합 스포츠레저도시의 개발콘셉트로 조성된다.

삼포지구

사업위치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난전리 간척지 일원  
개발면적 4,289천㎡ (1단계 1,873천㎡ / 2단계 2,416천㎡)  
사업비 1조 9,451억 원 (토지조성 4,402억 원)  
시행자 KAVO(주), 전남개발공사

- 2004. 12.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
- 2005. 01. 서남해안개발사업구상 발표 (문화관광부)
- 2005. 08. 서남해안관광레저형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문화관광부)
- 2006. 02.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사전 타당성 조사 (전라남도)
- 2006. 03. 기초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
- 2006. 09. F1국제자동차경주장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KAVO(주) 설립
- 2006. 10. F1대회 유치 조인식
- 2007. 04. 삼포지구 1단계(F1경주장) 도시관리 계획 결정고시
- 2007. 06. 삼포지구 1단계 도시관리 계획 변경결정
- 2007. 07. 삼포지구 1단계 간척지 우선 사용 승낙
- 2007. 08. 삼포지구 1단계 간척지 우선 사용 협약
- 2007. 08. 삼포지구 1단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 승인
- 2008. 02. KAVO(주) 1차 출자 (40억 원)
- 2008. 07. KAVO(주) 2차 출자 (50억 원)
- 2009. 03. 삼포지구 개발구역 지정제안 및 개발계획(안) 승인신청
- 2009. 11.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 [KAVO(주), 공사 공동사업시행]
- 2010. 10. 삼포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2010. 10. 1단계(F1경주장) 공사 준공 및 체육시설업 등록
- 2011. 09. 1단계(F1경주장) 준공
- 2011. 11. F1경주장 부지 매입
- 2012. 05.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합작법인 KAVO(주) SK자본 무상인수
- 2012. 09.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 착수

2004. 12. -



•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삼포지구) 조감도

삼포지구 F1대회 유치

삼포지구는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원에 4,289천 m<sup>2</sup>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는 일명 ‘J프로젝트’ 선도사업 차원에서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처음 구상하게 되었다. 삼호읍 일대를 모터 스포츠의 메카로 조성해 향후 모터스포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복안이었다.

2006년 9월 F1국제자동차경주장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KAVO(주)가 설립되어 1단계 사업으로 F1국제자동차경주장 건설을 우선 추진하였다.

전남개발공사는 2008년 2월과 7월에 각각 40억 원, 50억 원의 총 90억 원을 출자하여 삼포지구 개발사업에 주주로 처음 참여해 삼포지구 개발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 삼포지구 체결식



部門史

삼포지구 개발사업은 2009년 3월 개발구역 지정 제한 및 개발계획(안) 승인을 신청한 후 2010년 10월 삼포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를 획득하였다. 2011년 사업자로 나선 전남개발공사는 9월 삼포지구 1단계인 F1국제자동차경주장을 준공하였고 2012년 10월 F1국제자동차경주장 부지(간척지) 취득을 완료하였다. 2단계 사업은 완료된 1단계 사업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활용한 모터스포츠 산업 및 연계 관광단지 '테마리조트, 익스트림'

림스포츠시설, 쇼핑몰, 건강 주거단지 등의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2단계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삼포지구가 조성되면 인구 약 1만 명이 상주하게 되고, 3조 7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3만 1천 명의 고용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삼포지구 토지이용계획도



● 구성지구 기공식



**구성지구 첫 삽**

영암·해남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오는 2025년까지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대에 총 2조 945억 원을 들여 F1경주장을 비롯해 골프장, 의료·건강·휴양타운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당초 6개 지구 중에서 송초·송천·부동지구는 무산되었고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구성지구, 삼포지구, 삼호지구이다. 솔라시도 전체의 3분의 2 면적인 2만 960km<sup>2</sup>에 이르는 구성지구는 특수목적법인(SPC)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가 전라남도와의 공동제한한 것이다.

**구성지구**

사업위치: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원  
 개발면적: 부지 20,960천 km<sup>2</sup>  
 사업비: 4조 6,844억 원 (토지조성비 9,890)  
 시행자: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 2004. 12.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
- 2005. 01. 서남해안 개발사업구상 발표(문화관광부)
- 2005. 08.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문화관광부)
- 2005. 12.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 2006. 12.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1단계 타당성 용역 준공
- 2007. 06.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전담법인(SPC) 설립
- 2007. 12.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 2008. 04. 구성지구 개발사업(SPC) 1차 출자(12억 원)
- 2009. 12. 구성지구 개발사업(SPC) 2차 출자(78억 원)
- 2010. 01. 기업도시위원회 심의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 2010. 10. 실시 계획수립 및 승인 신청
- 2012. 03. 기업도시 브랜드 솔라시도 개발
- 2012. 11. 간척지 양도·양수 완료
- 2012. 12. 구성지구 실시 계획 승인·고시
- 2013. 02. 구성지구 1단계 개발사업 착공
- 2013. 12. 구성지구 기공식

2004. 12. ~



●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조감도

部 門 史

전남개발공사는 구성지구 개발사업에 2008년 4월 12억 원, 2009년 12월 78억 원 등 총 90억 원을 출자하여 주주로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12년 11월 공유수면 매립권의 양도·양수가 해결되었으며 2012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실시 계획을 최종 승인받았다. 구성지구는 골프장, 신재생 및 바이오 시설, 의료시설, 컨벤션센터, 마린, 승마장, 남도음식문화촌, 워터파크, 휴양 숙박시설 유치·조성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전체 면적의 26.8%를 공원 녹지로 조성함으로써 영암호·금호호 지역의 야생 동식물 서식환경을 최대한 보전해 약 1만 5,300명(7,320세대)이 상주하는 친환경·해양관광레저도시로 조성하기로 했다. 구성지구 사업 주주인 전남개발공사는 전라남도의 정책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드디어 전남 도민이 꿈에 그리던 솔라시도 밀그림이 그려진 지 10년 만인 2013년 12월 구성지구 첫 삽을 떴다. 구성지구 기공식을 기점으로 미국과 일본, 중국 등지에서 대규모 외국자본의 입질이 본격화되었다. 구성지구가 개발되면 10조 7천억여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1만여 명의 고용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일대에 조성되는 삼호지구는 2014년 6월에 비로소 도로공사와 골프장 부지 조성공사가 시작되었다. 다양한 부가가치를 한 아름 품고 있는 영암·해남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전남 서부권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04

# 附錄

## 제 3부 부록

사진으로 보는 JNDC 10년

전남개발공사 C.I

임원 및 본부장 현황

조직도

재무제표

수상 현황

지도로 보는 JNDC 사업 현황

연표

2014

2007



	1	2
3	4	
5	6	7
	8	9
		10

1. 2007.01.17. 신규입사자 및 OJT교육
2. 2007.02.02. 신입사원 임용장 수여식
3. 2007.05.10. 남악신도시 택지분양
4. 2007.05.11. 한마음 체육대회
5. 2007.05.25. 제13회 임시이사회
6. 2007.06.11. 장성황룡행복마을 조성사업 기본협약 체결식
7. 2007.06.13. 창립 3주년 기념식
8. 2007.06.20. 한국경제신문 선정 친환경경영대상 수상
9. 2007.06.22. 공사 CI 선포식
10. 2007.07.03. 2007년도 상반기 결산보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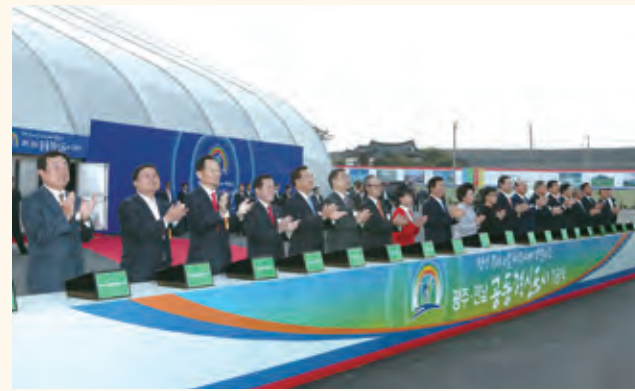


200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007.07.12. 신안군-전남개발공사 천일염사업협력 양해각서 체결
2. 2007.07.20. 제14회 임시이사회
3. 2007.09.03.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사업 MOU체결
4. 2007.10.12. 제17회 임시이사회
5. 2007.10.30.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분양
6. 2007.11.08.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기공식
7. 2007.11.19. 경력·신입사원 입문교육
8. 2007.11.20.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기공식
9. 2007.11.26. 신입사원 임용장 수여식
10. 2007.12.06.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소 현판식
11. 2007.12.18. 남악업무빌딩 현장사무소 현판식
12. 2007.12.31. 종무식



200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2008.01.02. 시무식
2. 2008.01.16.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체결식
3. 2008.01.17. 무안 해안오염방제 봉사활동
4. 2008.01.30. 설명절 위문 봉사활동
5. 2008.01.31. 위그선 사업 협약식
6. 2008.02.26. 경력사원 신규임용
7. 2008.03.10.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 투자협약 체결식
8. 2008.03.11. 전라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남악현장 방문
9. 2008.03.11. 천일염 자문위원 위촉식
10. 2008.03.18. 목포대학교-전남개발공사 천일염 사업 업무협약 체결식
11. 2008.03.20. 한·중국제산업단지 투자유치활동
12. 2008.04.29. 여수경도사업단 현판식
13. 2008.05.08. 사회봉사 활동(에덴원)



200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2008.05.21. 상반기 신규직원 입문교육
2. 2008.06.12. 창립 4주년 기념식
3. 2008.06.23. 박준영 전(前) 전남도지사 울돌목거북선 건조현장 방문(교려조선소)
4. 2008.06.27. 전남개발공사 임·직원 워크숍
5. 2008.07.10. 무안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사업 출자사 간 업무협약
6. 2008.07.15. 자매결연 및 봉사활동(예단원)
7. 2008.09.02. 광주은행-전남개발공사 지역개발 투자지원 업무협약식
8. 2008.09.03.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울돌목거북선 건조현장 방문
9. 2008.09.03.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남창대교 건설현장 방문
10. 2008.09.04. 울돌목거북선 시운전
11. 2008.09.09. 무안공항 관광기념품 및 특산물 판매장 개장 행사
12. 2008.09.11. 기부활동(늘푸른집, 상록원)
13. 2008.09.23. 무안기업도시 한중사업단 개소식 및 현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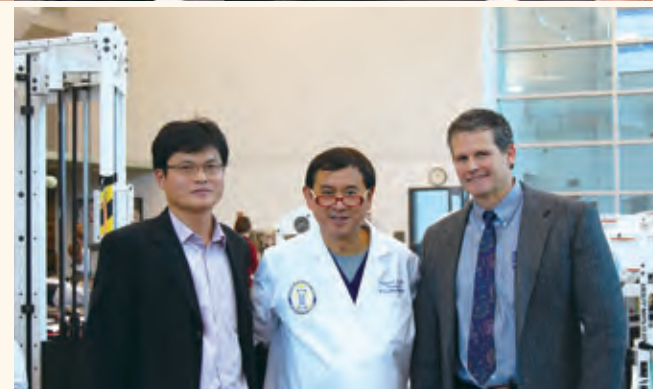


2008



	1	2
3	4	
5	6	7
	8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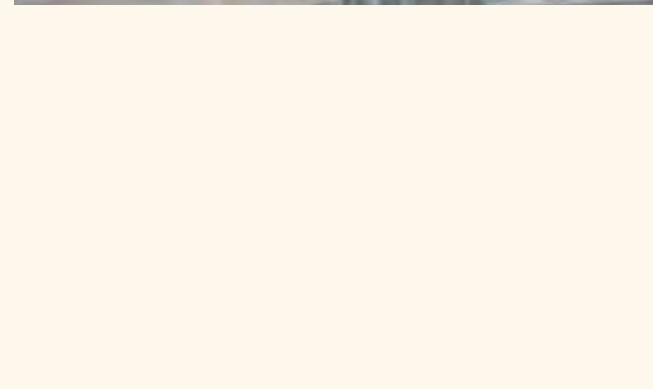
1. 2008.09.24. 울돌목거북선 취항식
2. 2008.09.29. 울돌목거북선 독도출정식
3. 2008.10.11. 울돌목거북선과 판옥선 명량대첩축제 참가
4. 2008.10.13. 전남개발공사 노조 단체교섭 협약식
5. 2008.10.15. 전남개발공사 사업투자 설명회
6. 2008.10.22. 도의회 건설소방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현장방문
7. 2008.10.31. 환경정화활동(무안 송달산)
8. 2008.11.10. 미국피츠버그의대 벤치마킹
9. 2008.11.28. 제26회 정기이사회
10. 2008.12.31. 종무식



2009

	1	2
3	4	5
6	7	8
	9	10
		11

1. 2009.01.02. 사무식
2. 2009.02.13. 영산호관광지 현장사무소 개소식
3. 2009.03.19. 식목일 행사
4. 2009.04.10. F1국제자동차경주장 건축 기공식
5. 2009.04.13. 나드리화장품-전남개발공사 미용소금 개발 업무협약 체결식
6. 2009.04.21. 목포 북항 시푸드타운 조성 투자업무협약 체결식
7. 2009.05.28. 신지 명사십리관광지 숙박시설 건립 MOU 체결식
8. 2009.06.05. 목포 북항 해양수산복합센터 건립기공식
9. 2009.06.09. 전남개발공사·전남발전연구원·광주은행 전남영업부 합동 입주식
10. 2009.08.21. 제2대 이동진 사장 이임식
11. 2009.08.24. 제3대 김주열 사장 취임식



2009



	1	2
3	4	
5	6	7
	8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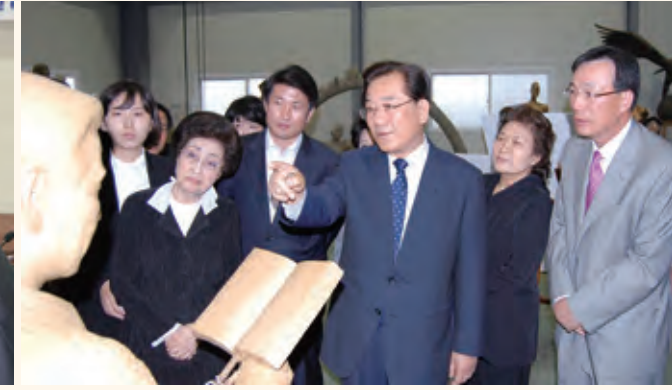
1. 2009.09.07. 장성황룡행복마을 조성사업 기공식
2. 2009.09.18. 천일염 신제품 출시 행사
3. 2009.10.27. 제2회 테마관광기념품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4. 2009.11.24. 스포츠의료관광단지 MOU 체결식
5. 2009.11.26. 2009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대상 수상
6. 2009.12.01.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 기공식
7. 2009.12.04. 연말 사랑의 연탄, 쌀 배달(목포시 일원)
8. 2009.12.10. 김장봉사 활동
9. 2009.12.18. 2010년 경영목표 달성 임·직원 워크숍
10. 2009.12.22. 연말 노사 사회복지시설 방문



20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010.01.19. 천일염 주부모니터 위촉식
2. 2010.01.21. 지열발전 개발사업 MOU 체결식
3. 2010.01.28. 농촌사랑 1사 1촌 자매결연식(장흥)
4. 2010.02.10. 설 명절 위문활동
5. 2010.02.26. 사랑의 헌혈운동
6. 2010.03.10. 2010년 1분기 노사협의회 및 노사평화 선언식
7. 2010.03.23. 전라남도도립도서관 기공식
8. 2010.03.25. 녹색봉사 활동
9. 2010.03.31. 청림실천 10계명 제정 선포식
10. 2010.04.12. 강진환경산업단지 용역 착수보고회 및 업무협약식
11. 2010.05.18. 이희호 여사 방문 [고(故) 김대중 전(前) 대통령 동상 제작 관련]
12. 2010.05.19. 밥퍼 봉사 활동(목포시 일원)



2010



	1	2
3	4	
5	6	7
	8	9
		10

1. 2010.06.11. 창립 6주년 기념식
2. 2010.06.17. 택지 및 산업시설 용지 분양 길거리 홍보
3. 2010.06.24. 포브스코리아 선정 창조리더십어워드대상에서 윤리경영부문 대상 수상
4. 2010.07.21. 해남땅끝호텔 개관식
5. 2010.08.12. 고(故) 김대중 전(前) 대통령 동상 제막식
6. 2010.08.16. 임용장 수여식
7. 2010.09.03. 국가생산업대상 지식경제부장관 미래경정부문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8. 2010.09.09.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기공식
9. 2010.09.16. 추석 위문활동(성산요양원)
10. 2010.10.22.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홍보활동



2010



	1	2
3	4	5
6	7	8
	9	10
		11

1. 2010.10.29. 노사 단체협약 체결 및 평화선언식
2. 2010.11.26.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쌀 기부
3. 2010.11.29. 전라남도환경산업정충원 건립공사 기공식
4. 2010.12.02. 김장봉사활동
5. 2010.12.09. 연탄, 쌀 배달 봉사활동
6. 2010.12.14. 강진 자비원 위문
7. 2010.12.15. 여수 동백원 위문
8. 2010.12.15. 영암 영애원 위문
9. 2010.12.17. 전남개발공사 워크숍(비전 선포식)
10. 2010.12.30. 4분기 노사협의회
11. 2010.12.31. 종무식



201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2011.01.03. 사무식
2. 2011.01.20.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용역 착수보고회
3. 2011.01.24. 사회복지시설 위문
4. 2011.02.24. 동절기 현찰행사
5. 2011.03.01. 3.1절 마라톤대회 참가 및 홍보활동(마라톤 동호회)
6. 2011.03.02. 남악골프연습장 개장식
7. 2011.03.21. 신입사원 임용식
8. 2011.03.30.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주)부영주택
9. 2011.04.02. 해남땅굴호텔 이희호 여사 방문
10. 2011.04.21. 클린환경캠페인(남악신도시)
11. 2011.04.27. 사회봉사 활동(울돌목거북선 무료 승선체험 제공)
12. 2011.04.29. 영산재 장 담그기 행사
13. 2011.04.29. 해남땅굴호텔 현판식
14. 2011.05.17. 완도 장보고지구 숙박시설 MOU 체결식



201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2011.05.25. 여수 경도 안전점검의 날 행사
2. 2011.05.31. 무안 한·중 KCFC 협의
3. 2011.06.01. 사내아카데미 안보교육
4. 2011.06.13. 창립 7주년 기념식
5. 2011.06.25. 노사 한마음 전진대회
6. 2011.07.06. 국제 수소에너지 클러스터 MOU 체결식
7. 2011.08.08. ECO캐스터 발대식
8. 2011.08.26. 대학생 초청 전남 우수기업 탐방(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9. 2011.09.02. 추석 복지시설 위문
10. 2011.09.06. 제35회 국가생산업대상 리더십부문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11. 2011.09.19. 여수 경도 분양회원권 업무협약식
12. 2011.09.23. 영산재 개관식
13. 2011.10.07. 환경클린 캠페인(영산호관광지)
14. 2011.10.28. 노동조합 정기대의원 대회 및 수련회
15. 2011.11.03. 1사 1촌 봉사활동(황금담 마을)



201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011.11.15. 클린환경캠페인(남악산도시)
2. 2011.11.22. 대학 초청 기업탐방(영산재)
3. 2011.11.24. 김장 봉사활동(에덴원)
4. 2011.12.05. 강진환경산업단지 추진현황 주민 설명회
5. 2011.12.09. 2011년 역량강화 워크숍
6. 2011.12.12. 여수경도개발(주) 이문영 사장 사령장 수여식
7. 2011.12.19. 여수경도개발(주) 이문영 사장 취임식
8. 2011.12.22. 2011년 4분기 노사협의회
9. 2011.12.23. BSC 워크숍
10. 2011.12.23. 울돌목거북선 모범유람선 선정
11. 2011.12.29. 임·직원 끝전모금 봉사활동
12. 2011.12.30. 종무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2012.01.02. 사무식
2. 2012.01.10. 클린환경 캠페인(남악신도시)
3. 2012.01.12. 설 복지시설 위문(강진자비원)
4. 2012.02.09. KIC사업단 개소식
5. 2012.02.22. 광주·전남지방자치경영대상 지방자치경영 특별상 수상
6. 2012.03.01. 3.1절 마라톤대회 참가 및 홍보활동(마라톤 동호회)
7. 2012.03.03. 영산재 장 담그기 행사
8. 2012.03.20. 사랑 나눔 헌혈행사
9. 2012.03.27. 정기 노사 협의회
10. 2012.04.18. 클린환경캠페인(남악신도시)
11. 2012.04.23. 신입사원 임용식
12. 2012.04.25. 신입사원 입문교육
13. 2012.04.26. 나눔이 봉사단 재능 나눔 봉사활동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2012.04.26. 노조 총회 및 대의원 선거
2. 2012.05.02. 여수경도골프&리조트 콘도 개관식
3. 2012.05.04. 제1기 대학생 홍보기자단 발대식
4. 2012.05.23. F1서킷 사용계약 체결식
5. 2012.05.23. 제1회 노동조합위원장배 탁구대회
6. 2012.05.30. 재능 나눔 활동 김주열 사장 특강(장성 문향고)
7. 2012.06.13. 창립 8주년 기념행사
8. 2012.06.16. 전국도시개발공사 노동조합협의회 노사화합 축구대회 참가(대구)
9. 2012.06.18. 휴먼멘토제 '여울타리', 멘토·멘티 만남의 날 행사
10. 2012.06.29.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교육
11. 2012.07.11.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식
12. 2012.07.13. 노조 대의원회의 및 수련회
13. 2012.08.01. 청렴교육
14. 2012.08.24. 제4대 김주열 사장 취임식
15. 2012.09.05. 국가생산성대상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과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장려상 수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2012.09.05. 호텔엔조이-전남개발공사 객실판매 협약식
2. 2012.09.06. 태풍 피해 복구 봉사활동
3. 2012.09.10. 삼포지구 2단계 사업 추진 협약식
4. 2012.09.20. 휴먼멘토제 '어울타리' 추석 위문활동
5. 2012.09.25. 정기 노사 협의회
6. 2012.09.27. 장성황룡행복마을 분양활동
7. 2012.10.04. J-아카데미 및 청렴교육
8. 2012.10.04. 국가생산성대상 전수식
9. 2012.10.08. 여행사 초청 팸투어
10. 2012.10.25. 클린캠페인(남악신도시)
11. 2012.10.27. 노사 한마음 환경정화 캠페인
12. 2012.10.31. 노사평화 선언식
13. 2012.11.14. 전남대학교 객실판매 업무협약
14. 2012.11.18. F1전남도지사컵 모터스포츠대회
15. 2012.11.28. 마을기업 일손 돕기 봉사활동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2013.01.02. 사무식
2. 2013.01.18. 우수 개발사업 사례 벤치마킹
3. 2013.02.05. 설맞이 떡국 나눔행사
4. 2013.02.21. 제2기 대학생 홍보기자단
5. 2013.03.05. CS리더 간담회
6. 2013.03.08. 클린환경 캠페인(남약신도시)
7. 2013.03.15. 사랑 나눔 헌혈행사
8. 2013.04.04. 식목일 나무심기
9. 2013.04.27. 전국도시개발공사 노사화합 축구대회 주관
10. 2013.04.30. 김명우 개발본부장 퇴임식
11. 2013.05.27. 제4대 노동조합 출범식
12. 2013.06.03. 제4대 김주열 사장 퇴임식
13. 2013.06.03. 전동호 개발본부장 임명식
14. 2013.06.13. 창립 9주년 기념식
15. 2013.06.20. 전남관광(주) 송영진 사장 임명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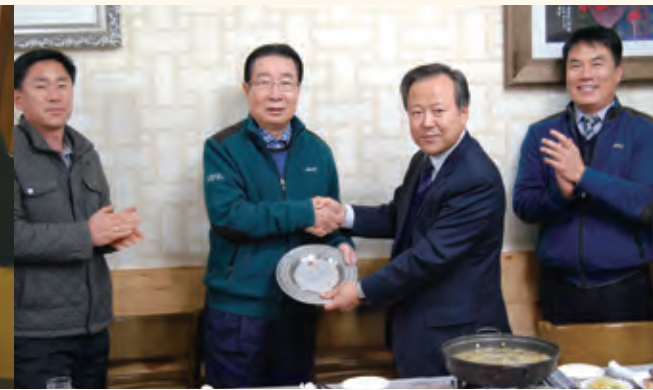
1. 2013.07.01. 2013년 상반기 직원 퇴임식
2. 2013.07.03. 제5대 전승현 사장 취임식
3. 2013.07.19. 김영창 관광본부장 퇴임식
4. 2013.07.24. 오룡지구 실시설계 중간보고회
5. 2013.08.21.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금융지원협약 체결식
6. 2013.08.28. 소금박람회 참가
7. 2013.08.29. 임용장 수여식
8. 2013.09.09. 경영목표 달성 방안 보고회
9. 2013.09.10.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10. 2013.09.16. 나이스 클린 캠페인
11. 2013.10.22. 종합홍보용역 중간보고회
12. 2013.11.01. 광주·전남기자협회 전승현 사장 감사패 전달
13. 2013.11.14. 노사평화 선언식
14. 2013.11.18. 안전보건공단 업무 협약식



201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013. 11. 23.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2. 2013. 11. 28.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 제휴 협약식
3. 2013. 12. 06. 2013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
4. 2013. 12. 12. 마을기업 봉사활동(무화과 마을)
5. 2013. 12. 13. 제21차 지방개발공사 협의회(여수 경도)
6. 2013. 12. 18. 여우회, 아이들을 위한 사랑 나눔행사(선물 증정)
7. 2013. 12. 18. 여우회, 아이들을 위한 사랑 나눔행사(영화 관람)
8. 2013. 12. 19. 제2회 노동조합탁구대회
9. 2013. 12. 23. 청렴옴부즈맨 회의
10. 2013. 12. 26. 전남도체육회 전승현 사장 감사패 수여
11. 2013. 12. 3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승현 사장 감사패 전달
12. 2013. 12. 31. 클린 환경 캠페인(남약신도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2014.01.02. 시무식
2. 2014.01.13. 임명장 수여식
3. 2014.01.21. 사랑의 헌혈운동
4. 2014.01.23. 설맞이 떡국 나눔행사
5. 2014.02.14. 여수 기름유출 봉사활동
6. 2014.02.19. 정부 3.0 교육
7. 2014.02.27. 제3기 홍보기자단 발대식
8. 2014.02.28. 제5대 노조 집행부 출범식 및 위원장 이·취임식
9. 2014.03.03.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자 표창장 전수식(장관상)
10. 2014.03.21. 기업 초청 팸투어 및 산단 분양설명회
11. 2014.03.27.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융성·관광활성화 간담회 참석
12. 2014.04.02. 개인정보 보호 교육
13. 2014.04.04.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
14. 2014.04.16.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 캠페인
15. 2014.04.24. 여우회 옷캔 기부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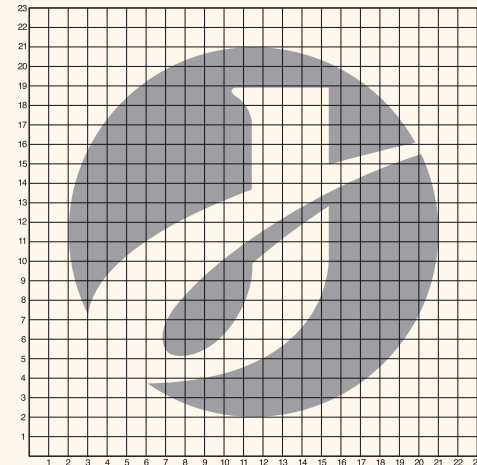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2014.04.27. 2014 국제건강산업박람회 참가
2. 2014.05.12. 광주지방국세청 세무 상담 업무협약 체결식
3. 2014.06.03. 국가생산성대상 현지실사
4. 2014.06.13.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
5. 2014.06.24.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개장 기념식
6. 2014.07.18. 페이스북 좋아요 및 공공정책 캠페인
7. 2014.07.23. 마을기업 지원활동(지역 특산물 구매)
8. 2014.07.24.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기부 및 봉사활동
9. 2014.08.26. 추석 명절 위문활동
10. 2014.09.03. 하반기 사랑의 헌혈 운동
11. 2014.09.03. 제28회 국가생산성대회 미래경영부문 우수기관 표창
12. 2014.09.16. 전남관광(주) 효 사랑 한마음 큰 잔치
13. 2014.09.26. 제1회 온라인 사진공모전 시상식
14. 2014.09.30. 개인정보 보호 길거리 가두 캠페인



심벌마크 Symbol M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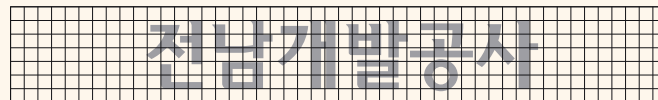
전남개발공사 심벌마크는 하나 된 우리와 글로벌지구를 중의적으로 뜻하는 원안에 전남개발공사의 이니셜 'J'와 'd', 'c'를 하나의 이미지로 결합하여, 최고를 의미하는 아라비아 숫자 '1'을 'J'자에 조합시켜 최고의 글로벌 전남을 지향하는 공사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Color 체계는 Blue Color를 통해 투명한 공기업을 표현하였고, Green Color로 녹색전남을 실현하고자하는 공사의 도전 의지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로고타입 Logo Type

국문로고타입

전남개발공사



한문로고타입

全南開發公社



영문로고타입

JEONNAM DEVELOPMENT CORP.



JEONNAM DEVELOPMENT CORPORATION



시그니처 Signature

국문 좌우조합(기본형)



한문 좌우조합



국·영문 혼용 좌우조합



한문·영문 혼용 좌우조합



영문 좌우조합(기본형)



국문 상하조합(기본형)



영문 좌우조합(확장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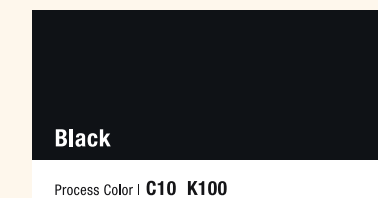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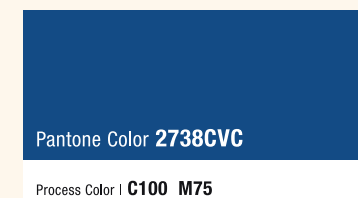


전용색상 Color

Main Color



Sub Color



전남개발공사 경영진



제6대 사장 | 양지문



경영관리본부장 | 윤주식



개발사업본부장 | 김정선

이사회 비상임 이사



의장 | 조길현



도 기획조정실장 | 송상락



도 건설투자국장 | 위광환



이사 | 오병태



이사 | 양세영



이사 | 문귀연



이사 | 신양진



이사 (전임) | 이명규



이사 (전임) | 김경수



이사 (전임) | 박인출



이사 (전임) | 최기탁

전남개발공사 역대 사장



제1대 사장 | 유수택

- 재임기간  
2004. 06. 14. ~ 2006. 06. 30.

- 주요경력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제2대 사장 | 이동진

- 재임기간  
2006. 08. 24. ~ 2009. 08. 23.

- 주요경력  
한국토지공사 상임이사



제3대·4대 사장 | 김주열

- 재임기간  
2009. 08. 24. ~ 2012. 08. 23.  
2012. 08. 24. ~ 2013. 06. 03.

- 주요경력  
한국토지공사 상임이사



제5대 사장 | 전승현

- 재임기간  
2013. 07. 03. ~ 2014. 11. 06.

- 주요경력  
전라남도 건설투자국장

전남개발공사 역대 본부장



경영/관광 본부장 | 김영창

- 재임기간  
2006. 09. 15. ~ 2013. 07. 10.



상임이사 개발본부장 | 이경연

- 재임기간  
2007. 01. 02. ~ 2010. 12. 03.



관광본부장 | 정형기

- 재임기간  
2007. 11. 13. ~ 2011. 12. 31.

전남개발공사 정년 퇴직자



기술 2급 | 김영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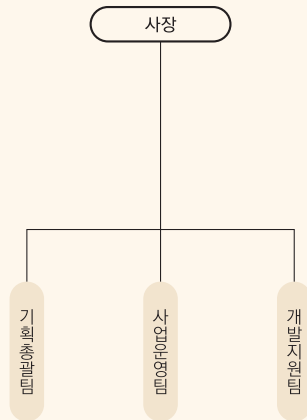
행정 2급 | 조기용



기능 3급 | 이동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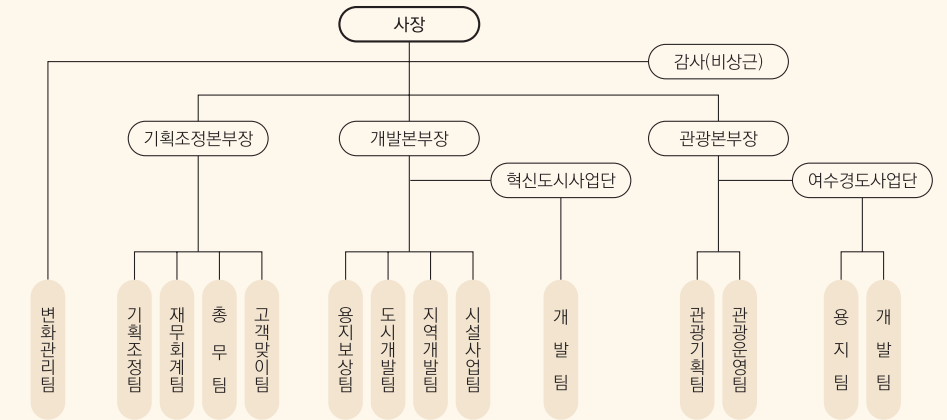
2004. 06. 13.  
1본부 3팀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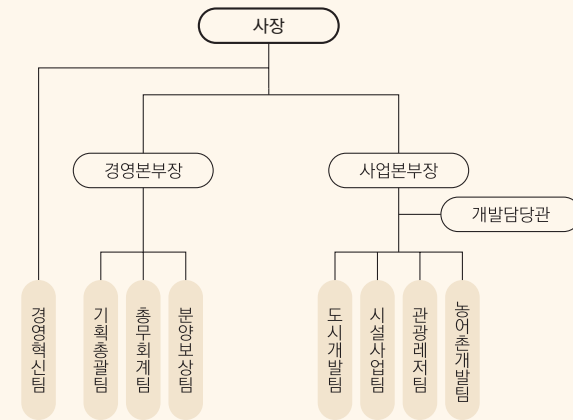
2009. 11. 18.  
3본부 2사업단 14팀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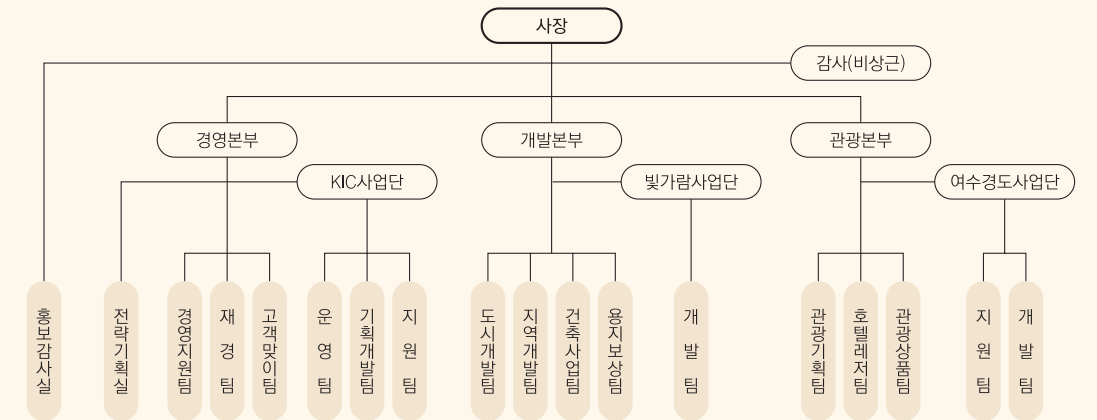
2006. 09. 23.  
2본부 8팀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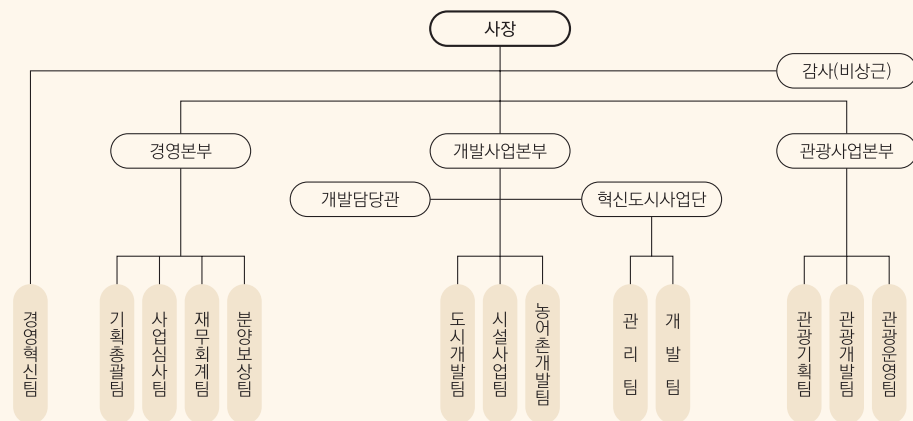
2011. 12. 22.  
3본부 3사업단 2실 16팀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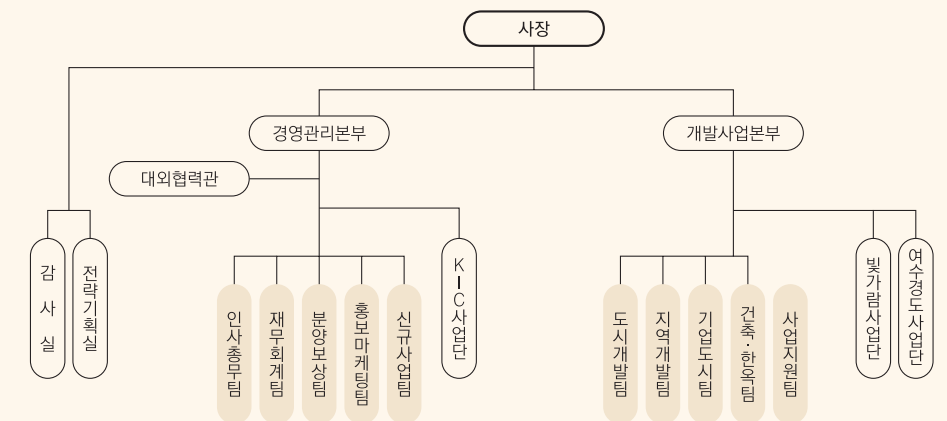
2007. 08. 17.  
3본부 1사업단 13팀

2007



2014. 12. 30. (현재)  
2본부 2실 3사업단 10팀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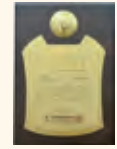
### 재무상태표

과 목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b>자 산</b>					
I. 유 동 자 산	4,932,228,192	9,952,633,343	611,999,846,141	724,098,338,724	745,275,123,574
(1) 당 좌 자 산	4,932,228,192	9,952,633,343	97,862,754,895	137,091,723,214	84,328,091,289
(2) 재 고 자 산	0	0	514,137,091,246	587,006,615,510	660,947,032,285
II. 비 유 동 자 산	42,868,951	308,388,361	6,864,607,405	7,522,319,477	35,443,241,847
(1) 투 자 자 산	0	0	100,000,000	455,390,000	177,889,000,000
(2) 유 형 자 산	42,868,951	64,949,361	6,521,168,405	6,603,854,175	17,098,641,847
(3) 기 타 비 유 동 자 산	0	243,439,000	243,439,000	463,075,302	455,600,000
<b>자 산 총 계</b>	<b>4,975,097,143</b>	<b>10,261,021,704</b>	<b>618,864,453,546</b>	<b>731,620,658,201</b>	<b>780,718,365,421</b>
<b>부 채</b>					
I. 유 동 부 채	7,131,202	2,491,133,416	68,664,338,670	63,558,236,038	113,111,016,793
II. 비 유 동 부 채	0	32,205,003	61,573,508,099	175,358,398,140	173,366,630,974
<b>부 채 총 계</b>	<b>7,131,202</b>	<b>2,523,338,419</b>	<b>130,237,846,769</b>	<b>238,916,634,178</b>	<b>286,477,647,767</b>
<b>자 본</b>					
I. 자 본 금	5,000,000,000	8,000,000,000	375,910,707,000	375,910,707,000	375,910,707,000
II. 자 본 잉 여 금	0	0	111,836,739,160	111,836,739,160	111,836,739,160
III. 이 익 잉 여 금	(32,034,059)	(262,316,715)	879,160,617	4,956,577,863	6,493,271,494
<b>자 본 총 계</b>	<b>4,967,965,941</b>	<b>7,737,683,285</b>	<b>488,626,606,777</b>	<b>492,704,024,023</b>	<b>494,240,717,654</b>
<b>부채와 자본총계</b>	<b>4,975,097,143</b>	<b>10,261,021,704</b>	<b>618,864,453,546</b>	<b>731,620,658,201</b>	<b>780,718,365,421</b>

### 손익계산서

과 목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I. 매 출 액	0	63,000,000	54,029,292,936	105,075,533,175	65,299,769,504
II. 매 출 원 가	0	0	49,283,326,800	97,980,243,279	61,551,658,520
III. 매 출 총 이익	0	63,000,000	4,745,966,136	7,095,289,896	3,748,110,984
IV. 판 관 비	140,489,069	549,894,407	2,093,122,533	3,759,349,094	7,021,459,941
V. 영 업 이 익	(140,489,069)	(486,894,407)	2,652,843,603	3,335,940,802	3,273,348,957
VI. 영 업 외 수 익	108,455,010	257,022,186	1,734,274,248	7,505,254,651	6,493,877,751
VII. 영 업 외 비용	0	410,435	2,900,349,517	5,222,926,300	2,746,107,328
VIII. 경 상 이 익	(32,034,059)	(230,282,656)	1,486,768,334	5,618,269,153	474,421,466
IX. 특 별 손 실	0	0	89,793,000	0	0
X. 법 인 세 차 감 전 순 이 익	(32,034,059)	(230,282,656)	1,396,975,334	5,618,269,153	474,421,466
XI. 법 인 세 등			255,498,002	1,540,851,907	
XII. 당 기 순 이 익	(32,034,059)	(230,282,656)	1,141,477,332	4,077,417,246	474,421,466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43,182,038,241	828,979,452,695	767,800,983,646	790,557,123,780	766,547,486,291
146,389,390,981	160,855,274,974	126,994,659,309	180,951,272,605	208,680,197,909
696,792,647,260	668,124,177,721	640,806,324,337	609,605,851,175	557,867,288,382
71,265,752,453	197,550,854,952	315,137,497,335	369,921,904,644	421,620,348,712
25,689,000,000	20,150,000,000	10,641,100,000	9,500,000,000	9,500,000,000
45,429,002,453	177,264,774,952	304,279,837,369	355,025,638,450	407,468,590,416
147,750,000	136,080,000	216,559,966	5,396,266,194	4,651,758,296
914,447,790,694	1,026,530,307,647	1,082,938,480,981	1,160,479,028,424	1,188,167,835,003
52,508,804,723	156,600,432,908	284,204,330,863	163,179,695,124	312,658,680,209
366,258,797,595	379,038,844,416	317,364,324,261	500,483,388,104	371,894,277,868
418,767,602,318	535,639,277,324	601,568,655,124	663,663,083,228	684,552,958,077
375,910,707,000	375,910,707,000	375,910,707,000	375,910,707,000	375,910,707,000
111,836,739,160	111,836,739,160	111,836,739,160	111,836,739,160	111,836,739,160
7,932,742,216	3,143,584,163	(6,377,620,303)	9,068,499,036	15,867,430,766
495,680,188,376	490,891,030,323	481,369,825,857	496,815,945,196	503,614,876,926
914,447,790,694	1,026,530,307,647	1,082,938,480,981	1,160,479,028,424	1,188,167,835,003



한국경제신문사가 선정하는 '2007년 친환경 경영대상'을 수상하였다.

2007.06.20.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으로부터 ISO9001인증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였다.

2009.06.01.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등 6개 기관에서 후원하는 '2009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대상' 윤리경영부문 시상에서 대상(국민권익위원장상)을 차지했다.

2009.11.26.



포브스코리아 주최로 열린 '2010 창조리더십어워드대상'에서 윤리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10.06.24.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으로부터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다.

2010.08.30.



지식경제부 주최로 열린 '2010 국가생산성대상'에서 미래경영부문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2010.09.03.



지식경제부 주최로 열린 '2011 국가생산성대상'에서 리더십부문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2011.09.06.



서울경제신문사 주최로 열린 '2011 대한민국을 빛낸 지역경제리더대상'에서 지방공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2011.11.25.



광남일보 주최로 열린 '2012 광주전남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지방자치경영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2012.02.22.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2012.07.03.



지식경제부 주최로 열린 '제36회 국가생산성대상'에서 개인유공자부문 지식경제부장관 표창과 팀부문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2012.09.05.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2 반부패청렴도 경쟁력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2.12.27.



개인정보보호협회로부터 개인정보인증(ePrivacy)과 인터넷안전(-Safe)인증 취득하였다.

2013.12.01.



전남개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한옥호텔 오동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2014 한국관광의 별' 체험형 숙박 부문에 1위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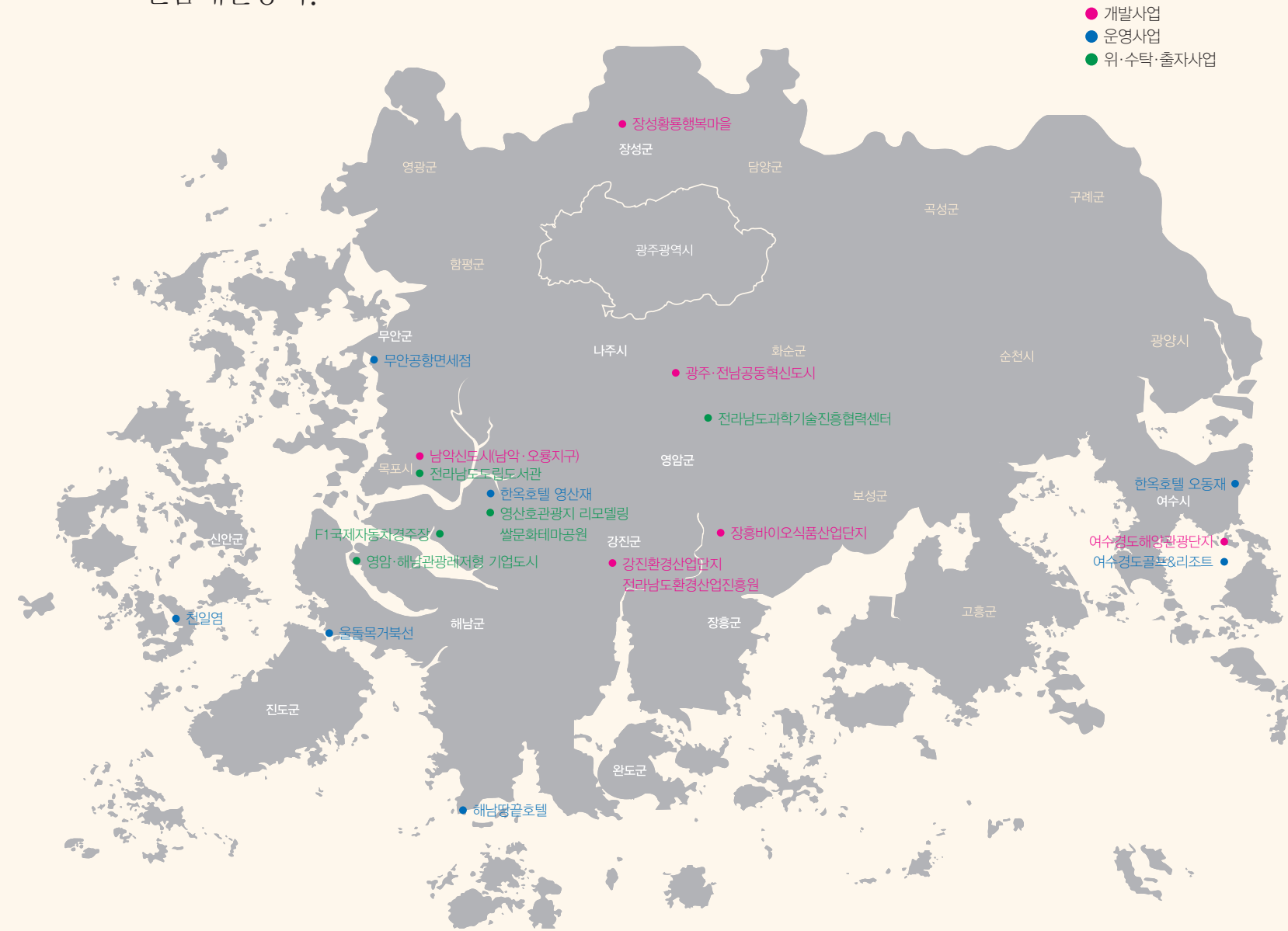
2014.07.22.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38회 국가생산성대상' 시상식에서 미래경영부문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2014.09.03.

생명의 땅, 전남에  
희망을 키우는 지역개발 선구자,  
전남개발공사!



경영부문

<b>2003</b>	05.22 기칭 「전남개발공사」 설립계획(안) 보고 09.15 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완료(한국지치경영평가원) 11.10 지방공사 설치 조례 제정 공포(조례 제2937호) 12.15 공사 출자금 도의회 의결(80억 원)	<b>2008</b>	02.26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워크숍(호텔 현대) 02.29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04.01 여수경도사업단 개설 05.21 신규사업 입문교육(영암 월출산관광호텔) 06.03 정관 개정 · 조직개편 : 3본부 1사업단 13팀→3본부 3사업단 13팀 · 정원 : 82명(변동 없음)	<b>2011</b>	04. 희망근무 신청제 및 전출입 추천제 시행 06. 노사한마음 전진대회 실시 08. 제1기 eco캐스터 생대문화탐방 행사 08. 전사적 업무개선과제 발표회 개최 09. 2011 국가생산성대상(리더십부문) 수상 09. 공사 사보 창간호 제작 및 배포 10. 자회사 여수경도개발(주) 설립 11. 대한민국을 빛낸 지역경제리더 대상 수상 11. 고객만족경영을 위한 고객만족센터 설치 11. 1차 1차 농촌일손 돕기 행사 실시 12. 정보경영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2. 전 직원 역량 강화 및 지식공유 워크숍 개최 12. 정관 개정 · 조직개편 : 3본부 2사업단 14팀→3본부 3사업단 2실 16팀 · 정 원 : 110명→161명	
<b>2004</b>	05.13 공사 정관 공포 · 조직개편 : 1본부 3팀 · 정원 : 23명  05.28 공사 설립 자본금 납입(50억 원) 05.29 이사회 구성(9명) 06.14 공사 출범(제1대 우수택 사장 취임) 06.14 창립직원 임용(2명) 10.14 공사 직원 4명 공채(최초) · 3급 1명, 4급 3명	06.27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워크숍(나주연수원) 07.01 무안7일도시 한 · 중사업단 개설 10.13 노사협의회 개최(노사평화 선언) 10.16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호텔 현대) 10.31 노사 한마음 동반대회(무안 승달산) 12.23 나눔이 봉사단 발대식	<b>2009</b>	05. 여직원 휴게실 설치 06. ISO9001품질 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06.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06. 공사 사옥 이전(남악) 07. 본사·사업단 간 통합 보안망 구축 08. 제3대 김주열 사장 취임 11. 정관 개정 · 조직개편 : 3본부 3사업단 13팀→3본부 2사업단 14팀 · 정 원 : 82명→110명	<b>2012</b>	01. 여수경도골프&리조트 운영관리업무 위탁계약 체결 02. 2012광주전남지방자치경영대상 특별상 수상 05. 제1기 대학생 홍보기자단 발대식 05. 노조위원장배 탁구대회 개최 07.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관 인증 획득 08. 제2기 Eco캐스터 생대문화 탐방 행사 08. 제4대 김주열 사장 취임 08. 재무건전성 강화 및 경영개선 전략회의 개최 10. 정관개정-조직개편 3본부2실 3사업단 13팀 10. 공사 2회 사보 남도의 창 제작 및 배포 10. 노사 한마음 자연정화 캠페인 실시 10. 위기극복을 위한 길거리 홍보활동 실시 11. 지역마을기업 육성 위한 특산품 구매 및 일손돕기 12. 조직개편 · 조직개편 : 3본부 3사업단 2실 16팀→3본부 3사업단 2실 13팀 · 정 원 : 161명→138명
<b>2005</b>	04.06 자본금 증자(현금 30억 원) 11.14 KT목포지사(하당) 사무실 이전(인차) 12.16 정관 개정(사장 1본부 4팀)	11.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대상(윤리부문) 수상 12. 전 직원 2010년 경영목표 달성 워크숍 개최 12.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b>2010</b>	03. 고객관리강화를 위한 VOC 시스템 구축 04. 전사적 성과관리시스템(BSC) 시스템 구축 04. 분양보상 시스템 구축 06. 정보화전략 계획(IT) 수립 06. 창립 6주년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06. 2010참조리더십 어워드대상(윤리경영) 수상 06. 전사적 가치창조를 위한 CEO Report 서비스 실시 08.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09. 2010국가생산성대상(미래경영) 수상 10.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평화 선언 11. 2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11. 중장기 경영계획 고도화 재수립 12.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 수립 12. 비전 2020선포식	<b>2013</b>	03. 제2기 대학생 홍보기자단 발대식 03. 제6회 전국도시개발공사 체육대회 개최 07.01. 최초 장년 퇴임식 07.03. 제5대 전승현 사장 취임 07.29.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도입 08.27. 정관 개정 · 조직개편 : 3본부 3사업단 2실 13팀→3본부 3사업단 2실 10팀 · 정 원 : 138명→127명
<b>2006</b>	01.13 남약신도시 및 공영개발사업(대물주거단지) 특별회계 현물출자 인수(자본금 3,600억 원 증자) 06.20 영산호휴게소 부지 현물출자(62억 원) 인수 08.24 제2대 이동진 사장 취임 09.05 정관 개정 · 조직개편 : 1본부 3팀→2본부 8팀 · 정원 : 23명→53명  10.04 자본금 17억 원 증자(납입자본금 3,759억 원) · 3,759억 = 50억+30억+3,600억+62억+17억  12.21. 고객서비스한정 제정 공포					
<b>2007</b>	04.02 윤리한정 채택 및 윤리경영 선포식 05.27. 노동조합 창립총회 06.20. 한국경제신문 선정 친환경경영대상 수상 08.17. 정관 개정 · 조직개편 : 2본부 8팀→3본부 1사업단 13팀 · 정원 : 53명→82명					

<b>2008</b>	02.26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워크숍(호텔 현대) 02.29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04.01 여수경도사업단 개설 05.21 신규사업 입문교육(영암 월출산관광호텔) 06.03 정관 개정 · 조직개편 : 3본부 1사업단 13팀→3본부 3사업단 13팀 · 정원 : 82명(변동 없음)	<b>2011</b>	04. 희망근무 신청제 및 전출입 추천제 시행 06. 노사한마음 전진대회 실시 08. 제1기 eco캐스터 생대문화탐방 행사 08. 전사적 업무개선과제 발표회 개최 09. 2011 국가생산성대상(리더십부문) 수상 09. 공사 사보 창간호 제작 및 배포 10. 자회사 여수경도개발(주) 설립 11. 대한민국을 빛낸 지역경제리더 대상 수상 11. 고객만족경영을 위한 고객만족센터 설치 11. 1차 1차 농촌일손 돕기 행사 실시 12. 정보경영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2. 전 직원 역량 강화 및 지식공유 워크숍 개최 12. 정관 개정 · 조직개편 : 3본부 2사업단 14팀→3본부 3사업단 2실 16팀 · 정 원 : 110명→161명
<b>2009</b>	05. 여직원 휴게실 설치 06. ISO9001품질 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06.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06. 공사 사옥 이전(남악) 07. 본사·사업단 간 통합 보안망 구축 08. 제3대 김주열 사장 취임 11. 정관 개정 · 조직개편 : 3본부 3사업단 13팀→3본부 2사업단 14팀 · 정 원 : 82명→110명	<b>2012</b>	01. 여수경도골프&리조트 운영관리업무 위탁계약 체결 02. 2012광주전남지방자치경영대상 특별상 수상 05. 제1기 대학생 홍보기자단 발대식 05. 노조위원장배 탁구대회 개최 07.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관 인증 획득 08. 제2기 Eco캐스터 생대문화 탐방 행사 08. 제4대 김주열 사장 취임 08. 재무건전성 강화 및 경영개선 전략회의 개최 10. 정관개정-조직개편 3본부2실 3사업단 13팀 10. 공사 2회 사보 남도의 창 제작 및 배포 10. 노사 한마음 자연정화 캠페인 실시 10. 위기극복을 위한 길거리 홍보활동 실시 11. 지역마을기업 육성 위한 특산품 구매 및 일손돕기 12. 조직개편 · 조직개편 : 3본부 3사업단 2실 16팀→3본부 3사업단 2실 13팀 · 정 원 : 161명→138명
<b>2010</b>	03. 고객관리강화를 위한 VOC 시스템 구축 04. 전사적 성과관리시스템(BSC) 시스템 구축 04. 분양보상 시스템 구축 06. 정보화전략 계획(IT) 수립 06. 창립 6주년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06. 2010참조리더십 어워드대상(윤리경영) 수상 06. 전사적 가치창조를 위한 CEO Report 서비스 실시 08.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09. 2010국가생산성대상(미래경영) 수상 10.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평화 선언 11. 2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11. 중장기 경영계획 고도화 재수립 12.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 수립 12. 비전 2020선포식	<b>2013</b>	03. 제2기 대학생 홍보기자단 발대식 03. 제6회 전국도시개발공사 체육대회 개최 07.01. 최초 장년 퇴임식 07.03. 제5대 전승현 사장 취임 07.29.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도입 08.27. 정관 개정 · 조직개편 : 3본부 3사업단 2실 13팀→3본부 3사업단 2실 10팀 · 정 원 : 138명→127명

09. 재무건전성 및 경영목표 달성 보고회의 09. 경영평가 '나' 등급, 고객만족도 조사 1위 달성 11.14. 임금교섭 타결 및 제5차 평화선언식 개최 12.19. 노동위원장배 탁구대회 개최 11. 노사 가족동반 어울림 한마당 체육대회 개최 11. 산단 분양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분양사무소 개소 11. 3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12. 공사 3회 사보 발간 및 배포 12. 전국지방개발공사 사장단 협의회 개최 12. 개인정보보호마크&인타사이트인마크 획득	<b>2008</b>	01.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협약 체결 02.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보성업무 위·수탁 체결 07. 장성황룡행복마을 조성사업 착공 12. 여수 경도 박람회 지원시설 구역지정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지정 강진환경산업단지 지정
---	-------------	---

02.28. 제5대 노동조합 출범식 03. 제3기 대학생 홍보기자단 발대식 06.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09.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수립 09. 2014년 경영목표 달성방안 보고회 개최 09. 국가생산성대상 표창 수상(미래경영부문) 10. 노사 한마음 자연정화 활동 및 동반대회 개최	<b>2014</b>	01.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 실무협약 체결 03.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보성사무실 현판식 05.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조성사업 착공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실시 계획 승인 강진환경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06.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박람회 지원시설 구역 지정 승인 09. 장성황룡행복마을 조성사업 기공식 11.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착공 12.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기공식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박람회 지원시설 사업계획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	-------------	---

개발사업

11. 공동혁신도시 입지 선정 발표 (광주·전남)	<b>2005</b>	04. 강진환경산업단지 업무협약 체결 05. 장성황룡행복마을 부지조성공사 준공 06.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착공
01. 남약신도시 및 공영개발사업 인수	<b>2006</b>	04. 강진환경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변경 03. 남약지구 택지조성공사 완료 04.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우정사업정보센터 청사 착공 08.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이주단지 건축공사 착공 09.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신사옥 착공 09. 장성황룡행복마을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지구 지정
01. 행복마을 조성사업 후보지 현지조사 착수 03.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04. 장성황룡행복마을 사업대상지 선정 06. 장성황룡행복마을 조성사업 사업추진협약 체결 중남부권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07. 중남부권 산업단지 후보지 현장답사 05.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사업시행자 간 협약 체결 05.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09.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1.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투자협약 체결 12. 중남부권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완료	<b>2007</b>	03. 강진환경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이주단지 이주완료 04.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1단계 공사준공 05.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1단계 사업준공 04.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콘도미니엄 준공 공동혁신도시 지구외도로 공사 착공 06.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조경공사 착공 11. 여수 경도 골프장 9홀 개장(오동도 코스) 12. 장성황룡행복마을 한옥건축 착공

03.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우정사업정보센터 입주 04.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조성공사 준공 09. 강진환경산업단지 진입도로 착공 11.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골프장 18홀 개장 12.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1단계 사업 준공	<b>2013</b>	03.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국립전파진흥원 입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전향대 건립공사 착공 04. 강진환경산업단지 용수 공급 시설 착공 남약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 착공 06. 여수 경도 골프장 27홀 개장
--	-------------	---

04. 강진환경산업단지 업무협약 체결 05. 장성황룡행복마을 부지조성공사 준공 06.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착공	<b>2010</b>	02. 천일염 사업 업무협약 체결(목포대, 전남개발공사) 03. 거북선형 유량선 명칭 결정(울돌목거북배) 07. 제1회 테마관광기념품 디자인 공모전 개최 08.19. 울돌목거북선 준공 09.24. 울돌목거북선 취항식 09.29. 울돌목거북선 독도 홍보투어 09. 천일염 사업 운영 개시 천일염 사업 뽕솔트 선물세트 1, 2호 출시 11. 천일염 사업 토판천일염(절임용) 출시 11.04. 울돌목거북선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공공기관 시설 최우수상 수상
--	-------------	---

03. 강진환경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이주단지 이주완료 04.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1단계 공사준공 05.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1단계 사업준공 04.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콘도미니엄 준공 공동혁신도시 지구외도로 공사 착공 06.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조경공사 착공 11. 여수 경도 골프장 9홀 개장(오동도 코스) 12. 장성황룡행복마을 한옥건축 착공	<b>2011</b>	03. 울돌목거북선 관광사업체 업무협약 체결 04. 미용소금 개발 업무협약 나드리화장품 06. 천일염 용기 디자인 출원 10. 제2회 테마관광기념품 디자인 공모전 개최 11.24. 의료관광사업 국내의료기관 MOU 체결 (분당서울, 화순전남대) 12. 천일염 사업 주부 모니터 요원 제도 시행 12. "뽕솔트제품" 대한민국패키지디자인대전 대상 수상 및 FN UP 디자인 공모전 은상 수상 12.26. 특허 발급 완료 및 무안공향면세점 개점
---	-------------	---

운영사업

02. 천일염 사업 업무협약 체결(목포대, 전남개발공사) 03. 거북선형 유량선 명칭 결정(울돌목거북배) 07. 제1회 테마관광기념품 디자인 공모전 개최 08.19. 울돌목거북선 준공 09.24. 울돌목거북선 취항식 09.29. 울돌목거북선 독도 홍보투어 09. 천일염 사업 운영 개시 천일염 사업 뽕솔트 선물세트 1, 2호 출시 11. 천일염 사업 토판천일염(절임용) 출시 11.04. 울돌목거북선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공공기관 시설 최우수상 수상	<b>2008</b>	03. 울돌목거북선 관광사업체 업무협약 체결 04. 미용소금 개발 업무협약 나드리화장품 06. 천일염 용기 디자인 출원 10. 제2회 테마관광기념품 디자인 공모전 개최 11.24. 의료관광사업 국내의료기관 MOU 체결 (분당서울, 화순전남대) 12. 천일염 사업 주부 모니터 요원 제도 시행 12. "뽕솔트제품" 대한민국패키지디자인대전 대상 수상 및 FN UP 디자인 공모전 은상 수상 12.26. 특허 발급 완료 및 무안공향면세점 개점
---	-------------	---

2010  
06. 천일염 사업 산지 처리장 업무협약(신안군)  
06. 해남땅끝호텔 위탁운영사 선정(주)HTC  
07. 해남땅끝호텔 개관  
08. 천일염 사업 생산설비 준공  
09.28. 천일염사업 LA 한인축제 '농산물엑스포' 참가

2011  
01. 판옥선 제작완료 및 진도군 인수인계  
03. 남악골프연습장 개장  
04. 해남땅끝호텔 관광호텔 1등급 인증 취득  
08. 천일염 신상품 개발 (햇별소금 3종, 3년 숙성 햇별소금 3종)  
09.23. 한옥호텔 영산재 개관  
10.13. 여수경도운영법인(여수경도개발(주)) 설립  
10.15.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영산재 투숙  
12.01. 영산재 '호텔조인' 과 업무협약  
12. 울돌목거북선 해양경찰청 선정 모범 유람선 수상  
10. 천일염 사업 독일국제식품박람회 제품 전시  
12. 천일염 전남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사용허가

2012  
03. 무안공항면세점 고객서비스 만족도 최우수면세점 선정  
03.19. 영산재 한국교직원공제회 업무협약  
04. 여수경도 차도선 운항 개시  
04.18. 영산재 (주)여행장조 객실선판매 업무협약  
04.21. 영산재 V특공대 촬영방영일 5월 25일  
04.24. SBS 생방송 투데이 방송 촬영방영일 4월 30일  
04.25. 한옥호텔 오동재 개관  
05.12. 2012여수세계박람회 공식 숙박업소 지정  
05. 브루나이 대사관 엑스포 참가자 숙소 활용  
05.02. 여수 경도 콘도 개관 (전남도지사 방문 개관식, 엑스포 숙박지원시설)

05.12. 오동재 여수세계박람회 공식 숙박업소 지정  
07.11. 영산재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관' 인증  
10. 해남땅끝호텔 객실 선판매 계약 체결(인터파크여행사)  
10.30. 한화 호텔&리조트 상호 객실 이용 업무협약  
11. 제1회 남악골프클럽 스크린골프대회  
11.09. 여수경도골프장 9홀 정식개장(오동도 코스)  
12. 해남땅끝호텔 위탁운영사 변경 (주)HTC → 전남관광(주)

2013  
01. 제2회 남악골프클럽 스크린골프대회

05.27. 지방공기업(전북개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상호 숙박시설 업무협약  
02.24. MBC 전국시대 방송 촬영방영일 2월 28일  
03.26. 영산재 영인경찰서 업무협약  
04.05. 영산재 영인 F1서킷 업무협약  
04.06. '하나은행 2013 내셔널바둑리그' 진행  
05.03. 영산재 삼성카드 공동마케팅 업무협약  
09.11. 경도 주민 초청 '효 사랑 한마음 대전차' 실시  
11.02. 여수 경도 골프장 돌산도 코스개장(18홀)  
11.21. 한국관광공사 주관 스타의 여행가방 정겨운 한옥호텔 영산재 촬영  
12.13. 정홍원 국무총리 한옥호텔 영산재 방문

2014  
02.06. 이희호 여사 여수경도리조트 방문  
03.09. 영산재 전라남도 친환경음식점 인증  
04. 순천정원박람회 숙박시설 지원  
04.11. 울돌목거북선 원도해조류박람회 기간 운영  
04.14. 텔런트 '백일섭' 명예홍보대사 위촉  
04.24. 가수 '남진' 명예홍보대사 위촉  
05.22. 여수경도리조트 미스아시아 피킴월드 슈퍼모델대회 행사지원  
06.20. 유명 스토리텔링 작가 '김희재' 명예홍보대사 위촉  
06.24. 여수경도골프장 27홀 개장식  
07.22. 오동재 한국관광공사 주관 '한국관광의 별' 체험형 숙박 부문 수상

08.08. '2014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개최  
09.02. 중국판 이빠 어디가 '이빠의 휴가' 영화 촬영  
09.01. 서울경제골프매거진 '2014년 대한민국 10대 퍼블리크스' 선정  
09.01. 골프다이제스트 '2014년 한국 10대 베스트 뉴코스' 선정  
09.16. 서울경제 골프매거진 '2014 한국 10대 뉴 코스' 선정

● **운영사업장 건축사업**

2007  
10. 남악업무빌딩 공사 착공

2009  
05.22. 전남개발빌딩 준공

2010  
04. 한옥호텔 영산재 건축사업 착공  
04. 해남땅끝호텔 리모델링사업 건축공사 발주  
07. 해남땅끝호텔 리모델링 준공 및 개관  
07. 남악골프연습장 건축공사 착공

2011  
03. 남악골프연습장 개관  
05. 한옥호텔 오동재 건축공사 착공  
09.23. 한옥호텔 영산재 건축사업 준공

2012  
04.22. 한옥호텔 오동재 준공  
04.30. 여수경도 콘도미니엄 준공

2013  
05. 한옥호텔 오동재 증축공사 착공

2014  
06. 한옥호텔 오동재 증축공사 완공

● **위·수탁 사업**

2005  
03.10. 순천의료원 노인성질환 전문병동 건립공사 위·수탁협약 체결  
12. 거북선형 유람선단 제작사업 위·수탁협약 체결

2006  
03.09. 순천의료원 노인성질환 전문병동 건립공사 착공  
11. 영산호관광지 리모델링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2007  
04.12. 순천의료원 노인성질환 전문병동 건립공사 준공  
06. 순천의료원 노인성질환 전문병동 개원식  
07.21.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공사 위·수탁 협약 체결

10.29.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공사 착공  
12. 우수 관광기념품 시범유통사업 위·수탁협약 체결

2008  
01. 우수 관광기념품 판매소 22개소 선정  
06.02. 쌀문화테마공원조성사업 위·수탁 체결  
08.19. 울돌목거북선 준공  
11.14. 전라남도도립도서관 건립공사 위·수탁 협약 체결

2009  
01. 영산호관광지 리모델링사업 기반시설공사 착공  
03. 전라남도도립도서관 건립공사 건축설계용역 계약  
03.20.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공사 준공  
05.18.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공사 위·수탁 협약 체결  
07.29.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건립공사 위·수탁 협약 체결

2010  
01.27. 순천의료원 호스피스병동 증축 등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02.18. 전라남도도립도서관 건립공사 착공  
03.31. 쌀박물관 건축공사 착공  
03. 전라남도도립도서관 건립공사 기공식  
03.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준공  
04.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공사 발주  
05.03.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공사 착공  
10.11.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착공

2011  
01.10. 순천의료원 호스피스병동 증축 등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착공  
07.31. 전라남도도립도서관 건립공사 준공  
10.19. 순천의료원 의료인숙소 건립공사 위·수탁 협약 체결  
10.21. 쌀박물관 건축공사 준공  
11. F1국제자동차경주장 관리운영 협약 체결

2012  
01.12. 전라남도도립도서관 개관  
01.20. 순천의료원 호스피스병동 증축 등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준공  
02.20. 신안하의도 관광숙박시설 건립공사 위·수탁 협약 체결  
02. 쌀문화테마공원 2단계 부지보상완료  
03. F1국제자동차경주장 수탁운영사업 위·수탁계약 체결  
03.05. 쌀문화테마공원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03.30. 남도소리올림터공연장 건립공사 위·수탁 협약 체결  
08.21.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공사 준공  
09. F1국제자동차경주장 내 카트경주장 개장  
10. 순천의료원 의료인숙소 건축설계용역 완료  
12.10. 신안하의도 관광숙박시설 건립공사 착공  
11. F1국제자동차경주장 내 오토캠핑장 개장  
12.17.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준공

2013  
01.04. 순천의료원 의료인숙소 건립공사 착공  
02. 남도소리올림터공연장 건축설계 완료  
04. 남도소리올림터공연장 건축설계 완료  
06.19. 신안하의도 관광숙박시설 건립공사 준공  
06. 남도소리올림터공연장 건립공사 착공  
06.24. 쌀문화테마공원 농촌체험시설 조성공사 착공  
07.10. 전라남도교통연수원 건립공사 위·수탁 협약 체결  
07.11. 농업박물관 전시물 제작·설치 완료  
07. 강진환경산단기반시설공사 폐수중말처리시설 착공  
12. 전라남도교통연수원 건립공사 건축설계용역 착수  
12.19. 쌀문화테마공원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2014  
01.12. 쌀박물관 전시물 제작·설치 완료  
02.28. 순천의료원 의료인숙소 건립공사 준공  
05.30. 실감미디어산업 기반조성센터 건축공사 위·수탁 협약 체결  
06.09. 쌀박물관 개관  
06.25. 쌀문화테마공원 2단계 공사 준공  
08.29. 고성능 자동차 핵심기술 연구개발센터 건립공사 위·수탁 협약 체결  
09.12. 전라남도교통연수원 건립공사 착공

● **출자사업**

2005  
07.08. 산업교역형 무안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08.25.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12.01.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행위허가 제1차 구역 지정  
12. 무안기업도시 시행사 선정

2006  
09.11.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도-MBH 간 주주 간 합의서 체결  
09.13.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KAVO(주) 설립  
10.25.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컨소시엄 MO체결  
12.27.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1단계 타당성 용역 준공

2007  
06.01.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SPC법인 설립

2008  
02.01.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KAVO(주) 40% 출자  
04.02.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SPC 12% 출자  
07.25.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KAVO(주) 50% 출자

2009  
12.31.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SPC 78% 추가 출자

2010  
01.13.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03. 무안기업도시 한·중국제산단 투자협약 체결  
10.18. 삼포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2011  
09.28. 삼포지구 1단계(F1국제자동차경주장) 준공  
10.24. F1국제자동차경주장 부지 간척지 양도·양수 완료  
12.31.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KAVO(주) 출자금 손실처리

2012  
03.30. 기업도시 브랜드 「솔라시도(SolSeaDo)」 개발  
05.18.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KAVO(주) SK지분 무상인수  
11. 구성지구 간척지 양도·양수 완료  
12.27. 구성지구 실시계획 승인·고시

2013  
02.15. 구성지구 1단계 착공  
12.13. 구성지구 기공식

## 편찬후기

### ‘전남에 살어리랏다’ 전남개발공사 10년사를 마치며...

전남개발공사 10년의 발자취는 전라남도의 역사이고 전남개발공사의 향후 10년은 전라남도의 밝은 내일입니다. 전남 도민의 꿈, 행복을 품고 낙후된 전남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달려온 지 10년! 지금의 전남개발공사가 있기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전 임·직원은 ‘하면 된다’는 불굴의 투지와 노력으로 불모지를 개척해왔습니다. 이러한 전남개발공사의 생생한 역사를 담기 위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전남에 살어리랏다, 전남개발공사 10년사>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여름, 편찬작업에 돌입한 사사편찬팀은 전남개발공사 태동기부터 과도기, 성장기 그리고 현재의 모습까지 구석구석 살펴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업무와 병행하며 사사를 편찬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의 이음새에서 그동안 보지도 만나지도 못한 전남개발공사의 뿌리와 성장의 아픔, 값진 성과 등을 순간순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토지를 분양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흘린 누군가의 땀을 볼 수 있었고 수없이 밤을 지새우며 기술을 습득하는 누군가의 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전남도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잡을 수 있었고 감추고 싶을만큼 아픈 쓴맛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모습들이 지금의 전남개발공사의 탄탄한 주춧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성장통을 겪어온 전남개발공사는 현재보다 한 단계 앞서 나갈 수 있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이제 전남개발공사가 ‘10년’이란 마침표를 찍고 전 임·직원이 힘을 모아 앞으로 20년, 30년을 향해 힘차게 재도약할 것입니다.

마침내 산고의 아픔을 딛고 지난 10년간의 전남개발공사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10년의 발자취를 가능한 한 빠짐 없이, 정확하게 수록하고자 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아쉬움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점 넓은신 해량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자료수집과 원고집필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편찬위원 및 편찬실무원, 전 임·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끝으로 전남 발전을 염원하는 전남 도민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전남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을 전남개발공사인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3월

전남개발공사 10년사 편찬팀 일동

## 전남개발공사 10년사 편찬위원

### 편찬위원회

-	
총괄	양지문 (전남개발공사 사장)
위원장	윤주식 (경영관리본부장)
위원	박영귀 (전략기획실장) 김대준 (홍보마케팅팀장) 장승호 (도시개발팀장) 백형수 (인사총무팀장)

### 편찬실무위원회

-	
실무위원	정종민 (홍보마케팅팀 과장) 이 한 (건축한옥팀 과장) 문재민 (도시개발팀 과장) 강종열 (인사총무팀 과장) 최호경 (전략기획실 과장) 정용기 (경영혁신IT팀 과장) 문일엽 (기업도시팀 대리)

### 편찬제작실무

-	
홍보마케팅팀	김대준 (팀장) 정종민 (과장) 김상천 (대리) 홍승준 (대리) 윤주일 (주임)

### 기획제작

-	
기획제작	이지원커뮤니케이션(주) 062)611-5847
원고집필	이수연·윤정선
교정교열	박서영



**인쇄일** 2015년 03월  
**발행일** 2015년 03월  
**발행인** 양지문  
**발행처** 전남개발공사  
534-821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www.jndc.co.kr  
**비매품**

전남에  
살아  
싶다

| 2004 ~ 2014 |

전남개발공사 창립 10년사  
JEONNAM DEVELOPMENT CORP.  
HISTORY OF 10 YEARS